

일제강점기 경기도민의 생활 Ⅱ
-매일신보 1930~1940년대 기사 발췌-

2021

경기문화재단

일러두기

1. 해방 전의 경기도와 현재의 경기도는 <참고>의 비교 일람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많이 다르다. 먼저 경성부와 인천부는 각각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가 되어 경기도로부터 분리되었다. 또 전쟁과 분단으로 개성부, 개풍군, 장단군(일부는 파주시 관할구역), 연천군의 북부 지방은 휴 전선 이북에 속하여 우리의 행정권이 미치지 못한다. 고양, 양주, 광주, 시흥, 부천, 김포의 일부 는 서울에 편입되었고, 강화군 전체와 부천의 많은 부분은 인천에 편입되었다. 수도권 위성도시 의 발달로 양주, 광주, 시흥, 수원 등은 여러 자치단체로 분할되었다. 이런 까닭에 이 책에서는 당 대의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작성하였다.
2. 이 자료집은 매일신보의 기사를 추출하여 현대문으로 옮긴 것이다.
3. 이책은 최재성(청암대 교수)이 선별작업 및 번역 작업하였다.
4. 1910~20년대는 2020년 상반기에 『일제 강점기 경기도민의 생활』I 로 출간되었다.

<참고> 경기도 관내 행정구역 일람표(해방 전의 경성부, 인천부, 강화군 제외)

해방 전	현재
가평군	가평군
고양군	고양시 / 일부 지역 서울 편입
광주군	광주시 성남시 하남시 / 일부 지역 서울 편입
김포군	김포시 / 일부 지역 서울 편입
부천군	부천시 / 일부 지역 서울·인천·시흥·안산 편입
수원군	원시 오산시 의왕시 화성시
시흥군	시흥시 안산시 군포시 과천시 안양시 광명시 / 일부 지역 서울 편입
안성군	안성시
양주군	양주시 구리시 남양주시 동두천시 의정부시 /일부 지역 서울 편입
양평군	양평군
여주군	여주시
연천군	연천군 / 일부 지역 휴전선 이북
용인군	용인시
이천군	이천시
파주군	파주시
진위군(평택군)	평택시
포천군	포천시
장단군	(일부 지역 파주시 편입 / 나머지 휴전선 이북)
개성부	휴전선 이북
개풍군	휴전선 이북
20개	31개

책머리에

1910~20년대를 대상으로 한 제1권에 이어 이번에는 1930~40년대 자료를 수록한 제2권을 내게 되었다. 당시 매일신보라는 프리즘을 통해 일제강점기 후반 경기도의 다양한 생활상을 엿볼 수 있다. 기사 추출 방식은 제1권에서와 같다. 사람을 가장 중심에 두고 그를 둘러싼 여러 사회·경제 환경과 활동을 주요 대상으로 삼았다.

기사 추출 결과 앞 시기와 다른 점도 많이 발견되었다. 시대적 상황이 반영된 것이다. 크게 1930년부터 조선에 불어 닥친 세계대공황의 여파, 1931년 제국주의 일본이 중국 동북지방을 침략하면서 시작되어 15년 후 일제 패망으로 귀결된 전시체제 등이 그것이다.

이와 같은 시대 상황은 당대를 살아간 조선의 민중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쳤다. 이에 농촌 사회에서는 하강 분해 현상이 나타나 소작농과 이주민, 세궁민이 증가했다. 경제 파탄이 하층민을 직접 타격한 것이다. 그 결과 한계상황에 내몰린 소작농은 소작쟁의로 맞섰다. 농촌에서 살아남기 힘든 농민들은 정든 고향을 떠나 국내외로 이주하게 되었다. 그와 같은 상황은 일제로서도 원하는 바가 아니었다. 일제를 위한 식량·원료 생산지, 일제 공산품의 소비지로서의 농촌이 붕괴되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이다. 이에 일제는 대책의 일환으로 농촌진흥운동을 벌이며 자작농 창설에 나서게 된다. 그러나 그 효과는 미미했다. 그에 소요되는 막대한 자금을 동원할 여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여러 대책을 수립하여 막아보려 했지만, ‘언 발에 오줌 누기’ 식의 임시적·대증적(對症的) 요법(療法)에 불과할 뿐이었다. 이 자료집에는 그 상황이 오롯이 담겨 있다.

전쟁 동원 상황을 반영한 자료도 큰 비중을 차지한다. 조선인의 정신, 노동력, 물자, 자금 등에 대한 동원 기사가 그중 첫 번째이다. 일제는 국민정신총동원·국민총력 등을 목적으로 한 단체를 조직하여 조선인의 정신을 통제하고자 했다. 또 징용·정신대·근로보국대 등을 통해 노동력을 동원했다. 식량과 연료를 비롯하여 여러 물자의 공출도 실시했다. 전쟁 자금 조달을 위해 강제 저축도 시행했다. 이런 동원을 위해 일제는 도·부·군·읍·면·정·리·반으로 이어지는 행정 기관뿐만 아니라 여러 관변단체를 조직하여 이중 삼중의 그물망을 쳐놓고 조선인을 쥐어짰다.

한편으로는 ‘자발성’을 앞세운 ‘헌납·헌금’도 강요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동원 가운데 병력 동원은 귀중한 인명의 희생을 전제로 한 가장 무겁고 가혹한 동원이었다. 일제가 병력 동원을 위해 사용한 수단은 지원병과 징병이었다.

조선인의 의식구조를 개조하려는 시도도 있었다. 조선인의 머릿속에서 한민족이라는 의식을 말살하고 일본 민족의 일원이라는 의식으로 바꾸려 한 것이다. 일본어 사용 강제와 창씨 개명이 그것이다.

이상에서 언급한 것이 이 자료집을 통해 알 수 있는 일제강점 후반기의 주요 특징이다. 매일신보가 조선총독부의 기관지로서 일제 정책 선전 도구임에는 틀림 없지만, 시대 상황을 감추지는 못했던 것이다. 그리고 다른 한글 신문이 발행 정지된 1940년 이후 해방 직전까지 5년간의 상황을 살필 수 있게 된 것도 매일신보 기사만의 강점이다.

이 책은 제1권과 같이 2부로 모두 구성되어 있다. 제1부는 경기도 전체에 적용된 기사이고, 제2부는 당시 19개 부·군별 기사이다.

모쪼록 이 자료집이 일제강점기 경기도민의 생활을 알고자 하는 독자의 호기심을 약간이라도 충족시킨다면 다행이겠다.

2021년 5월

최재성

목차

1부 주제 분류(경기도)

1. 인구, 국세조사	1
2. 농민과 농업	4
3. 공업과 노동자	14
4. 상업과 상인, 시장	16
5. 양잠	17
6. 임업	18
7. 축산	19
8. 부업	20
9. 금융, 금융조합	21
10. 동원과 헌납	22
11. 교육	29
12. 문화, 문화재, 명승지	32
13. 식생활	34
14. 의생활	35
15. 위생	36
16. 날씨, 재해, 이재민	39
17. 학생과 체육	40
18. 군인과 경찰	42
19. 선전과 훈련	43
20. 경제와 교통	44
21. 투표	46

2부 지역 분류

1. 가평	47
2. 개성, 개풍	52
3. 고양	83
4. 광주	87
5. 김포	94
6. 부천	103
7. 수원	111
8. 시흥	130
9. 안성	138
10. 양주	150
11. 양평	160
12. 여주	165
13. 연천	170
14. 용인	178
15. 이천	185
16. 장단	194
17. 파주	205
18. 평택, 진위	222
19. 포천	231

1부 주제 분류

1. 인구, 국세조사

1) 인구, 국세조사

경기도 내무과에서 조사한 관내 인구는 호수 38만 7,477호, 인구 197만 815인(그중 여자 95만 7,725인)이다. 전년에 비하면 호수에서 1푼 7리, 인구에서 1푼 6리 증가이다. 인구밀도 순위는 경성부, 고양군, 수원, 개성, 양주 등지의 순위이다.(1930.03.26.)

총독부 사회과에서 조선 최초의 시험으로 각도 부(12) 및 지정면(43)에 한하여 금년 1월말 현재로 실업자 상황을 조사하여 4월 11일에 그 결과를 발표했다. 지방별로 보면 경기도 1만 600여 명으로 필두이다. 조선인 급료생활자 1,800인, 일용노동자 4,258인, 기타 3,779인. 일본인 급료생활자 1,308인, 일용노동자 234인, 기타 노동자 312명이다.(1930.04.12.)

경기도 화전민은 913정에 1520호, 6,685인이다.(1930.11.01.)

1931년말 조사 경기도 호수는 40만 1866호, 인구는 206만 160인이다. 전년 대비 호수는 4,834호 증가하고, 인구는 1만 8천 752인 증가이다.(1932.04.08.)

경기도내(경성 제외)에 90이상 고령자가 130명이다. 강화군의 18명, 개풍 10명, 개성 10명, 양평 9명, 이천 9명 등이 가장 많은 곳이다. 개성, 개풍은 고래로 유명한 장생불사의 힘을 돋우고 있다는 인삼의 산지로 자연 인삼을 많이 먹게 되는 관계인 듯하다고 한다.(1935.02.23.)

10월 1일 오전 0시 현재로 전국적으로 일제히 시행한 임시국세조사에 준응한 경기도 관내의 조사는 15일에 신고서 검사와 요계표 작성이 완성되었다. 통계주임(井上)이 이것을 휴대하고 본부 임시국세조사과에 제출했다. 상세한 발표는 12월 1일 본부에서 발표하기로 되었다. 도내 인구는 244만을 돌파하여 1930년도

조사표에 비해 약 29만명 인구가 증가되었다. 증가 원인은 고양군이 가장 많고 그 다음은 경성부와 영등포가 증가된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경성부 교외의 발전이 급속도로 진전되는 것을 말하는 징조이다.(1935.11.16.)

1936년 경기도 인구는 6만 1,726명 증가했다. 총수 239만 2천여 명 중 조선인이 222만 5,379명이고, 일본인은 15만 3천 명이다. 여자 100명에 비해 남자 인구는 조선인은 103명, 일본인은 102명으로 남자 과잉상태이다. 경성부가 67만 7,241명으로 최고, 가평군이 3만 5,488명으로 최소이다.(1937.06.04.)

2) 여성

경기도 농촌부인의 공동경작포 기타 작업에 신호종이나 나팔 등을 불어 출동시간을 통제하는 등 구습 타파의 신 현상을 이루었다. 농번기를 당한 작금에는 탁아소를 필연적으로 이용하게 된다. 7일까지의 상황은 탁아소 461개, 수용 아동 11,348인, 개설 일수는 최단 2일에서 92일까지이다. 보모수는 579인, 장소는 학교 40, 집합소 171, 숲속 112, 개인집 110, 기타 28개이다. 소요 경비는 1개소당 평균 9원으로 총경비는 4,069원이다. 애국부인회 경기지부에서 720원, 사회사업협회 경기지부에서 414원의 보조를 받았다.(1934.06.09.)

경기도에서는 13일부터 16일까지 진위군 평택면 비전리를 필두로 도내 120개 부락에 걸쳐 1부락에 4일간씩 주부강습회를 개최한다. 강사는 군수, 도직원 또는 군지방사회주사와 도의 부인 촉탁, 군기술원 등이다. 강습과목은 갱생계획요지, 주부의 임무, 농산물의 가공 및 조리, 부업 양잠, 양계 등이다. 특히 색의 장려의 견지에서 도토리송아리, 떡갈나무, 참나무, 밤나무 등의 나무껍질을 원료로 하여 흑색, 회색, 다색 등의 염료 제법을 전습하고 초목염을 실습시킨다.(1936.05.13.)

경기도는 부인들의 총후 활동에 대한 지침을 명시하고, 국민정신총동원 하의 부인 운동을 대대적으로 야기케 하기 위하여 부·군의 중견 부인들을 중심으로 부인 강습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경기도 사회과는 그 성안을 얻게 되었는데, 대체로 부락·군·부를 통하여 전후 100여 처에서 부인강연회를 열고 부인들의 활동을 지시하게 된다. 부락과 군연맹의 여자들을 중심으로 40개소, 군의 중견 부인층을 동원하여 40개소, 또 부와 도시의 젊은 청년 부인층을 위하여 22개소 모두 100개소에서 부인운동 지도이론에 관한 강연회를 개최하기로 했다.(1938.08.05.)

3) 청년

경기도에서 금년도부터 농촌진흥운동에 새로운 시설을 하고자 지방과 학무계에서 구체안을 연구 중이다. 보통학교 소재지에 각 1개 단체의 청년단을 설치하고 수양과 진흥운동에 관한 사업, 운동경기 등 사업을 진행하기로 하여 15일 내무, 산업, 경찰 세 부장의 연명으로 도내 각 군수와 서장, 학교장 등에 통첩을 발했다. 청년단은 12세 이상에서 25세까지의 청년으로 조직하고 단장은 보통학교장으로 한다.(1935.08.16.)

경기도는 의정부의 농민도장의 수료자 중 1940~1년 양년에 농업보국 청년대로서 일본에 파견하였는데, 이들 중견인물을 12월 9일부터 5일간 전 농민도장에 소집하여 재훈련을 하여 새로 '참된 중견' 인물로서의 책무완수에 정신(挺身) 수범(垂範)키로 했다.(1941.12.04.)

4) 이주민

경기도의 새로운 시험인 혼농림업 이민은 양주군 화동면 가곡리에 100정보를 분할하여 보통학교 졸업생으로 정농청년의 9호 가족을 이주케 하여 지난번 밤, 감, 대추, 호두, 산포도, 감자 등을 재배케 했다. 약초류의 파종, 축우, 토끼, 닭 등의 사육을 시작할 예정으로 준비 중이다. 이주농의 주택 재목은 이왕직 사릉에서 약 300척의 목재를 불하하여 6월 10일까지 완성할 예정이다. 이것이 양호한 성적을 얻는 때에는 경기도내 2만 3천 정보의 국유림의 적당한 지대에는 점차 혼농림업이 구현될 것이다.(1934.04.27.)

총독부와 선만척식회사의 알선에 의한 1938년도의 만주 이민은 주로 남선지방을 중심으로 하여 이민을 하기로 되었는데, 특히 경기도에서도 130호를 전형하여 보내기로 하여 경기도는 벌써 그 전형과 사정을 마쳤다. 130호 배당은 개풍군의 50호를 필두로 지위군 30호, 연천군 30호, 장단군 20호이다. 매호 편군 5인의 가족이 이주하기로 되어 전부 637명이다. 3월 초순에 경성을 떠나 간도성 안도현으로 향하리라 한다. 130호의 대량 이민은 처음이다.(1938.02.03.)

경기도의 춘기 집합 이민은 3월 25일부터 만주로 입식(入植)케 되어 29일까지 끝날 터이다. 27일에는 안성, 용인 양군에서 선발된 22호, 105명이 경성역 출발로 만주국 왕청현을 향해 떠나게 되었다. 이번 경기도의 이민은 전부 99호에 478명이다.(1939.03.28.)

2. 농민과 농업

1) 농민, 농업, 농촌, 농촌진흥

경기도농회에서 2월 12일 수원, 안성, 포천 각 군농회의 맥비 구입 입찰을 행했는데, 안성, 수원 양군은 영안계(英安系)의 재등합명(齋藤合名)에 낙찰되고, 포천군은 삼정(三井)물산에 낙찰되었다.(1930.02.14.)

경기도 농무과에서는 미곡의 다수확과 묘대 개량을 장려할 목적으로 금년도부터 한층 더 적극적으로 활동키로 하고 ‘박파(薄播) 제일’ ‘튼튼한 모는 박파로부터’ ‘다수확은 튼튼한 모로부터’의 강령을 인쇄한 포스터 1만 매를 제작하여 19일 관내 각지에 배포했다.(1930.03.21.)

경기도 대표미는 종래 확정되지 못해서 상거래상 지장이 적지 않았으므로 이번 이를 결정하고자 경성곡물조합과 도 농무과간에 종종 교섭 중이다. 도내 산미인 옥금, 신력, 적신력, 곡량금, 팔승인, 재래종 중 옥금을 대표미로 결정했다. 내 2월 개최될 도평의원회를 기회로 시식하고 일본 각 방면에도 선전할 계획이다.(1931.01.24.)

경기도에서는 농촌미화운동을 계획 중이다. 일반 농촌에서는 너무나 적막을 느끼는 경향이 있는데 붉은 산과 초가 집안이 환히 보이는데다가 위안이라는 것은 탁주 몇잔에 그치지 않는다. 이런 점에 비추어 대자연으로 하여금 환경을 아름답게 하고 마음을 즐겁게 하기 위하여 먼저 농촌에 코스모스와 기타 고운 꽃들을 심게 하고 화수(花樹)에 대한 취미를 붙이게 한다.(1931.07.20.)

경기도농회에서 산업단체 직원의 능률 증진과 시설사항 취지 철저를 도모하기 위하여 6일부터 12일까지 산업강습회를 개최하고 농회 서기 26명과 축산동업조

합 서기 23명, 합 49명을 소집하여 도청 회의실에서 개최했다.(1931.08.08.)

경기도 부락개선의 대강. 1. 보통학교를 중심으로 지도부락을 설치하고 학생을 중심으로 농사지도를 행하여 부락개선을 행할 것은 일반이 지실하는 바이다. 절대적으로 차급하지 않는 것이 1방침이다. 금융조합의 농촌지도와 전연 상반하여 금융조합측의 호의적 대급도 농촌을 해독한다고 거절한 예도 있으니 이가 성공되면 금융조합은 존재의 가치가 비상이 약하게 되도록 철저적인 부락개선주의이다. 1. 따라서 차급이 많은 자는 토지를 방매하고 소작인으로 되어 근본적으로 경제가 전환되므로 대체 1인 순이익을 80원으로 간주하여 상환능력을 40원 내외로 하고 이 이상 금리 지불 또는 연부금을 가진 자는 저율의 자금도 차입치 않게 할 방침이다. 1. 지도학교의 출신자를 중심으로 5명 내지 7명의 작은 세포를 농촌에 보급하고 농사개선을 행하는 외 공동판매, 구매도 점차 행하게 한다. 아직 창■ 후 5년에 불■하나 다시 5년을 경과하면 대단 유력하게 되겠다. 1. 1호에 잠지(蠶紙) 1매를 표준으로 한 양잠과 닭 10우(羽), 돼지 1두씩을 사육하는 외 가마니 250매를 직제하게 하여 다각적 농사를 영위케 한다. 1. 농가 1호 경비는 보통 250원으로 지도생의 영농외 80원의 수익을 올리고 구채를 상환한 자는 일단 200원 내지 250원의 논을 매입하여 4년 내지 5년으로 그 차입금을 반제한다.(1931.09.01.)

미가 폭락, 금융공황으로 인하여 가뜩이나 빈궁한 조선의 농촌이 가속도로 붕괴의 도정을 빨리하고 있음은 작년 가을 이래의 특이한 현상으로 그 장래가 자못 우려되는 터인데, 이번에는 좀 나아질까? 하고 일루의 희망을 붙이고 있던 금년에도 역시 가을철이 되어 추수를 하게 되어도 미가는 의연히 폭락한 그대로 있어 농촌의 공황은 날이 갈수록 오직 그 정도가 심해질 뿐인데, 그중에도 가장 참담한 것은 일반 소작인의 몰락으로 연래로 쌓여오는 태산같은 부채에 여름래 피땀을 흘려가며 지어도 수확물은 모조리 채권자에게 입도 차압(立稻差押)을 당하여 때는 풍양의 가을이언만 오히려 입에 풀질도 못하는 궁민이 자꾸 늘어가는 것이다. 이 까닭에 각 지방농촌에는 소작인의 부채로 말미암아 자기네들의 모가치까지 차압될 것을 두려워하는 지주들의 대책으로 위탁경작지라고 쓴 목찰(木札)이 이곳저곳에 붙어있어 지주와 소작인과 소작인의 채권자 사이에는 나날이 격렬한 분쟁이 일어나 입도차압 등 수확물을 중심으로 한 재판 사고(裁判事故)는 나날이 그 건수가 늘어갈 뿐이요, 이에 따라 기진 역진하여 야반에 도망을 하는 소작인들도 자못 적지 않다고 한다.

경기도내의 농가호수는 전부 약 25만 호이요, 소작농은 그중의 약 14만호 가량

인데 이곳에도 역시 다른 곳만 못지않게 농촌공황이 우심하여 밀려오는 부채로 말미암아 입도의 차압을 당하는 소작인도 적지 않아 경성에서 주하는 부채지주들은 ‘委託耕作者某 所有地主某’라는 목찰을 소유 전답에 붙이기에 분망중인 현상인데 입도의 차압을 당하고 있는 소작인의 통계는 아직 미상하나 적어도 벌써 이삼 천건은 초과하였으리라고 경기도 당국자는 보고 있다.

가속도로 몰락되는 농촌의 곤경을 어떻게 구조할까? 이에 대하여서는 관계 당국자가 각기 머리를 앓고 있는 중대문제로 일조일석에 그 성안이 될 것은 아니다. 경기도 당국에서는 우선 그들을 구제하는 방법의 하나로 관내 각 교화단체에 위촉하여 소작인의 파산을 방지코자 되도록 채무상환의 연기와 차압의 해제 등을 교섭케 하는 일방 수확물의 투매를 방지코자 벼의 공동판매를 하도록 권유중인데 안성과 용인과 이천의 각 군에서는 이미 공동판매에 착수하여 경성·인천·군산 등 각 관계 상인에게는 벌써 그 뜻을 통달하였다고 한다.(1931.10.29.)

1931년 가을 경기도의 밭 생산은 1만 8천여 석, 가격은 19만 6천원에 달한다. 이를 전년에 비하면 생산량은 2천 4백여석 증가, 가격은 역으로 8천원 감소이다.(1932.01.28.)

경기도농회에서 4월에 10개년계획, 보조금 2만원의 예정으로 촌락을 단위로 한 조선 최초의 공동경작조합을 조직하려는 계획을 세웠다. 금년도 사업으로 100의 공동경작조합을 설치하고자 농량자금 대차 조사에 기반하여 각 군농회와 협력 알선 중이다. 도내 19군 81면에 104의 조합 설치를 보아 지금 62정보의 공동경작지에서 2,464명의 조합원이 있다. 보통농가조합 72, 조합원 1,949인, 청년조합 19, 조합원 314인, 부인조합 10, 조합원 201인, 평균 조합 면적은 5단 4무, 1인당 2무 4보. 조합에서는 농구, 비료, 종자 등을 공동구입하고 농산물도 공동판매하는 등 농업의 합리화를 꾀하고 조합의 이익금은 조합원에 저리자금으로 융통하는 것이다. 지주측도 이에 호감을 갖고 있으므로 저축이 되는 대로 현재의 소작지를 조합에서 구입하여 조합원 자신의 경작지로 하려는 것이다. 그리하여 촌락중견의 농부, 청년 및 부녀자 등의 손으로 몰락되어 가는 농촌의 자력갱생을 도모하려는 것이다.(1932.07.27.)

도에는 도지사를 중심으로 하여 도농촌진흥위원회, 군에는 군수 이하 망라한 군농촌진흥위원회, 읍 및 면에는 읍·면장 이하 망라한 읍·면농촌진흥위원회를 조직하고 각 촌락에는 촌락을 단위로 한 진흥회를 조직케 한 후 도지사 관하에 있는 모든 기관(위원회)을 총동원하여 이 촌락진흥회를 지도 독려하여 매진케 하기로

했다. 10월 1일 시정기념일을 맞아 경기도지사는 유고를 발했다.(1932.10.05.)

경기도에서는 작년 여름 발행한 농민독본의 교수자로 하여금 각과 내용의 주안점을 일치하도록 하기 위해 <경기도 농민독본 위급에 대해서>를 발행하여 각 관공서와 학교, 금융조합, 각 진흥회에 무상으로 배부한다. 희망자에게는 인쇄소를 통해 유상 배부한다.(1934.02.02.)

입춘서는 대문이나 기둥 같은 동네 사람들이 보기 쉬운 곳에 붙여 두고 연중에 이것을 음송하여 이를 믿고 의뢰하여 스스로 만족하여 왔다. 이러한 점으로 보아 훌륭한 선전문이요, 유력한 포스터이니 그 문구의 적부는 직접으로 민중사상에 영향되는 바가 실로 크다. 그러므로 이를 등한시 할 수 없다 하여 경기도에서는 다음과 같은 취지로 입춘서의 문구를 예시하고 농촌지도자의 협력을 얻어 입춘서의 개선을 단행하여 민심 작흥에 비익케 하려 한다. 1. 공연히 천지 신명, 초목, 동물 등에 의뢰하여 축재 영복을 구하는 문구는 이를 폐지하고 자력 자활 자복 자구의 정신을 함양할 문구로 고치자는 것, 2. 타력에 의뢰치 않더라도 노력없이 공연히 축재영복을 희망하는 문구를 폐지하고 자복자구의 정신을 고취하는 문구로 고치자는 것, 3. 정신작흥 농촌진흥의 취지에 위반되는 문구는 농촌지도자가 금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취지에 기인하여 경기도에서는 입춘서 예시라는 소책자 1만부를 인쇄하여 도내 각 군 면 농촌지도자들에게 배포하고, 입춘서에는 충효 화목 박애 근검 공덕들을 비롯하여 교풍 교화 생활개선 산업장려 등 농촌진흥운동을 조장하는 문구만을 사용할 것을 통달한 것이다.(1934.02.04.)

경기도에서는 비료 자급을 장려하려고 2일에 24개군에 통첩을 발하였다. 주방과 가옥 부근에 버리는 진개(塵芥)를 모아 퇴비의 원료를 삼게 하려는 것이다. 도내 농가에서 매일 청소작업을 하면 평균 가옥 부근의 진개가 약 300문 내지 1관, 주방의 것이 약 1관 5백문 가량인데, 이 폐기물을 수집 이용함은 농촌 공중위생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이다.(1934.04.03.)

미 생산비 조사에 관해 5만석 이상의 미 생산지 140여 개소에 조사원을 배치하여 조사키로 되어 신규 조사원 채용인 134명에 대해 강습회를 개최하고 말일에 전부 현장의 임지에 출발 부임케 하여 6월 1일부터 일제히 조사에 착수한다. 조사원을 배치할 5만석 이상 생산지는 다음과 같다. 수리안전담지구 수리조합구역: 김포, 수조지 외 지구: 양주, 개풍, 양평, 수리 불안전 지구: 수원, 진위, 이천, 안성, 부천, 강화, 여주, 고양, 파주, 광주, 시흥, 장단(1934.05.22.)

경기도농회에서 1930년 이래 수전 간작 감자의 시작(試作)을 계속해 오고 있

다. 초년의 시험은 안성, 진위, 수원, 부천, 김포 각 군에서 행했다. 1단보 생산액 140관이었고, 1932년도의 농사시험장에서 1단보에 150관의 수확을 얻었고, 1933년도 경성농교에서 단보당 200관까지 거두었다. 금년에는 시흥군 서이면 안양과 양주군 미금면 금곡리의 두 곳에서 1단보 시작을 가기로 했다. 4월 13일 파종하여 6월 24일 수확 예정이다. (1934.06.20.)

경기도는 곡물검사소와 장단 대두의 검사에 대한 특별표기 설정에 대해 협정했다. 6월 1일부터 실시한다. 1. 실시구역 경기도 관하에 있는 각 출장소 주재소, 2. 사업시행주체 환인(丸仁) 곡물협회 사업으로 함, 3. 표기 정도 검사관에서 인정하는 자에 한하여 표기함, 4. 시행방법 표기할 기호는 丸. 길이 직경 8푼의 고무인으로 성명 표전(票箋) 이면에 자색(紫色)으로 압날함.(1936.05.24.)

농촌의 균형되지 못한 경제생활의 보전(補填) 혹은 비상시에 처하는 준비의 일 단으로 현재 각 농촌에는 비황저축이라는 제도가 실시되고 있다. 풍수해가 심한 때의 식량의 보급 또는 가뭄이 심해서 종곡의 결핍을 보게 되는 때에 이 비황저축은 가장 긴절한 효력을 발생하고 있다. 경기도내에서 이 비황저축을 실시하고 있는 곳이 2,493개 부락이다. 경기도 지방과에서는 1937년도부터 이 제도를 전도적으로 실시하여 비상시의 구급에 응하게 할 터이다. 그 저축의 표준은 1호에 2석 내지 3석을 표준으로 매일 1순갈 혹은 1개월에 1되씩의 형식으로 저축케 하리라고 한다. 그 외에 간석지의 개간, 비황지의 개척, 하천 부지의 대부분을 하여 농민들로 하여금 공동경작을 시켜서 그것으로부터 얻는 이득은 그 부락 혹은 그 동리의 공동소유로 하여 비황의 만전을 기하리라고 한다.(1937.02.04.)

경기도는 총독부의 토지개량사업에 준하여 도내에 10개년 계속사업으로 5천 정보의 토지개량을 하기로 하여 금년도에 먼저 5백 정보에 4만원 예산을 계상하기로 했다. 토지개량은 농가의 복리를 위한 사업인 만큼 예산의 반은 국고 보조이고, 특히 경지에서 수리가 불완전한 곳을 완공하려는 데에 목적이 있고, 가뭄에 대한 항구적 대책으로 실시하게 되었다. 경기도내에는 6천 내지 7천 정보의 수리 불완전답이 있어 이양 후에도 용수 부족으로 큰 우려를 하게 된 만큼 이양 전과 후의 용수를 조절하며 완화케 하려고 이번 사업을 하게 된 것이다. 금년에는 물가고에 따라 먼저 350정보에 수리작업을 하기로 했다. 주로 제방 설치 공사이다.(1937.06.04.)

1933년부터 건설한 농촌의 건설을 목표로 출발한 농촌진흥운동은 15개년 계획으로 진행시켜왔는데, 금년 3월말로써 제1단계 5년간을 경과했다. 경기도는 5개

년간 식량부족 해제, 수지불균형 조절, 부채 정리 등을 했다. 수행 부락은 2,492 부락에 달했고, 1947년도 계획 완료까지 7,756개 갱생부락이 설치되어 3대 목표를 완성하리하는 것이다. 5개년간 실적을 보면, 식량 부족을 보충 완화된 것이 1할 7푼, 수지불균형을 균형케 한 것이 3할 4푼, 부채를 정리한 것이 1할 7푼이다. 5년간의 실적은 결국 미미한 것을 면치 못했으나 1936년에 종전에 없던 풍수해로 인해 이 계획은 상당한 타격을 받게 되었다. 과거 5년간은 기초적인 갱생 계획이 수행되었고, 1938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이 운동으로 들어가게 된다.(1938.04.06.)

경기도는 농촌 갱생운동 제2기에 먼저 제1착으로 농촌의 중견 청년을 소집하여 도내 74개소에서 하기 강습회를 개최한다. 이번 강습회는 각 군이 중심이 되어 농촌의 중견청년을 지도하는 새로운 철칙을 세우기 위함이다. 대체로 장소는 각 소학교 강당을 주로 하고, 강습회는 황국신민으로서의 정신 함양과 농촌진흥 이론 등, 농촌개발의 실제 등, 세 방면에 대한 것을 주로 한다.(1938.07.10.)

무수 알코올 제조원료, 비황 식량으로 중용되고 있는 고구마는 전 조선적으로 재배하고 있다. 경기도에서도 이 증산계획을 세우고 앞으로의 재배를 적극 지도하게 되었다. 그래서 먼저 제일선에서 활약하는 각 군 기술원 50명을 소집하여 3월 16일부터 2일간 강습회를 개최하기로 했다.(1939.03.17.)

경기도는 식량정책으로서 자급 확보할 필요성에 비취 1939년도 미곡생산계획을 수립하고 그 중심을 경종법 개선에 두어 현재 개량할 여지가 많은 논 경종법을 급속하고 근본적으로 혁신하여 증수의 실을 올리고자 하는 것이다. 그 목표는 본년도에 도내 최근 3개년 평균 벼 총생산액 3,102,356석에 대해 5.5% 171,298석의 증산을 확보코자 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이 지도 장려를 위해 농무과장 이하 관계관 임석으로 미곡증산계획 협의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그리고 그 제일선의 지도 장려를 위해 도내 206개 면에 지도원을 상주시키기로 했다.(1939.04.08.)

경기도 농무과 당국은 경성, 인천 등 대도시에 공급할 채소량을 확보하고자 도시 근교에 재배지를 지정하는 등 근본대책을 확립하고자 연구 중이다. 근교 지방 농촌에 어느 정도의 경작면적을 지정하고 반드시 채소를 심게 한 다음 이것을 계획적으로 경성, 인천 등지에 출하하도록 하자는 것이다.(1941.09.03.)

경기도 농상부는 지금 못자리하기에 한참인 때를 당하여 다음과 같은 농사 좌우명을 각 군읍면에 발송하여 이를 준수하도록 했다. (1)소금물에 씨앗을 담궈 업

선을 한 다음 소독을 충분히 할 것, (2)공동으로 또는 집합적으로 못자리를 만들 것, (3)얇게 골고루 씨를 뿌려줄 것, (4)논둑을 충분히 손질하여 놓을 것, (5)바람을 막아내는 울타리를 쳐서 발육이 좋게 할 것, (6)못자리에 잡것(피, 풀)이 섞였으면 일찍 뽑아줄 것, (7)물을 흡족히 저장하여 둘 것, (8)논밭 갈이는 일찍 해둘 것, (9)퇴비와 그 외 각종 비료는 모내기 전에 전부 준비하고 거름을 해둘 것. 이와 같이 우선 건강한 모를 길러 알맞은 때 모를 내도록 경기도는 기술지도원이 5월 초부터 중순까지 각 농촌으로 순회하며 농민들을 지도하고 격려하기로 되었다. 엄중한 검사를 하여 책임생산제를 완수도록 한다.(1944.05.06.)

9월 1일 총독부는 국민생활의 안정에 기본이 될 농업증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농업 요원을 지정 근로동원으로부터 제외시켜서 일의 전심 농업생산 시킬 것을 통첩했다. 경기도는 시각을 놓치지 않고 농업요원을 지정하기로 하여 9월 10일까지 도내 각 부군에 농업요원전형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미 조사하고 있는 농업경영자, 농업지도자, 정(精)농가와 가족을 일일이 회의에 걸고서 전형을 마친 다음 15일까지에는 빠짐없이 도청에 보고하기로 했다. 도청에서는 20일까지 지정을 끝마치기로 했다.(1944.09.04.)

금년도 경기도내 벼의 발육상황은 예년에 없던 우량과 일부의 도열병 발생으로 약간의 피해는 있으나 지금까지의 경과로 보면 평년작 이상은 확실하다. 경기도 농무과는 각 1만원의 경비를 들여 수원농림전문학교 농학과 생도 25명을 동원하여 8월 10일부터 10월 30일까지 도내 우수한 농장 20개소에 배치한다. 이들은 금후 발육에 대한 지도와 생산고 조사 등에 정신(挺身)케 된다.(1945.08.09.)

2) 소작, 소작인, 소작쟁의

농지령이 실시된 지 만 3개년이 되므로 이에 따라 계약된 지주와 소작인 사이에 소작 관계도 만기가 되므로 계약 만료로부터 일어나는 여러 가지 착잡한 점을 완화 원활케 하기 위하여 경기도 농무과에서 소작관 및 소작관보를 도내 각군으로 파견하게 되었다. 1934년 10월부터 농지령과 함께 소작령이 실시되면서 소작에 관한 것을 계약하게 되었는데, 금년 10월로 이 계약이 완료되므로 소작관계가 제일 많은 고양군 외 13군에 걸쳐 마름과 지주 또는 소작인들을 중심으로 2월 16일부터 26일까지의 10일간 농사간담회를 개최하리하는 것이다. 소작 관계 계

약이 만기가 됨으로써 소작권 박탈, 소작권 이동에서 일어나는 감정 문제를 일소케 하고, 무리한 지주의 요구와 마름의 중간 착취 등의 폐해 등 농민들의 불안을 없이 하도록 하리라는 것이다. 현재 도내에는 300여 명 이상의 마름이 있는 만큼 이들에게 농지령과 소작령에 대한 재인식을 주며 또 지주들에게는 관리자로서의 이해를 깊이 하여 소작인과 지주의 긴밀한 관계를 순화시킴으로써 간담회 목적을 달성하게 하리라 한다.(1937.02.05.)

농번기에 접어든 이때 경성지방법원과 각 지청에는 하루에도 십수건씩 소작쟁의가 날아들어 농촌 평화를 어지럽게 하는 장본인이 되는 소작권 이동을 함부로 하는 각 지주와 마름의 횡포를 여실히 폭로하여 식자의 근심을 사고 있다. 금년 들어 1월부터 4월까지 총계가 319건, 5월 들어서는 하루에도 십수 건씩 몰려드는 현상이다. 작년 1년 동안의 총건수 850건을 초과할 것 같으며 농지령 실시 이후 해마다 쟁의 건수가 증가하는 현상으로 매우 우려된다. 이같은 현상은 지주들의 잘못된 생각에도 원인이 있지만, 한 가족의 생명선인 소작권이 떨어질까 두려워 하여 지주와 마름의 비위를 거스르지 못하고 애원하던 소작인들이 각성하여 소작권을 주장하게 된 것도 한 가지 원인이라 한다. 이같은 법정 쟁의의 5분의 4는 소작인의 승소로 돌아가는데, 소작인이 소작권을 도로 차지하게 된다 할지라도 이미 못자릴 시작한 이후일 것 같으면 소작권을 넘겨 맡아가지고 농사를 시작한 작인과의 사이에 알력이 생겨 다시 소송을 일으키게 되어 시간과 비용을 허비하는 결과가 되므로 2중, 3중으로 피해가 커져 한심한 터이다. 이에 대해 경기도 소작관(구간, 久間)은, “무리한 지주들의 각성이 새로워 질 것이니 이렇게 본다면 소작쟁의가 늘어가는 것은 농촌의 명랑화를 위하여, 또 전시 하의 지주와 소작인의 진정한 협조를 위하여 오히려 좋은 현상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1939.05.08.)

금년 4월부터 신출발한 부락생산 확충계획에 따라 경기도 농촌은 총후의 농산물 증산에 총력을 집중하고 있다. 여기에는 농지의 분포상태와 극단의 겸병이라는 큰 난점이 있어 많은 지장이 있다. 그래서 도농정 당국은 가능한 한 그 폐해를 시정하고자 연구 중이던 바 드디어 금년 추수 후부터는 적극적으로 농지 조정에 착수하기로 했다. 이것은 지반 번 도에서 개최된 산업간화회 석상에서 논의된 바이지만 소작 혹은 자작농지가 그 농가 심하면 그 부락과 너무 떨어진 원거리에 있기 때문에 농사에 불편한 점이 많고 금년부터 장려하기 시작한 공동작업에도 능률이 나지 않는다. 그래서 도 당국이 실정을 조사한 바로 보면, 도내 답 21만

정보 중 7할은 적당히 분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였다. 그래서 금년 가을부터는 각 지주에게 협력을 구하여 적당히 소작인끼리 농지를 교환 경작케 할 방침이다. 그리고 광대한 면적을 소작하는 사람으로부터는 너무 적은 논밭에 소작하지 못하는 농가에 일부를 할애하도록 권고하여 농지 조정에 힘쓰기로 한 것이다.(1941.08.05.)

경기도는 온화하고 평화한 농촌으로 만들려고 노력했다. 이에는 소작쟁의를 근절시키미 긴절한 바인데, 금년 10월말 현재 제출된 쟁의건수는 경성지방법원에 31건, 수원지청에 43건, 여주지청에 35건, 인천지청에 17건, 개성지청에 31건으로 모두 157건이다. 작년도 10월말 379건에 비해 배 이상의 격감을 보이고 있다. 이는 지주 작인 간의 협조와 그들이 시국을 잘 인식했기 때문에 당연히 생기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제일 많이 제출되는 사건은 소작권 계속과 소작료 감액요망이 그 대부분으로서 소작료통제령이 발표된 뒤부터는 이 쟁의 경향도 점차 자취를 감추고 있다.(1942.11.05.)

경기도는 한해지에 대한 금년 소작료의 조치에 대해 대책을 성안하여 관내 각 부군에 통첩했다. 한해지에 대해서는 대체로 한재 때문에 수확이 3할 이하로 저하되었거나 전혀 이앙을 못한 답전에는 소작료를 면제하고 수확고가 평년작에 비해 1할 5푼 내지 2할 이상 감수된 때는 경감하기로 하고 지주의 전면적 협력을 얻기로 했다.(1943.10.02.)

3) 자작농

경기도 금년도 자작농 설정 제3차 계획을 완료했다. 호수는 247호, 1호당 대부분 평균 546원, 합계 13만 2천원이다.(1934.06.12.)

자작농창정을 위해 경기도는 1937년도 예산에 16만 5천원을 계상하여 250호의 자작농을 창정하기로 했다. 현재 도내 각군에는 평균 50호 내지 70호의 자작농이 실시되고 있다. 이번에 매호 660원 정도로 하여 군마다 5호 내지 17, 8호를 설정하도록 했다. 특히 인물 본위로 하여 660원의 자금을 저리로 융통해 주는 만큼 그 상황에 지장이 없을 독농에서 자작농을 선발하기로 되어 도에서 지시하여 각군에서 인물을 전형중이다. 지금까지 실적으로 보아 1가의 자작농을 형성하기에 다소 부족한 점이 없지 않은 농가가 있으므로 이 점에 유의하여 이번 창정

할 자작농은 근면·착실·신용·이지(理智) 등을 잘 참작하여 각군으로부터 전형케 한 다음 다시 도에서 사정하여 결정한다.(1937.07.01.)

1932년부터 실시한 자작농 창정은 농촌진흥운동과 박자를 맞추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경기도에서도 1932년부터 매년 250호를 창정할 계획으로 1936년까지 5년간 1,222호의 자작농을 창정시켰다. 1937년도에도 250호를 창정하기로 하고, 1호 당 660원의 예산을 수립하여 총액 16만 5천원을 계상하였다. 그러나 토지가의 양등과 토지 매매의 부진으로 인한 경기는 심각하여 예정한 250호를 창정하지 못하고 결국 230호밖에 창정하지 못했다. 이는 토지가의 양등으로 1호당 660원으로 예산하였던 것이 700원 내지 800원대로 등귀하였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결국 1932년부터 1937년까지 1,452호에 불과하다.(1938.01.15.)

도내 농민의 대부분이 소작농인 농가로 하여금 건실한 자작농의 창설을 이루게 하여 사상과 경제를 아울러 안정하게 하려고 경기도는 총독부의 계획을 추종하여 1941년도에 제1기 10개년 계획을 끝마치고, 다시 1942년도부터 1951년까지 제2기 10개년 계획을 세웠다. 특히 대부금액의 증액과 대부금 상환기의 단축을 적극적으로 꾀하여 1년에 250호씩 10년간에 2천 500호의 자작농가를 창설할 계획으로 이에 소요 대부금 1년에 29만 2천 500원씩을 계상하고 있다. 이것이 완료되면 일약 논이 1천 정보, 밭이 210정보, 모두 1,250정보가 자작농가의 소유 농지가 될 것이다. 1942년도의 실적을 보면, 241호의 자작농 창설에 논이 98정보, 밭이 34정보 7단보의 농지가 소작농으로 하여 소유하게 되었다. 그런데 1943년도 초기 실적을 보면, 집단 창설의 효과를 얻게 되어 확실히 자작농 창설이 확충되었다. 파주군의 임진수리조합 구역의 논 51정보와 밭 4정 6단보의 농지를 지주(노선재)가 자발적으로 매각을 결의 제언하여 경기도는 집단 창설이 효과적인 점과 한해·수해의 염려가 없고, 영농상 대단히 편리한 점을 고려하여 자작농 창설 경비 1년 예산 29만원 중에서 12만원을 떼어 이곳에 대부하여 35호의 자작농가를 창설하게 되었다. 일반 지주는 결전 하의 시국을 좀더 철저히 인식하여 소작농으로 하여 농지를 소유하게 하고, 자발적으로 집단 창설에 협력하여 식량 증산에 이룩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1943.08.03.)

4) 지주

경기도농회에서는 3월 5일 오후 1시부터 도청 회의실에서 경성 재주 34명의 대지주간담회를 도변(渡邊) 농회장 사회하에 개최하고 다음 2사항을 협의하고 6시 반에 폐회했다.

- 녹비 '헤아리벧취' 재배장려에 관하여 도에서 이번 가을부터 실시하고 도농회에서 공동구입할 것과 군농회에서 실지지도를 행할 것
- 벼 판매방법 개선에 관하여 도내 중요지에 농업창고를 설치하며 적당한 보통창고에 대해서도 저리지금을 유통하게 하며 수리조합으로 하여금 농업창고 경영의 방도를 강구하게 할 것(1930.03.08.)

5) 세국민

경기도에서는 국민구제 토목사업 중 우선 13개소의 사방공사(3년간 예산 106만원)를 개시하기로 했다. 4월 1일부터 이천 양주 시흥 용인 안성의 5곳에서 일제히 기공한다. 이 공사는 경기도 직영공사이다.(1931.04.02.)

경기도 보안과 발표 9월말 경기도내 결인은 2,395인이다. 그중 경성이 최대 303인, 가평이 최소 41인이다. 작년 동기 대비 98인 감소이다.(1931.10.07.)

경기도에서는 사환미제도를 부활시켜 세민들을 구제하고자 1933년 봄에 자금 25만원을 가지고 벼 2만 2,231석을 도내 각 면 세농 4만 5,245호에 대부했다. 작년 추수기에 독촉하지 않아도 12월까지 한 사람도 체납자 없이 회수되었다. 금년 봄부터는 각 도가 일제히 이를 실시하기로 되었다. 경기도는 다시 올봄 25만원을 들여 작년도분과 함께 50만원으로써 식량 대부를 할 터이다.(1934.02.02.)

조선사회사업협회 경기도지부에서는 10월 6일 도청회의실에서 53명의 관계자를 모아 간담회를 개최했다. 자문사항은 방면위원제도를 한층 조선의 실정에 적합시킬 대책이고, 이에 대해 답신과 각 부군으로부터 13건의 의견 희망사항 개진이 있었다.(1936.10.07.)

3. 공업과 노동자

1) 공업

경기도 공산품평회 출품신청은 9월 30일에 종료했다. 신청 인원 총수 761인, 출품 점수 2,120점에 달한다.(1931.10.04.)

경기도 공산품평회 포상수여식이 20일 회장 4층에서 개최되었다.(1931.10.21.)

경기도 1년간 상비 5인 이상 공장은 100개가 증가하여 1,448공장이며 직공수도 2천명이 증가하여 3만 4,197명이며, 생산액은 1억 4천 5백만원으로 1천만원 증가이다.(1936.08.21.)

경인일체의 새로운 계획에 따라 경성과 인천을 연결하는 큰 도회의 건설은 경인간에 공업지대를 건설하는 데 있다 하여 경기도는 그 계획을 세우게 되었다. 부평평야를 통해 대공업지대 건설은 각종 공장의 건설로 실현되고 있다. 다시 경기도는 280만원의 경비를 들여 공업용수를 끌어들이기로 하고 총독부로부터 인가를 받았다. 9월 12일 노량진 어귀에서 기공식을 거행한다. 이 공업용수 시설공사는 3개년 계획으로 도내 가뭄지로부터 노동자를 사용시킬 터이다.(1939.09.05.)

2) 노동자

경기도는 1월 16일 본부 지시에 따라 도내 50여 광산 중 유수한 광산업자 40여 명을 도청으로 초집하여 산금계획 수행에 대한 여러 가지 협의를 했다. 또 본부 식산국장과 산금과장의 지시사항이 있었다. 그리하여 산금계획과 경기도 내 각 산금 광산은 긴밀한 연락 협조를 취하고, 종래 시설에 대해 다음과 같이 새로운 지시를 하여 업자들로 하여금 산금정책에 매진하는 데 지장이 없게 하였다. 1. 광산 노동자 수급 조절에 관한 건: 지하자원인 중요 광산물의 개발과 탄갱 노동자의 부족은 북선 뿐만 아니라 도내에서도 2,600명이나 부족되고 있으므로 극력 광산 소재지에서 이 부족 노동자를 충족하도록 할 것이며, 그 모집은 도 사회과에 신청할 것, 2. 광산 노동자의 대우에 관한 건: 광산 노동자의 대우는 중요 광산물에 큰 영향이 있으므로 업자들은 특히 이 점을 고려할 것, 3. 광산 노동자 알선에 관한 건 ① 노동자의 이산 및 쟁탈 방지책을 고려하고, 일반 사업장에서는 노

동자들에게 경신(敬神) 사상을 배양시킬 것, ② 다수 노동자를 사용하는 곳에서는 황국의 산업인이라는 자각을 가지게 함과 각종 교화단체를 설치하여 노동자를 도야시킬 것이며, 시국 인식을 철저히 하는 여러 가지 행사를 할 것.(1939.01.24.)

경기도는 3월 25, 27, 29일의 3일간 노무 수급에 관한 간담회를 개최한다. 토목건축과 광산 노동자에 대한 노무 수급 조절에 관한 협의회이므로 토건과 광산의 현장 감독과 각 군 관계자 등 100여 명이 모이게 되고, 장기 건설 하의 노자 협조를 하는 데 기본적 방침을 세우리라 한다.(1939.03.17.)

경기도는 1일 아침 각 토목관계자와 청부업자 30여 명을 소집하여 노무조정에 관한 협의회를 개최했다. 각처 공사장에는 노동자가 부족하므로 가뭄지역의 남은 노동력을 골라 각지 토목공사장으로 알선하도록 하고, 이름도 근로보국단으로 하여 대대적으로 동원시키기로 했다. 동원될 사람은 대체로 3,300여 명으로 이들을 토목공사장에 보내 노력 봉사를 하도록 할 터이다. 종래 각군에서 출동한 근로보국단에 대해서는 시국 인식을 철저히 시켜 전시 노력 봉사를 한다는 것을 깨닫게 지도할 것이며, 숙소도 개선하여 불편함이 없도록 하며, 보건 위생에 유의하여 각 공사장에서는 만일의 유감이 없도록 했다. 물가가 비싼 때이므로 각 공사장에서는 상당한 대우 개선을 하여 임금을 올리도록 협의했다.(1939.08.02.)

농번기를 맞아 경기도는 예년 하여오던 행사로 농사근로보국대를 동원하고 있다. 결전하 증산에, 전력증강에 전 노력을 바쳐 전시식량 확보를 꾀하고자 금년은 더욱 강화하여 나갈 터이다. 이 근로보국대는 6월 1일부터 7월 20일 경까지 경기도 관하 20개 군의 농산촌 부락에서는 연맹과 애국반을 단위로 대와 반을 편성하여 전답에 나가 팽이와 호미를 들어 증산에 땀흘릴 터이다. 동원될 반은 작년 보다 증가되어 2만 2,650반으로 동원 연인원으로는 남자가 32만여 명, 여자가 28만 5천여 명, 전부 61만의 청장년 남녀가 농번기를 근로와 증산으로 일관할 결의로 총진군을 개시한 것이다. 우선 이달 안으로 끝낼 모를 내는데 서로 손품을 뚝고 중순 안으로 수확을 볼 보리 타작에 근로의 귀한 땀을 바치며 더구나 명예의 출정 용사를 제일선에 보낸 농가에 정성과 협력의 정신으로 이 근로대의 본 뜻을 발휘하기로 한 것이다.(1943.06.02.)

4. 상업과 상인, 시장

경기도 관하 각 도회에 13개의 공설시장이 있고, 부속 상점은 약 120개이다. 부속 상점은 종래 정찰 판매제를 쓰지 않기 때문에 상품 매매의 여러 폐해가 막대하므로 경기도 내무과에서 각 공설시장에 대해 6일에 지령을 발했다. 7월 1일부터 반드시 정찰제를 시행하도록 했다.(1930.06.07.)

시장규칙 제1, 제2, 제3, 제4호에 해당하는 시장으로 경기도 관내 122개소 시장의 1931년 중 판매고는 농산물 8,228만 5,271원, 수산물 264만 5,950원, 직물 77만 6,804원, 축산류 682만 6,109원, 기타 잡품 2,496만 245원, 합계 1억 1,749만 1,779원이다. 전년보다 농산물 6,169만 증가, 수산물 약 6만원, 직물 2만여 원 증가이다.(1932.04.20.)

8월 1일부터 전조선에서 임시국세조사를 실시하기로 되어 경기도에서는 그 준비로 6월 2일부터 3일간 강습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3부의 내무·서무과장과 각군 내무과장, 통계 주임 등 70여명이 참석한다. 장기 건설을 위해 전시물자는 어떻게 수급되고 있으며, 일반문자는 어떻게 배급되어 있는지를 조사하는, 즉 물자에 대한 임시국세조사이므로 주로 각 상점을 상대하여 조사를 하게 된다. 그리하여 일정한 신고용지를 각 상점에 배부하여 여러 가지 사항을 기입하는 것이다.(1939.06.02.)

물가통제령에 앞서 경기도는 도내 각 경찰서를 통해 여러 가지 물가 조사와 단속을 하도록 했다. 10월 9일부터 23일까지 2주일 동안 각 경제경찰을 총동원하여 조사는 전반적 물가를 표준할 터이고, 단속은 강력적으로 하여 위반자가 있으면 가벼운 제고에 그치지 않고, 각 경찰서로 혹은 경제경찰과로 호출해서 시말서까지 쓰게 한다고 한다. 조사와 단속을 할 것은 현재 공정가격이 실시되고 있는 물건을 비롯하여 채소, 과일, 혹은 현미, 쌀, 피혁, 직물, 금속, 철강 등 제품이고, 그 외 수십 종에 관한다. 산업과에서는 경성, 인천, 개성의 각 부내 상공단체를 통해 국가총동원법 실시에 따라 물가억제 방침을 널리 알린다.(1939.10.07.)

5. 양잠

10만석 산출의 산잠계획을 수립하고 1925년부터 3기로 나눠 진흥책을 세워오던 경기도내의 양잠업은 농가의 경제와 도내 산업 계발에도 중대한 지위를 가지고 있다. 상당한 기술 또는 기후관계, 상묘(桑苗) 관계 등으로 지지(遲遲)한 발

전을 보이고 있다. 금년부터는 큰 힘을 더해 종래의 계획을 수행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한다. 현재 양잠업은 일종 부업으로 되어 있는 현상이다. 이것을 농가갱생 계획, 농촌진흥의 한 큰 부문으로 삼기 위하여 작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지도를 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양잠을 경영하는 농가가 6만여 호, 매년 산출액이 4만 2,500여 석에 달하고 있으며, 매년 소립(掃立) 매수(枚數)도 춘추잠 등 합해서 6만 8천여 매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1939년까지 산견 10만석 산출과 농가의 4할 5푼인 10만호가 양잠업을 영위하도록 한 계획과 현격한 격차가 있기 때문에 금년부터 양잠고사 설치소를 확장하여 그 지도원을 10여명 이상 증원시킬 예정이며 이번 봄에 배포할 춘잠 소립매수도 대량으로 늘려서 4만 2천매 가량 배포하여 일반 농가에 분배할 터이다. 농가 1호에 대해 평균 1단보 이상의 뽕밭을 경작하여 양잠에 제공할 터이다.(1937.04.02.)

애국비행기와 진면 조끼, 기타 위문대 등을 다수 헌납한 조선잠사회 경기도지부는 잠업보국에 매진하기로 했다. 도내 600여 잠업 관계자는 앞으로 잠견 생산에 노력하기로 하고 대표자 70여 명이 11월 5일 소사에 있는 원잠종 제조소에 모여 잠업 경영에 대한 여러 가지를 협의한다. 이번 회합은 양잠가·제사업자·잠지 제조업자·상묘 경영자·견사 업자 등이 모여 비상시 견사 수급의 원활을 도모하기로 했다.(1938.11.05.)

경기도 산업부에서 조사한 본년도 춘견공판 성적은, 할당수량 20만관에 대하여 6월 28일까지의 출회 실적은 12만 5,272관으로 비율로 6할 3푼의 성적이다. 예년에 비해 불량한 성적이라 하여 도당국에서는 적극 출하를 종용하고 있다. 1위는 광주군의 9할 7푼이다.(1942.07.04.)

6. 임업

경기도에서는 금년 봄에 실행한 도토리나무의 실파 조림(實播造林)은 그 성적이 자못 양호하여 조림계획상 많은 이익이 되겠으므로 명년 봄에는 일층 확장코자 1,700정보에 350석의 종자를 뿌릴 계획이다. (1931.10.29.)

경기도 산림과에서 11월 6일부터 약 2주간 가평, 양주, 강화, 시흥, 용인, 장단의 각 군청에서 각각 하루씩 밤의 간벌과 송이 재배 실지 강습회를 개최한다.(1934.11.03.)

경기도산림회는 도내 임야 소유자의 임업지식 계발과 경영방법의 합리적 지도를 위해 각군내 임업상담소를 신설하기로 했다. 앞으로 갹목, 신탄 외에 송지(松脂), 수피(樹皮), 수실(樹實)의 채취는 군수품 관계로 중요해질 것이므로 상담소를 설치하여 임야 매매에 따는 임야 면적과 축적의 측정, 임산물의 처분, 판로의 알선, 임야 경계의 분쟁 처리에 관한 각종 사무를 상담한다.(1939.08.01.)

금년도 경기도의 용재 생산 목표 수량은 189만 9천여 석이었는데, 그후 건축조선 철도침목 등 용재 수요가 점차 증가됨에 따라 다시 총독부로부터 165만 8천여 석의 증산 할당 추가를 받아 계 350만 5천여 석의 총생산 계획을 세우고 벌채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벌채지의 보식(補植)과 신규 조림을 위해 1943년도에 4,500만본의 임묘(林苗)를 경기임산종묘주식회사로 하여금 재배시켰다. 매년 증가되는 묘목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1944년도에는 5,500만본을 재배시키기로 했다. 그중 낙엽송 1,384만 본을 필두로 조선송, 포플라, 울목 등 15종목을 포함하고 있다. 만주국 주문에 속한 약 2,500만본의 묘목도 포함되어 있다.(1943.10.05.)

7. 축산

경기도 축우 증식계획 실시 성적을 보면 1928년에 계획수 9,688두에 비해 12,552두의 증식을 보았다. 다시 1926년말 현재 기초수 104,320두를 가산하면 112,414두인바 1929년말 조사로 보면, 사실에서는 이상 수효에 도달치 못하나 농가 경제상황 등으로 인해 연말에 사양하지 못한 자가 있는 관계이나 결국은 실시성적이 양호하다고 할 수 있다 한다. 장려 방법별로 보면 지주(2,340)의 것이 가장 많으며 다음 계(2,121), 자력 구입(1,887), 생산 증가(1,121) 등의 순서이나 결국 자력 구입 이외는 농가 소유 축우가 아닌즉 농가축우가 6분의 1밖에 안되는 이상 농가의 피폐 정도가 여기서도 여실히 폭로되는바 아직도 축우 장려의 여지는 전도가 요원하다. 군별로 보면 양주 1,520두를 필두로 개성 949두, 김포 850두, 광주 724두이다.(1930.08.23.)

농공병진의 근원이 되는 유축 농업에 대해 총독부는 이에 주력하여 축산방면을 대대적으로 장려하고 있다. 군수품으로서 돈피, 토피(兔皮)가 충분히 수용되고 있으므로 이 증산계획을 적극 실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양돈과 양토사

업을 도내 전반에 걸쳐 장려하기로 했다. 양토, 양돈은 식용으로나 피혁, 모피 등의 자원으로서 극히 중요하다. 경기도는 금후 5개년 계획을 기하여 돈 20만두, 토끼 30만 두의 생산 증식을 목표로 하고 도비로써 다대한 조성을하기로 했다. 도농회 주최로 전문가를 초청해 강습회를 개최하기로 했다.(1939.02.05.)

전시하 군마와 각종 가축류의 사료문제는 농촌의 힘으로 빌지 않으면 안되므로 경기도는 이에 필요한 건초증산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산야에 방치해 두었던 각종 잡초도 이를 건초하면 훌륭한 사료가 되므로 여름철로부터 가을철에 걸쳐 농촌 비노력원을 총동원하여 잡초를 예초하여 이를 우마 기타 가축용 사료로 하여 겨울철에 대비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잡초를 먹여 사양해온 가축들도 식량절약의 견지에서 건초로 전환시켜 영양분을 보충할 계획으로 당분간은 힘들 터이나 습관이 들면 아무렇지 않겠다고 농무과 축산계에서는 말하고 있다.(1942.07.03.)

식산계의 축우대부사업은 전시 식량 증산의 기본요소인 경우의 증식예탁에 중점을 두어 농업 노력의 원활한 보급에 이바지하게 하려고 시설한 것이다. 경기도는 최근 군수 통조림 소의 공출에 관해 자칫하면 그 취지를 오해하여 식산계 소를 이에 충당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음은 심히 유감으로 여겨 11월 4일 산업부장 명의로 각 군수에게 이 오해를 일소시키도록 통첩을 띄웠다. 이와 같은 경향이 지속되면 경우 사육에 적지 않은 불안을 품게 하여 장래 식산계의 축우 대부사업의 진전에 지장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데, 이 사업의 목적은 무축 농가에 대해 저리 대부로서 이를 유축 농가로 만들려는 것으로 대부 소도 농가의 자력과 상환연한 등의 관계를 고려하여 상당한 축우를 장기에 걸쳐 사육 노역시킴을 본지로 함으로써 이를 공출시킴과 같은 것은 온당한 조치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시국하 축우 점감의 상황에 비취 한층 그 증식에 노력하여 노력과 비료의 부족을 완화하여 농산물 증산에 더한층 힘쓰고 이 시설사업을 통해 축우증식을 기하기를 절실히 요망하고 있다.(1942.11.06.)

8. 부업

경기도에서 생산되는 밤은 양주올이라 하여 농가의 부업으로도 알맞은 것이다. 경기도에서 극력 증식을 장려하는 중 1926년 이래 약 200만주의 증식 때문에 현

재의 생산액은 현저히 증가하여 10만석을 돌파하여 150만원의 수입이 있다. 일본에도 매년 수천석 이출되어 매년 판로가 확대된다.(1933.06.05.)

경기도 산업과에서는 농수산업 외에 다방면에 신 개척을 하는 의미에서 작년부터 가축의 하나인 면양(緬羊)을 시험 사육해 왔는데, 1년간의 성적이 자못 양호하여 1937년도부터는 적극적으로 면양 사육에 힘을 써서 1급 농가의 부업을 윤택하게 하고 앞으로 금융의 원활을 도모해 볼 계획을 세우고 있다. 작년에는 면양 20두를 호주로부터 직접 구입해다가 시험적으로 사육해 본 결과 기후 또는 초식(草食)을 시키기에 적합한 형편이므로 1937년에는 다시 100두를 사들여 제2단계으로 시험해 보려 한다. 청량리 농사시험장에서 길렀으나 장소 협착 관계로 새로 종양장을 신설하려 한다. 예산은 1만 8천원이다.(1937.02.11.)

9. 금융, 금융조합

1930년 9월말 현재 조선 내에 있는 고리대금 현황을 보면, 일본인 3,453명, 조선인 8,663명, 외국인 37명, 합계 1만 2,153명이다. 전년에 비해 570명이 증가한 것이다. 경기도는 일본인 184명, 조선인 868명, 외국인 9명이다.(1931.08.05.)

경기도 금융조합원은 작년 12월말 현재 10만 9,518명으로 전월에 비해 1,397명의 증가이고, 의연히 격증의 추세에 있다. 총호수에 대한 비례로 보면 2할 6푼이나, 촌락금융조합으로서는 3할 4푼의 가입이다. 대부금의 약 100분의 4가 연체되고 있다.(1934.01.20.)

경기도는 장기항전에 처하는 일반의 인식을 철저케 하고자 그 제일선 지도자인 부윤, 군수, 경찰서장 회의를 5월 16일부터 개최한다. 또 7월부터 경기도내 72개 금융조합 이사과 부이사 20명의 이사회를 개최하여 총후의 금융보국에 일반의 진력을 하도록 했다. 이번 이사회는 종래의 회동과는 달리 특히 사변 하의 저축 장려를 적극적으로 할 것과 물자절약에 가일층 노력하고 금융조합원 획득운동에 대대적으로 활약할 것을 도지사가 지시할 터라 한다. 또 다음과 같이 이재과, 지방과, 농무과로부터 각 지시사항이 제출된다고 한다. (이재과 주관) 1. 시국인식의 철저에 관한 건, 2. 저축의 장려에 관한 건, 3. 대출금업무에 관한 건, 4. 고리부채의 정리에 관한 건, 5. 채권의 결손처분에 관한 건, 6. 미결산 감정 정리에 관

한 건, 7. 경비절약에 관한 건, 8. 중요사항의 보고에 관한 건, 9. 부하직원의 교양 감독에 관한 건, 10. 사무원의 신원보증에 관한 건, 11. 이사 부이사의 출장에 관한 건, (지방과 주관) 12. 농산어촌진흥의 촉진에 관한 건, 13. 식산계의 지도 조장에 관한 건, (농무과 주관) 14. 미곡자금 대부에 관한 건, 15. 판매 비료의 시용과 배급 개선에 관한 건, 16. 소작농에 대한 양잠 경영 조장에 관한 건, 17. 축우 증식 장려에 관한 건.(1938.05.03.)

경기도 금융조합이사회는 6월 10~11일 도청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관하 72조합 이사가 모였다. 자문 사항은 1. 1939년도 한해대책 실시 상황 및 이재자의 상황에 비취 한층 그 선후 완벽을 기하기 위하여 특히 시설 또는 개선을 요할 사항, 2. 시국하 저축장려의 철저상 특히 시설할 방책 및 1940년도 5억 저축 실시에 필요 유효로 인정하는 방책, 지시사항으로 1. 직원 지도교육에 관한 건, 2. 저축장려에 관한 건, 3. 식산계에 대한 대부금의 유동화에 관한 건 등 24건이다.(1940.06.11.)

10. 동원과 헌납

1) 동원: 정신, 인력, 물자, 자금

9월 10일은 경기 도청원(道廳員) 정례 신궁 참배일이므로 오전 7시 반에 도지사 이하 전 청원이 조선신궁 참배 후 8시 반 도청회의실에서 칩어 봉독식을 했다. (1936.09.11.)

일본과 중국의 전면적 시국은 중대한 처지에 달하고 있는바 황군의 분투는 총후의 민중으로 하여금 감격과 흥분에서 이를 응원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그리하여 일반 사회의 각층 계급에서는 적성을 다하여 황군의 무운장구를 빌면서 이번 경기도 학무과에서는 9월 6일의 애국일을 기하여 도내 각 초등·중등학교의 아동·생도·교직원으로 하여금 이날을 가장 유의의하게 보내기로 모든 절차를 준비중에 있다. 6일의 애국일까지 도내 각 학교 435교의 생도 10만 9,851명과 교직원 3,174명은 각각 단 1전씩이라도 적성을 표하기로 하여 애국의 고사 기관총

각출금을 의연하기로 했다. 이는 다른 도의 효시가 되는 것이다.(1937.09.03.)

애국 군용기 경기호 4대 헌납을 목표로 하고 헌금을 모집한 이래 경기도에 거금된 금액은 9월 30일까지 예정액 20만원을 돌파하여 23만 9,305원에 달했다. 정자옥 백화점 지배인이 도청에 도지사를 방문하여 해군기 1대를 헌납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1933년 이래 사장 이하 점원 일동이 적립해 온 영세한 거금의 결정이다. 이로써 경기도 내에서 헌납될 비행기는 전부 12대이다.(1937.10.01.)

전국적으로 실행되고 있는 국민정신총동원에 계속하여 11월 7일부터 1주일은 국민정신작흥주간으로서 총독부의 지시에 따라 경기도 관내에서도 일제히 이를 실시하여 국체에 대한 관념을 철저케 하고 이번 중일전쟁이 유래한 바를 인식케 하여 거국일치 건인불발의 정신을 가지고 시간(時艱)을 극복하기로 했다. 이 운동의 실시를 앞두고 경기도는 각종 행사와 작흥주간의 실시사항을 각 부군에 지시하여 좋은 성적을 얻도록 했다. 특히 생활 양식의 개선 합리를 위하여 ‘사회풍조 일신 생활개선 10칙’이라는 것을 인쇄해서 배포하기로 했다. 즉 생활개선의 합리화를 위하여 소비절약, 가정단란, 시간존중, 정시(定時) 여행(勵行), 국산사용, 규율절제의 보지(保持), 누습 타파 등에 관한 것을 주안으로 10칙을 제정하게 되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시간의 극복 일치 단결, 2. 부동의 정신으로 곤고(困苦)에 참으라, 3. 협력 일치하여 충후를 지키라, 4. 일하라! 개인과 국가를 위하여, 5. 상비(常備)하라! 모든 역량을, 6. 누습의 타파 형식보다 정신, 7. 연구하여 물품을 활용하라, 8. 박래품보다 국산품, 9. 낭비를 금하여 국력을 배양하라, 10. 전쟁엔 이겨도 사치엔 지라! 이상과 같이 사회 풍조를 일신하고 생활을 개선하는 10칙을 피라로 약 16만매를 인쇄하여 작흥주간 중에 경기도 관내에 배포하고, 또는 비행기에서 이를 산포하여 도내 각 군읍면에까지 골고루 가게 하여 생활개선과 사회풍조 일신에 일대 운동을 펼치게 하리라고 한다.(1937.11.02.)

총독부는 장기향전 태세를 철저히 하고자 저축장려위원회를 조직했다. 국민생활의 절제와 규범에 대한 여러 가지 구체적 방법을 수립하였고, 이 위원회의 활동을 민속 철저히 하여 일반 생활에 침투하게 하고자 각도에도 저축장려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하였다. 이 방침에 의해서 경기도는 경기도 저축장려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 규정도 제정했다.(1938.06.04.)

이번에 청년층을 망라하여 정신연맹 추진대를 조직하기로 하여, 그에 따라 경기도에서 이것을 조직하기로 했다. 9월 1일을 기해 충남 부여의 중전청년 훈련소에서 훈련을 마친 사람과 간도 연길로 홍아청년근로보국대로서 일하러 갔던 14명에

게 국민정신총동원 경기도연맹의 경기도 지사가 추진대원에게 임명장을 주었다.(1938.09.03.)

경기도는 7월 21일부터 30일까지 도내 남녀중등학교 생도들에게 근로작업을 시켰다. 동원된 인원만 5천여 명이었고, 수확도 상당히 양호했다. 이를 각 학기 중에도 계속 실시하기로 도내 각 중등학교장에게 통첩을 발하였다. 그리고 대체로 매월 6일의 애국일을 기회로 하여 각 학교에서 실행하도록 하되 특히 실생활에 즉한 근로작업을 하도록 했다. 그 지시사항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특히 농번기를 이용하도록 하여 앞으로 논과 밭농사에 제초를 할 것과 벼베기 등을 하는 외에 도로 개수 등 주로 공익사업에 힘쓸 것, 2. 군인 유가족을 방문하여 그 집의 노력 부족을 보충할 작업을 할 것, 3. 기타 각 학교에서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근로작업을 하여 근로정신을 함양하여 봉사의 관념을 가지게 할 것.(1938.09.06.)

경기도는 그간 애국육군비행기를 비롯해 고사기 등 십수 대를 헌납하였고, 이번에는 폐물 이용과 생업보국의 원칙으로 위문대 1,600개를 헌납했다. 조선잡사회 경기도지회는 올봄 전 공동판매를 행하여 종래 이용되지 않고 있던 견면(모우)을 수집하여 황군의 위문에 이바지하고자 각 군농회의 후원으로 양잠자에게 전달하였고, 각 농가에서는 2문(匁), 3문씩 견면을 지참하였으므로 이것을 매각한 돈 2,911원 85전에 달했다. 이 지회에서는 1,600개의 위문대를 경성여자 기예학교에 위탁하여 학교애국일에 근로봉사로써 이를 조제케 하였고, 그 속에는 각 중소학교 생도들의 위문문을 넣어 조선군 애국부에 헌납했다. 경기도는 이 운동을 이 후에도 계속 시키기 위하여 요즘 각 군에 통첩을 발하여 견면의 헌납을 행하게 했다.(1938.09.09.)

경기도는 10월 5일부터 총후 후원 강화주간 실시를 맞아 도 간부가 각 부군의 출정 군인 유가족을 방문하고 위문문과 위문품을 증정했다. 또 육군병원과 분원에서 상이 군인을 위한 여러 가지 위안회를 개최했다. 또 한편으로 출정 장병들에게 감사의 적성(赤誠)을 피로(披露)하는 한 방법으로 널리 관내 일반으로부터 위문대를 모집했다. 도청 직원의 312개를 비롯하여 경성부 2천개, 인천부 508개, 강화군 500개, 기타 포천군 등으로부터 다수 기증한 위문대 6천여 개를 수입하여 경기도 군사후원연맹의 명의로 조선군 애국부로 보냈다. 주간 중 6천여 개의 위문대를 보낸 것은 이번이 초유의 일이다.(1938.10.11.)

경기도는 전쟁 이래 관내 직속 각 관청에 대해 물자 절약을 주장하고, 장기 항전에는 자원 애호가 제일이라는 것을 역설해서 경제전의 진체(眞諦)를 표명, 지시

했다. 그리하여 구체적 물자 절약과 소비 긴축으로 종이류와 공문서에 관한 것을 적극적으로 제한해 사용하도록 했고, 그밖에 닥쳐오는 겨울철을 앞두고 연료절약을 지시하여 먼저 관청에서부터 모든 것을 수범하여 일반 민중의 사표가 되도록 하는 것을 지시했다. 이번에 다시 금속류에 대한 사용 제한을 강조하고, 관청의 비품은 가급적 대용품 사용하라는 것을 지시했다. 이 금속류 사용제한은 특히 국제수지 상 크게 영향이 큰 것이며, 전시에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므로 이를 적극 실시하게 하였고, 대용품 사용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물품명목을 지시했다.(1938.11.01.)

일본정신 발양주간은 기원절을 중심으로 2월 8일부터 14일까지 1주간 전 조선에서 일제히 실시한다. 경기도의 행사는 다음과 같다. 제1일인 8일부터 4일간은 조선체육협회 주최의 일본정신 발양 남산등산회에 참가 매일 오전 7시에 정상에 집합 궁성요배, 황군 무운장구 기원, 라디오 체조 후에 만세 삼창하고 해산하며, 최종일인 11일에 전원 일제히 하산 경성신사, 남산신궁에 등산 완료를 고한 후에 해산한다 등이다.(1939.02.04.)

경기도내 금융기관의 2월말 현재 예금총액은 4억 7,966만 1천원의 거액이다. 이것을 작년 3월 말에 비하면 1억 2,560만 7천원의 격증이다. 이 금액 중 금융기관 상호간의 예금, 일반 당좌예금을 공제하면 작년 3월 말보다 6,596만 9천원의 증가로 경기도의 저축 목표 6천만 원을 초과한 것이다.(1939.03.19.)

경기도는 6월 7일부터 경기도청에서 정신동원총동원연맹 이사회를 개최한다. 군읍면연맹 이사장 236명, 경성부 각정연맹 이사장 140명, 인천·개성 각정연맹 이사장 15명, 기타 각부 관계자, 부군 담임속, 경성 시내 공사립소학교장, 각군 시학, 각 경찰서 경무주임 등 531명이 참석한다.(1939.06.02.)

술잔을 주고 받은 것은 위생상 절대로 나쁠 뿐 아니라 절미운동이 제창되고 있는 이때 헌수(獻酬)를 계속한다는 것은 국책에 벗어난다 하여 국민정신총동원 조선연맹에서는 폐지를 선전하고 있다. 경기도 사회과는 이 운동이 보급을 위해 3개 부에 먼저 선전 포스터 1,500부를 배부하기로 했다. 이번에는 주로 음식점, 회사, 공장 등 사람이 많이 있는 곳 위주로 하고, 다시 제2차로 각 군읍면에도 퍼트려서 절미운동으로서의 헌수를 절대 폐지하도록 했다.(1939.10.07.)

경기도 정신동원위원회는 위원장인 지사 이하 각 과장이 총동원하여 8월 10일부터 21일까지 각기 담당한 부군으로 출장하여 정동운동을 비롯한 농사관계 각반을 시찰 독려하기로 했다. 이번 계획은 정동운동을 일층 강화하고 도행정의 형적

연결을 긴밀히 하자는 취지로 도에 정동위원회가 설치된 이후 처음으로 실시되는 것이다. 시찰 감독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애국반의 활동 및 애국일의 취지 철저, -수도전작의 관리, -퇴비의 증산, -청년훈련소 시설, -저축조합 설치상황 등.(1940.08.10.)

1941년도 처음으로 제21회 '지나사변국채'와 제7회 '보국채권', 제21회 '저축채권'이 4월 21일부터 일제히 발행된다. 이번에 팔리는 채권은 모두 325만원이고, 그중 경기도는 88만원이다. 사변국채는 60만 4천원, 보국채권은 14만 7천원, 저축채권은 13만 8천원이다.(1941.04.10.)

시정 31주년 기념일이자 애국일인 10월 1일 경기도내 300만 애국반원들은 각 기 연맹상회에 출석하여 전시생활을 쇄신하고, 국민개로운동에 정신 봉공하여 임전체제 확립을 맹세했다. 이날 오전 6시 반 중계방송된 조선연맹 부총재(정무총감)의 라디오 방송은 반상회 출석중의 반원들을 격려하여 한층 충후에 봉공할 것을 맹세케 했다. 상회 종료 후에는 각지에서 시정기념제와 추기 체육행사를 실시하여 동아신질서 건설이라는 제국의 성업을 31년 전에 굳게 약속하고 세계적인 한일합병을 보게 된 시정기념일의 의의를 한층 인식하게 되었다.(1941.10.02.)

수확량은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공판 출하의 수량은 총수확량의 2할 정도에 불과하다. 이미 공출 판매 개시 이래 2순이 경과되었음에도 1회도 출하하지 않은 부군의 면경작자가 전 면경작자의 5~6할 이상이나 되는 군이 있다. 이들은 수확 면화를 감추어두고 판매시기의 종료를 기다려 자가용으로 유용하려는 경향과 농가에서 서로 암거래되어 매점매석이 성행되는 형편이다. 이는 공판 공출의 장려에 많은 저해가 있고 면작 장려의 취지에 반하고 소비자들에게만 만족을 주게 되어 국가의 요청에 의한 섬유자원 공출과 물동계획에 대지장이 있다. 따라서 경기도에서는 소할 각 경찰서와 각 관계당국을 동원시켜 공출 독려를 하고자 각 부군에 엄중 통첩을 발했다. 이에 12월 8일 경부터는 도에서 각 부군에 독려대가 출동하기로 했다. 12월 5일 현재로 1차도 판매하지 않은 경작자에게는 면과 군에서 소환하여 철저한 조사를 하고 판매사무 담당자와 독려 담당자를 판연히 구별하여 독려반을 매일 각 부락에 출하 독려하며, 대장에 따라 개인별로 수확과 판매상황을 조사하여 군에서는 관내 면대항 출하 경기회를 개최하고, 도에서는 군별 할당 수량이 1천 800만근에 달하는데, 각 군은 이 목표 수량의 8할 이상을 공출한 경우는 그 군의 면작 출하 수량에 따라 1인당 2근 이내 정도의 조면을 배급하여 주고, 다른 배급도 우선적으로 하여 공출을 장려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면화를 각

집에 감춘 사람들에게는 각 가정의 창고 다락은 일제히 검색하기로 하였다.(1941.12.04.)

1944년도부터 실시하게 된 징병제를 기념하기 위해 국민총력 경기도연맹은 도내 각 부·군·읍·면·정·부락 연맹의 역·직원, 청년대원, 중등학교 생도, 경방단원, 기타 각 부군의 지도자와 중견청년들에게 이번 제도의 취지와 진의를 인식 이해시키고자 순회 강연회를 열기로 했다. 6월 2일 화요일 수원·김포·파주로부터 시작하여 12일 금요일 개성에서 끝난다.(1942.06.02.)

경기도는 도내 각 부·군 직원과 국민총력 부·군연맹 역원 상회를 7월 20일부터 개최한다.(1942.07.11.)

경기도는 중대시국에 직면하여 한층 이의 태세를 강화하여 계획적 저축 달성에 유감없기를 기하게 할 필요가 있으므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장려하기로 하였다. -저축실행 태세의 강화: 대동아전쟁 발발 이래 저축에 대한 관심은 현저하게 양양되어 그 성적이 매우 좋다고는 하나 자칫하면 위대한 성과에 안심하여 저축봉공의 열의와 실천을 결할 우려가 있어서 금후 저축실행 태세의 강화를 꾀하여 저축봉공의 생활화에 익숙하도록 노력하는 데 특히 도시와 시국 산업방면에 대해서는 한층 협력을 구하고 있는 터이다. -저축조합의 정비 확충: 도내의 저축조합은 법령에 기하여 대체로 설립수속을 완료하였다고는 하나 그래도 지역과 산업단체 방면에는 수차의 권장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아직 미조직한 것이 있으므로 이들에 대해서는 속급히 이의 설립을 장려하고 있는 터이다. -저축실행율의 인상: 각종 저축조합원이 실행하고 있는 저축액은 점차 표준을 이상의 성적을 나타내고 있다고는 하나 아직 일반으로는 의무적, 명목적에 그치는 경향이 적지 않으므로 금년도 저축 목표액의 증가에 대하여 이의 인상을 권장하고 있는 터이다. -국채 채권 소화의 보편화: 국채 채권은 현재 순조로 소화하고 있으나 보편화에서는 충분하다고 할만하지 않은 정세에 있으므로 한층 국채 채권에 대한 적극적 구입의 기분을 주입하는 것은 금년도 증가 할당액의 완전 소화에서 필요하므로 한층 이의 철저를 기하고 있다. -유흥과 매물(買物) 억제: 낭비를 극력 억제함은 말할 것도 없고, 일반 소비생활을 규정함은 저축의 여행과 관련하여 전신하 국민의 최대 의무의 하나인데, 이의 일조로서 유흥과 매물에는 일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채권을 끼워 팔도록 실시하고 있으나, 그중에는 매매 양 당사자간에 협력하고 있는 자도 있으나 그중에는 더욱 업자에게 이를 철저히 실행시키고 일반에 대해서 이의 노력을 철저케 한다. -노무자에 대한 저축의 장려: 시국에 의해 소득이 증가

된 노무자에 대하여 노무보국의 정신을 기하여 저축에 협력을 시키려고 일정한 수입 이상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임금 지불할 때 소액 채권 또는 우편저금 절수(切手)를 구입시키도록 권장하고 있다.(1942.08.02.)

경기도는 12월 5일부터 11일까지 7일간 도내 일제히 태평양전쟁 제1주년 기념 행사를 실시기로 했다.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은 ‘개전 제1년에 대응하여 각하(脚下)를 조고(照顧)하는 반성 자숙의 행사기간’으로 정하고, 8일부터 9일까지 2일간은 ‘엄숙한 의례행사와 다채한 계발행사기간’으로 정하였고, 10일부터 11일까지 2일간은 ‘전쟁 제2년에 매진할 강력한 발족의 행사기간’으로 정하여 도내 각 부군읍면, 각 관공서, 학교 민간 단체 등에서 뜻있는 기념 행사를 하기로 했다.(1942.12.03.)

경기도는 학도들의 결전근로동원의 비상조치에 대응하여 4월 하순부터 준비하고 있던 학도동원본부를 5월 29일부로 설치하고 31일에 그 첫 회합을 했다. 이 동원본부는 본부장, 차장과 참여를 두고, 그 아래에 총무, 동원의 2부장을 두고, 다시 총무부에는 기획, 경리의 2반장, 동원부에는 일반동원, 기술동원, 여자동원, 학동동원의 네 반장을 두었다. 31일의 첫 회합은 학도동원을 받아들이려고 신청하여 온 것을 심사하여 결정하기로 했으며 이 동원본부 설치로써 경기도의 학도동원은 그 태세를 완전히 갖추었다. 학도의 근로동원 중 여자중등학교의 동원에 대해 지난 5월 26일 경기도 내 각 여학교 교장들이 도청에 모여 협의를 했다.(1944.06.03.)

1월 5일 현재 경기도내에서 금년도 식량 책임공출량을 마친 곳은 인천, 개성의 2부와 수원, 여주, 광주의 3군으로 그중에서 수원은 작년 말까지 책임량의 120%를 공출하여 전선 제1의 좋은 성적을 보여주었다. 그 외 각 군도 1월 10일까지 대개 공출을 마칠 터이라 한다. 현재 도 전체로는 책임량의 7할을 돌파하고 있다.(1945.01.07.)

경기도는 2월 11일 오전 10시부터 제1회의실에서 ‘기원절’ 봉축식을 거행했다. 이어 같은 자리에서 도내 각 방면의 공로자들의 공적을 현창하는 표창식이 있었다.(1945.02.12.)

경기도는 3부 20군에 근로동원과를 설치하고 전임 과장을 임명한 이후 첫 번째 되는 근로, 민생 과장회의를 3월 1일 제1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앞으로 실시할 근로동원 대책과 원호운동 강화를 평정하는 중요 협의회이다.(1945.03.03.)

경기도 재무부는 6월 11일부터 7월 10일까지 저축 기간 중 도내 각 부군의 저

축상황을 시찰했다. 8월 1일 재무부 3층 회의실에서 사찰원들의 보고회가 있었다.(1945.08.03.)

2) 헌납, 헌금

경기도 국방헌금은 합계 9,289원 63전이다.(1932.12.30.)

지난 3월에 전 조선적으로 전개된 애국기 200기 헌납운동에 경기도에서 헌납한 육군기 42기의 헌납 명명식이 9월 20일 항공기념일을 택해 오후 1시부터 용산연병장에서 거행된다.(1944.09.05.)

11. 교육

경기도 학무과의 추정에 따르면 도내 학령 아동 총수 약 4만 3천명으로 그중 이번 봄에 입학할 지원할 아동은 작년의 예에 비추어 약 2만 2천명에 달한다. 그 외 2만 1천명은 빈곤 또는 기타 가정 사정으로 입학 지원도 못하는 것이다. 4만 3천명은 금년에 비로소 학령에 달하는 아동과 작년 재작년에 입학할 못하고 물려 내려오는 만 6세 이상 만 10세까지의 아동수를 총산한 것이다. 도내 공립보통학교수는 금년 신설된 14교를 합해 모두 178교이다. 사립보통학교는 정규 보통학교 21개, 기타 종교학교 29, 일반 22교로 모두 250교이다. 각 보통학교 입학 수용력은 약 1만 7천명 가량이다. 약 5천명이 취학불능하게 될 것이다.(1930.02.01.)

농촌 보통학교를 졸업한 아동들로 하여금 농업에 종사하도록 하는 한편 농촌의 지도자를 만들고자 하는 취지로 경기도 학무과에서 농무과의 응원을 얻어 1927년부터 군지역 보통학교에 졸업생 지도학교라는 것을 설치하였다. 그후 학교수가 증가하고 아동수도 증가되어 1929년의 실습성적은 호성적이다. 그중 학교로서 성적이 양호한 학교는 송파, 남면, 서정리, 송산, 안산, 문산, 장단의 7개교이다.

- 미작 23개교 453인의 총수확 2,194석
- 퇴비 23개교 459인의 총제조량 84만 8,450근

- 소채 23개교의 총수확(배추 4만 9천 4관, 감자 1만 7천 23관, 고구마 9천 35관, 무 4만 2천 923관, 파 1천 420관, 고추 419관, 콩 1만 9천 688석, 기타 오이류 1천여 관)
- 맥작 8개교, 143명의 총수확 346석 8두 8승
- 양잠 22개교 287명의 총수견량 1천 150관 ■문
- 양계 21개교 372명의 총사양수 2천 637두
- 양축 22개교 222명의 총축수(돈 313두, 우 93두)
- 입직(가마니짜기) 18개교 340명의 총제조량 4만 2천 396매
- 새끼 7교 99명의 총제조량 2,294만 4,650관

지도학교의 취지는 물론 성적조차 양호함을 본 전선 각도에서도 금년부터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1930.02.17.)

경기도 학무국에서는 각군 보통학교의 1면 1교 실시계획을 세우고 진행중이다. 기설 138교, 예정 114교로 이미 반수 이상 실시되었다. 1929년도에 14교, 1930년도에 4교가 설립되었고, 1931년도에는 13교 설립 예정이다. 예정기인 1937년까지는 전부 완결을 볼 것이다. 이 학교는 4년제 2학급 복식으로 임시비인 창설 비용 1만원은 민간 기부 4천원과 지방비 보조 6천원으로 충당하며 경상비 3천원은 국고보조, 호세부가, 수업료 등으로 충당된다. 이것이 완성되면 1학급 70명 평균을 치면 252교에 2만 5천 810명의 생도를 수용하게 된다.(1930.09.19.)

경기도 학무과에서 조사한 9월말 현재 통계를 보면 학교 총수 406교, 학급총수 2,283개, 생도총수 11만 4천 836인이다. 이를 지난 4월말 통계에 비하면 학교수와 학급수의 증감은 별로 큰 차이가 없다. 생도수는 큰 변동이 있다. 지난 9월 한 달 동안 무려 3,104명의 생도가 퇴학한 숫자를 보이고 있다. 생도 격감 문제에 대해 경기도 학무과장은 “해마다 9월 신학기에는 4월의 신학기보다는 다소간 생도가 준다고 합니다만 이번 통계를 보면 너무나 그 수요가 많은 데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원인에 대해 여러 가지로 추측되나 대개 곡가 폭락 기타로 인한 불경기에 연유한 바가 가장 큰 줄로 압니다. 그리고 9월 이후에도 육속 퇴학생이 늘어가는 중이라는 정보를 듣습니다만 어쨌든 전황 관계로 생도의 수가 줄어가는 현상은 무엇보다도 한심한 일입니다.” 운운(1930.12.05.)

경기도 관내 180여 공립보통학교 수업료 총액은 1년 약 45만 2천원 가량인데 금년에는 각지 농촌의 풍년공황으로 말미암아 수업료 체납자가 격증하여 약 4만원 이상의 미납으로 학교비 재정 경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 예상된

다.(1930.12.31.)

경기도 학무과에서 작년 5월 문부성령으로 개정된 실업학교규정에 따라 관하 7개교의 학칙을 개정코자 여러 의견을 들었다. 그 결과 현재의 실업교육이 거의 전부 학과에만 편중되어 실습이 부족하다는 의견이다. 금후부터는 1주일 30시간의 학과시간을 갖고 되도록 오전중에 학과에, 오후에 실습에 전력을 경주할 계획이다.(1931.02.10.)

경기도에서는 농민독본을 발간하여 각 촌락농촌진흥회에 배부하여 농한기를 이용하여 문맹자를 위해 강습회를 개최했다. 다시 농가 일상 필요한 산술의 지식을 받고자 속수 산술서를 편집하여 8전으로 배포하기로 했다.(1934.01.13.)

경기도내에는 7,069개소의 농촌진흥회가 있고 이를 중심으로 문맹퇴치 또는 농촌계몽운동으로 농민독본을 중심 삼아 각군에서 일제히 겨울 농한기를 이용하여 야학회를 개최하고 있다. 그 수효가 모두 3,900개소 야학회원수는 73,676명이고, 이에 종사하는 교사수는 5,943인이다. 야학회원들의 연령을 보면 최고 57세를 필두로 최저는 6세 아동까지 있고, 여자회원은 12,500명이다. 군별로 보면 야학회수는 연천이 455개로 가장 많고, 회원수로는 안성이 7,573명으로 가장 많다.(1934.02.16.)

경기도 학무과에서는 2월 9일 도내 각 중등학교 교장을 전부 소집하여 교과서 변경에 따르는 국체 명칭의 관념을 강조할 것과 신학기 입학생 모집에 관한 사항을 주의시켰다. 교과서 개정은 신학기부터 수신교과서와 기타 2, 3종이 내용을 약간 달리해 가지고 변경케 된 바 여기에는 황국신민으로서의 국체명칭의 신념을 굳게 하지 않으면 안 될 요향이 들어 있으므로 이 신 교과서에 의해 생도들이 훈육에 유감이 없도록 하라는 것이다. 입학시험에서는 종래 필기에만 치중하던 것을 변경하여 체력에 의해서도 고사하도록 작년부터 실시해 왔는데, 금년에도 일층 이점을 더욱 치중하여 심신이 아울러 건전한 것을 요점으로 해서 학생을 모집하도록 주의를 주었다.(1938.02.10.)

4월 신학기를 맞이하여 도내 심상소학교의 교장과 시학의 정기 이동은 4월 1일부로 발령되었다. 전부 53명의 대량 이동이다.(1938.04.02.)

4월 1일부터 개정 조선교육령 실시에 따라 전 조선의 보통학교·고등보통학교·여자고등보통학교 등의 교명은 전부 소학교·중학교·고등여학교로 교명이 통일된다. 경기도 관내 초등학교 교명 통일은 대개 다음과 같다. 도내 공립보통학교 278교, 사립 보통학교 30교 중 공립 49개교, 사립 1개교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종전의 교명에 심상소학교라는 명칭만을 붙이게 되었다. 그리고 본래부터 있던 심상소학교와 명칭이 동일해지는 5개 심상소학교는 이름을 변경하게 되었다.(1938.04.02.)

경기도는 도에 있는 93개소 간이학교에 대해 2년간의 초등교육기간에 휴가를 길게 하면 실제 수업에 지장이 크며 따라서 비상시의 훈련상 철저히 못한 점이 없지 않다고 하여 각 학교 실정에 따라 휴가를 단축 혹은 폐지할 것을 각 학교에 통달하였다. 그에 따라 간이학교 선생의 근무 시간이 과다하게 될 것이므로 여기에는 공립 심상소학교 교원을 동원시켜 협력하도록 했다. 하기 휴가기간을 농촌간이학교는 8월 1일부터 15일간, 도시학교는 20일간으로 하여 휴가제도에도 비상시책을 드러내게 했다. 겨울방학과 연말휴가는 각각 15일과 5일 내지 6일로 단축케 했다.(1938.06.04.)

결전 제3년을 맞이하여 직업을 청소년의 교육에 받들고 있는 교육자들로 하여금 미영 격멸의 전의를 양양케 하여 장차 제일선으로 나아갈 제2국민의 준비교육에 또는 생산증강에 종사할 청소년의 연성에 적전 교육의 참된 사명을 달성하도록 경기도는 2월 12일부터 13일까지 이틀 동안 미영 격멸 전의 양양 경기도 교육자대회를 개최했다. 대회 제2일인 13일에는 오전 9시부터 부내 태평통 부민관 대강당에서 총독을 비롯하여 학무국장, 경기도지사와 대회 관계자 기타 중등학교 교직원 및 초등학교 직원 등 1천 7백여 명의 참석 아래 미영격멸 경기도 교육자 결의선양대회가 개최되었다. 총독은 “교육자 여러분은 자기 연성에 힘을 다하여 황국사관에 투철하고 국체의 본의를 명확히 인식하여 확고한 신념과 열렬한 성의를 가지고 직책에 당하여 교단에서 생도 아동을 이끌고 미영격멸의 제2전선을 전개하기를 바란다.”는 요지의 고사를 했다. <대동아전쟁 제3년 필행사항> 1. 교정 즉 전장의 정신을 양양하여 건민 강병의 육성에 매진함. 2. 생산의 확충, 과학의 진흥에 사봉(仕奉)하여 전력 증강에 정신(挺身)함. 3. 물자의 절약, 저축의 증승(增嵩)에 힘써 교하(校下)의 결전생활에 수범함.(1944.02.14.)

12. 문화, 문화제, 명승지

조선에 있는 명승지를 세간에 드러내어 정당히 평가하고, 그 아름다움을 상찬하기 위해 매일신보사는 전선명승지추천투표를 실시하여 총투표수가 130만을 돌파

했다. 1위와 2위는 각각 양덕온천(평남, 250,687표), 온양온천(2위, 240,585표)이다. 경기도에 있는 것으로는 박연폭포가 31,968표를 얻어 제11위에 올랐다.(1930.03.12.)

경기도 경찰부 보안과에서 18일부터 활동사진 변사시험을 시행했는데, 응모자는 15명이었다.(1930.03.20.)

경기도 경찰부 보안과에서는 18일부로 관내 각 경찰서장에 대해 활동사진 상설관이 아닌 공중 낙합(樂合)장소(백화점이나 교회당과 같은 곳)를 사용하여 활동사진의 영사를 신청해 오는 경우 절대로 허가하지 말 것, 또 특별히 허가할 경우에는 영사설비 방화(防火) 또는 피난 장소 등을 충분히 고쳐 조사 후에 하라는 뜻의 훈령을 엄중 시달렸다. 이는 지난번 진해 화재 참변을 거울삼아 만일의 사고를 미리 방지하기 위함이다. 또 관내 각 상설관의 건축 설비 및 영화기사의 신원 등을 일체 조사하기에 착수하였다.(1930.03.20.)

경기도 지방과에서는 이번에 새로 활동사진반을 조직했다. 이는 농촌의 증견청년을 양성하고, 농민의 문맹을 촉진 계몽하는 운동과 아울러 농촌의 쌍벽운동이다. 지난 번에 16밀리 영사기를 구매하였다. 여기에 사용할 필름은 현재 대형 32밀리인데, 다음달 초순경에는 지방과원이 여러 조로 나누어 각 군에 순회하며 영사회를 개최할 터이다.(1933.08.24.)

경기도에서는 큰 나무와 이름있는 나무 또는 역사적 관계가 있는 수목을 보호목으로 하고자 3월에 도령으로써 채별 제한을 했다. 도 당국에서는 이에 대한 거수 명목을 조사하여 대체 조사를 마쳤다. 총계 1,096본을 지정하였다. 300년부터 550년 된 괴목나무가 669본, 천년 이상된 은행나무가 215본, 300년부터 500년 된 해나무가 41본, 200년 이상된 적송이 171본. 이중 가장 큰 것으로 양주군 진접면 내각리에 있는 은행나무가 수령 540년, 나무 주위 50척, 높이 11칸이다.(1933.10.26.)

경기도에서 농촌의 진흥 기분과 오락을 위해 활동사진반을 순회시켰다. 5일부터 9일까지 가평군 5개소, 연천군 6개소에서 영사한다.(1936.07.05.)

대중 생활에 가장 관계가 깊고 인연이 많은 오락에서 제일 접촉이 많은 것은 영화와 연극이다. 최근에 이르러 도시를 중심으로 이것의 발전은 초고속도로적으로 진전되고 있다. 경기도 보안과에서 오락 흥행장과 흥업물에 대한 취체규칙을 개정하고자 심의 중에 있다. 현재 규정은 1924년에 제정한 것으로 대수정을 가하여 경기도 안 경성 10여 처의 상설 영화관과 극장을 비롯해 인천 3곳, 개성 2곳, 수

원과 안성에 각 1곳이 있으므로 이 각처 흥행장에 적용할 방침이다. 개정될 내용은 무엇보다도 위생적인 데에 치중하여 환기, 한냉에 특별한 시설, 입장자의 정원 제한에 크게 유의하여 유감이 없도록 하는 것이다. 경성 상설관에 특별히 근로계급을 위해 조조와 심야 흥행도 허가할 방침이다.(1937.01.14.)

경기도는 2월 9일 각 군으로 군청, 면사무소, 공립초등학교 등에 라디오 설비 유무를 조사하는 통첩을 발했다. 이것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에는 빠짐없이 전부 신설하도록 예산도 세운다.(1938.02.10.)

‘움직이는 무대’ 매일신보 교화선전대는 5월 20일부터 파주읍 등 경기도내 9곳에서 29일까지 순회 공연한다. 김탁운의 ‘화랑도’란 야담, 조하소의 군사 강담 ‘이 어머니 이 아들’, 주성택·김영애의 대화 만담, 마키야마·이영자의 노래 등을 공연한다.(1945.05.13.)

13. 식생활

1929년 1년간 경기도내 16목장에서 공급된 우유량은 약 3천석이다. 5월부터 10월까지의 6개월이 착취량이 많은 것은 목초의 영양가가 풍부해지는 관계일 것이다. 평균 1흡의 가격은 도매 6전, 산매 9전 8리이다. 제일 많이 소비되는 곳은 병원, 호텔 식당 등이다. 양유 목장도 두어곳 있으나 값이 비싸 연간 착취량이 80석이다.(1930.01.09.)

경기도내 각 군 생산 미곡이 경성·인천 부내로 들어오는 데 문제가 있다. 경기도는 6월 1일 산업부장 명의로 각 군수에게 통첩을 띄웠다. 특히 현재 식량상태에 유의하여 군 조작미는 잡곡의 혼식 강화와 아울러 최저수량에 그치도록 하고, 금후 매부 수량을 감안하여 출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1942.06.05.)

국민총력 경기도연맹은 9월 중의 총력운동 실천협약사항으로 다음 두 가지를 도연맹 이사장 명의로 각 부군연맹 이사장에 발첩하여 일반 애국반원의 주지 철저와 실천의 효과를 충분히 거양하도록 했다. -식물(食物)을 소중히 절약합시다: 전쟁을 이겨내자면 국민의 한 사람 한 사람이 쌀을 비롯하여 모든 식물을 소중히 하여 조금이라도 헛되이 함과 같은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은 절대로 필요하다. 지금은 식물에 대하여 호불호, 미미(美味)하다거나 맛이 없다거나 불평을 말하지 말라. 절식·혼식·대용식·기타 잘 씹어 먹을 것 등을 생각해 내면 식량 절약의 방법

은 얼마든지 있다. 좋다고 생각하는 일이라면 이를 잘 실행하자. 그리하여 전시 하 중요한 식량문제를 지금보다 더 훌륭하게 해결해 나가자. -한수해를 극복하여 훌륭한 성적을 내자: 지금은 쌀을 비롯하여 각종 작물의 가을 수확을 앞두고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방심 말고 한층 증산에 노력하고 논의 월동 밭작물의 재배 기타(其他)에 대해서도 지금부터 준비를 게을리 말고 훌륭한 성적을 올리도록 힘 쓰자.(1942.09.02.)

14. 의생활

경기도 관내 28개소의 보통학교 졸업생 지도학교의 600여명 생도들은 금년같이 조선 농촌경제가 고갈된 때에 고무신 한 켤레에 5,60전 내지 1원을 소비하는 것은 가난한 조선의 돈을 외국사람에게 내버리는 것이라 하여 일제히 자기들의 손으로 다시 짚신을 만들어 신기로 하고 은연중 고무신 배척운동을 일으켜 목하 전 동리에 그것을 선전 중으로 부근 보통학교 아동들은 점차 고무신 대신에 짚신을 애용하는 경향이 짙어가는 중이다. 이에 대해 경기도 학무과 당국자는 “자급자족의 정신은 무엇보다도 필요 긴절한 일인줄 압니다. 연고로 학무과에서도 장래에는 특히 그러한 방면에 전력을 다하여 일반 아동들을 교화코자 합니다.” 운운.(1930.12.22.)

조선에서는 1919년 이래 고무신의 수용이 격증하여 경기도에도 농촌경제의 타격이 크므로 도당국에서는 농촌경제의 자급자족정신으로 보아 종래와 같이 짚신을 신는 것이 유리하므로 짚신 애용운동을 일으키기로 하고 우선 관하 보통학교 지도교 생도 1천여명으로부터 실행케 했다. 그 결과 도내 고무신 배척운동과 짚신의 애용열이 크게 일어나는 중이다.(1931.03.03.)

경기도 최근 조사(경성부 제외) 실적을 보면, 결발한 남자수 9,242명, 그중 인천, 여주, 이천은 한 사람의 결발자가 없었다. 성적불량한 곳은 김포로 1천명에 대하여 25퍼센트이고, 진위군은 24퍼센트의 결발자가 있다. 색복은 백의 상용자가 16만 6,282명으로 그중 성적 우량한 곳은 여주, 시흥, 김포인데, 1천명에 대하여 2~3명이다. 성적이 낮은 군은 부천군 1천명의 25퍼센트, 고양군 28퍼센트의 백의자가 있는 상태이다.(1935.05.17.)

15. 위생

1929년 1년중 경기도 관내에서 발생한 전염병 발생수는 3,113건으로 1928년에 비하면 1,925건의 감소를 보았으나 과거 5년간의 평균수 3,116건에 비하면 그리 적은 수가 아니며 그중 장티푸스 956건이고, 예년에 없던 콜레라도 18건이다.(1930.01.10.)

1930년 벽두부터 발진티푸스 환자가 다수 발생하여 군 지역에 50명인데, 중심은 개성, 장단 2군이고, 포천, 양주의 양 군도 상당한 수에 달한다. 도 위생과장은 이(蠱)를 없애는 것이 제일 상책이라 한다.(1930.01.21.)

경기도 경찰부 위생과에서 염병 예방을 위해 음료수 주의가 첩경이라 하여 관내 산재한 약 2,000여 처의 우물의 수질검사를 했다. 또 시내 각 상점에 있는 청량음료의 조사를 개시했다. 그 결과 수질이 불량한 우물에 대해서는 절대 먹지 못하게 할 터이고, 너무 오래되어 부패한 청량음료는 즉시 철폐를 명령할 터이다.(1930.06.15.)

1월 이후 전염병 환자 누계가 1,150명 중 현재 환자가 233명이다. 그중 이질 280명(현재 87명), 장티푸스 290명(현재 106명)이다.(1930.08.27.)

경기도에서 4일부터 7일까지는 방역주간으로 정하고 예방약 등을 할인 판매하게 하고 전 시가를 들어 방역에 노력할 것이다.(1935.07.04.)

경기도 위생과에서 관내 각서에 명하여 1면에 1개소씩 위생부락을 설정하기로 되었다. 이 부락은 각 서에서 지정한 위생부락을 다시 조사해 그중 우수한 것에 대해 경기도지사로부터 모범부락이라는 지정 표창과 상품 수여를 내년 3월에 하기로 했다.(1935.07.13.)

경기도경찰부에서 모범위생부락에 대한 지도세목과 실현사항 등을 완성하고 17조에 걸친 규정의 성안을 보았다. 3일부로 도내 각 경찰서에 통첩하여 230개 면에서 일제히 모범위생부락을 건설한다.(1935.08.04.)

빈대, 쥐, 벼룩 같은 것은 직접, 간접으로 장티푸스와 이질 등의 전염병을 전파하는 것이다. 경기도 경찰부 위생과에서는 도내 각 경찰서에 통첩을 발하였는데, 일반 가정에서도 한층 주의하여야 할 것이다.(1935.10.09.)

경기도 위생과에서는 도내 각 동에 대해 우물 및 변소 개량과 오수 및 비료류(肥料溜)와 축사의 요류(尿溜) 등속을 설치 장려하는 외에 공동욕장과 공동세탁소

를 설치하도록 지도 노력하여 농촌진흥운동과 병행선으로 매진하여 자력갱생운동의 측면 조장을 꾀하기로 되어 작년부터 위생 모범부락을 지정한 곳이 250동리이다. 작년 10월말 현재 공동욕장을 실시한 것이 337개동이고, 그 비용은 최고 250원부터 최저 6원까지로 대부분은 유지의 기부로 되어 일반 민가에서는 부역만으로 능히 시설하는 터이다. 금후 5개년 이내로 경기도내 각 군에는 보편화된 다.(1936.01.15.)

경기도 3부(경성·인천·개성)의 변소 상황에 대해 경기도 경찰부 위생과에서 조사했다. 15만 4,349호 중 2만 559호가 변소가 없다. 변소 없는 가옥은 이웃집 공동변소를 사용하는 모양이다. 그중 부근에 공동변소 설비도 없는 가옥도 많다. 이들은 대부분 거리에 함부로 대소변을 보는 사람으로 볼 수 밖에 없는 것으로 문화인으로 수치한 바이다.(1936.11.20.)

위생조합은 임의로 조직한 것인데, 법적으로 봐서는 하등 효력을 갖지 못한 것이다. 경기도 당국에서는 이것을 통제 강화하기 위하여 새로 위생조합규칙을 제정하려고 입안 중이다. 금후 위생조합은 부윤이 직접 감독 지도하고 조합장과 역원도 부윤이 임명하기로 한 것이다.(1937.08.01.)

전례 없는 유행성 감기로 경성 70만 부민의 보건 위생진을 교란하고 있어 그 치료와 예방제를 얻으려고 한약방을 찾아간 사람도 수만명을 헤아린다는 것은 각 경찰서의 보고에 의해 확실하다. 그러나 한약국에는 건재의 부족으로 감기약 한첩에 20전 내지 30전을 보통으로 받아 복용하는 사람들을 괴롭게 한다. 그 원인은 전쟁으로 북중국 방면으로부터 한약재 수입이 두절되었기 때문이다. 경기도에만 북중국으로부터 들여오는 약재는 1년에 120만원 어치 이상이다. 전쟁으로 공급이 두절되어 경기도 위생과원과 제국대학 약물학교실은 고심 연구를 하고 있다. 그리하여 경기도는 개성에 1935년 3만원의 거액을 들여 약용식물연구소를 신설하여 현재 3만여 평의 포지(圃地)에 600여 종의 약용식물을 시험 연구 중이다.(1938.03.04.)

값싼 청량음료는 여름철 보건 위생상 단속하지 않으면 안되지만 성문(成文)으로 되어 있지 않아 엄중히 단속하지 못했다. 이번 경기도 위생과에서 병과자영업취체 규칙을 제정하여 7월 10일 도보로써 발표했다. 그 요령은 다음과 같다. 1. 영업자와 종업자는 결핵과 기타 전염병의 질병이 없는 증명서를 가져야 할 것, 2. 제조기와 행상기는 경찰서장의 검인을 받을 것, 3. 제조장의 설비는 무엇이든 위생 제일주의로 할 것. 앞으로 병과자 행상 단속도 만전을 기하게 되었

다.(1938.07.10.)

경기도회에서 도 위생과장이 결핵 예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했다. 먼저 필요한 것은 그 예방에 대한 지식이므로 앞으로는 그 보급을 위해 순회 강연 및 전람회를 개최할 터인데, 결핵 예방에 주력하고자 1년 2만여 명의 접객업자를 검사할 터이고, 유우(乳牛) 결핵 퇴치에도 노력할 터이다. 그리고 도립의 결핵 요양소 신설에 앞서 이번에 신설되는 적십자병원 요양소를 많이 이용하도록 하겠다.(1939.03.05.)

“장기 건설은 건강으로부터”라는 모토로 경기도 위생과는 지난번 경기도 관내 공의를 소집하여, 도 당국의 방침을 인식케 하고 신년도를 기하여 전염병을 없애기에 전력을 다하게 되었다. 작년 중 경기도내에서 발생한 전염병은 이질 1,425명을 비롯하여 합계 3,372명에 달해 전년에 비해 1할 5푼의 증가 현상이다. 또 이미 어업자 1만 5천 명에게 콜레라 예방주사를 실시하고 있고, 4월 중에는 40인 이상의 단체 10만 명에게 장티푸스 예방주사를 실시하고, 5월에는 다시 일반도민 50만 명에게 장티푸스 주사를 실시한다. 그리고 위생 사상의 보급을 위해 포스터 1만 5천 장, 삐라 10만 장을 배부했다. 이번에 새로 종이 연극도 등장시켜 신년도부터 이 종이 연극반을 각 군에 보낼 터이다.(1939.03.22.)

경기도 경찰부는 도내 각 경찰서를 동원시켜 오는 6월경의 이질 시즌을 맞아 방역진을 강화하도록 철저한 주의를 발하였다. 이번에는 예방에 필요한 내복약을 장려하기로 했다. 이 내복약은 복용한 지 2개월 후에 효력이 나므로 요새 먹어두면 6월부터 시작되는 이질 유행에 효과가 있을 것이므로 이번 각 경찰서로 이것을 장려한 것이며, 특히 일본인과 유소년에게 이병률(罹病率)이 높으므로 이것을 널리 복용하도록 하였다.(1939.04.07.)

건민운동주관을 맞이하여 경기도는 총력연맹 도지부, 도사회사업협회, 결핵예방협회 도지부 등과 협력하여 적극적 건민운동을 전개시키고자 그간 수차에 걸쳐 관계자의 협의회를 개최하고 구체적 실시방침을 토의하여 오던 중 4월 14일 도청에서 개최된 마지막 협의회에서 그 자세한 방침이 결정되었다. 제1일은 건민정신 양양일, 제2일은 결핵예방일, 제3일은 체력연성일, 제4일은 성병예방일, 제5일은 모성 유유아 보호일, 제6일은 근시 우치 예방일, 제7일은 환경위생 개선일, 제8일은 대조 봉대일로 결정하고 날마다 그 항목을 중심으로 하여 현수막 선전물 등을 이용하여 그날그날의 취지를 철저히 인식시키고, 좌담회 영화회 강연회 등을 개최하고 그 외의 다채스런 행사를 실시하여 이 운동을 활발히 전개키로 했

다.(1942.04.16.)

경기도는 징병제 실시를 앞두고 반도 청장년의 체력 향상과 건민운동에 박차를 가하고자 관하 남자 중등학교와 국민학교 상급생도들의 건강상태를 조사하고 청소년 및 학생 생도의 체질을 여러 각도에서 연구 대책을 세웠다. 도 위생과는 1941년 봄부터 3년간 계획으로 청소년 학도들의 체력 검진에서 앞으로 단련 보건 양호의 세 항목에 적용될 귀중한 실험적 자료를 수집해 왔다. 이 결과에 의해 특히 결핵 예방에 대한 처치에 대응코자 관하 몇 학교를 상대로 집단 검진을 실시했다. 여기서 나타난 상황이 현재 청소년 체질의 표준이 될 항목으로 구분한 결과는 2월 중순 경에는 나타날 것으로 보이나 이 결과에 의해 검진 가호의 방법을 시험하리라고 한다. 이 세 항목은 단련을 꾀할 체력, 보호해야 할 체력, 휴양을 요할 체력인데, 이것을 중심으로 집단적 검진이 주요한 방법이 되어 있는 것이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기본 검진 후에는 이병(罹病)의 의심이 있는 자, 의심이 없는 자를 구분하고 적당한 치료에 손을 대어 학리적인 검사와 치료를 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다. 그 방법으로는 매년 춘추동 검사를 하고, 거기서 판정된 자를 추려 이학적 검사 등에 의해 건강체와 의심있는 체질을 구분하고, 기본 검진에서 계속 검진으로 단계적인 발전을 하기로 되는 순로이다. 그리고 임시검진은 자각적인 증상을 인정할 때, 과격한 단련을 할 때, 가족 중에 환자가 생길 때, 그 외 필요를 인정할 때 검진하여 주는 것이다.(1943.01.21.)

16. 날씨, 재해, 이재민

경기도 파주군 봉일천리 일대는 수해로 4개 동리의 침수와 유실된 가옥이 240여호, 피해 900여명은 침식과 기거의 미비로 설사와 감기 등의 악질에 신음하는 환자가 속출했다. 12일 오전 2시 10분 경부터 다시 비가 내려 경기지방에는 처처에 수해가 있게 되었다. 안성군의 안성천은 수위가 11척을 돌파하여 서정리 평택간 침수가 4척 남짓에 달한다, 경부선 불통으로 남행열차는 수원까지, 북행열차는 오산까지 운전 중이다. (1930.07.13.)

여주 침수 가옥이 154호, 전궤(全潰) 가옥 4호, 반궤 가옥 4호, 이재민 660인, 익사 1명, 부상 1명, 교량 유실 48개소, 전답 침수 980정보, 유실 80정보, 매몰 20정보. 양평 익사 2명, 부상 3명, 표착 사체 2명, 유실 가옥 13호, 침수 400호,

도케 30호, 교량 유실 8개소, 전주 도케 1개, 전답 피해 전반에 걸쳐 막대하다. 경기도 보안과 조사에 따라 7월 초순부터 16일까지 장마 피해는 사망 16명, 행방불명 3명, 유실 가옥 44호, 전케 가옥 444호, 침수 가옥 3,489호, 그중 심한 곳이 고양, 안성, 양평이다. 파주 봉일천리 농작물 피해 52만 7천원이다. 토지 유실 39만 6천원, 공작물(제방, 도로) 8만 9천원, 농작물 5만 2천원. 피해 호수 470호이다.(1930.07.18.)

11일 이래 호우로 인한 경기도내 피해는 다음과 같다. 평택군 부용면 평택교는 7칸 반이 파괴, 양평군 양서면 양수리 북한강 도선장은 30~40미터 증수되어 교통이 두절되어 승객은 배로 연락을 취한다. 포천군 영중면 영중교 위에는 증수 1척에 달하고 주재소 뒷산의 물로 침수가옥이 7호, 이천군 구법면 양산리 1등도로 가교공사의 도로가 파괴되고 이천-수원간 교통 두절, 이천군 청의면 송산리의 이천-장호원간 1등도로의 가설한 다리가 유실되어 교통이 두절되었다.(1931.08.13.)

18일부터 폭우가 내려 19일 임진강이 증수하여 20척의 수위에 이르렀다. 양안에 범람하여 연천 장파리와 파주 장단 대안에 침수되어 농작물의 피해가 막대하다. 파주 임진수리조합구역 사로리 제방이 결궤(決潰)되어 2,000여 평의 논이 침수되었고, 3천여 원의 피해가 있으며 문산평야도 니해(泥海)화하였다.(1932.07.21.)

충남 이재민 중 강경, 논산, 부여 등지 46호를 경기도에 이주시키기로 했다. 28일 밤에 각각 이재지를 출발하여 29일 오전 7시 45분 경성역착 열차로 도착 예정이다. 인구수는 227명으로 그중 노동을 할 수 있는 장년이 140명, 소년 62명, 젖먹이 어린이 25명이다. 국고로 매호 150원씩을 지출하여 여비와 생활비에 충당하도록 하고 매호에 1정 5단보씨의 농토를 주기로 되었다. 경기도 농무과에서 다음과 같이 배치하기로 하고 각 군수에게 22일 공문을 발송했다. 개풍군 21호, 부천군 10호, 포천군 15호.(1934.11.23.)

17. 학생과 체육

1) 학생

학생소요사건으로 인해 퇴학처분을 받은 경기도 관내 19개 학교의 퇴학생수는 232명이다.(1930.03.29.)

2) 체육

학교 입학시험에 금년부터는 학술시험에만 치중하지 않고 체격검사에도 중점을 두기로 하였다는 것이 학무당국의 방침이다. 경기도 위생과에서는 체격검사에 대해 2일 부내의 각 보통학교 교의를 소집하여 여러 가지 구체적 방침을 지시했다. 입학시험을 앞두고 조바심치는 어린 가슴을 의학적으로 안정시키는 데 힘을 것과 체격검사에도 중요한 채점을 하는 만큼 각별히 엄중한 태도로 검사할 것을 지시했다. 1년에 1~2번에 그치는 각 학교 아동들의 체격검사는 될 수 있는 대로 자주하여 발육상태와 아울러 위생사상 보급에 힘쓰며 특히 보건에 대해 각 가정과 협력하여 먼저 건전한 육체의 그릇을 만들어 놓고 <1줄 판독 불명> (지식을 담도록 할 것-인용자 추정) 등 많은 지시 사항이 있었다.(1937.02.04.)

얼마 전 경기도 학무과는 초중등 교원들의 신체검사규정을 제정하여 매년 4월에 체격검사를 하여 제2세 국민체육 향상에 관계가 깊은 교직원들의 건강에 유의하기로 했다. 이번에 다시 청년단원들의 신체검사도 행하기로 결정했다. 청년들의 체위 향상과 체격 증진은 그것이 곧 그 사회의 향상을 의미하는 중대한 관계가 있으므로 청년단의 신체검사를 하여 체위향상 조사자료를 만들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경기도 내무부장의 이름으로 각 부군에 발첩하여 현재 기성단체로 되어 있는 청년단원으로 2월 중에 일제히 시행하도록 했다. 청년단원은 일선인을 막론하고 검사를 할 것과 3월 중에는 각각 검사한 자료를 도에 보고하도록 지시했다.(1938.01.15.)

건민 건병의 기운찬 호령에 맞춰서 철과 같은 튼튼한 몸으로 일억 일십 성전 완수의 일로를 매진케 하기 위하여 경기도체육진흥회 개성부체육진흥회, 개풍, 장단, 파주의 각 군 체육진흥회의 공동주최로 제20회 조선신궁, 제1회 개성신사의 군민 연성대회를 10월 22일 개성부 송도중학교 육상경기장에서 개최한다. 당

일의 연성 종목은 육상경기, 체력장경기로 하며 전장(戰場) 운동, 항공으로 글라이더 훈련 상황의 공개, 총검도, 검도, 기도(騎道), 나기나다(薙刀), 방공으로 주수경기, 구호(救護), 여자청년체조, 집단음악체조, 수기(手旗) 신호경기, 후생체조, 산업체조 등이다.(1944.10.17.)

18. 군인과 경찰

1) 군인

10월 3일부터 8일까지 군인원호강화운동이 전개된다. 경기도는 이 기간 중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각 군읍면에서 실시하기 하였다. 1.척어봉독식의 여행: 관공서 학교 단체 회사 공장 등에서는 10월 3일 군인원호에 관한 척어봉독식을 거행한다. 2.군인원호에 관한 황실의 인자를 널리 전국민에게 알려 군인원호의 실천의 중요성을 자각시키도록 방도를 강구할 것, 3.본운동을 단순히 총후의 운동에 그치게 하지 말고 황군 장병에 대해 총후 국민의 감사의 생각을 전선에 통하게 하도록 노력할 것, 4.관공서에서는 그 소속 장은 척어봉독식과 아울러 훈화 강연 등을 하여 소속 직원에 대하여 이 취지의 철저를 꾀함고 동시에 구체적 실천 항목을 결정하여 숙선 수범에 노력한다. 5.군인원호사업은 민간 군인 원호단체의 적극적 활동과 아울러 국민의 열성있는 지원 협력에 의해 그 완벽을 기할 수 있으므로 이 운동을 국민 각층의 생활에 침윤 철저시키도록 특히 은사재단 군인원호회 부군분회 국민총력연맹 애국반 등의 조직을 충분히 활용하여 참으로 거국적 운동이 되도록 유의한다. 6.청소년층에 대해서는 특히 이 운동의 취지를 철저케 하여 순진한 감격을 군인과 유가족의 위자 위문 격려에 피력하도록 방도를 강구하여 각 학교 등에서는 학생 생도 아동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군인원호정신을 함양 진기(振起)시키고 동시에 군인 유가족의 가정에 대해서 자진하여 근로봉사를 시키는 등 실천적 훈련을 통하여 이 취지의 철저를 꾀하도록 고려할 것, 7.군사공로자 선행자 또는 군사원호에 관한 독행자의 표창 등의 행사는 될 수 있는대로 이 주간 중에 실시할 것. 보급방법 1.군인원호 강화에 관한 취지 보급 선전의 팜플렛과 포스

터 등을 제작하여 관계방면에 배부할 것, 2.총독부에서는 포스터의 작제 배부, 라디오 방송 외에 정무총감(은사재단 군인원호회 조선본부장)의 ‘군인원호에 관한 구연’을 기록한 영화를 작제하여 도에 배부할 것이다. 3.각 군에서는 국민총력연맹과 군인원호회분회의 공동주최로 적의한 강연회, 영화회 등을 개최한다.(1942.10.03.)

2) 경찰

경기도 경찰부에서는 10일 오전 8시부터 경기도 순사교습소에서 조선인 순사 임시채용 시험을 거행한다. 이는 근래 계속 발생하는 여러 가지 시국문제로 점차 순사의 손이 부족하게 되므로 조선인 경관 증원을 하게 된 것이다. 모집자격은 보통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어야 한다.(1931.10.06.)

19. 선전과 훈련

1) 선전

12월 1일은 전국적 방화데일로 조선에서는 금년 처음으로 실시하게 되었다. 전선 각처에서 이날 방화에 대한 선전을 실행할 것인바 경기도에도 이날 전도를 통해 방화 선전을 할 것이다.(1936.11.21.)

2) 방공 훈련

300만 경기도민으로 하여금 비상시국 아래 철저한 방공 지식을 알리기 위해 6월 3일부터 3일간 방공훈련을 실시했다. 방공감시통신, 경보전달, 등화관제 등을 훈련한 것이다. 방공감시대원의 기민한 활동과 가정방호조합원과 경방단 등의 경

보 전달에 신속 등 해륙 쌍방으로 펼쳐진 경제 관제에 만전을 다하였다.(1940.06.05.)

20. 경제와 교통

1) 경제

지난 9월 출생한 경기도 산업경제계의 새로운 개척자, 경기도 산업조사위원회는 창설 이래 4개월간 여러 가지 분과적 활동을 개시하여 12월 6일 제2회 전원 위원총회에 이것을 부의하여 내년도부터 대부흥을 위한 진군을 하게 되었다. 23대 항목에 걸친 긴급한 시설안을 채택하였고, 총독부에 대한 12개 항목의 긴급시설을 건의하기로 했다.(1937.12.07.)

2) 세금

1929년도 경기도 관내 지세 및 지세부가세 총액은 도시 33만원, 농촌 187만원이다. 납세기한인 12월 말일까지 도시 5천원이 미납되었을 분 그 외는 전부 완납되었다. 그 원인은 작년중 곡물 매매가 좋았던 관계이고 도시는 불경기이지만, 종전 4월 기한을 농촌과 같이 12월로 변경한 것이 성공한 것으로 관측된다.(1930.01.08.)

1934년 하반기 개인소득세 총액은 277만 2,289원인데, 경기도는 103만 793원이다. 조선인 2천만으로 잡으면 1인당 평균 7전 4리이고, 일본인 50만으로 잡으면 1인당 25원 50전 5리이다.(1935.05.25.)

경성세무감독국은 명치절을 맞아 납세공로자를 표창하고자 관내 읍면장, 부읍면 직원, 국민총력정부락연맹 이사장, 납세조합 간부 등 항상 납세성적의 향상에 노력하여 타의 모범이 될만한 자를 조사중이었다. 요즘 그 전형을 마쳐 면장 31명, 부읍면 서기 20명, 국민총력총락연맹 이사장 19명, 납세조합장 5명을 표창하기로

결정하여 관내 세무서장이 표창장과 상품 전달식을 거행하기로 했다. 경기: 고양군 원당면 서기, 고양군 원당면 우이리 구장, 부천군 소래면 면장, 김포군 양서면 면장, 수원군 매송면 면장, 수원군 봉담면 면장, 안성군 일죽면 면장, 평택군 오성면 면장, 광주군 광주면 면장, 용인군 모현면 매산리 국민총력부락연맹 이사장, 양평군 양평면 서기, 이천군 부발면 면장, 여주군 흥천면 상대리 국민총력부락연맹 이사장, 파주군 탄현면 면장, 장단군 강상면 면장, 개풍군 봉래면 서기, 양주군 구리면 면장, 연천군 서남면 면장, 포천군 영중면 면장, 가평군 가평면 서기.(1941.11.02.)

3) 교통

경기도 보안과 주최 경성부내 교통안전데이를 4월 11일로 결정하고 여러 방법을 실시하기로 했다.(1931.03.30.)

경기도에서는 인천상공회의소에 경인간 1등 도로 개량에 의해 초래될 각 방면의 영향 등에 관한 조사를 위촉하고, 또 토목기수를 파송하여 기초조사를 행했다. 도로 개량 계획은 1933년도 지방비 100만원(국비 보조 포함)의 공사비를 계상하여 영등포-인천간 현 도로의 폭(6칸)을 11미터로 확장하되 경사급한 언덕과 곡선을 정리하고 중앙에 3미터 폭의 콘크리트 포장 차도를 특설할 것이다.(1932.06.05.)

연료 국책적 견지에서 가솔린 절약을 목표로 상공성에서 목탄 자동차를 적극 장려하고 있다. 경기도는 이에 순응하고자 타도에 솔선하여 목탄 자동차 7대를 상공성에 주문 중이다. 이것이 도착하면 경기도 관내 각 트럭회사에 배급하여 시험적으로 사용케 할 방침이다.(1938.03.01.)

4월 10일부터 경기도는 교통안전 주간을 실시하여 경찰부장은 다음과 같은 담화를 발표했다. “최근 자동차의 보급 발달에 따라 교통사고가 비상이 증가하여 매일 신문에 교통사고의 보도가 없는 날이 없는 상태이다. (중략) 이 주간 중은 도내 각 경찰서를 총동원하여 교통 사상의 계발 보급 및 일반의 교통 훈련을 행하기로 되었다. (후략)”(1939.04.09.)

4) 연료

경기도에서 매년 산출하는 목탄 5백만관의 통제와 품질 향상을 목적으로 작년 6월에 도령으로써 목탄검사규칙을 제정하여 실시한 결과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 다시 이것의 이상화를 위해 금년에는 목탄조합 35개 중 20개소에 선별 보관 목적으로 간이목탄창고를 설치하기로 하고 그 경비에는 보조까지 계상하게 되었는데, 그 구체안은 불원간 완성된다.(1934.03.21.)

경기도 제탄조합에서 금년 수요기 이래 5만 표(俵)를 매진하여 생산이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 현상으로 보아 예정 10만 표를 돌파할 것으로 관측된다.(1935.12.22.)

21. 투표

5월 21일 시행된 지방자치 선거 실시 후 최초의 총선거에 대해 경기도 관하 각군의 선거율은 최고 9할 9푼에 달하고, 최하도 7할 이상이다. 각면 선거율은 다음과 같다. 고양군 91, 양평군 82, 광주군 73, 여주군 88, 연천군 80, 용인군 88, 포천군 87, 가평군 92, 진위군 90, 수원군 91, 강화군 85, 시흥군 89, 파주군 95, 부천군 86, 장단군 90, 김포군 91, 개풍군 88.(1931.05.28.)

2부 지역 분류

1. 가평

1) 농업

가평군의 대두는 우량한 성가(聲價)를 가지고 있어 군농회는 수원군의 의뢰를 받아 12월 12일에 하면 현리의 장날을 이용하여 대두 공동판매를 개시했다. 1, 2등의 우량종이 40여 석이고, 3등이 40여 석이다. 우량종은 종자용으로 수원군으로 진출을 보게 되고, 나머지는 경성 시장으로 출회하게 되었다. 석당 가격은 최고 21원대이다.(1938.12.16.)

2) 상업

가평군 상업 사봉대(仕奉隊) 결성식.(1944.04.01.)

3) 노동자

가평군 청평천 창천에서 우물을 개수하다가 전남 광주에 본적을 둔 김원귀가 일을 하던 중 1월 4일 오후 2시경 쌓던 담이 돌연히 무너져 중상을 입었다.(1940.01.13.)

4) 부업

가평군 북면은 제탄지로 유명하여 그 면에서는 일반 농가 부업으로 탄표 제조가 유리하다. 금년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 간에 7만 매를 목표로 직원들이 적극 지도 중이다.(1939.01.24.)

5) 여성

2월 24일 가평 명륜학교 강당에서 가평면 내 여자 졸업생 33명이 집합하여 여자청년단을 조직했다. 시국 하 여자의 임무를 다하고 충후 보국에 힘쓰기 위해서이며, 지도 중심은 학교 당국으로 정신 수양과 생업 보국을 철저히 지도한다.(1940.03.05.)

6) 청년, 청년대

가평군은 남녀 청년단을 조직하여 운영해 왔는데, 전조선 일제히 청년대로 개편함에 따라 외서면에서는 4월 25일 청평국민학교 교정에서 남녀 청년대 결성식을 거행했다.(1941.05.02.)

대동아신질서 건설군인 청년훈련소생의 교육방침을 성전체제하 한층 쇄신 축진을 기하고자 4월 28일 오후 군학교비 주최, 군내 각 학교 후원으로 경기도 시학(유전)을 강사로 초빙하여 군내 청년훈련소 및 5~6년생의 후진부대 약 150명을 가평 명륜국민학교 강당에 소집시켜 장시간에 걸쳐 청년훈련교육의 진수를 주입시켰다.(1942.05.03.)

7) 지원병

중일전쟁에 무훈을 세우고 돌아온 경기도 출신 지원병 4명이 1월 25일 현리, 청평천, 가평읍내에서 순회 강연을 했다. 관내 지원병 후보생과 기타 청년 유지는 만원의 대성황을 이루었다.(1940.02.06.)

8) 동원

가평군은 10월 28일 한구(漢口) 함락 축하식과 봉고제(奉告祭)를 거행하고 기행렬과 제등행렬이 있었다.(1938.11.01.)

가평면연맹 이사회는 매월 월례 행사 애국일인 9월 1일 각 관공서 직원과 국방부인회, 청년단, 기타를 가평신사에 집합하여 식을 거행했다. 이 애국일에는 인고단련을 굳게 지키기 위해 조식(粗食), 절주, 절연(節煙)을 철저히 실행 중이다.(1939.09.05.)

10월 28일 국민총력가평군연맹 결성식이 거행되었다. 29일에는 각 읍면에서 읍면연맹을 결성하였다.(1940.11.01.)

가평 명륜공립국민학교 제4~6학년생 일동은 4월 10일부터 26일까지 각각 3일간 강동묘포 가평지포에 출동하여 식부작업에 종사했다. 총연인원수 2천 명이고, 식부 본수는 600만 본이며 작업 면적은 4정보로 성묘 후 생산 예상본수는 약 400만본을 개산(概算)하여 약 2천 정보에 조림을 할 수 있는데, 20년 후 목재생산 재적(材積)은 30만 본을 계상하고 금액으로 환산하면 4천만 원이 된다.(1944.05.06.)

9) 헌납

가평군 읍내로 이사하여 농장을 경영하는 박기효의 부인(장달막)은 백금제 장신구 3개와 다이아몬드 8개를 가지고 와서 헌납했는데, 1939년에도 금제품 장신구 70점을 총독부 학무국에 헌납하고, 은전(銀錢) 105원, 황동제품, 청동, 철제품 등 수십 점(1943년), 은제품, 백금제춤, 황동제품 수십 점(1944년)을 경성 해군무관부에 헌납한 일이 있다. 가평 군수 부인도 백금제 장신구 1개를 헌납했다.(1945.02.11.)

10) 교육

가평군 외서면 청평공립심상소학교 부설 입석간이학교는 면내 청평소학교에 통학구가 되지 못하는 입석·외방·내방 3개리와 양주군 진접면 수산리와 합동하여 1935년 4월에 간이학교를 설립하여 현재까지 취학해 왔다. 매년 증가되는 인구와 학령아동은 현재 간이학교만으로써 충분치 못하므로 일반은 지난 4월에 유지일반 100여 명이 집합하여 소학교 승격 기성회를 조직했다. 당시 회사금이 4천여 원에 달한다.(1939.07.02.)

국민학교제도 실시에 따라 새로 무도(武道)가 정과(正科)로 설치되어 심신을 단련, 무도의 정신을 체득시키기 위해 남아에게는 검도·유도를 과(課)하고, 여아에는 치도(薙刀)를 과하게 됨에 따라 지도의 임에 당하고 있는 교원으로 하여 미지한 점이 있을까 하여 가평군교육회에서는 경성사범학교 검도·유도·치도 강사를 초빙하여 가평국민학교 대강당에서 강습회를 개최했다. (1942.03.04.)

11) 가마니

가평군 외서면 주최로 2월 27일 청평리 공회당 앞뜰에서 면장 이하 관공서 직원과 각 리구장 참석하여 각 리에서 선발된 선수 40여 명이 모여 가마니짜기 대회를 개최했다.(1941.03.05.)

12) 재해

10일 밤 이래로 오게 된 비로 말미암아 한강 상류에 홍수가 되었다. 가평은 11일 오전 5시경에 5미터, 6시경에 5미터 79에 달했다가 7시에 3미터로 감수되었는데, 다시 9시경에 5미터 61로 증수되었다. (1931.08.12.)

13) 전기

3일에 가평군청 회의실에서 전등가설기성회를 개최했다. 춘천전기회사로부터 가평까지 연장 가설을 요구한 결과 이 전기회사에서는 전등 가설준비에 착수하고 15~6일 회사 서기장이 기술원을 대동하고 가평에 도착하여 조사중이다.(1931.11.20.)

2. 개성, 개풍

1) 농민과 농업

(1) 농업, 농업창고, 농지

개성부에서는 당지 특산품인 배추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생산을 증가케 하며 신수요지를 개척하고자 가을에 개성 배추 품평회를 개최한다. 입상의 등급은 대체로 특등, 1등, 2등, 3등으로 구분하여 상장과 상품을 수여할 예정이다.(1931.08.20.)

5일부터 부내 제일공립보통학교 앞 넓은 뜰에서 개성배추품평회 입선자 상장과 상품 수여식이 있었다. (1931.11.07.)

농업창고(개풍군농회의 농업창고는 경성부내 태평정에 있는 본고와 개풍군 대성면 풍덕리, 광덕면 고척리, 임미면 월암리에 있는 3지고에서 수용하는 벼 총량 약 2만 5천여 석이다. 작년 11월에 개업 이래 창고를 이용하는 자 날로 증가한다. 현재에는 곡물 보관 외 현백미 조제, 소작료 수령의뢰, 판매 알선, 개장(改裝)과 하조(荷造), 금융 알선, 운송 취차(取次), 수험 대리 등의 업무 진전에 따라 사무 분망하다.(1935.05.18.)

개풍군에서는 퇴비 증산을 일층 철저히 하기 위해 군면직원 등 300여명을 총동원하여 7월 25일부터 3일간을 제1회 퇴비데이, 8월 25일부터 제2회 퇴비데일로 정하고 실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7월 20일부터 가뭄을 만나 그 대책 실시관계로 8월 10일부터 3일간으로 결정했다.(1936.08.12.)

개풍군에서는 다음과 같이 퇴비데이를 시행하고, 대대적으로 퇴비 증산을 독려한다. 제1회 8월 10일부터 3일간, 제2회 9월 10일부터 3일간.(1936.08.14.)

농가의 식량 확충을 기하여 개풍군에서는 전작 개량에 일대 박차를 가하여 전작의 증수는 현격한 바가 있다. 이번 가을 파종기에는 한층 대소맥의 증수를 기하여 우량종자의 배포를 하고자 대맥 종자 440단보와 소맥의 파종전 206단보를 설치하리라 한다.(1938.08.05.)

개풍·장단·파주·강화 4군 농회 기수가 개풍군 5월 30일 회의실에서 면작 강습회를 개최했다. 4군의 생산 목표는 500만근이고, 경작 면적은 4,788정보이다.(1939.06.01.)

개풍군은 산미증산의 철저한 계획을 수립하고자 5월 31일 군청광장에서 관내 지주·마름 총회를 열었다. 금년에는 논 1단보에서 벼 1말씩을 증수하여 1만 석을 저장케 한다. 작년에 14만 석을 수확하였는데, 금년에는 15만석을 수확케 하여 식량문제를 완화하게 하리라 한다.(1939.06.02.)

농지(농업생산력 증진과 농가의 안정 향상을 기하고자 임시농지가격통제령과 농지관리령이 시행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최근 마음대로 농지르 다져서 건축 부지와 여러 방면으로 이용을 하는 경향이 있어서 부 권업과는 9월 28일 이에 대한 법령의 주지 철저를 도모하고자 각 애국반상회를 통해 부민 일반에게 경고했다.(1943.10.01.)

총독부 농상국 안에 설치된 농사시찰반은 제1착으로 경기도의 개성과 장단 두 지방을 약 1주일에 걸쳐 시찰하고 돌아왔다. 시찰반장 농상국 사무관(마쓰사와)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소비도시인 개성지방을 먼저 보았는데 많은 공지를 이용하여 소재의 자급자족 태세를 갖추고 있으므로 금후 개성에서는 소재의 배급 통제를 할 필요가 없으며 올 가을에는 김장은 염려 없을 것이라고 믿어졌다. 밭으로 만드는 전전(轉田)운동도 순조로이 진척되고 있었다. 보리농사가 좋지 못하여 농가의 식량사정은 상당히 어려워질 것만은 사실인데, 그 어려운 고비를 넘기고자 감자라든가 호박 등속의 대용식물의 증산에 묵묵히 감투할 뿐 아니라 금년 쌀은 증산하여 놓고 말겠다는 증산 의욕이 왕성함을 직감할 수 있었다.”(1945.06.02.)

(2) 지주

22일 개풍군 풍덕수리조합 몽리구역 내 지주 600여명은 수세의 경감, 납기의 연장 등 불경기 여파로 폭락에 폭락을 거듭하는 작금의 미가로는 1년의 전 수확을 송두리째 내놓더라도 수세를 충당할 수 없다고 하여 대책을 토의하고자 고려 청년회관에서 지주대회를 열고 구체적 방법을 토의했다. 갑론을박 확연한 결정을 얻지 못하고 위원 10인(김기황 공성초 엄홍권 최덕현 이기소 이기호 김영태 임한선 박상근 김세형)을 선거하여 그들에게 전부 일임하기로 한 후 폐회했

다.(1931.06.24.)

(3) 농촌진흥: 모범부락

개풍군 진봉면 봉동리 청담동 부락은 예전 150호에 가까운 집단부락이었으나 20여년 전에 동척 이민 10여 호가 이주하게 되자 소작권의 대이동이 생겨 졸지에 50호 농가의 생계가 막연해져 각지로 산일(散逸)했다. 민심이 극도로 불안에 빠져 주색잡기로 일시적 쇠퇴를 보았다. 그후 현 진봉면장, 농촌진흥회장, 간사 3인이 부락갱생대책을 강구하여 극빈자에게는 농량을 무상대부하며 소작권 알선 등에 진력하여 현재 일본인 농가 15호, 조선인 농가 84호이다. 농사개량, 부업 등에 노력하여 남녀 공동작업이 다른 지방보다 훨씬 실행되었고, 재산 1만원 이상의 조선인 농가가 13호에 달한다. 부인회 활동상태는 놀랄만큼 향상되어 옥외 작업할 때는 전체 개량작업복을 입고 적극 활약하고 있다.(1936.06.13.)

2) 상인과 상업

(1) 상업

종래 개성, 장단, 동양, 고랑포, 구화, 풍덕 각 촌락금융조합 관내에는 개성 상인의 활동으로 조합의 예금과 대출이 모두 부진했다. 금년 들어 이들 상인은 미가 저락으로 활동이 여의치 않고 조합의 업적이 좋아지므로 경기도연합회에서 장래 개성 상인이 경기 회복되어 자금을 방출하게 되면 조합 사업 상 타격이 될 것이므로 1월초 조합 이사들을 소집하여 대책 간담회를 열 모양이다.(1930.12.24.)

개성부에서 대화정 양성시장 번영을 위해 일부 개축을 결정하고, 총공사비 4천여 원으로 점포 12개(1개 당 7町)를 건축하여 수일 전에 준공되어 일반 지원 상인에게 1개당 1개월 3원 50전씩에 대부한다.(1931.10.10.)

개성상공회의소에서 10월 4일을 기해 오후 7시부터 개성좌에서 부내 천여명 점원을 위해 점원 수양강연회를 개최한다. 연사는 아직 미정이나 상공회 의원 중

에서 4, 5명을 선정하리라 하며, 또 일상 근로에 위로를 위하여 영화까지 상연하여 하룻밤의 수양과 위로를 주리라 한다.(1936.09.29.)

개성부내에서는 아직까지 곡물 매매에서는 도매나 소매에서 말과 되를 사용해 왔다. 경제경찰계는 7월 29일 미가 공정(公定) 판매가격을 지시하고, 9월 1일부터는 말과 되로 파는 것을 금지하고 킬로그램을 표준으로 하여 판매할 것을 30일 각 판매업자에게 지시했다. 이는 소량에서 부정 판매를 근절하기 위한 것이다.(1939.08.01.)

개성경찰서 경제경찰계는 7월 28일 경찰서 훈수실에 부내 정미업자, 곡물상 등 60여 명과 부 권업과원, 상공회의소원을 소집하여 미가 대책에 대해 훈시를 한 후 미곡 판매가격에 관한 조정을 했다. 앞으로 매점 매석에 대한 부정 상인을 발견할 때에는 경제경찰 발동으로 단호한 응징을 할 방침이다. 지시한 최고 협정가격은 1되를 단위로 했고, 대체로 경인지방보다는 높은 편이다.(1939.08.02.)

개성부내 쇠고기값은 전쟁 발발 전보다 배 이상 폭등하여 1근에 65전이다. 수요가 줄어 우육 판매점은 부진 상태이다. 경찰서 보안계는 수요자와 판매자의 원활을 기하고자 7월 30일부터 1근에 5전을 인하여 60전에 판매하라고 판매업자에게 지시하였다.(1939.08.02.)

개성부 권업과는 축우 매매와 지방 번영을 목적으로 9월 15일 부내 사직정 가축시장에서 가축 대시를 개최한다. 당일 출장 두수는 700두, 매개가 될 수 있는 두수는 300두 가량이다. 이에 대한 대금 4만원이고, 이날은 특히 매매하는 당사자에 대해 거래 장려 의미로 추첨권과 타월을 교부한다.(1939.09.03.)

개성부는 물가통제령 시행을 기하여 관계 방면에 이 법령을 철저히 이해시키고자 권업과, 경제경찰, 상공회의소 직원 총동원으로 일제히 활동을 했다. 이 법령 실시에 따라 조사 중이던 9.18물가의 신고에 기하여 물가의 기초공작을 먼저 착수하게 되었다. 기초가격의 결정에 대해서는 동업조합에 9.18가격을 기초로 협정가격을 협정하게 하여 도지사의 인가를 신청하게 하고 그동안 각 공업자의 조합을 결성한 수는 현재 54조합에 달하고 있으며, 조합이 업자에 대해서는 업종업태별로 조합을 결성케 하여 동업조합단체로 협정가격의 신청을 하게 될 모양이며 이 신청한 협정가격은 공정가격에 준하는 것으로서 단속 방면의 여러 가지 규정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되어 9.18 정지 물가의 엄정 시행과 모든 암거래는 매매양자가 전부 처벌을 당하고, 암거래 상품의 운반과 기타 행위도 취체규칙에 의해 적발되는 결과로 저물가정책은 이에 철저한 운행의 제일보를 밝게 되었

다.(1939.11.01.)

개성경찰서 경제계는 8만 부민의 겨울 살림살이에 없어서는 안 될 김장을 앞두고 이를 이용하여 폭리를 탐하는 무리가 없나 하고 11월 2일 오전 7시부터 계원이 총동원하여 부내 도교시장과 당교시장을 비롯하여 군부 관내 각처를 전격적으로 습격하여 배추, 무, 파 등을 파는데 가격을 표시하지 않은 상점과 엉터리없이 마음대로 팔고 있는 떡장수 등 남녀 80여 명을 검거했다. 엄중한 조사를 하여 이중 20명은 즉결처분, 3명은 검속을 하고 나머지는 훈방했다. 앞으로 무, 배추, 파를 비롯하여 김장에 필요한 물자에 대해 공정가격을 무시하고 조금이라도 폭리로 매매하는 것을 발견할 때에는 단호한 엄벌에 처할 방침이다.(1942.11.06.)

(2) 무역

1938년 12월 개성 무역상황은 총액 185만여 원으로 전월에 비해 56만여 원의 증액을 보이고, 전년 동월에 비해 72만여 원을 증가한 숫자를 보여 상도 개성의 약진을 여실히 표현했다. 수입은 9만 2천여 원이고, 수출은 40만여 원이며 홍삼 수출이 39만여 원은 처음으로 보는 숫자이다.(1939.01.24.)

3) 공업과 노동자

(1) 공업

개성부에서는 적당한 부업을 일반 가정에 장려코자 작년 11월 중부터 부내 지정 정화여학교 구교사를 차입하여 이전 유치원 교실에 직조기계 10여대를 두고 10여명의 보통학교 졸업생 정도의 처녀에게 직조를 교수했다. 재료는 주식회사 송고실업장에서 제공하고 직물은 송고실업장에서 상당한 가격으로 매수하므로 강습생들은 많은 편의를 느끼고 있다. 그 성적이 양호하다. 지난 12월중에 부윤이 평양으로부터 양말제조기계 20대를 대당 20원씩에 구입하여 정화여학교 구교사 사무실에 비치하고 부내 보통학교 졸업하고 가사에 종사하는 여자 14~5세로

17~8세까지 20명의 강습생을 모집하여 기계 원료 등을 무료로 공급하고 교사 2인을 초빙하여 강습을 개시했다. 개성부에서는 계속하여 약 200명의 여자를 강습시킬 작정이다. 수년 이내에 각 가정에 양말제조기계 수대씩을 비치하여 제2 평양의 양말소산지가 될 것을 기필하고 있다. 이 양말도 송고실업장에서 재료를 공급하고 제조 후에는 상당한 가격으로 매수한다. 강습 후 우수한 자는 매일 50~60전의 실수입이 되고, 보통 30전 가량의 수입은 된다고 한다.(1934.01.17.)

개성의 명산 개성양말이 북중국으로 진출하게 되었다. 개성양말은 양으로만 유명할 뿐만 아니라 질에서도 상해양말과 같은 저열품에 비할 바가 아니다. 대판, 평양 등의 산품을 능가하는 우수품이다. 먼저 북중국 방면의 수요를 충당할만한 생산기구를 구비하여야 하겠기에 송고·동양·선일의 3대 공장에서는 부당국와 협의를 거듭하여 기구 대확충의 준비에 분주하다.(1938.01.15.)

군수물자의 면사의 공급이 원활하지 못해 개성 양말의 생산도 차질을 빚고 있다. 주문은 쇄도하지만 제조할 수 없다.(1938.03.04.)

개성부 운학정에 있는 경성제국대학 부속 생약연구소의 모태로 군부의 후원으로 제약공장을 건설한다. 개성부내에서 약 5리 가량 떨어진 개풍군 중면 군장산에는 임야 600여 정보에 1천여 두의 면양을 사육하기로 계획을 수립했다. 이미 의회를 통과하여 이 실현을 볼 때에는 국립 종양지장으로서 양모 공장이 출현할 것이다.(1940.02.06.)

개성송고실업장 창립 10주년 기념식과 증설공장 조업식이 5월 30일 공장 구내에서 거행되었다. 이 공장은 창립한지 이미 30여 년을 거쳐 온 면직물 공장이다. 옛날 미국 선교사회가 경영하다가 경영 중지되었던 것을 현 사장 김정호 외 유력자 수 명이 1929년에 주식회사 송고실업장으로 개혁했다. 작년에 증설한 공장 건물은 600평으로 공사비는 5만원을 요하고, 새로 구입한 기계는 104대로 종업원은 남녀 200명이다. 앞으로 기계를 제대로 작동시키면 년산 150만원의 생산액을 낼 수 있다.(1940.06.01.)

(2) 노동자

개성 송고도무주식회사의 공장 직공 등이 지난 18일부터 동맹 파업을 했다. 그 원인은 직공(오홍웅)이 과실로 손에 물집이 생겨 일을 못하고 병원에 다니면서 치

료를 했는데, 그 비용이 7원 80전이었고 공상(工傷)이라 하여 회사측에 이 금액을 요구했고 회사에서 지불을 거절한 것이 원인이 되어 요구조항 8개조를 쓴 진정서를 회사에 제출하고 파업 동맹을 이루었다. 개성경찰서장의 알선으로 22일부터 작업을 시작했다. 요구조항 중 회사에서 응한 것은 무리로 해고를 절대 안한다는 것과 점심시간 30분간을 종전과 같이 한다는 것이다.(1930.12.24.)

개성에서는 각 정총대와 협력하여 부내 급료생활자, 일용노동자, 기타 노동자로서 실업자의 조사를 최근에 세밀히 집행했다. 일본인 41인, 조선인 137인 합계 178인이다. 작년에 비해 약 3배 증가되었다. 조사인원 3,889인에 대해 21.8%(실제로는 약 1/21)의 실업자가 있다.(1932.07.17.)

개풍군 관내 산재해 있는 각 광산에도 광부 대부분으로 국책상 산금정책에 개풍군 당국은 큰 두통중이다. 우선 북면 가토미리에 있는 삼보광산에 12월 22일에 5개면 지도 면직원을 출장케 하여 부족 광부 350명의 수급 협의를 하고 광구 현장을 시찰한 후 보충 광부의 처후 결정을 한다.(1938.12.16.)

4) 인삼과 임업

(1) 인삼

개성삼업조합 1929년도 이익금은 1만 5천원이고, 삼업조합은 창립 20주년 기념사업으로 인삼관 설치를 계획하고 1930년도 사업계획 예산에 특별 준비적립금 3만 5천원을 계상 가결했다. 그중 토지대 1만원, 건물 1만원, 인삼연구기금 1만원, 설비금 5천원이다. (1930.03.03.)

개성삼업조합에서 8월 30일 전매국 개성출장소 구내 세삼장에서 제49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출석조합원이 200여명에 달했다.(1934.09.03.)

개성 인삼업계 최익모의 공로를 기념하기 위해 이번에 전 총독 재등실 자작이 '인삼개■공로'라는 친서 동패(銅牌)를 증정했고, 지난 달에는 조선신문사가 7척 남짓의 입상을 증정했다.(1936.01.15.)

인삼봉찬회 주최로 9월 9일과 10일 양일 간에 걸쳐 개성인삼제가 성대히 거행되었다. 9일 오후 8시에는 인삼신사에 각계 인사가 참집하여 전야제를 지냈고,

10일 오후 2시에는 관민 200여명이 참집하여 제전을 거행했다. 시가에는 관등과 각 기관의 다수 가장 행렬진과 기생 연주 등이 있어 관중으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개성인삼의 통제설이 일어나 200만원의 회사가 창립되기로 했다. 그로 인해 200여명의 중개업자의 실업문제가 생김과 함께 100여명 판매업자에게도 실업문제가 되므로 일반 판매업자는 사활문제에 당면하여 그 대책 강구로 8월 28일에 일반 판매업자대회를 열고 토의한 결과 100만원 주식회사로 판매회사 조직안이 나와 즉시 10인의 창립위원을 선정하고 회사조직에 착수하여 주식 모집이 거의 다 되었고, 통제회사에도 교섭하여 1수 판매를 약속했다. 그러나 돌연히 통제회사의 방침이 변하여 제작과 함께 판매를 겸하겠다고 하므로 판매회사 위원측에서는 원가에 상당한 이익을 붙여 손익 여하를 불구하고 1수로 판매하기를 교섭하였으나 무조건으로 거부하므로 할 수 없이 판매회사는 해산될 수밖에 없다. 그들 판매업자는 판매권을 주장하고 상당한 보상을 주장하여 10일 오후 8시에 부내 고려청년회관에서 판매업자총회를 열고 판매회사 창립위원의 경과보고를 듣고 100여명 회원은 대부분개하여 일치잔결을 서약하고 판매권 주장을 철저히 제창하기로 했다. 이번 통제회사는 일부 대사업가에게는 유리할 것이나 삼엽에 매어 살던 수천명 관계자가 갑자기 이 업을 찾을 길이 없어 불평이 높다.(1936.09.13.)

개성의 경제를 좌우하는 삼엽조합과 방계회사인 개성삼엽주식회사의 정기총회는 9월 15일부터 시작되는 금년도 신삼 채굴을 앞서서 8월 28일 삼엽주식회사에서 개최하였다. 1943, 1944, 1946년도의 수삼 배상액으로서 삼정물산회사로부터 72만원을 차용하여 경작자금으로 대부한 자본의 운용과 삼포 경작상황, 병충 예방, 삼묘 검사취체, 시작(試作)의 경영, 삼포용 청죽(靑竹) 공동구입, 삼포 야번(夜番) 등화용 석유 배급, 조합원의 증감 등에 대한 1942년도의 상반기 업무경과의 의안, 대차대조표, 검사계산표를 상정, 심의했다. 이의 없이 원안대로 가결하고, 일반 조합원으로부터 수삼배상금 인상과 후삼가 인상 수납 보험의 인상, 이자의 인하 등에 대해 금년도부터 가급적 조합 당국으로부터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실현케 해달라는 요망을 한 뒤에, 금년도 선제 저금에 대해 작년과 같이 약 1할을 하기로 결의했다. 그 총액은 10만원 가량이다. 삼엽조합총회가 끝난 뒤에 곧 개성삼엽주식회사의 제6 정기총회가 개최되었다.(1942.09.02.)

개성삼엽주식회사 제7기 정시총회는 8월 30일 개최하였다. 회사 해산의 안을 상정하고 상정하고 심의했다. 이 안건은 회사에서 백삼제조와 판매를 주체로 하던 것을 삼엽조합에서 대행하기로 되어 자연 해산을 보게 되어 이의 없이 가결 확정

했다. 총회가 끝난 뒤 2시 10분부터 방계기관인 삼업조합 총회를 개최했다.(1943.09.04.)

고려인삼의 판매업자 단체인 개성인삼판매조합은 7월 28일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지금까지의 평의원제를 이사제로 고치고, 역원 개선과 여러 가지 운용방침의 토의가 있는 후 종료했다.(1945.08.05.)

(2) 임업

개성부에서 작년부터 고려정, 만월정, 원정, 경정의 4개 정 공지에 호두나무 5천본을 심어 양호한 성적을 거뒀다. 금년에도 3천본을 9개 정 공지에 심으려고 1호 평균 5본씩 희망자에게 묘목을 배부했다.(1935.04.11.)

5) 축산

개성부 구역 확장으로 편입된 구역에는 축우와 축돈이 상한 수에 달하고 있다. 종래부터 개성부에는 가축 치료시설이 없는 관계로 불편과 곤란이 막대하다. 이번 축산 장려의 일조로 필요한 약품과 약품 격납기를 구입할 방침이다.(1938.11.01.)

6) 세민·궁민

개성부 방면위원회에서 세말 궁민 구제책으로 개성·야명 양 권번에 의뢰하여 궁민구제 연주회를 개최했다. 기부금까지 2,030원을 모집했다. 13일 오후 1시에 개성부회 회의실에서 30여인의 요인들이 집회 결의한 바 예년과 같이 식구에 따라 쌀과 돈을 분배하고 잔여액은 다른 구제기금으로 사용하기로 가결했다. 금년에는 작년보다 약 100호 가량의 궁민 증가를 보게 되어 그만큼 생활적 몰락을 엿볼 수 있으며 토막이 늘어가게 되어 비참한 현상이다. 양미(糧米) 분배는 음력 12월 27일로 결정했다.(1936.01.16.)

개성부 방면위원에서 세말 궁민 구제로 식량 배급을 위해 음력 27일 오전 11

시 경부터 240여 궁민을 상대하여 쌀과 돈을 개성부청 광장에서 배급했다. 최저 1인 3승 5홉, 돈으로 30전씩을 주고, 최고로 큰말 1말과 돈으로 50전씩을 배급했다. 12시경에 마쳤으며 총액은 700원인데, 600원은 40가마 쌀값으로, 100원은 돈으로 분배한 것이다.(1936.01.25.)

6월말 현재 개성부 세민 호수 871호에 4,001인이고, 궁민은 67호에 119인이다. 총호수 1만 1,142호, 5만 4,457인에 비하면 호수는 8.3%, 인구는 8%정도이다. 거의 임금 노동자로서 일자리가 없고 품값이 싸서 하루 생활조차 곤란한 처지에 있다. 1년 소득 600원 미만자가 8,206호로 전 호수의 8할에 달하며, 그중 300원 미만의 소득으로 호별할의 면제를 받고 있는 자가 6,460호로 전 호수의 6할에 달한다. 결국 '부도(富都) 개성'도 2할 밖에 안되는 그들에게 치우친 재산에 불과하다.(1936.07.23.)

개성 유지들이 오래 전부터 계획하고 있던 인보관 설치에 대해 그 기부금 3만원 가량을 모집하려고 총독부에 인가 신청 중이던 바 20일부로 기부금 모집허가가 내려졌다.(1936.08.22.)

개성의 신탄값은 구정을 기회로 천정부지의 세로 뛰어올라 그 값은 작년 이때에 비해 2배에 가까웠다. 구정을 앞두고도 나무를 사들여야 할 자는 그야말로 종류 이하의 빈한한 자가 대부분이다. 세민층의 곤경은 극도에 달하고 있다.(1938.02.03.)

개성부 남본정 한철호는 작년 7우려 개성부청의 신축에 따라 구청사의 무상불하를 신청하여 동지 4명과 함께 유린관(有隣館) 건축에 착수했다. 그후 3명이 가입하여 8명의 열성과 특지로 사재 7천원을 기울여 4월 30일 준공했다. 배움의 길에서 떠나 글에 주리고, 약에 주리어 병 못고치는 불우한 세민은 생의 길을 밝게 되었다.(1938.05.07.)

개성의 세궁민은 제1종 140호, 제2종 550호로 총원수는 2,500명에 달한다. 개성부 사회과는 방면위원, 정총대와 협력하여 12월 11일부터 17일까지를 세말 동정주간으로 설정하고 동정 금품을 모집한다.(1939.12.06.)

7) 여성

개풍군 동면 고두산리에서 작년 농번기에 탁아소를 설치하고 다수의 유아(乳兒)

와 유아(幼兒)를 보육했다.(1933.05.06.)

금년 개풍군에서 신규로 애국부인회에 가입한 주부가 1,023명에 달한다. 1회에 천 명 이상의 회원 모집은 전례가 없던 일이다. 회원 모집에 공로 있는 자나 특히 유공자에게는 총회에서 공로상을 준다. (1938.04.10.)

국민총력개성부연맹은 3월 6일 지구절을 맞아 국민총력 고도국방 국가체제의 확립을 기할 중대 시기에 있으므로 부인보국제를 부회의실에서 거행하기로 했다. 부인의 결속을 더욱 공고히 하여 총후 부인 보국의 정신을 강조하기로 했다. 보국제가 끝난 뒤에는 이어서 애국부인 개성분회가 저번 본회에 독지로 기부를 한 42명에 대해 유공장 전달 수여식을 거행한다.(1941.03.05.)

8) 소년·청년

총독부는 홍아성락 달성의 중견이 될 청년층의 훈련이 시국 하 가장 필요함에 비취 금년과 명년에 청년훈련소의 대확충을 실시한다. 그에 따라 개풍군에도 새로 훈련소 3개소를 설립하기로 정식 인가되어 13일부터 15일까지 성대한 개소식을 거행한다. 신설 훈련소와 인원은 다음과 같다. 풍덕훈련소 30명, 중서훈련소 30명, 북면훈련소 30명.(1940.08.02.)

10월 30일 오전 10시부터 개성만원국민학교 교정에서 부내 각 국민학교 해양소년단원이 모여 개성해양소년단의 결성식이 거행되었다.(1944.11.01.)

9) 이주민

논산, 부여, 연기, 공주의 이재민 18호 100명이 개풍군 대성면, 광덕면으로 이주한다.(1934.12.01.)

봄에 개풍군에서 선발되어 이민으로 간 48호는 그들을 인솔하고 갔던 군속에게 소식이 왔다. 그 내용의 대강은 다음과 같다. “돈없는 우리들이라도 1년 동안 부지런하게 일하면 천원의 수입은 얻게 될 듯하며, 작년에 이곳에 온 이민들은 누구나 그만한 수입이 있었다 합니다. 내년엔 개풍군에서 이민을 보내시거든 이곳으로 보내시옵소서.”(1938.04.07.)

10) 교육

개성공립상업학교 졸업생 23명 중 대개 취직이 확정되었다. (1931.03.11.)

개풍군 15면내 교육상황 조사 결과 조선내에서는 타 군에 유례없을 만큼 상당한 취학률에 달했다. 인구 8만 6,297명에 취학인수 3,437인이다. (1936.01.24.)

개성여자공립보통학교는 폐교하고 원정공보와 궁정공보로 배정 수용하고 구 교사는 매도하기로 한 당국의 기정 방침에 따라 3월 31일로 폐교하게 되었다. 이에 대해 학부형측의 불만이 적지 않다. (1936.04.03.)

개성송도고등보통학교 창립 제30주년 기념식과 재단법인 성립 축하식과 겸하여 신축 기숙사 낙성식을 10월 3일 오후 동교 교정에서 거행했다. 각계 명사를 비롯해 졸업생 내빈 등 2만여 명이 참집하여 기념식전을 거행했다. 특히 윤치호의 창립 30주년 감상담은 그 옛날의 모습을 상기시키는 바 있었다. (1936.10.06.)

4월 1일 개정 교육령 실시에 따라 개풍군 시학(視學)은 사립학교, 사설강습소, 서당 등의 교원 45명을 소집하여 강습회를 개최했다. (1938.04.03.)

개성 송도중학교 신입생 모집 수효는 150명인데, 3월 1일 원서 마감한 후 접수된 인원수는 2,125명으로 14대 1의 경쟁률이다. 시험은 3월 6일부터 9일까지이다. 또 제24회 졸업증서 수여식은 3월 2일 거행되었다. 졸업생 139명 중 우등생은 2명이다. 졸업생 지망은 다음과 같다. 관공서 취직 3, 은행회사 취직 16, 고등학교 6, 대학예과 15, 고등상업학교 14, 고등농업학교 11, 의학전문 14, 법학전문 11, 약학전문 6, 기타 21명. (1943.03.04.)

개성부는 의무교육 실시를 1년 남기고 학령아동 전원 수용을 향하여 여러 가지로 만전책을 연구, 그 이상 달성을 위하여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 1945년도 부내 각 공사립 초등학교의 아동 모집을 위해 요향을 정해 실시하기로 했다. 원칙적으로 만 6세 학령 아동의 수용을 우선적으로 함으로써 의무교육 실시의 준비를 진행키로 되어 금년에는 응모자격을 만 9세와 만 7세로 하되 될 수 있으면 만 6세의 수용을 주로 할 것이며, 공립학교의 미수용 아동은 사립학교와 학술강습소에 수용토록 하여 지원 아동 전원 수용의 달성을 기하고자 한다. (1945.03.03.)

12) 의생활

개성부에서 겨울철부터 일반 부민에게 색의를 철저 장려할 터이다. 겨울옷을 준비하는 이때 색의를 준비하게 하고자 9월 3일부터 3일간 부내를 3구로 나눠 색의강습회를 개최한다. 당일 지정한 정민 중에서 백생지 두루마기, 상의, 바지, 치마를 가져오는 자에게 1인당 1건씩 무료로 염색해 준다. 강사는 동경공과대학 염직과 출신이다.(1934.09.03.)

13) 식량·식생활

개풍군 대성면장이 총후보국주간 행사를 철저히 하며 일반에게 시국에 대한 인식을 깊이 하고자 면내 500여 명의 주부를 5월 1일 모아 강화를 했다. 주부들도 군수품의 철재를 절약한다는 견지에서 유기 그릇을 일체 사들이지 않고 사기 그릇을 사용하기로 결정했다.(1938.05.06.)

농가의 식량 충실을 기하고 군수 마량의 공급을 원활히 하고자 개풍군은 가을의 맥작기를 당하여 작부면적의 일대 확충을 기하여 일대 증산을 기하리라 한다. 그 방법으로는 각 겨울철의 휴한지를 이용함에 있다. 전년 조사에 의하면 겨울에 아무런 작물도 재배하지 않는 휴한지 총면적은 4만 6,124단보의 면적이다. 금년 제1차 확충기에는 휴한지 중에 맥작 재배에 적당한 적지를 택하여 먼저 8,250단보를 확충하리라 한다. 그리하여 각 면은 진흥회의 월례회에서 각 농가의 휴한지 이용면적을 9월 20일까지 확정하고, 10월 중에는 맥작전(麥作戰) 강조주간을 설정하여 군·면·경찰 기타 관계 기관의 일대 협력을 받아 맥작 지도의 강화를 기도중이다.(1938.09.09.)

개성부내 정미업자로 구성된 하수(荷受) 조합원 32명은 경기도 식량통제배급조합에 호응하여 종전의 영리적 경영방침을 떠나서 시국 하 7만 부민의 식량 배급 확보에 대해 멸사봉공의 굳센 정신 밑에 2월 2일 개성부 소의원실에서 개성식량 배급조합 결성식을 거행했다. 이 조합의 결성으로 각 업자의 목전 영리 관계로 불원활한 식량 문제는 해소가 되고, 완전히 확보를 보게 되었다. 조합 자금은 37만원으로 1인당 1만원을 출자하기로 되었다.(1940.02.06.)

경기도지사는 춘궁기 개성의 배급조합과 정미소, 미곡 소매상에서 배급을 어떻게 하고 있으며, 공장 기숙사 등에는 혼식을 철저히 실행하고 있는가를 시찰하기 위해 3월 3일 개성을 시찰했다. 대화정에 있는 송경정미소와 만월정에 있는 하성환 미곡소매상에 이르러 배급과 판매 상황을 시찰하고, 송도중학교와 개성상업학교, 호수돈고등여학교 등의 기숙사를 방문하고 기숙사 생도들의 혼식 상황을 살피고 시찰했다. 정미소에서는 7분도의 쌀을 짊어 돌이 섞이지 않은 쌀을 소매상에 배급을 하고, 소매상에서는 잡곡을 섞어서 팔며, 잡곡에는 가격 표시를 정확히 하고, 학교 기숙사에서 혼식을 철저히 여행하고 있는 데 만족감을 표했다. 부청에서 부윤과 개풍군수로부터 관내 미곡 식량 배급과 절미 혼식 상황을 청취했다.(1940.03.05.)

개풍군 농무과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12월 2일 현재 자가용 신곡 반출 허가를 받은 것이 개성 1,575호에 약 5만 가마니이고, 경성이 67호에 2,300여 가마이다. 이는 개풍군 관내에 토지를 가진 지주가 11월 1일부터 말일까지 경찰서에서 가족증명서를 맡아서 개풍군 당국에 제출한 것이다. 이를 가족 통계상으로 따져보면, 1호당 평균 5명이 표준적 수인데, 1호당 10명에 달하는 기현상을 보이며, 개성에 57인을 가지고 있는 호수가 7호나 된다.(1940.12.05.)

개풍군은 춘궁기에 대비하여 내년에도 증산전에서 필승하고자 각면 양곡공출 완료 후에 자가보유 식량의 일부를 부락 공동보관을 행하기로 했다. 1.농가 1인당 양곡 1말 5되(정곡 환산) 1인 1홉, 2.실시주체 부락연맹에서 자치적으로 실시할 것, 3.부락창고나 지주창고에 보관하고 보관 벼에 반드시 기명 표전을 첨부해서 혼동되지 않게 조치할 것, 4.기타 동기 농한기 중은 될 수 있는대로 절약을 하여 봄철 농번기에 충분히 할 방법을 강구할 것.(1943.11.05.)

14) 주생활

장단군 진서면 전재궁동에 본적을 두고 개성시내에서 한약국을 운영하는 전흥원(57)은 본래 강원도 출생으로 매일공업신문지국을 경영하며 공업품 발명에 연구해왔다. 온돌 개량에 착안하여 구들 신안특허를 제출하여 허가되었다. 그 물품은 시멘트로 제조한 것으로 매 칸 16개 내지 10개로서 재래의 토굴을 없이 하고 돌기둥을 간격에 따라 세우고 통방으로 놓게 된다.(1935.11.16.)

15) 위생, 상수도

개성경찰서에서는 9월 16일부터 청결법을 시행하는데 5일간 구역을 나눠서 시행하고 우천일 경우 최후일로 미뤄서 시행한다.(1930.09.17.)

개성부 경정에 천연두 환자가 발생하여 개성서에서는 수십명의 서원을 출동시켜서 경정 일대와 그 부근 일부를 검병적 호구조사를 행했다. 그 결과 4명의 환자를 발견하여 3명은 부립 격리병사에 수용하여 치료중이고, 1명은 사망했다. 사체와 기타 병독이 오염될 의심이 있는 물건은 엄중한 소독을 하여 화장을 하였고, 4명의 환자들의 집과 병독이 오염될만한 장소는 넓은 범위까지 소독을 실시하고 방금 환자 발생 부락을 중심으로 검병적 호구조사를 속행 중이며 또 지난 6일부터 4일간 경정 내 1000여 호에 대해 임시 종두를 실시하고 있는 중이다. 병 발생 원인은 4명 중 1인인 조씨가 강화군으로부터 4일에 개성에 와서 있으며 각 처를 돌아다니며 포목행상을 한 관계로 병독이 오염되지 않았는가 하며 기타 3인의 환자도 전염계통이 불명하다.(1932.05.10.)

개성부에서는 11일 오전 지정(池町) 정수구장에서 상수도 지진제를 집행했다.(1932.06.14.)

개성 상수도 총공사비 45만원으로 재작년 봄부터 3개년 사업으로 공사를 시작하여 7할이상 진행되었다. 공사 완성 후 급수 인구는 대략 2만인에 1일 평균 급수량 30방미터(1방미터=1만 6600석) 예정이다. 수원지는 개풍군 영남면 소릉리이다. (1933.03.28.)

개성 상수도의 수원지 공사는 11만여 원을 투입하여 구제사업으로서 부에서 직영으로 오는 9월 중순에는 준공하리라 한다.(1933.07.29.)

개성 상수도 공사는 총공사비 45만원으로 재작년 봄부터 시작하여 수원지, 정수지 등의 공사는 지난 여름에 준공되었다. 지난 8월부터 부내 40여 곳의 공설 공용급수전과 일반 수용자의 요구에 의해 사설 공용급수전과 전용급수전 부설 공사를 시작했다. 그 공사를 마치고 3일 오전 11시부터 부내 지정 자남산 정수지 앞 광장에서 수도 통수식을 거행하게 되었다.(1933.10.03.)

개성경찰서에서는 10월 7일부터 12일까지 부내에 추계청결법을 시행한다.(1933.10.07.)

개성경찰서에서는 경기도 경찰부 위생과의 후원을 얻어 11월 9일부터 21일까지 부내 1,784개 우물 물의 수질검사를 시행했다. 적음이 505개소, 부적음이 1,279개소이다.(1933.12.10.)

개성경찰서에서는 4월 11일부터 16일까지 춘계 청결법을 시행한다.(1934.04.07.)

개성부에서는 분뇨급출 수수료조례를 규정하고 27일부터 시행한다. 본문 6개조이고, 발포일부터 시행한다.(1935.07.02.)

개성경찰서와 개성부는 총후 국민으로서 건강 보국의 실현에 노력하고, 명량한 위생 개성 도시 건설을 위해 6월 1일부터 10일까지 2회로 나눠 7만 개성부민에게 장티푸스 예방주사를 시행한다.(1939.06.01.)

개성경찰서는 전염병 예방 목적으로 부내 40여 개소의 얼음집(빙수점)과 이이스 케익 제조소에 대해 영업 시간을 종전 오후 12시까지 허가한 것을 2시간 단축하여 오후 10시까지 할 것을 지시했다. 위반자에게는 영업정지를 하여 방역진의 완벽을 기하리라 한다.(1939.08.02.)

개성 부내 사직정에 있는 경의선 철도공사를 청부하고 있는 암전조 인부 합숙소에서 9월 2일 10명의 이질 환자가 한꺼번에 발생했다. 개성서 위생계는 부 위생계와 협력하여 환자는 전부 격리병사에 수용하고, 합숙소와 부근 일대는 대소독을 하였다.(1939.09.05.)

징병제와 해군특별지원병제가 발표되어 있는데, 개성의사회는 그 감사에 응하고자 21명의 회원이 일제히 출선 직역봉공으로 건민 건병의 민력 배양에 협력하고, 징병의 본의를 투철 인식케 하고 그 체력을 보전 지도하여 내년 봄에 1명이라도 더 많이 응소케 하여 보국의 미충을 피력코자 10월 1일부터 내년 봄 검사일까지 징병 적령자에 대해 무료 진찰을 행한다.(1943.10.01.)

매일신보사 후생사업단은 전 조선 중요도시에 모자보건 강연회를 개최하여 모자보건의 일대 국민운동을 일으키기로 했다. 그 제1회 강연회가 5월 27(토) 오후 1시부터 개성좌에서 개최되었다. 강연은 개성도립의원 산부인과장이 ‘임산부의 섭생법과 유아육성’에 대해 약 1시간 반에 걸쳐 강연했다. 질의 응답이 있는 후에 ‘대일본 뉴스’와 문화영화를 상영하고, 4시경에 폐회하였다.(1944.06.03.)

16) 체육

개성 고려청년회에서 19일 철도공원 그라운드에서 제11회 개성군민 육상경기 대회를 개최한다. 작년보다 경기 종목이 많고 개성의 유명한 철도공원의 영화도 가장 만발할 때이므로 관람자가 다수할 것으로 예측하고 청년회 각부 계원들은 준비에 분망 중이다.(1930.04.17.)

개성에서 매년 1회씩 거행하는 춘계 시민운동회는 고려청년회 주최로 22일 개최되어 성황리에 종료했다.(1932.05.25.)

개성 고려청년회에서 경성 보성고등보통학교 교유, 조선체육연구회 주사 김보영을 청빙하여 30일부터 4월 3일까지 5일간 텐마크체조 강습회를 개최했다. 수강생은 40여명이고, 매일 오후 4시부터 5시까지이다.(1933.04.05.)

개성 고려청년회 보건체조단 주최 연합보건체조 대연습회는 26일부터 30일까지 5일간 매일 아침 싸이렌에 맞춰 자남산 중북 관덕정 광장(우천시 고려청년회관)에서 조선체육연구회 이사(박성규) 지도로 거행한다. 참가자격은 고려청년회 주최 체조강습회 수료자 860명에 한한다. 금일은 특히 수영상식 및 수영예비운동도 지도한다.(1935.06.25.)

개성부영 수영장은 준공되어 25일 수영장 앞 광장에서 200여명 출석 하에 풀개장식을 거행했다.(1935.06.29.)

개성체육협회 주최 개성부, 개성우편국 후원으로 하기(夏期) 라디오 체조회가 시작되었다. 기간은 7월 21일부터 8월 20일까지 1개월간이다. 장소는 개성우편국 구내와 공립상업학교, 심상소학교 및 각 보통학교 운동장인데, 부민은 각기 가까운 장소로 많이 참가하길 바라고 있다.(1936.07.25.)

개성부 성균관 부속학원인 성균학원에서는 9월 28일 오전 9시부터 성균관 광장에서 개풍군 용흥리 용흥학원, 송정리 영명학원과 더불어 세 학원이 연합으로 춘계 대운동을 행했다. 사성(이기소)을 비롯하여 유림 측에서 다수 참여했고, 일반 관중은 무려 3천 여명을 돌파하여 대성황을 이뤘다. 60여 종의 경기 종목으로 오후 5시경에 산회했다. 6, 7인의 자진 기부도 있었다.(1936.10.01.)

개성부내 각 공사립 소학교는 금년 각 학교의 운동회는 폐지하고, 개성부와 각 학교 공동주최로 9월 4일 들국화 향기 높은 공설운동장에서 9개 소학교 연합 대운동을 개최한다. 참가 인원은 1만 1천여 명에 달한다.(1939.10.04.)

고려청년회 주최, 매일신보 개성지국 후원 제21회 개성시민 대운동회가 5월 5일 공설운동장에서 거행되었다. 대회가 시작되기 전에 대회 역원과 선수 등은 정렬하여 국가 봉창, 황국신민서사 제송을 하고 100미터 예선부터 경기가 시작되었

다. 이른 아침부터 대회를 축복하는 화폭(花爆) 소리가 끊임없이 전 시를 진동케 하고 날씨는 바람은 불었으나 명랑한 일기였다. 공휴일이므로 대회장은 관람자로 인파를 이루어 공전의 대성황을 이루었다. 이번 대회부터는 비상시국 하 국민체위 향상을 근간으로 하는 뜻으로 도지사의 상장·상품 수여가 있었다.(1940.05.05.)

개성부 청년단 제1회 전력증강체육대회는 3일 오전 10시부터 공설운동장에서 거행되었다. 먼저 궁성요배, 국가봉창, 목도를 올린 다음 단장의 고사, 황국신민서사 제창, 황국청년가를 합창한 후 남년 청년단 일동의 라디오체조로부터 경기는 시작되었다. 27종목의 경기를 마치고, 단장·부단장의 사열로 단원 분열식을 거행했다. 관중은 인산인해를 이루었다.(1941.11.06.)

개성부 청년단 본부는 6월 14일 공설운동장에서 징병제 실시 검사 청년체련대회를 개최한다. 참가 단체는 부내 12개소 청년대와 각 정분대를 포함한 약 1만여 명의 남녀 청년단원이 참가할 터이다, 4일에는 각 대장이 부의원실에 집합하여 준비 협의회를 개최한다.(1942.06.04.)

건민 건병의 기운찬 호령에 맞춰서 철과 같은 튼튼한 몸으로 일억 일십 성전 완수의 일로를 매진케 하기 위하여 경기도체육진흥회 개성부체육진흥회, 개풍, 장단, 파주의 각 군 체육진흥회의 공동주최로 제20회 조선신궁, 제1회 개성신사의 군민 연성대회를 10월 22일 개성부 송도중학교 육상경기장에서 개최한다. 당일의 연성 종목은 육상경기, 체력장경기로 하며 전장(戰場) 운동, 항공으로 글라이더 훈련 상황의 공개, 총검도, 검도, 기도(騎道), 나기나다(薙刀), 방공으로 주수경기, 구호(救護), 여자청년체조, 집단음악체조, 수기(手旗) 신호경기, 후생체조, 산업체조 등이다.(1944.10.17.)

17) 문화, 문화재

총독부에서는 1917년 이래 고적 유물보존에 매우 힘쓰는 한편, 아직까지 발견하지 못한 것을 조사하던 중 최근 개성군 중서면 여릉리 남쪽에 있는 고려 공민왕 현릉 동 왕비 노국공주 정릉이 있는 능역 부근에서 석조물을 많이 발견하였는데, 그 근원을 조사한 결과 그 석조물이 있는 토지 약 3천여 평은 구한국시대에 동양척식회사가 처음으로 조선에 설립될 때에 당시 한국정부에서 보통국유지로 취급하여 동척 자원으로 제공하였던 것이다. 그리하여 당국에서는 고적유물보존상

불가분의 토지인 고로 다시 국유지로 변경하고자 동척과 교섭중이다.(1930.02.19.)

개성은 고적과 명승이 산재하여 역사상 연구할 재료가 풍부한 지방이며 산천이 아름답고 풍경이 절승하여 많은 사람의 방문이 많다. 경성, 경주, 평양에는 박물관이 있으나 개성에는 박물관이 없다. 초대부윤 김병태 부임 이후 개성을 유람도시로 만들어 세계인에게 소개하는 것이 가장 적당하다고 느껴서 개성에 박물관을 건설하고 고려 자기와 유물을 수집하며 개성 보승회를 부활시킬 계획이다. 박물관 건서에 대해 개성 홍삼 전매권을 독점하여 매년 다대한 거리를 취하는 삼정물산 주식회사에서는 이전부터 이미 사서 보관하고 있는 고려자기 약 3만원 가격의 물건을 무상으로 기부할 터요, 현금으로 7천원을 기부하겠다고 언명해 왔다. 이번 김 부윤이 교섭하고 노력한 결과 자기 외에 1만원을 기부하기로 했다. 경기도 지방비로 7천원을 보조할 터요. 개성부에서 5천원을 보조할 것이며 개성 일반 유지에게 1만 2천원의 기부를 받아서 3만 4천원의 예산으로 박물관과 도서관을 아울러 건축하기로 했다. 오는 봄부터 기공하여 가을에는 건설될 것이다.(1931.01.24.)

개성 박물관 건립을 위해 삼정물산주식회사가 1만원을 기부하였고, 개성 유자들로부터 1만 6천의 기부를 계획하는데, 이미 1만 1천원의 모금이 있었다. 김원배·김정호 각 1500원, 최선익·한명석·손봉상·임한의·공성학·박상우·임한조·이희영 각 1천원.(1931.03.08.)

개성박물관은 지난 1일 부제 실시 1주년 기념일에 개관하기로 했는데, 조종인 충돌사건으로 중국인 석공이 본국으로 돌아갔으므로 날짜가 걸려서 10일에 준공을 하고 15일 경에 낙성식과 개관식을 거행할 터이다. 박물관장으로 임명된 이는 금년 봄 경도제대를 마친 이영순이다.(1931.10.06.)

개성의 청년 수십인이 극천지라는 신극단체를 조직하고 17~18일 고려청년회관에서 동아, 조선, 매일신보 지국 후원으로 공연한다. 강령은 다음과 같다. -자체 교양과 신극 수립을 목표로 함, -기성극계의 정화에 주력함.(1931.10.12.)

11월 1일 오후2시부터 박물관 개관식을 했다. 식을 마치고 조선총독부 박물관장의 안내로 박물관 진열품을 관람하고 축하연회도 있었다. 일반 부민은 만월대에서 1일 정오부터 조선 고대 야외극의 하나인 산대도감극을 구경하였다. 이는 25~6년 전까지는 매년 한번씩 공연하여 오다가 여러 사정으로 공연하지 못한 것이다.(1931.11.03.)

기독교 조선감리교회 개성 동서지방 주최와 개풍군 후원으로 2월 8일부터 13일까지 중앙회관에서 농업강습회를 개최한다.(1932.01.18.)

개성부 도서관과 사회관은 작년 여름부터 기공하여 12월 중순에 준공되었으나 개성부 사정으로 아직 개관하지 못했다. 개성부에서는 6월 1일 개관식을 거행한다. 아울러 90세 이상자에게 표창식도 거행한다. 고령자는 남자 2인, 여자 24인으로 모두 26인인데, 낫그릇 식기 1조 등을 지급한다.(1932.05.31.)

5월 20일은 석가 탄신 2500주년이다. 개성부와 개성상공회의소가 주동이 되어 봉찬회를 조직하고 4월 5일 간담회를 개최했다. 석존 탄일 봉축에 대한 사항을 협의하고 상세한 것은 위원 15명을 선거하여 일임하기로 했다.(1934.04.07.)

지방 발전과 문화 계발을 위하는 뜻에서 고려청년회 이사장 외 수명이 발기하여 이번 ‘고려공론’을 발행하기로 했다. 창간호는 이달 중순 경에 나온다.(1934.10.04.)

27~29일 3일간 개성에서 석가모니 강탄 기념하여 여러 곳에서 각종 축하 흥행과 회합 등이 열렸다.(1936.05.31.)

10월 4일 매일신보 주최 개성 밤줍기대회가 열렸다. 단원 천여명이 임시열차로 경성역을 떠나 개성에 도착하여 남대문을 구경하고 박물관, 송양서원, 선죽교, 성균관을 돌아 채하동에 이르러 밤을 주으며 보물찾기에 분주했다. 점심을 먹고 백삼 제조소와 홍삼 제조소, 송도실업고 직장(織場)을 구경했다.(1936.10.06.)

개성 고려청년회에서는 10월 24일 동 회관 대강당에서 전선 소년소녀 현상음악대회를 개최한다. 신청기일은 19일까지이다.(1936.10.06.)

개성의 황성하(호 우청)는 일찍이 동경에서 개최된 서도회에서 특선에 입선된 바 있다. 이번 개성 유지들의 발기로 새로 작품한 200여 점을 6월 4일 개성부 사회관에서 서화회를 개최한다.(1939.06.02.)

개성에서 일본 동경으로 가서 유학하고 있는 송경학우회원들은 8월 11일 성균관에서 풀뽑기와 청소작업으로 유한(流汗) 근로봉사를 하고, 8월 17일 개성부민에게 하룻밤의 위안을 주고자 호수돈고등여학교 강당에서 동경유학생 음악회를 열기로 했다.(1940.08.17.)

개성 송경학우회 주최, 매일신보 개성지국 후원 제2회 송경미술전람회가 8월 9일부터 2일간 중앙회관 대강당에서 열린다.(1941.08.05.)

전 조선내 숨은 예인과 일반인 가수의 열망과 개성 연중행상의 하나로 전선 남녀 일반인가수 콩쿨대회는 특히 후생운동의 하나로서 매일신보 개성지국의 후원

으로 7월 29일 오후 8시부터 개성좌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대회 규정은 다음과 같다. -지정곡 제국군가 1곡, -자유곡 선정 1곡(가요 제출을 요함), -신청기한 7월 25일까지, -신청금 1원, -신청장소 대화정 송문당, 북본정 계림상회, 개성좌, -상품 엄정 심사후 1,2,3등에 수여함(1등 입상 지방가수에는 왕복 기차임을 지급함).(1942.07.11.)

국민총력 개성부연맹은 불건전한 적성 음악을 일소하고자 5월 17~18일 양일간에 걸쳐 송도중학교 신축강당에서 도로부터 가창지도대를 초빙하여 국민개창대회를 개최하기로 했다.(1943.05.07.)

18) 동원과 헌납

(1) 동원

개성부 당국에서는 공사비 300여원을 들여 자남산 개성신사 뒤 고원 지점에 높이 100척의 국기계양탑을 건설했다. 1월 1일 오전 9시에 신사 앞 광장에서 각 관공서 직원, 공직자 및 유지 100여명과 각 초등학교 생도 수백명이 모여 일동 경례와 국가 합창, 국기계양식, 부윤 식사, 만세 삼창을 하고 9시 반에 산회했다.(1933.01.05.)

국민정신작흥주간 제12일인 정리정돈일에 개성서에서 비변 순사를 소집하여 부내 동서남북 4구에 순사를 배치하여 오전 10시부터 5시까지 좌측통행의 교통정리를 했다.(1934.11.14.)

개풍군에서는 1937년도에 실시할 갱생부락 갱생계획 농가에 대해 전농가 총의로 자진적 서약으로 황국국민정신을 작흥할 것과 갱생 기풍의 진작 실행의 결의를 촉구하기 위해 군수 이하 군청 직원 총동원으로 4월 1일 일제히 군내 각 갱생부락에 걸쳐 실행 선서식을 행했다.(1937.04.02.)

7월 7일 중일전쟁 1주년을 맞아 개풍군 14면의 3천여 청년들이 모여 14개의 근로보국단을 조직했다.(1938.07.08.)

개풍군은 14개 면내에 각각 국민정신총동원연맹을 조직하고, 그의 연락계통을 기하여 군연맹까지 조직했다. 앞으로는 제2기 실천단계에 들어섰는데, 그에 앞서

각 부락에는 10호 단위로 애국반을 대량 조직한다.(1938.08.05.)

개풍군 근로보국단은 출동인원 6천명에 달하고, 근로보국기일은 약 40일 가량이다. 6월 2일부터 여현 방면의 경의선 복선공사에 활동기로 했다.(1939.06.02.)

국민정신총동원 개풍군연맹은 7월 2일 개풍군청 뒤 광장에서 군내 각 부락, 각종 연맹 이사장 대회를 개최했다. 800여 명이 참석했다.(1939.07.04.)

개성부내 송동중학, 개성중학, 개성상업 등 3교의 애한(愛汗) 부대는 하기 휴가를 이용하여 7월 21일부터 1주일 동안 황군의 노고를 생각하고, 땀의 봉사를 하려던 중 이틀동안만 작업을 하고 쏟아지는 폭우로 일단 중지를 한 후 귀향했다. 개학일인 8월 15일을 앞서 7일부터 3중학교 1,600명은 다시 개성신사 대전 도로의 개수작업을 비롯하여 지파리천과 고리고개, 만월대, 삼관동 등지의 도로 파손된 곳을 팽이와 삽으로 개수했다.(1940.08.17.)

9월 1일 애국일에 개성부내 각정 애국반원은 상회에 출석할 때 흰 고무신, 통조림통, 흰 잡지, 고철, 평판(平板) 등을 한 가지씩 가지고 가서 모았다. 부 총력과는 이 폐품을 매각하여 73원을 국방헌금하였다.(1941.09.03.)

저축보국에 매진하는 개풍군은 1942년도 배정액 108만원은 이미 돌파하고 2월 27일 현재 117만 2천원에 달하며, 연도 내로는 배정액보다 20만원을 초과한 성적을 보인다고 한다.(1943.03.02.)

국민총력 개성부연맹은 1943년도 총력운동에 대한 주요 실시사항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고 8만 애국반원으로 하여금 실시 철저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1.국어전능운동 철저, 2.전시생활의 실천철저, 3.징병제도 취지 철저, 4.부인계몽운동과 대일본부인회 육성 지도, 5.저축장려와 조합의 강력한 지도와 국채 채권 소화 철저, 6.금속류 특별 회수운동, 7.생산력의 확충과 식량의 소비절약, 8.국민개로운동 실시, 9.지도자의 연성, 10.강연 영화 지지거 등의 실시.(1943.05.07.)

개성부의 종류 이상 가정에서 가보와 같이 사용해 오던 드무(수부, 水釜) 600개를 공출했다.(1943.10.01.)

개풍군은 교육 즉 근로라는 전시교육 비상조치에 기한 국민학교 아동들의 근로동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수립했다. -작업일수 40일, -월별 작업: 5월 보리의 깎부기 뽑기, 6월 모내기, 보리베기, 7월 감자 수확, 8월 퇴비 조성, 소채류 제초, 9월 피뽑기, 10월 벼베기, 11월 고구마 소채 수확.(1944.06.03.)

개성부는 아직 부진상태에 있는 저축의 비약적 상승을 기하고자 관계 직원이 맹활동을 계속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여 만전을 기하고자 정진을 거듭하고

있다. 아직도 예상대로의 결과를 얻지 못했으므로 결전저축의 책임 완수를 위해 각 정과 각종 단체별로 저축 추진원을 임명했다.(1945.02.11.)

(2) 현금, 헌납

개성부에서 애국기 조선훈 건설에 대하여 헌납의금을 모집하는데, 23일까지 헌납금 총계는 262원 13전이다.(1932.02.27.)

용산 군사령부에서는 조선 내 중요도시에 방공시설을 하고자 각 주요도시 당국자와 협의했다. 개성에는 송악산, 자남산, 용수산 등에 고사포 4대를 비치하고, 그 비용은 그곳 특지가들로부터 기부를 받고자 한다. 개성부윤은 부내 재산가들과 교섭하고 11일 용산사령부를 방문하고 협의했다. 고사포 1대의 가격은 1,600원이고, 4대는 6,400원인데, 기부금을 내는 특지가에게는 군사령부와 육군성이 특별한 포상을 한다고 한다.(1933.03.14.)

개성부내에서 9월말 현재까지 국방비행기 헌납 의연금으로 모집된 총액은 1,777원 60전이다. 인원으로 1,500여 명에 달한다. 그중 단체와 기관도 섞여 있다.(1936.10.09.)

개풍 군민·유지는 고사 기관총 2기를 헌납하고자 1천여 명이 각출한 4,096원을 군수(이윤세)가 가지고 9월 30일 20사단 애국부를 방문하여 헌납 수속을 완료했다.(1937.10.01.)

개풍군 서남면 광정리 부인회 회원 40여명은 1월 1일 이른 아침에 그 동리 농촌진흥회장에서 황거 요배식을 거행하고, 면유림의 낙엽 한 다발씩 채취하여 이것을 팔아 만든 10원을 국방헌금으로 총독에게 보냈다.(1938.01.13.)

개풍군 관내 각면 농촌진흥회 부인부원 일동은 군마용 인삼을 각 부락에서 경작하여 12월 14일 41가마를 제20사단에 헌납했다.(1938.12.16.)

개성의 개명권변 기생 17명은 장기 전시하 나라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금이라고 인식하고, 소지한 금제품의 장신구를 전부 모아 모두 82돈종을 6월 30일 개성경찰서에 매각할 것을 의뢰했다.(1939.07.02.)

개성부 만월소학교 제4년생 최웅은 학용품을 절약하여 1원을 국방헌금했다. 고려소학교 직원 생도 일동은 1월 1일 푼푼이 모은 7원 14전을 헌금했다.(1940.01.13.)

개풍군 중서면 토성리 일본인은 15원을 황군 위문금으로 헌금했다.(1940.01.13.)

중일전쟁 발발 이래 1월 11일 현재 개성부민이 개성경찰서에 헌금 기탁한 건수만을 보면, 약 1,700건, 금액은 2만 7천여 원이다. 그중 국방헌금 2만 6천여 원, 황군위문금 천 3백여원, 유가족 위문금 60원이다.(1940.01.14.)

개성의 하늘을 지키는 방공(防空) 용사들의 노고를 깊이 감격하게 생각한 개성 개명권번 일동은 위문금 1천원을 기부했다. 이러한 위문금은 이번이 처음이다.(1940.03.05.)

개성인삼 우량경작자로 전매국으로부터 표창받은 11명은 상금 중 절반을 국방금으로 헌납했다.(1940.05.07.)

개성부내 남본정 23구 애국반장 외 23명은 낫그릇 63점(5관 300돈)을 9월 1일 부 총력과에 헌납했다.(1941.09.03.)

1월 8일 개풍호 헌납운동이 일어나서 목표액 8만 5,600원은 예정 시일보다 빨리 1월 30일까지 달성되었다.(1942.02.03.)

개풍군 관내 각 국민학교 교원과 생도들이 태평양전쟁 발발 이래 매월 약간의 금전을 저축하여 작년도에는 2천원을 국방 자재비로 헌납했다. 3월 4일 개성신사 앞에서 92식 중기관총 1대 헌납식이 있었다.(1943.03.04.)

(3) 가마니

개풍군 농촌진흥회에서 가마니 공동판매를 16일부터 개시했다. 예정수는 3만매로 총액 2,300원에 달한다.(1936.01.25.)

2월 25일 개풍군 각면의 가마니 출하성적을 보면, 청교면 7만 9천 여 매를 최고로 7할 8푼 3일을 차지하고, 총 출하수량 86만 5천여 매는 개풍군 목표 수량 210만 매에 비해 이미 4할 7푼의 수량에 달하고 있고 연도 내로는 이 수량을 돌파할 각오이다.(1943.03.02.)

19) 병력과 훈련

(1) 병력

2월 1일에 개성부 경정에 거주하는 최제민이 지원병되기를 결심하고 개성경찰서에 지원했다. 이로써 개성에는 지원자 2명이다.(1938.02.03.)

개성부는 7월 7일부터 14일까지 만월국민학교 강당에서 징병검사를 시행한다. 수검 장병을 격려하는 의미로 검사장을 널리 공개하여 부민 일반의 견학에 이바지하기로 했다.(1944.07.08.)

개성부 민생과는 제1차 기업정비에 대해 일단락을 짓고 계속하여 제2차 정비의 추진을 하여 전투요원의 확보를 도모하기로 했다. 수일 내로 관계당국자와 각 조합 관계자를 불러 전면적 협의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이번 정비 대상은 다음과 같다. 양복상, 기성복상, 귀금속시계안경상, 사진기상, 자전거상, 유리상, 화장품·서적 잡상, 완구상, 식량잡화상, 식육상, 건축 금물상, 신탄상, 화훼상.(1944.08.04.)

8월 1일 징병제 실시 1주년을 맞아 개성부는 집집마다 국기를 게양하고, 아침 5시부터 개성신사에는 장정과 가족, 애국반원들의 보고 참배가 있었고, 9시에는 신사 앞에서 3천여 명 참석 속에 1주년기념 봉고제를 집행했다. 10시부터는 참가자 일동이 대오를 정연히 하고 시내를 4구로 나눠 경축의 가두행진을 하고 오후 8시부터는 송도중학 강당에서 부 군사원호회, 재향군인분회의 공동 주최로 징병검사 합격자, 청년훈련소, 특별연성소생 800여 명을 초빙하여 ‘군국의 밤’을 개최했다.(1944.08.04.)

11월 30일 대본영이 발표한 육군 특별공격대 야스쿠니다이에 참가한 ‘5용사’ 가운데 개성부 황금정의 마쓰이 히데오 오장도 포함되어 있다. 그는 레이테만에서 전사했다. 1924년 태어나 1938년 개성공립상업학교에 입학하고 1941년 10월 4학년 재학 중 도쿄육군항공학교에 입학하였으며 고후구가야 육군비행학교를 졸업하고 조선○○비행부대로부터 ○○으로 전속되어 특별공격대 야스쿠니대에 참가하여 공을 세운 것이다.(1944.12.02.)

1월 11일 오후 3시부터 개성부회 의원 일동 주최로 본원사에서 마쓰이 소위 위령제가 열렸다. 부윤과 서장을 비롯한 유지 다수가 참집하여 영령에게 경건한 기원을 올리고 소위의 뒤를 따를 것을 마음 속에 맹세하고 5시 지나 폐회하였

다.(1945.01.13.)

(2) 훈련

방공태세의 만전을 기하고 어떠한 사태가 벌어지더라도 조금도 염려가 없도록 하기 위하여 개성경찰서는 구호(救護) 교육훈련을 10월 31일부터 11월 5일까지 각 애국반장 각 정 구호위원 수백 명에게 실시한다. 종목은 주로 지혈법, 소에기(副木), 운반훈련 등 각 방면으로 철저히 실시하리라 한다.(1944.11.01.)

20) 시간

10일은 시간존중 정시여행의 기념일이다. 면민에 대해 정확한 시간을 고지하여 시간 관념을 환기함으로써 생활 개선에 일조하기 위하여 기적(汽笛) 호종(號鍾)을 가진 전매국 출장소, 송고실업장, 양조회사, 송도고무공장과 각 사원 등에서 당일 오전 6시와 정오, 오후 6시에 3회에 걸쳐 시보(時報)한다.(1930.06.08.)

10일 시의 기념일 일반 부민에게 알리기 위해 개성부에서는 개성전기회사에 의뢰하여 정오부터 2분간 시내 전등 가설한 곳은 전부 송전하여 시의 기념이라는 인상을 일반 부민에게 주었다.(1932.06.12.)

개성부에서는 7일 개성부와 개성이십일회가 발기인이 되어 개성시간여행회를 조직했다. <개성시간여행회칙> 제1조 본회는 개성시간여행회라고 칭하고 사무소는 개성부 시내에 둬. 제2조 본회는 시간을 여행하고 생활개선의 촉진을 도모함으로써 목적함. 제3조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여 입회하는 사람으로써 회원이라 함. 단 회비는 징수치 않음. 제4조 본회에 이사 약간명, 간사 2명을 두고 임기는 2개년으로 함. 단 이사는 총회에서 추천함. 제5조 본회는 필요에 응하여 총회를 열. 제6조 본회는 회원장을 설정하여 회원에게 패용케 함.(1932.06.14.)

21) 교통과 연료

(1) 교통

개성군 송도면에서 면 경영으로 할 승합자동차는 1929년 9월 1일부터 운전을 단행하려 했으나 면과 군의 의견이 상위하여 중지하였는데, 이번 도의 방침으로 4월 1일부터 운전하게 되었다.(1930.03.16.)

개성역 7월중 업적 상황은 다음과 같다. 승차인원 14,910인, 하차인원 15,055인, 입장인원 2,259인, 수하물 발송 4,021근, 도착 7,156근, 여객 수입 13,042.31원, 입장료 126원, 화물수입 3,518.05원(1931.08.21.)

개성경찰서에서 22일 교통안전데이를 기하여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부내 대로 요소에서 교통을 정리하고, 부내 각 관공서, 대상점, 탕옥, 요리옥, 음식점, 기타 부민이 다수 집회하는 장소에 교통 안전 포스터 200매를 걸어서 주의를 촉구했다.(1933.04.24.)

개풍군내 자전거수가 격증하여 작년 339대이던 것이 1,039대로 700대의 증가를 보였다.(1936.04.11.)

개성경찰서 보안계는 4월 6일부터 10일까지 교통안전일 행사 주간을 기하여 이를 더욱 철저히 보급하기 위해 부내에서 교통이 가장 빈번한 요소에 ‘교통안전일’ ‘사람은 인도’ ‘구루마는 차도’라는 큰 글씨를 쓴 아치를 세워 통행인의 교통상식을 보급케 했다. 또 8일까지 3일간은 개성좌에서 부내 일반과 각 학교 아동에게 무료로 입장시켜 교통에 대한 참화와 안전의 방법을 가르치는 사진을 상영하여 대대적 선전을 실시했다. (1940.04.09.)

개성부는 4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토목과원 총동원으로 세밀히 조사했다. 조사 결과 남부 구리와 같이 로터리를 만들 계획이다.(1940.04.20.)

(2) 연료

개성부 고려정 김근종의 집에서 1월 9일 오후 8시경 침실에 불을 땔 나무가 없어서 안방에 구공탄을 화로에 피우고 추위를 참다가 가스에 질식되어 3명이 사망했다.(1940.01.13.)

개성부는 중유 대용으로 등장한 송탄유의 대중산을 피하여 사직정 우시장 부근

에 공탄유 가마 3개를 설치하고 첫 시험으로 27일 제조에 착수했다.
(1943.09.04.)

22) 소비

4월부터 8월말까지 5개월간 개성부내 담배 소비 총액은 22만 4천여 원이다. 작년 동기에 비하면 4만 3천여 원이 늘었다. 그 원인은 철도공사와 경기가 좋은 관계라 한다. 제일 많이 소비되는 것은 마코가 9만 4천여 원, 그 다음이 피존 3만 4천여 원이다.(1939.09.05.)

개성경제통제협력회는 10월 29일 상공회의소 내에서 제1회 섬유제품인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업자 14명에 대한 어린이양복 직물 등 400여 점의 사치품 판매를 인정했다.(1940.11.01.)

개성경찰서는 야채 생산자 500여 명을 소집하여 여러 가지 협의를 하고, 생산자로부터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 출하할 근본 방침을 협의했다.(1945.07.22.)

23) 민족운동-개성공산당, 학생운동

1930년 1월 9일 개성 송도고보 생도 4백명은 학교로부터 시중으로 뛰어나와 만세를 부르며 호수돈여고보에 이르러 그 학교생 전부와 합하여 다시 개성공립상업학교에 이르러 그 학교생 전부를 또 합한 후 상업학교 정문으로, 만월정 큰길로 나와 만세를 부르며 시중으로 행렬을 하고자 하다가 주모자 20명이 개성경찰서에 연행되어 취조중이다. 원인은 작년에 겨울방학을 일찍하여 2학기 시험을 못보았기 때문에 개학과 함께 시험을 보겠다고 학교당국에서 발표한 것에 불평을 품어 일어난 것이다.(1930.01.10.)

1930년 1월 10일 0시 30분경 호수돈여고, 미리흙학교 생도 합 28명의 여학생이 교문을 나와 북본정 큰길로 만세를 부르며 경찰서 앞에 이르러 전부 검속되었다.(1930.01.11.)

개성공산당사건의 잔당원인 개성군 송도면 이종익, 김수정, 홍성표 외 2명은 며칠 전에 개성경찰서에 잡혀 경성지방법원 검사국으로 넘어가 사상검사로부터 취

조를 받았다. 13일에 위 3명은 죄상이 명백하여 치안유지법 위반죄로 기소되어 법원 공판으로 회부되었고, 나머지 2명은 불기소되었다. 이종익은 작년 9월에 개성공산당 제1회 공판시에 집행유예로 출옥하였던 사람으로서 평시부터 품은 자기네의 주장을 다시 관철하겠다고 김수정 등 2명과 공모하여 비밀결사를 조직하였다가 발각된 것이다.(1930.02.14.)

24) 만보산사건

만보산 사건의 복수적 충돌은 개성에까지 파급되었다. 4일 오후 9시 반경부터 400~500명이나 되는 대군중이 북본정 중국인 상점 옥성동과 중국요리 쌍합루를 비롯하여 시내에 있는 청요리집 7개소를 습격하여 중국인을 구타하고 가구 등을 파괴하여 경관대의 활동으로 간신히 11시경 해산시켰다. 다시 5일 새벽 4시경에 수십명의 군중이 성균관 부근에 산재한 중국인 농가, 덕암리 부근에 있는 농가, 시내 남본정에 있는 중국 요리 삼우식당을 등을 습격 파괴하기 시작하여 개성경찰서에서 비상소집을 하여 경계에 착수하였다.(1931.07.06.)

개성여자교육회 회장과 회원은 호별방문하여 의복 600여 점을 모집하여 피난 동포들에게 보내는 중이다. 개성권변과 야명권변 직원과 기생 일동은 개성부, 고려청년회, 각 신문지국 후원으로 24일부터 27일까지 4일간 기생연주회를 개최하여 관람료 전부를 구제금에 충당하기로 결정했다.(1931.11.24.)

25) 날씨

개풍군 관내 14면에 5월 2일 비가 상당히 내려 논 1만 2천 정보의 9할은 전부 모를 내고, 채소밭도 물이 풍족하여 농가에서는 환호하고 있다.(1940.05.10.)

26) 단체

개성부 만월정 거주 일본인이 7일 개성 국방의회에 금일봉을 기부했다.(1936.07.29.)

개성부내 적십자 사원수는 882명이다. 패(佩)유공사원 6, 특별사원 65, 종신사원 68, 정사원 743명이다.(1939.11.01.)

시국대응 전선사상보국연맹 경성지부 개성분회 결성식이 12월 6일 사회관에서 개최되었다.(1939.12.08.)

27) 창씨

개성부 만월정 거주 실업가, 성균관 사성 마현규는 조선민사령 개정에 의해 창씨 설정에 순응하기 위해 부내 천여 유림에 출선하여 5월 1일 애국일에 부 호적계에 목천(木川)으로 창씨 설정계를 제출했다.(1940.05.05.)

개성부 북본정 박봉진은 목산으로 창씨했다.(1940.08.10.)

28) 행정과 처벌

(1) 행정

개성의 도평의원 공성학 외 3인은 2월 21일 오전 총독부 내무국장을 방문하고 송도면의 부행정 시행과 수도부설에 관한 건을 진정했다.(1930.02.26.)

개성부 승격축하회는 6일 오후 0시 반부터 개성 경덕정에서 정무총감, 내무국장, 경기도지사, 재무부장, 세무과장, 지방과장, 식산은행 두취, 기타 인군 군수, 경찰서장 등 내빈, 개성부내 관민 유지 수백명이 참석하여 개최되었다. 식전에 개성부내 각 학교 생도 4천여 명이 식당 앞에 나열하여 축하 만세를 불렀고, 개성부내는 여러 가지 흥으로 축하기분이 가득하다.(1930.10.07.)

1935년 중 개성부청 호적계에서 취급한 통계숫자는 다음과 같다. 건수 3만 1,700여건, 호적 등초본 수수료가 작년에 비해 152원 60전 증가. 인감증명 및 수수료가 작년보다 348원 40전 증가. 출생자 2,211명, 사망자 172

명.(1936.01.24.)

(2) 선거

작년 5월에 개선(改選)한 경기도 도회의원 중에 선거규칙 위반으로 당선 무효 선언이 1월 14일 경기도보로 발표되었다. 개풍군에 입후보하여 당선되었던 조성준은 그후 경찰로부터 의혹을 받아 선고규칙 위반이 판명나서 검사국으로 회부되고, 작년 9월 27일에 기소 판결까지 나서 벌금 20원형에 처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에 불복하여 고등법원에 상고까지 하였으나 12월 24일부로 상고 기각이 되어 당선 무효가 된 것이다. 그리하여 도에서는 작년 개풍군에서 출마하였다가 차점으로 낙선된 신정균에게 차점 당선의 통지를 발하고, 1월 17일까지 이에 회답을 기다리기로 되었다.(1938.01.15.)

(3) 도박 처벌

지난 6일 오후 10시부터 12시까지 부내 지정에서 4명이 화투를 가지고 1전 내기 도박을 하다가 순행하던 개성서원에게 발견되어 즉시 인치되고, 지난 7일에 1명당 벌금 20원씩의 즉결 심판을 했다.(1934.03.11.)

3. 고양

1) 농민과 농업

(1) 소작인

지난 여름 능곡 일산 일대는 침수 피해가 컸다. 그 때문에 모는 모두 녹아서 없어졌다. 이 땅을 소작하는 소작인 400여호(동척회사 작인 200여호) 2천여 명은 여름에 사람이 차마 먹을 수 없는 쪼갬물 뿌리와 지게미와 겨죽 등으로 연명을 했다. 다른 개인 지주들은 소작료 면제와 반감을 해주었음에도, 동척회사는 예년과 같은 소작료를 납입하라는 독촉이 성화와 같다. 소작인 측의 말에 의하면 회사의 간평인이 일산 등지의 수해가 없던 곳과 또는 능곡역전에서 떨어진 산간의 수해가 없는 것을 보고 동일한 보고서를 제출하여 예년의 도조를 이 황무지가 된 곳에서까지 받으려고 하 지나 않는가 하며 그들은 계속하여 회사에 대항할 기세를 보이고 있다.(1930.11.19.)

(2) 수리조합

2월 29일 고양군청에서 토지소유자 80여 명이 모여 고양수리조합창립기성회를 개최했다. 즉석에서 위원회를 개최하여 경기도 당국과 총독부 당국에 진정할 것을 가결했다. 진정위원은 12명이다.(1940.03.05.)

2) 소년

고양군 벽제면 고양리 주막농촌진흥회에서는 유년들에게 단결심을 양성하여 선

량한 행위를 배양하며 악행을 징계하여 제2대의 농촌진흥회원을 철저히 양성하기로 역원 및 유지 제씨의 찬동으로써 8월 6일 벽제관에서 유년 50여명을 집합하여 주막농촌진흥회 부설 유년부를 조직하였다. 참석한 진흥회장(박창운) 외 유지 다수가 참석하여 각각 축사를 했다. 부장과 제1~제5반장 선임을 했다.(1933.08.11.)

3) 재해, 이재민

고양군은 9월 29일 지주회를 개최하고 한해 대책을 난상 토의했다. 그 결과 고양군 임시한해대책위원회를 조직하고 다음과 같은 구제방법을 실행하기로 했다. - 이재민에 대한 정신적 도야 및 생활 안정에 관한 사항, -지주 및 소작인간에 도의적 이해 결합에 관한 사항, -한해 대책사업 수행에 관한 사항, -취로 희망자의 알선, 노임 살포에 관한 사항, -부업 장려 알선에 관한 사항(1939.10.03.)

4) 양잠

고양군 각면에 배치한 재상지도기수의 직제를 금년 4월 1일부터 산업지도기수로 변경하였다. 종래 양잠교사로 반드시 여자를 사용하였으나 올봄부터 남자로 변경했다. 사육시기 중에 채용하던 것도 춘하추 계속 종사하기로 변경했다. 금년은 양잠가를 위해 군농회 경비(면비로 일부 지불)로써 김포군에서 생산한 죽제 잠박 750매(1매 단가 9전 5리)를 구입하여 우선 벽제면 당업자에게 전부 무료 배부했다. 이후 매년 차례로 보급시킬 모양이다. 재래 추제(萩製) 잠박보다 체재가 간첩하고 중량이 가벼워서 사용이 편리하다.(1935.05.29.)

5) 동원

2월 27일 고양군청 제1회의실에서 저축 좌담회를 개최했다. 군내 금융조합 이

사 5인, 면장 9인, 각 면 저축조합장 9인, 직역저축조합장 3인, 지역조합장 3인, 고액소득자 3인, 도 이재과장, 지방체신국장, 신문기자 등 60여 명이 회합했다.(1942.03.03.)

고양군은 1월 28일 군청회의실에서 국민총력 고양군연맹 이사회를 소집하고 실천요강을 토의했다. 먼저 제1차으로 반드시 실행할 사항 11건을 결정했다. 결정 사항은 1. 매일 아침 궁성요배, 2. 정오 묵도, 3. 국기제양, 4. 국어보급, 5. 무위도식배의 배격, 6. 간이 절약생활의 강행, 7. 충후 후원의 강화, 8. 상회(常會)의 여행, 9. 식량대책의 여행, 10. 저축 여행 국채 응모, 11. 근로 배가.(1941.02.01.)

고양군은 4월 24일~25일 양일에 걸쳐 남녀, 부인을 벽제관에 출동시켜 근로작업 훈련을 시행했다. 출동인원은 남자 750명, 여자 846명이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작업훈련을 하였다. 그중 우수한 부락에는 상품을 수여했는데, 남자부 수상 부락은 고읍 외 20개 부락, 여자부는 두보 외 24부락이다.(1942.05.03.)

국민정신충동원 고양군연맹은 7월 4일 신도면에 있는 신도공립소학교에서 부락연맹 이사장대회를 개최한다. 당일 출석자는 314명이다.(1939.07.04.)

문화(극단 문화좌 일행은 2일에 고양 벽제에서 3일간 흥행한 후 경성으로 향한다.(1934.11.07.)

6) 유림

고양군 유도회는 관내 각 면에 지부를 설치했다.(1940.02.10.)

7) 송덕

고양군 벽제면 고양리 한성현(74)은 동리 무의무탁한 빈민 56인에게 가옥을 매수해 주었다. 1912년부터 매년 음력 연말을 당하면 45호에 백미 1두씩을 나눠주었다. 양주군 고령면 보광사에 많은 재산을 들여 퇴락한 사찰을 중수했다. 동민들은 송덕비까지 세웠다.(1931.05.14.)

8) 창씨

고양군 선출 경기도의회 의원 겸 고양군 지원병후원회장 겸 고양군식량배급조합장인 이응호는 무곡일흥으로 창씨와 개명을 했다.(1940.06.01.)

4. 광주

1) 인구, 국세조사

광주군에서는 국세조사를 앞두고 준비에 착수했다. 6월 22일부터 양일간 각면 서기 2명씩을 집합하여 타합회를 개최했다.(1935.06.25.)

2) 농민과 농업

(1) 농업

광주군에서 1단보에 퇴비 300관을 목표로 일대 계획을 세우고 군청원 총출동으로 8월 5일부터 9월 25일까지 적극 지도에 당하고 있다. (1934.08.30.)

광주군에서 1931년 이래 자급비료의 축성을 목표로 일반 농가에 해아리벧지의 보급을 장려했다. 지금 일반 농가로 하여금 매년 식재열이 팽창하였다. 금년도에는 집단 재배의 철저를 기하여 농가의 금비 남용을 방지하고자 군농회 기수의 지도로 광주수리조합구역인 구천면 고덕리에 약 25정보 가량의 집단 재배를 시켰다. 이번에 이것을 장려하고자 품평회를 개최하였다. 1단보 500관에서 최고 1천 1백관이라는 조선 최고를 자랑하는 성적을 거뒀다.(1935.06.20.)

광주군의 면작은 극히 드물었으나 요새 국책적으로 또는 세계의 경제를 좌우하는 특수 산품으로 이를 철저히 지도 장려하기 위해 산업기수 착임 이래 10개년의 계획을 세우고 군내 경지 발면적의 2할 5분의 목표로 1934년부터 지도한 결과 금년에 와서 10개년 계획의 약 7할이라는 초고속도의 진전을 보여 800정보라는 굉장한 면적의 실시를 보이고 있다. (1936.08.12.)

(2) 지주

광주군에서 25일 광주공립보통학교 대강당에서 지주 마름 간담회를 개최했다. 경기도 소작관 입회 하에 경찰서장, 금융조합 이사, 수리조합 이사 등과 지주, 마름 약 150명이 출석했다. 소작지의 배분 등 18개조의 결의 사항을 협의 결정했다.(1933.10.29.)

지난번 광주군 당국에서 지주와 마름 간담회를 열고 결정한 것은 말뿐이고 악행은 더욱 심하다. 소작인들을 무리하게 사역을 시키고, 어떤 마름은 군청에서 추경까지 시켜 갈아놓은 것을 소작권을 박탈하였다. (1933.12.19.)

(3) 농촌진흥

광주군 대왕면 금토리는 작년도에 농촌진흥회가 생겼다. 구매조합을 설치하고 일용품으로서 석유, 성냥, 비누, 염료 등의 생활상 필수품을 구입하여 중간 상인의 착취를 방지하고 부업적으로 호당 10마리의 양계를 실행하여 계란을 출하한다. 양우, 양돈을 장려하여 송아지 14두, 돼지 17두를 사육하고 있다. 구입 당시에는 14월 가량의 것이 30원 내지 40원의 이익을 보게 되고, 겸하여 황무지 2천여 평을 7원에 매입한 후 회원 전체가 이를 공동 경작한다. 금년 수입으로 정조 9석, 대맥 3석 3두, 대두 2석 5두의 수확을 거뒀다. 도급기 2대를 구입하여 임대한 것이 약 4석가량이다. 회의 기본금으로 저축한 것이 현물 약 40원어치, 현금 36원 남짓이 적립되어 있다.(1933.11.11.)

3) 공업

300년 역사의 광주 사기는 근래 상당한 기술자와 자본금이 없어 나날이 그 품질이 저하됨을 보고 경기도 산업과장(장윤식)은 그 원료를 중앙시험소에 의뢰하여 분석하고, 또 실지로 여주, 광주 등지에 출장하여 상세히 조사했다. 그 결과 상당한 자금과 기술자만 있으면 예전처럼 광주 사기의 진가를 발휘할 수 있음을 간파

하고 그 준비에 몰두 중이다.(1930.06.08.)

4) 부업

광주군 동부면 하산곡리에 있는 산곡농촌진흥회와 하산곡 양우식산계에서는 1932년도에 진흥회가 되면서부터 가정부업을 장려하기 위해 여러 가지 고려했다. 1933년 겨울부터 가정공업의 부업으로 파리채를 제조하기로 하고 이것을 철저히 실행했다. 점차 숙련하여 7, 8세의 여아로도 충분히 습득하게 되었다. 작년도부터 이것이 일반시장에 나오게 되어 외국에서 수입되는 수입품(만주국과 대판 등)을 능가하리만큼 실용적이 되었다. 작년도 생산품 4만본을 산출하고, 금년도 역시 5만본의 산출을 시키고 있다. 광주군과 경찰서에서는 이것을 광주특산물로 만들고자 후원 지도 중이다.(1935.07.28.)

5) 금융조합, 식산계

식산계(금년도 법인 식산계는 이미 각 금융조합에서 예선 조사하여 신청 중에 있다. 지난 28일부로 광주군 관하에 10개 식산계의 설치 확정 통지가 있었다. 작년도 4개소를 합하여 14개소가 되었다. 이는 이전 양우식산계에 인식이 깊은 관계로 양우를 목적하는 것이 아니라 산업조합과 동일한 법인계로서 작은 금융조합이라도 할 수 있다.(1936.06.11.)

광주군 실촌면 곤지암금융조합은 비상시국에 일반 물가의 불균일과 1년간의 총결산인 추수기에 출회 벼의 과다로 생산자의 손해를 생각하여 이사는 10월 17일부터 일요일마다 조합원에게서 매도하고자 하는 소구(小口) 생산을 규합하여 검사를 마쳐 경쟁 입찰을 하여 일반 조합원에게 이익을 도모하여 주므로 일반으로서 감사해 마지않는다.(1937.11.02.)

6) 동원과 헌납

(1) 동원

광주군 동부면 신장리 중앙을 관류하는 덕흥천 개수 공사는 6월 27일 총공비 1만 2천원으로 기공했다. 지금까지 청부업자에게 청부시키던 것을 해당 면사무소에 청부시켜 관내 각 리에 분담하여 인부를 출역하게 하여 순전히 민민의 손으로 완료할 계획이다. 공사구간은 2,600미터로 민민에게는 새로운 제방으로 방수의 일조와 1만 2천원이란 거금을 얻게 되는 일석이조의 도움이 되는 공사이다.(1937.07.01.)

광주군은 군청과 경찰서에서 시국 인식에 대한 강연회와 시국 좌담회, 사변(事變) 영화대회 등으로써 재삼 인식의 강화를 시키고 있었다. 그러나 반면에 있는 농촌부인들의 아직까지 철저히 못한 인식을 충분히 주입시키고자 군 사회계 여자 축탁(조재숙)을 강사로 11월 5일부터 30일까지 전군을 순회하며 농촌부인 시국인식 강연회를 개최한다.(1937.11.02.)

광주군의 총후 미담은 다음과 같다. 1. 퇴촌면 이석리 농촌진흥회원 49명은 10월 22일 중앙선 철도공사장에 가서 생업보국의 정신으로 하루의 노동을 하여 일금 45원 75전을 얻어 분원주재소에 지참하고 황군위문금으로 헌납했다. 그 동리 세 사람은 이 소문을 듣고 각자 찹쌀 한 말씩을 내어 떡을 만들어서 공사장에 간 회원들에게 점심으로 제공했다. 1. 남종면 귀여리 제경동 부락 24호는 24명이 중앙선 철도공사장에 가서 1일간에 보국노동을 하여 일금 24원을 헌금했다. 1. 언주면 역삼리 역촌진흥회는 응소한 일본인 형제의 남아 있는 부모를 위해 부락 청년 37명이 10월 21일 밤 달밝은 때를 이용하여 농사지은 벼 20여 석을 무상으로 털어 마쳤다. (1937.11.02.)

광주연초판매소와 광주군청은 현지 파견 황군을 위문하고자 12월 10일부터 1월 10일까지 군청은 각 면을 통해, 연초판매소는 각 소매인을 통해 가씨도기 연초를 모집했다. 군청분은 4,592건으로 459원 20전에 달하고, 연초판매소분은 8,691건으로 869원 40전에 달하여 합계 1,328원 30전의 다액이다. 이것을 즉시 현지 파견 황군에게 보내게 되었다.(1938.01.15.)

7월 7일 광주군내 16개면에서 근로보국단 결단식을 거행했다.(1938.07.10.)

(2) 현금, 헌납

광주군 대왕주재소에 근무하던 자가 응소되어 대왕면 세곡리 농촌진흥회 부인 부장이 솔선하여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천인침을 완성하여 보냈다. 초월면 면장 이하 8명과 각 리 대표 12명은 일용품을 절약하여 출정 황군에게 보내달라고 21원을 군사후원연맹으로 기부했다. 동부면 미사리 기독교회 신자 10명은 주일마다 약간 돈을 수납하여 20원과 위문문 10통을 첨부하여 출정 황군에게 보내달라고 동부주재소를 통해 기부했다.(1938.07.10.)

광주군 낙생면 판교리 부인부는 1월 1일 차례 비용을 절약한 돈을 모아서 16원 20전을 소관 주재소로 가지고 가서 국방현금으로 보내달라고 의뢰했다.(1942.02.06.)

7) 여성

2월말 현재 99개 부인회가 창립되고 회원이 3,726명이다. 회원 중 1회원 1시미(匙米) 저축을 실시하여 작년 9월부터 2월말까지 실시회가 39회, 회원 1,123명이 397원 91전의 실적이다.(1934.03.26.)

광주군 국방부인회는 총후보국 강조주간을 계기로 4월 30일 군청회의실에서 폐물이용전람회를 개최했다. 출품 총수는 130점이고, 대성황리에 오후 5시경에 폐회했다.(1938.05.07.)

8) 의생활

광주군에서는 장날마다 관공리가 총출동하여 각각 연로에서 흰옷 입은 사람을 조사하면서 흰옷이 불이익하다는 선전문을 나눠준다. (1933.12.14.)

광주군에서는 농촌진흥 필행사항 중 필선 항목으로 색복 장려를 해온 지 이미 4년을 거듭했다. 군당국에서는 염료를 공동구입하여 각 농촌진흥회에 염가로 배부했다. 제1회 공동구입 염료는 683근으로 983원이다. 제2회 공동구입을 계획하

고 있다.(1935.12.21.)

9) 종교

10월 25일 광주신사 추계대제 거행했다. 마침 일요일이므로 관민 500여명의 참배자가 있었다.(1936.10.28.)

10) 연료

광주군 1년간 연료 소비의 대략을 조사하면, 총호수 15,178호로 목탄 3만관, 장작 349만 8천관, 가지 잎 587만 7천관, 지초(芝草) 1,264만 2천관으로 총계 2,204만 7천관이다. 이는 가격으로 37만 8,980원 가량이다. 이것을 절약하는 선결문제로 취구 개량에 착수한 지 약 4년간에 총취구수 39,048개 중에 이미 개량된 것이 13,515개이다. (1933.12.23.)

11) 위생

광주경찰서에서는 각면마다 1개부락씩 위생지도부락을 설치하고 각 부락마다 공동욕장을 실시하기로 안을 세웠다. 먼저 1개면에 4,5개소의 공동욕장을 설치하기로 하여 실시중에 있다. 소요 비용은 각 면 위생조합 혹은 진흥회의 공동 출역으로 건설되므로 경비 역시 가마 1개만 구입하게 되므로 극히 근소한 비용으로 건설된다. (1935.07.28.)

광주경찰서장은 3개년의 계획을 수립하고 각 진흥회와 연락하여 공동욕장을 건설하기로 결정했다. 먼저 금년도에 120개소를 설치하기로 하여 욕장용 가마솥을 전부 공동 구입하여 축조했다.(1935.11.26.)

광주경찰서에서 경기도 경찰부 지시에 따라 26~28일 3일간 폐결핵 예방주간으로 정하고 경찰서와 관하 각 주재소에서 극력 예방에 노력한다. 관하 각 진흥회

와 연락하여 일반의 무료 검진을 실시한다.(1936.05.29.)

12) 체육

광주군에서 일반 사회인의 체육 향상 발달을 위해 국민정신 작흥에 이바지하고자 라디오체조회를 조직하고 21일부터 광주공립보통학교 교정에서 매일 오전 6시 정각부터 라디오방송에 따라 약 30분간씩 체육운동이 있다. 회장은 군수, 부회장은 경찰서장이다.(1936.07.25.)

이천 축구단 주최, 매일신보 이천지국 후원으로 제3회 근기축구대회를 개최했다. 6월 1일 이천운동장에서 예선전을 마친 결과 광주, 이천팀이 결승전을 하게 되어 결국 광주팀이 우승했다.(1941.06.06.)

13) 진정운동

중앙선 정거장의 위치문제로 광주군 퇴촌·남종의 양 면 주민과 양주군 와부면 능내리 부근 주민들로 정거장 설치 진정운동이 일어났다. 현재 예정 위치인 양주군 와부면 팔당리와 양평군 서종면 양수리 사이에 있어서 부근 일대에 약 250여 호를 형성하고 있는 중요한 지점이다. (1937.07.01.)

5. 김포

1) 농민과 농업

(1) 농업, 농촌진흥

김포군은 1일부터 퇴비 증산운동을 전개하여 각 면에서도 이에 호응하여 일제히 독려진을 정비하고 퇴비의 증산 확보와 품질 개선에 지도상 만전을 기하고 있다.(1944.08.04.)

김포군 하성면의 농민수양청년회에서 면, 주재소의 후원을 얻어 8월 8일 오후 2시부터 9일 오전 11시까지의 하룻밤 강습회를 개최했다. 군수, 서장, 면장 등의 강사로 군내 각 진흥회 증견인물 100여명의 회원이 집합했다.(1933.08.13.)

(2) 소작인

김포군에서는 소작권 이동이 심해서 농민들은 전전공공의 상태이다. 그중 심한 것은 이양기에 임농 탈경도 많다. 대개는 군 소작위원회의 조정, 권해(勸解)에 의해 원만한 해결을 본다. 김포군의 소작쟁의 건수는 금년에는 5월 현재 벌써 11건이다. (1934.06.01.)

(3) 자작농

김포군에서는 총독부 10개년 계획에 기준하여 1932년도부터 매년 11호씩의 자작농을 설정해 오고 있다. 금년도부터는 재래의 산재적인 선발 설정보다 집단촌락을 단위로 집단적 설정을 하는 것이 성적이 양호함에 비추어 군수는 금융조합

이사와 함께 지난번 경성에 가서 각 방면으로 활동했다. 4만여 원의 저리자금을 융통하여 양서면 개화리 내촌진흥회, 고촌면 신곡리 장서, 천등현 양 진흥회, 은 행정진흥회의 세 곳에다 합 100여호의 자작농을 설정한다. 이식은 년 8푼 9리 가량으로 15개년 연부로 상환한다. 토지구입에도 지주와 누차 절충하여 평당 20 전 내지 25전의 염가이다. 이같이 다수의 자작농을 집단적으로 설정하기는 전조 선적으로는 효시이다.(1934.01.23.)

(4) 지주

김포군은 5월 30일 군청 회의실에서 지주대회를 개최했다. 농산물 생산확충과 금년도 미곡 공출에 대한 간담을 하고, 이어 김포군 지주보국회 결성식을 했다. (1943.06.03.)

(5) 수리시설

김포·고촌·검단·양촌·하성·대곶·월곶 등 7개면 42개리를 포용하여 물리구역 4천 정보와 총공사비 190여만 원 예산으로 공사에 착수하였으나 당시 곡가 폭락으로 수지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업 실시를 중지한 이래 9년이 지난 수리조합문제가 최근 또다시 나타나게 되었다. 그 실시 방침을 보건대 김포수리조합을 부활시키자는 것과 부평수립조합 물리구역을 확장시키자는 것이다.(1939.11.01.)

2) 상업과 소비

(1) 상업

김포군농회에서는 하성면 가마니시장이 마곡리에 있어 생산자가 희생하고 있는 운임 매당 3리를 없애기 위해 가마니 직접 반출장소인 신리에 시장 1개소를 증설할 방침이다. 반대측에서는 마곡시장의 사활문제라 하여 맹렬한 반대운동을 일으키고 있다. (1935.03.30.)

12월 3일 김포상공조합 가사무소(두밀상회)에서 군내 고무신소매업자 11명이 모여 김포군고무화소매인통제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일반 필수품인 고무신 배급통제에서 그 배급조절의 원화를 기하고자 하는 목적이다.(1940.12.05.)

경성부 현석정 홍재익이라는 청년은 1942년 11월 하순부터 미곡 암거래할 의사를 가지고 김포군 김포면 결포리 방말구 집에 거주 수속을 한 후 동지와 연락하여 경찰의 눈을 속여가면서 교묘하게 그 부락에서만 백미 120가마 가량을 사다가 그를 전부 야간에 목선으로 경성방면에 반출하여 1가마에 45원 내지 50여 원에 전매한 금액이 약 5천여 원에 달한 사실이 김포경찰서에 발각되어 관계자 10여 명을 김포경찰서에 유치 조사중이다.(1943.01.27.)

(2) 소비

김포 연초판매소 관할구역 내에서 1940년중에 판매된 연초대 총액은 18만 2천 원이다. 1인당 3원 40전이라는 막대한 숫자이다. 작년 중에는 고급 연초가 예년에 비해 배급이 원활치 못하였던 관계로 보통 연초가 대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종전과 같이 고급연초가 판매되었다고 하면, 실로 막대한 금액에 달하였을 것이다.(1941.02.01.)

3) 부업

김포군에서 부업으로 기직을 대대적으로 장려한다. 금년 4월부터 7월 말일 3개월간 성적이 전년도 1년분(1933년도 월곶면, 하성면, 대곶면 3개면 4,672필)과 거의 같은 숫자인 4,585필이다.(1934.09.16.)

김포군에서는 1934년부터 직조를 장려했다. 지금은 군내 303호에서 직물을 실행하고 있으며 기계 대수도 311대이고, 마포와 인견 등이다.(1936.06.24.)

4) 동원

김포군내 근로보국단은 1단체에 17명씩, 모두 153명을 1대로 매월 한 번씩 교대하여 양서면 토목공사장에 출동한다. (1939.12.05.)

김포군은 관내 각 연맹이사장대회를 2월 3일 개최했다. 각 이사장 200여 명이 출석했다. 결의사항으로 회원은 매월 1회 이상 신사에 참배할 것, 절미운동의 강화 철저를 가결하고, 또 북중국 전선에서 악전고투하는 황군에 감사함을 표하는 전문(電文)을 결의하여 지나파전군사령관과 함대사령관에게 발송했다.(1940.02.10.)

8월 10일은 제2주년 장고봉사건 기념일이다. 김포군은 동공립소학교 강당에서 시국강연회를 개최했다. 연사는 경기도회 의원 오춘승우(이승우)이다.(1940.08.10.)

조선방공협회 2주년 기념일을 맞아 김포지부는 15일(기념일) 일반 민중에게 방공사상을 재인식케 하여 국민정신을 양양케 하고자 김포 신명신사 대전에서 기념식을 성대히 거행했다.(1940.08.17.)

김포군은 10월 28일 국민총력김포군연맹 결성식과 총회를 개최했다.(1940.11.01.)

김포군 근로보국단이 멀리 청진 일동철도회사 공사장으로 가서 약 6개월 동안 '대동아 건설'의 힘찬 광이를 움직이게 되어 7월 1일 일행 76명은 군 총력계 주임의 인솔로 출발했다. 이들은 김포·대곶·양촌·하성·양서 면내의 중견 청년부대원들이다.(1941.07.02.)

국민총력 김포군연맹은 2월 11일 기원절 국민봉축을 실시한다. 실시사항은 다음과 같다. 1.당일 오전 9시를 기하여 각 있는 곳에서 궁성요배를 행할 것, 그 시각은 사이렌 또는 종으로 알린다. 2.당일 오전 8시 궁성요배는 평소와 같이 행할 것, 3.관공서 학교 회사 공장 등에서는 식을 행하고 기원2600 기원절의 조서 봉독식을 거행할 것(단 각 학교에서는 학교 단위로 함), 4.각 신사에서는 기원절제를 거행할 것, 이 제전에는 면민 다수 참가하여 필승기원제를 거행할 것, 5.각 면 연맹에는 신사 학교 기타 적당한 장소에서 봉축행사로 거행할 것, 6.봉축행사는 제전과 밀접한 관련 하에 거행할 것, 7.각호 국기게양에 주의할 것, 8.당일 소재 지에서는 군 및 면 연맹과 합동 주최로 기원절 제전 및 배하식을 거행하되 각 공서 직원 및 각 연맹원 등 다수 참석할 것.(1943.02.07.)

금년도 김포군의 저축 목표액은 145만원이다. 작년도 목표액 90만원에 비해 55만원이 증가되었다.(1943.06.01.)

국민총력 김포군연맹은 정전(征戰) 제3주년을 맞이하여 7만 군민으로 하여금 총력운동의 실천 철저를 기함과 함께 귀축 미영을 하루라도 빨리 쓰러뜨리자면 1억 국민이 한 덩어리가 되어 멸사 봉공의 군은 결의로써 생산확충과 전력증강에 총력을 들여 정신(挺身) 봉공할 중대시국에 대비하고자 1월의 실천사항을 관하 각 면연맹에 발하여 종래로 예에 의한 형식적 구태를 버리고 최긴급한 실천사항만을 중점적으로 강력 실천을 기하도록 7만 애국반원에 반성을 촉진시키고 필승신념을 더욱더 굳게 하여 성전완수에 매진하기를 깊이 요망하였다.(1944.01.08.)

김포군은 얼마 전부터 은과 니켈 등 금속류의 회수 운동을 전개시키고 있는데, 김포경찰서는 이 운동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필승기원제’ 기간 중에 1주일 동안 ‘은’ 헌납운동을 일으켰다. 서장이 격려문을 발송하여 5월 29일까지 수합된 은제품이 4만 350돈에 달하여 즉시 해군무관부로 헌납 수속을 마쳤다.(1945.06.02.)

5) 청년

김포군 하성면은 면내 청년으로 하여금 미영격멸의 필승신념을 한층 양양시키 고자 2월 27일 오전 10시부터 하성국민학교 교정에서 하성청년단 사열식을 거행 했다. 시열(視閱)과 체조, 교련, 분열 행진 등으로 식을 마친 다음 계속하여 가마 니짜기 경기대회가 개최되었다.(1944.03.04.)

6) 광업

김포군 월곶면 고양리 부근 금열산과 태봉산 일대에 금광이 발견되어 경성부 마포 조성현이 시굴한 금돌을 총독부연료연구소에서 분석해 본 결과 1만분의 8이라는 다량의 금이 함유되어 있어 즉시 채굴인가신청을 제출했다.(1933.01.07.)

7) 의생활

농가경제의 합리화라는 슬로건 밑에 생활개선운동으로서 색복장려가 진행되고 있다. 김포군에서는 유명무실의 선전 장려에 만족치 않고 실질적 실행을 위주하여 제1작으로 각 진흥회별 염색강습회를 시행하였다. 제2작으로 각 진흥회가 염료를 공동구입하도록 하기 위해 군당국의 알선으로 경성방면에 교섭 중이다. 작년 11월 19일 김포읍 상공진흥회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염료구입의 건을 제출했다.(1934.01.21.)

8) 문화

영등포, 인천 등지에서 순회 흥행하는 극단 조선연극회는 단원 30여 명이 29일 밤부터 3일간 김포 읍내 가설극장에서 양극 '800호 갑판상'과 향토극 '아리랑' 기타를 공연한다.(1934.10.03.)

10월 2일부터 9일까지 8일간 김포 가설극장에서 제1회 순회공연을 마친 극단 '조선연극회'는 김포소방조와 매일신보 김포분국에 각 금일봉을 의연했다.(1934.10.12.)

9) 위생

김포군 양촌·하성·고촌 3개면은 4월 16일부터 3일간 일본적십자사 조선본부로부터 의사 2명과 간호부 1명이 출장하여 순회치료를 했다.(1940.04.25.)

김포군은 국민건강주간을 맞아 국민운동과 위생정신에 대한 인식을 함양시킴에 노력 중이다. 5월 4일 소학교 강당에서 이 운동의 강화를 목적으로 강화회와 좌담회가 있었다. 경기도 축탁 다구(多久)씨의 유창한 조선말은 일반에게 다대한 환심을 주었다. 저녁 7시부터 경기도에서 특파한 영화반 영화회가 있었다.(1940.05.07.)

국민건강증진주간에 즈음하여 김포경찰서는 4월 28일 관내 각면에서 일제히 관민 유지를 각 신명신사에 모이게 하여 결핵 예방에 관한 영지 봉독식과 건강 기원제를 거행했다. 경찰서 무도장에서 건강상담소를 설치하여 공의가 결핵예방과 진찰에 관한 상담에 응하게 하고, 공의를 중심으로 좌담회를 개최하여 일반에게

위생사상을 보급시켰다.(1941.05.02.)

10) 체육

조선신문과 매일신보 김포지국 공동주최로 5월 11, 12일 양일간 김포공설운동장에서 경서축구대회를 개최한다.(1941.05.02.)

11) 병력

제국군인 후보생으로 육군지원병 훈련소에 입소 중인 김포군 양촌면 학운리 심범택은 11월 17일 6개월동안의 훈련을 마치고, 29일 출소하여 일시 귀향했다가 내년 봄에 육군 현역 보병으로 입영케 된다. 귀향 도중 김포 읍내에 잠시 내려 신명신사에 참배한다.(1939.12.02.)

김포군 양촌면 학운리 심범택은 일시 귀향 중이던 바 1월 10일 용산연대에 입영하게 되었다. 1월 9일 김포 신명신사에서 입영봉고제를 거행하고, 오후 12시 반에 경성을 향해 출발했다. 출발 당시 각 단체와 일반 유지가 600~700명이 모여 환송했다.(1940.01.14.)

김포군 월곶면 개곡리 이경천은 일사봉공의 굳은 마음으로 혈서로써 지원했다.(1940.03.05.)

김포군 양촌면 학운리 출신 청송무부(심명택)는 조선 제22부대에 입영한 이래 정근상과 사격상을 받은 일이 있었는데, 이번에 상등병으로 승진되었다.(1941.02.01.)

12) 선전

김포군 경찰서 주관 사회교화 및 위생영화회가 열린다. 3월 17~8일간(제1회) 검월면 여래리, 3월 19~20일간(제2회) 하성면 마곡리.(1934.03.21.)

13) 납세

김포군에서는 11월 경기도 납세월 10일 납세데이를 기하여 군내 각 관공서원 기타 교화 단체와 진흥회를 총동원하여 군민의 납세 사상을 함양키로 부분적 강화와 집회적 강화를 구별하여 선전하는데, 11월 7일부터 10일까지 4일간 각 면을 단위로 한 집합적 강화를 시행한다.(1933.11.02.)

14) 가마니

곡물검사소 김포출장소는 4월 22일 김포군내에 가마니 증산 장려를 위해 협의를 했다. 증산 목표는 4월부터 10월까지 120만 매의 가마니를 생산하게 할 것이다.(1940.04.25.)

15) 단체

조선방공협회와 김포지부 연합주최로 일반에게 방공방첩 지식을 보급시키고, 국민총력연맹운동에의 협력을 철저히 할 목적으로 3월 1일 동공립소학교 강당에서 사상전 영화회를 개최했다. 회장은 대만원이었다.(1941.03.05.)

16) 일본어

내선일체에는 무엇보다 국어보급이 선결문제라는 견지에서 국민총력김포군연맹은 3월 1일부터 2개월 예정으로 김포군 회의실에서 국어강습회를 개최했다. 소재지 각 가정 주부에게 매일밤 2시간씩 초보국어 교수를 시작했다. 예정보다 1개월간을 연장하여 5월 31일 마감하고 수료식을 했다. 종래 단어 한 마디도 못하던

주부로서 간단한 회화는 무난히 하게 되었다.(1941.06.04.)

17) 창씨

김포군 하성소학교 교장 이하 교원 일동이 총동원하여 야간을 이용하여 면내 각 부락을 순회하며 일반 주민에 대해 창씨 취지 선전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또 학교에 창씨상담소를 설치하고 일요일을 이용하여 창씨 상담에 지도하여 창씨 신고하는 사람이 속출하여 많은 효과를 내고 있다.(1940.05.10.)

김포에서는 군청, 경찰서, 각면, 주재소, 각 학교에서 창씨 상담소를 설치하고, 야간 좌담회와 강습회 등을 개최했다. 그 결과 지난 6월말 현재 군내 9개 면 중 7개 면은 10월에 달하였고, 나머지 2개면은 금명간 전부 완료될 예정이다.(1940.07.05.)

6. 부천

1) 농민과 농업

(1) 농업창고

경기도농회 경영 소사농업창고(2동 226평)는 부천군농회에 이관하여 부천군농회의 정조 창고(6동 793평)와 같이 농업창고업령에 의한 창고로서 부천군농회에서 경영하려고 전부터 총독부에 인가 신청이 있었는데, 8월 27일부로써 인가되어 9월 1일부터 업무를 개시하기로 했다. 그리하여 소사에 본고, 부원 및 주안에 지고를 두게 되었고, 창고수는 10동, 건평 1,008평, 그 수용력은 약 4만 석이다. 이것을 합쳐 경기도의 농업창고는 7개소로 건평이 6,182평이다.(1936.09.01.)

(2) 농촌진흥

부천군 소사면 상리는 61호에 불과하며 대부분은 소작농인데, 이 마을의 부채는 5천여원이고, 대부분 3푼 5리 내지 4푼의 고리대이다. 대지주(神部正雄) 등 조일인 유력자들은 31명의 찬동으로 14일 소사공회당에서 상리갱생조합(조합장 신부정웅)을 창립했다. 지본금은 3,500원으로 이것을 350구로 나누어 조합원이 분배 출자하기로 했다. 먼저 고리채 3,000여원은 대금업자로 하여금 3분의 1을 탕감케 하여 조합이 체차하되 이자는 일보(日步) 5전 이내로 하고, 3개년간의 연부로 상환한다. 다음 농자 융통, 부업 자금, 부동산 구입 자금 융통, 일용물자 공동구입, 생산품 공동판매 등의 갱생운동의 철저한 원조를 목표로 한다. (1933.01.16.)

(3) 소작인

부천군 당국에서 조정중인 소작쟁의는 10여건에 달한다. 대부분 경성·인천의 상인들이 전답을 매득하여 자기의 친지 관계에게 작권을 이전시키려는 책동에 의한 것이다. 하등의 배임행위가 없는 소작인의 생활을 위협하는 바이라 하여 군당국에서는 농지령에 의해 단연 종전의 소작인을 보호할 의향이다.(1935.04.12.)

(4) 미곡

부천군은 농회, 금융조합 합동사업으로 미곡의 수급 조정을 기하기 위해 공동판매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 도당국의 취지에 응하여 군, 경찰, 면, 금융조합, 곡물검사소 등과 긴밀 협의를 통해 관내 식량 수급 조정과 인근 도시 식량대책에 공헌하여 비상시하 식량문제의 원활한 해결에 매진코자 10월 28일 관내 각 면장, 금융조합 이사, 곡물검사소장, 기타 관계 직원을 소사면 공회당에 소집하여 미곡수급 조정에 관한 회의를 개최했다.(1939.11.02.)

2) 공업

경성과 인천을 연결하는 소사에 이번 제약공장이 진출한다. 이곳은 교통편도 좋고, 지가도 비상이 싸서 금후 각종 공장을 유치하려고 도회의원을 비롯해 각 유지가 분주하다.(1937.01.04.)

3) 상업

부천군내 소사우시장은 15일 인가되었다. 장날은 2, 7일(음력)로 음력 세말 안에 개시할 예정이다. 인근에 있는 소래우시장은 다소의 타격이 있다.(1934.11.27.)

소사가축시장은 21일 오전 10시 성대한 개장식을 거행한다. 내빈 1천인에게 복권을 교부한다.(1935.01.20.)

4) 부업

부천군 계남면 벌응절리 박제환은 전월부터 동리에 제승 공동작업장을 설립하고 제승기 27대를 구입하여 우선 빈민 27명을 모집하여 작업을 개시했다. 제승기 사용은 무상이고, 원료도 자비 부담으로 일동에게 제공했다. 미가 저락과 연료가의 고등으로 동리 빈민들은 신탄 대신 원료로 쓸 짚을 연료로 사용하기 때문이다. 군당국에서는 저리자금의 융통을 도모하는 중이다.(1931.01.24.)

부천군에서 생산되는 새끼의 연액은 35만 옥(玉)으로 주안, 소사, 부평, 백석포의 4검사소에서 수검된 산품은 전년부터 전부 인천 가등정미소에 공급기로 되어 전년 5월부터 우선 1개년간 1등 15전, 2등 12전 5리, 3등 10전의 가격으로 계약이 체결되어 실행중이다. 그런데 약 1개월 전부터 이 정미소로부터 여러 물가의 저하라는 이유로 정가 인하의 요망이 있었다. 이에 농가경제의 타격과 계약관계에도 불구하고 가등정미소의 요망을 용인하여 1등은 12전, 2등 10전 5리, 3등 8전으로 인하했다. 수일 전부터 다시 품질 조악이란 구실로 재차 인하 청구가 있었다. 군당국에서는 전회 대양보가 있었을 뿐 아니라 농가의 경제와 부업 장려 관계에도 중대한 문제라고 하여 제2차 요망을 일축했다. 가등정미소의 태도도 완강하여 최근에는 일체 산품 구매에 응하지 않으므로 농회에서는 검사와 판매의 알선을 중지하고 가등정미소에 대해 최후적 태도에 나서기로 결정했다.(1931.01.24.)

5) 의생활

고무원료 가격 등귀로 대중적 실용품이던 고무신의 가격이 3할 이상으로 격등하여 부천군 내 농가에서는 다시 짚신을 삼아 신기로 되었다. 이로 인해 자급자족의 본질을 관찰하게 된다. 인천의 고무신은 막대한 타격을 받는다고 한다.(1937.12.04.)

6) 동원과 선전

(1) 동원

7월 29일 부천군 소사면은 관민 일체로 소사신사에 참배하고, 황군의 무운장구를 기원했다. 참배단체는 소사국방의회, 소사에국부인회분회, 오류동에국부인회분회이다.(1937.08.01.)

소사경찰관 주재소는 4월 26일부터 일제히 시행한 국민정신총동원 강조주간을 기회로 소사역전 각 영업자 100여 호에 대해 매월 50전 이상 생업보국저금을 적극 장려하여 4월분 저금액이 50원에 달했다.(1938.05.07.)

7월 7일 부천군에서 근로보국단을 조직했다. 각 도서면은 경비선을 출동시켜 빠짐없이 결성을 했다.(1938.07.10.)

1월 8일 소사신사에서 부천군 내 각면 근로보국단원 제3회 출동자 100여 명과 관민 300여 명이 집합하여 봉고제를 거행한 후 김포의 토목공사장에 출발했다.(1939.01.10.)

3월 2일 소사신사에서 부천군 내 각 면 근로보국단원 제5회 출동자 100여명과 관민 다수가 집합하여 권업과장의 점검 사열을 한 후 봉고제를 거행한 다음 자동차로 김포의 토목공사장에 출발했다.(1939.03.05.)

7일 중일전쟁 발발 2주년을 맞아 부천군 소사면은 6월 30일 각 리구장, 진흥회장을 소집하여 기념행사를 협의했다. - 국기 게양, - 오전 9시 소사신사에서 출정장병의 무운장구 기원제 거행, - 정오를 기하여 오전 11시 57분부터 3분간 사이렌으로 면민에게 주지한 후 1분간 묵도, - 근로보국 작업, - 위자(慰藉)와 위문, - 가무 음곡의 정지, - 일체주의(一菜主義)의 실행(1939.07.04.)

충후후원강화주간을 기하여 부천군은 소사소학교 강당에 관민 300여명을 모아 10월 3일 강연이 있었다.(1939.10.07.)

조선국민조직 신체제에 순응하여 부천군은 10월 27일 소사공회당에서 군내 각 면장, 각 관공서장 이하 참석으로 국민총력부천군연맹 발회식을 거행했다.(1940.11.01.)

군수 자재 수송을 위해 가마니, 섬피, 새끼 등 하루빨리 공출을 해야 하는 이때 부천군은 2월 말일 현재 4할의 공출을 보였다. 3월 중순까지는 책임 할당 수량은 가마니 40만 장, 섬피 40만 장, 새끼 13만 관의 완전 공출을 위해 3월 2일부터 군 권업과장의 총지휘로 군 기술관계 계원과 읍면 기술자를 총동원시켜 공출특공대로서 독려를 시키게 되었다.(1945.03.03.)

(2) 선전

부천군에서는 의례준칙과 색복착용의 보급 철저를 기하기 위해 본부 촉탁 유일 선을 초빙하여 강연회와 좌담회를 개최한다. 12월 5일 오후 1시부터 남동보통학교에서 강연회, 오후 7시부터 소사보통학교에서 각 면장, 각 학교장, 관공서 직원, 기타 유지를 중심으로 좌담회, 6일 오후 1시부터 부천보통학교에서 강연회 (1935.12.01.)

(3) 위문품

부천군 소사읍 심곡리 제4구연맹 이사장(삼정성현)은 1941년 6월에 취임한 이래로 일반 부락민의 시국인식을 철저히 시키고, 이번에는 일선에 있는 장병의 노고를 생각하고 미충이나마 염열(炎熱)에 사용할 부채라도 보내자고 애국반상회를 열어 협의했다. 그 결과 일반이 찬성하여 심곡리 제4구 연맹원 일동의 명의로 히노마루부채 144개를 매일신보 소사지국에 기탁하였다.(1942.07.04.)

7) 위생

부천군 계남면 소사리 의사 제육지조(堤六之助, 40)가 6일 인천 월미도에서 조탕을 하고 돌아가는 길에 상인천 역전 카페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 후 잠을 자다가 12시경 복통을 일으켜 설사를 하다가 7일 오전 7시경에 죽었다. 의사 2명의 입회로 공의가 검정한 결과 진성 콜레라로 판명되었다. 소관 인천경찰서에서는 부

근 일대를 대소독하고 교통 차단을 한 후 방역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인천경찰서장은 9일 새벽부터 소사에 출장하여 지휘 중이고 환자가 발생한 심곡리 및 인근 부락 주민들은 살살이 소사에 소집하여 예방주사를 행하며 부근 일대에 대소독을 행하는 중이다.(1932.09.10.)

소사 부근 주민 1500명을 비롯한 인천경찰서 관내에서 행한 채변은 경기도 경찰부에서 엄밀 검경(檢鏡)한 결과 전부 음성으로 결정되었다. 인천부내와 소사 부근 일대 주민에 대한 예방주사도 완결되었다.(1932.09.15.)

8) 청년

11월 2일 오전 9시 소사북국민학교에서 부천군 청년대회가 개최되었다. 식순에 따라 국기제양, 궁성요배, 묵도, 칩어봉독, 고사, 축사 선언 및 결의, 황국신민서사 제창, '우미유가바' 황국청년가 합창, 열단식 및 분열식을 거행하고,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청년단 경기대회를 열었다.(1941.11.06.)

9) 단체

부천군 소사면에서 17일 공회당에서 면협의회 및 지방 유력자 다수가 모여 소사국방의회 창립에 관한 협의를 했다.(1933.03.20.)

부천군 소사면은 7월 29일 소학교 내에서 소사국방의회 임시총회를 열었다. 역원 개선, 회원 확충 기타 시국에 응할 제반 준비에 유감이 없도록 기하는 것이 안건이다.(1937.08.01.)

10월 29일 소사소학교 강당에서 인천경찰서장, 부천군수 이하 단원 100여명이 모여 황거 요배와 국가를 합창한 후 조선방공협회규약에 의해 소사면 및 오정면 양면을 통합하여 방공단 결성식을 거행했다.(1938.11.01.)

10) 교통

13일 오전 11시 반 인천역을 출발한 444화물열차가 소사역을 지나 오류동역을 향하는 도중 오후 0시 반경 철도 궤도 위에 지름 1자 가량 되는 돌덩이가 얹혀

있는 것을 기관사가 발견하고 급히 정거하여 무사하였다. 범인은 수사 중이다.(1932.04.15.)

경기여객자동차주식회사는 종래 각 영업소에서 담임하고 있던 노선 영업을 폐합하고, 이것을 연장하여 1월 11일부터 순환 운전을 실시한다. 이번 교통망은 통근 통학생의 발이 되고 있다. 부평역전을 중심으로 서북으로 부평읍내 장기리를 거쳐 김포에 이르기까지, 동남으로 소사 소래를 거쳐 포리에 이르기까지 8대의 자동차가 노선을 트고 순환 운전을 하기로 했다. 오정 노선은 당분간 폐지하기로 했다.(1945.01.13.)

11) 병력

부천군 소사읍에서 11월 1일 지원병좌담회를 개최했다. 당일 석상에서 지원되기를 지원한 자는 53명에 달했다.(1941.11.05.)

12) 식목

부천군은 예년과 같이 4월 3일 부평역전 부근에서 벚나무 등을 기념식수했다.(1939.04.05.)

13) 진정운동

부천군 오정면 오곡리는 김포군 양서면으로 편입되었다는 설이 있어 오정면 오주리 대표자 10명은 지난번 경기도지사에게 행정구역 변경에 반대 진정코자 도청에 갔다. 진정 내용을 보면 원래 오곡리는 김포군 양서면, 부천군 계양면, 부천군 소사면과 인접한 부락으로 오정면 내에 제일 주요한 농산물 산지로 유명하다. 오곡리는 김포군 양서면에 편입하면 오정면 재정수입으로 면세만 1천여 원이 감소될 형편이므로 면민의 부담에 영향이 다대하기 때문이라 한다.(1939.03.15.)

4월 1일 도지사가 소사지방을 시찰할 때 지역 유지들은 소사의 발전책과 읍승격을 진정했다.(1941.04.09.)

14) 창씨

부천군의 창씨에 대한 운동은 군수의 열성으로 군민의 각성이 현저하다. 섬 시 월도에서는 당일 전 도민이 창씨하였고, 5월 30일 현재 총호수 2천 호를 초과했다. 전호수 1만 1천 호에 비해 5분의 1에 해당한다.(1940.06.01.)

15) 모범촌

인천경찰에서는 부천군 소사면 상리에 경찰모범촌락을 건설키로 계획중이다. 최근 공동작업을 겸한 집회소의 준공을 보고 18일에 서정, 군수 등과 동민 50여 명이 모여 개사식(開舍式)을 열었다.(1932.11.24.)

16) 행정(읍제)

부천군 소사면은 10월 1일 소사읍이 되었다.(1941.10.03.)

7. 수원

1) 인구

수원면에서는 8월 30일 국세조사 조사원에게 임명 사령 및 휘장 전달식을 거행했다. 조사원은 일본인 3명, 조선인 25명, 예비원 조선인 6명 계 34명이다. 또 30일과 31일 양일에 걸쳐 서무주임이 강사가 되어 강의를 했다.(1930.09.03.)

수원읍의 인구가 매년 증가하여 1938년말 기준 호수가 5,828호로 1937년보다 211호가 증가했고, 인구는 2만 6,300인에 1,048인이 증가했다.(1939.02.04.)

2) 농민과 농업

(1) 농민, 농업, 농촌, 농촌진흥

수원 부근 금년 날씨가 순조로워 양묘의 생육도 좋고 관수도 풍부하므로 이앙도 예년보다 10일쯤 일렀으며 작금 일제히 이앙이 시작되었다.(1930.06.08.)

수릉수리조합 조합원은 곡가가 작년 반가 이하에 있으므로 수리조합비의 금전 납부는 도저히 곤란하므로 곡가가 싼 해에는 벼로 대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한다.(1930.11.06.)

수원군농회에서 곡가 참락의 대책으로 벼의 공동판매를 하게 되었다. 이들을 주로 하여 세농의 소유 벼를 다소간이라도 고가로 판매코자 공동판매소에 반출할 벼는 미리 군 기술원이 건조 조정에 대해 충분한 검사를 행하고 건조 조정 불충분한 것은 방매치 않기로 하였다. 6일 제1회 공동판매 가격은 곡량도 1근 4전 4리 8모로 178가마, 또 12일 제2회 공동판매 가격은 곡량도 1근 4전 8리 6모, 옥■ 1근 4전 8리 5모로 175가마의 각 거래되었다. 인천 시세에 비해 각각 1리 6모의 고가를 보였다. (1930.11.14.)

조선농민회 주최 농민데이의 이양대회는 14일 오전 11시부터 수원농사시험장 시작답에서 거행되었다. 조선총독도 참여했다.(1932.06.15.)

10월 9일 수원군 회의실에서 군수 이하 직원 20여명, 경찰서장, 각 면장, 각 금융조합 이사, 기타 지방 유지 등 50여 명이 모여 농촌구제에 관한 협의회를 열었다. 결정된 방법은 3대 사업이다. 1은 9,900원으로 토지를 매수하여 20개년간 연부 상환으로 호당 660원씩 합 15호를 선정하여 소작농을 자작농으로 전화시키는 것, 2. 소농층에 대해 농량 저리대부도 하여 대부총액 50만원으로 본년도는 25만원을 대부하되 20년간 연부상환으로 회수하며 이자는 무이식, 각 면 평균 2천원 본년도는 1천원씩 대부하여 현재 공동경작조합 18개소, 기타 농사개량단체 등에 융통, 3. 승입 직조에 대한 부업 장려도 진력하여 그에 대한 원료를 공급해 준다고 협정하였다.(1932.10.12.)

수원군 각 면 각 리 각 촌락 농촌진흥회는 지난 10월 초순으로 600여 개의 조직을 완료하고 각각 제1회 총회를 개최하고 실지사업에 착수코자 노력중이다.(1932.12.04.)

수원 중심의 곡량도는 산액 20만여 석에 달한다. 각 부락 공산미(共産米) 개량 조합을 결성하고 산미개량에 노력한 결과 최근 주조미로 성가가 양호하여 각 시장과의 거래가 격증한다.(1933.10.26.)

가뭄 속에 16일경부터 수원군 정남면과 진위군 서탄면의 양 면민은 봇물로 인해 조금씩 충돌을 일으키고 오던 중 17일 밤에는 수십명이 자기들 편으로 물을 끌어넣으려 충돌을 일으켰다. 양군 경찰서에서 즉시 계원이 출동하여 해산시킨 후 조정에 노력 중이며 경기도에서도 조정을 위해 농무과원이 17일 현장에 급행했다.(1936.06.19.)

수원군은 금년 재배한 면화는 자가 소비를 최소한도로 절약하고 전부 공동판매소로 출회할 것과 내년 식부 면적은 1,600여 정보로 계획하여 그 예정지 조사도 완료했다. 내년에는 일석이조 격으로 맥간작 면화재배를 적극 장려하여 실면 100만근 수확을 목표로 한다.(1938.10.01.)

(2) 소작인, 소작료, 소작쟁의

수원군 최근 3년간 통계에 의하면 지주는 날로 감소하고, 반면에 소작인은 날

로 증가하여 총농가호수 23,625호에 소작농은 21,556호요, 지주는 2,069호이다. 대지주는 소지주로, 자작농은 소작농으로 전환하여 토지가 겸병되는 반면에 소유 토지를 박탈당하고 소작인으로 구축되어 날로 그 숫자를 증가하고 있다.(1933.09.16.)

수원읍 매산리 일대 1만 200평은 서명석의 소유 토지였으나 4월 초순경에 수원읍 남창리 전대평길(田代平吉)에게 평당 2월 55전씩에 매도했다. 신 지주는 대지료를 8할~9할 인상시켜 소작계약을 작성해 놓고 토지 내에 거주하는 6호 등의 10명을 불러 계약을 날인을 강요했다. 날인을 거부하자 가옥을 헐어서 나가라고 위협함에 대해 빈민들은 다만 소작인조합의 간섭으로 원만히 해결되기만을 바라고 있다.(1935.04.15.)

경성지방법원 수원지청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1월 1일부터 3월 말까지 채무 지불명령이 670건, 소작쟁의가 182건이다. 쟁의 이유는 태반이 지주가 무리하게 소작권을 이동시키는 것이며, 둘째는 지주 변동이다.(1938.04.07.)

(3) 자작농

수원군 성호면 외삼미리에서는 독지가 윤학영의 주선으로 밭 7정보, 논 13정보를 2만원에 매수하여 48호에 자작농을 창설했다. 원래 48호는 소작농이었는데, 그들이 소작하던 전답 20정보가 방매된다는 소리를 듣고 이를 매입하고자 오산금융조합 이사의 후원으로 윤학영과 윤학선의 사유 토지를 저당하고 자금을 차입하여 48호에 평균 분배 경작케 하고 토지 대금 상환은 15개년 연부로 상환케 했다.(1933.08.19.)

3) 공업

전 한은 수원지점 행원(서정옥)이 올봄 중국 청도와 제남에서 원료를 수입하여 맥고모자 제조를 시작하여 이번 여름 생산량 및 판매 성적은 직공 2명, 취업 49일, 생산량 600타, 도매가 800원, 판매는 주로 수원군 일원이다. 내년부터 다시 생산량을 증대할 판매를 확장중이다.(1930.09.26.)

수원군청에서 수원읍에 주류 양조장이 4개소에 있어 이를 하나로 통일하려고 연구했다. 지난 11월 수원양조주식회사에서 3개소의 양조권을 매수하여 주식회사로 통일했다. 사장(홍사안)은 통일 목적이 1. 생산비 절약, 2. 원래 주류의 불량한 맛을 좋은 맛으로 선택, 3. 소비자측에 절약과 편리를 도모하기 위함이라고 한다.(1933.01.08.)

수원읍에 작년 가을부터 총액 30만원으로 공사에 착수하여 곧 완성되는 농사시협장 잠사부 제사공장은 신촌 벽두 조업을 개시할 예정이다. 최근 발표된 남북면업주식회사의 조면공장은 수원역전 신도로 동쪽에 기지를 정하고 신축 공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 양 공장이 실현 작업하는 날에 수원 발전상 일대 박차를 가할 것이다.(1935.02.06.)

4) 상업과 소비

(1) 상업

6월부터 농우가가 폭락하여 7월 14일 시장에서 전무후무하게 폭락되었다. 금년 2월 경에 100원 시가의 농우가 50원에 지나지 못하므로 일반 농가에서는 공황중에 있다. 그러나 우육판매업자들은 우가 폭락은 조금도 생각하지 않고 고가이던 때의 우육가를 받아 대폭리를 탐하고 있다. 우육 1근에 상육 하육을 막론하고 40전씩을 받고 있으니 300근 되는 농우 1필이면 시가 40원에 지나지 못한다. 1근에 40전을 받는다면 300근 1필에 120원이므로 2배 이상의 대폭리를 탐하고 있다.(1931.07.16.)

수원소매상연맹회는 24일 오전 10시에 공회당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그 동기는 곧 봉급자측에서 소비조합을 설치하고 관공리로서 중역이 되며 주주가 되어 일용 물품을 모두 그 조합에서 배달 사용케 하고 그 외 타 소매점에서는 절대로 구입치 말기로 했다 함이다. 이에 공황을 느낀 수원 소매업자들은 이는 그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것이라 하여 대책을 강구코자 소매업자 40여명이 출석하여 결의 후 법원 수원지청을 방문하고 검사에게 진정했다.(1931.08.27.)

수원소매상연맹회는 경성상의 회두에게 구매조합 저지에 진력하기를 바란다고

진정하였다.(1931.08.29.)

수원 읍내 시장 사용료는 평당 8전씩인데, 살인적 불경기에도 여전히 그대로 징수하고 있다고 일반 상업가의 불평이 많다.(1931.10.06.)

수원을 연초소매상 22명은 26일 공회당에 집합하여 토의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공직자소비조합이 설치된 이래 최근 5전짜리 연초 1갑을 4전5리씩에 판매하므로 교섭위원을 선정하여 연초판매국장에게 교섭하려는데, 교섭할 내용은 균일하게 4전 5리씩에 판매하게 해달라는 것이다.(1931.10.29.)

8월 2일 수원군 오산소방회관에서 시내 상공업자를 집합하여 폭리취체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했다.(1938.08.05.)

수원경찰서는 12월 2일 서원 충출동으로 시내 각 상점의 근량 단속을 했다. 위반자 3건을 적발했다. 그중 심한 것은 군포장 중국인 상점에서 수원시내 화춘상점으로 사탕 800돈종을 주문했는데, 600돈종만 배달하고, 800돈종이라 한 사실이 발각되어 경찰에서는 단호한 처분을 한다고 한다.(1939.12.08.)

(2) 소비

9월 24일 전조선 일제히 행할 국산 애용 선전에 대해 수원면에서는 21일 면회의실에서 군수, 재무주임, 면장, 실업협회 회두, 실업협회 평의원 등이 숙의했다. 그 결과 수원군, 수원면, 실업협회 주최로 24일 오전 10시부터 “박래품은 파지 마도록 합시다. 박래품은 사지 마도록 합시다. 먼저 선산품을 애용합시다. 특히 수원품을 애용합시다.”의 표어를 게재한 선전 삐라 1만매를 시내에 살포하기로 했다. 또 오후 1시부터 면공회당에서 국산애용좌담회를 열고 협의했다. 매일신보 수원지국에서는 23, 24일 수원극장에서 애독자 우대를 겸하여 국산애용 선전의 활동사진을 개연하고 지국장의 취임인사와 강연을 했다.(1930.09.26.)

수원군 오산지방에서 최근 탁주와 약주의 질이 너무 나쁘다고 품질을 향상시켜 달라는 요망이 높다. (1941.06.04.)

5) 임업

수원의 윤달용의 투고이다. 조선에서 단기간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수종이 리기다소나무이다. 수원을 중심 삼고 5리 이내의 지점에서 20년을 벌기로 하는 마루타 재림의 조성은 1정보에 대해 연수입 20원으로 투자액 50~60원에 대해 3할 5푼 남짓의 이윤이다. 이것을 50년 벌기의 용재림으로 계산하면 막대한 이익이 된다.(1935.03.06.)

수원군 밤나무 재배업자 120여명이 22일 읍공회당에 회집하여 생물공동출하조합을 결성했다. 생물의 품질개량, 미숙물 채취 폐습 교정, 판매 통제를 목적으로 한다.(1935.08.25.)

수원군내 생산 밤은 매년 증산되어 작년도에는 2,300여 석을 산출했고, 정남면 난곡 밤은 우량 밤에 속한다. 금년에는 흉작으로 천여 석 생산에 불과한 것으로 예상되었다. 간상배는 시장 부근을 배회하면서 부당한 이득을 취하기 위해 밤 생산자에게 폭행까지 가하면서 강매를 요구하는 예가 빈번하다. 군 당국에서는 공동판매소에 출회시키도록 장려 중이다.(1938.10.05.)

6) 부업

수원군은 가마니 400만매와 새끼 100만관을 1942년 4월까지 생산시키기로 계획을 세우고 농회 직원 일동이 제일선에서 독려 중이다. 각 시장에는 가마니·새끼 출회가 왕성하다.(1941.12.02.)

7) 금융과 부채

(1) 금융조합

수원군 7개 금융조합 조합원 6,400여명에게 부채가 약 100만원 가량이다. 1인당 160원 가량이다.(1932.09.04.)

(2) 부채

수원군은 호수 2만 7천여호에 8할 이상이 빈곤민이다. 전 군민의 4~5할이 채무가 있다. 증산계급의 부채 외에 2할 이상이 무산계급에까지 침투해 있다. 대부분 당시에는 상당한 재산이 있었으나 점점 몰락하여 다만 부채만 남아 있는 까닭이다.(1932.08.27.)

8) 의생활

수원군 안릉면에서 민심작흥운동을 기회로 색복을 장려한다. 12월 1일을 시작으로 전면적으로 일반에게 독려할 예정이다.(1932.11.13.)

수원군 일형면장(이필상)은 각 동에 출장하여 진흥회의 취지를 설명하고, 색복을 장려하여 음력 정월 1일부터 색복을 착용하기로 했다.(1932.12.25.)

작년 이래 방방곡곡에서 색복 장려를 보게 되어 성적이 매우 양호하다. 그러나 수원읍은 색복 착용하는 사람이 너무나 적다. 시내 1만 3천 인구에 1년동안 1인 평균 20차 세탁한다면 7만 7천여원의 비용과 37만 4천여 시간의 낭비가 된다.(1933.09.25.)

9) 주생활

수원읍에서 수년 전부터 온돌 개량에 주력하여 현재 개량된 아궁이가 2천여에 달했다. 작년도부터 등급에 따라 33등 이하의 세민층에게는 실비 60전의 반액씩 보조하여 1년에 300일 이상의 예산을 세웠다.(1932.08.19.)

수원읍은 초가집이 많기로 조선 제일위를 점한다. 이를 일소하기 위해 신건축가옥은 절대로 초가를 금지하고 우선 대도로변은 일일이 실시중이다.(1933.11.02.)

10) 교육

취직난시대에 취직시험의 톱을 끊는 금융조합 이사견습 채용시험이 5일부터 총독부 제무국 이재과에서 시행되었다. 작년 35명이었던 것을 올해는 50여명을 채용하기로 했다. 금년 봄에 조선 각 전문학교를 졸업할 학생 생도들과 또는 일본의 그같은 학생 생도들로부터 지원하는 자가 날로 격증했다. 조선측 수원고농 4명을 비롯하여 경성제대 17명, 경성고상 39명, 법학전문 11, 보성전문 9, 연희전문 9 등 112명, 일본측 척식대학 16명 등 164명, 합계 276명이다. 경쟁률은 5배 이상이다. 이재과장 이하 이재과원들이 한명씩 약 10분간씩 상식시험과 인물시험을 보았다. 7일까지 마치기로 했다. 일본 지원자에 대해서는 곧 이재과장이 일본에 출장하여 역시 채용시험을 보고 3월 하순경에 시험결과와 학교 성적표를 보아 채용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성적 우량자가 많으면 정원 50명 외에 5,6명을 더 채용할 수도 있다.(1931.02.07.)

수원군 오산공립보통학교 전교 생도 백수십명은 19일 동맹휴학했다. 원인은 4,5일 전부터 전 생도간에 음력 정초 3일간을 휴학시켜달라고 요구했으나 학교당국이 거절하였으나 정월 3일인 19일 돌연 맹휴한 것인 듯하다.(1931.02.21.)

전문학교순례(11) 수원고등농림학교. 졸업생 자격은 농과에 동물 식물 화학 농업, 임학과에 수학 동물 식물 등이 있다.(1931.03.07.)

수원공립보통학교에서는 12일 오후 1시에 강당에서 동창회 총회를 개최한다. 졸업한 후 상급학교에 취학치 못하고 방황하는 자들을 위하여 앞길을 상호 지도하며 친목을 도모코자 함이다. 여흥으로는 남자 농구 대항전과 여자 탁구 대항전이 있다.(1931.08.07.)

수원중학강습소 인가원을 도학무국에 제출하여 16일 인가되었다. 10월 1일부터 개교코자 생도모집과 제반 설비에 분망중이다.(1931.09.22.)

수원도립의원에 있는 의학박사 김하등의 학위 수여식이 11월 30일 경성제대에서 있었다.(1933.12.04.)

11) 문화, 문화재

새로 선출된 수원읍회 의원들이 수원의 명승고적 수리와 증건을 위한 활약으로 270여명의 회원을 모았고, 추후 가입할 회원도 80~90명 있다. 회비 모집금액은 2,700여원에 달하여 우선 가을에 화홍문을 개축할 터이고, 방화수류정 아래 용지

도 개축할 터이다. 시민 일반은 10여년 전 화홍문과 용지를 다시 보게 되었으므로 가을을 기대하고 있다.(1931.08.10.)

수원고적보존회에서는 1923년 2회 호우에 유실된 화홍문 복구를 위해 고적보존회를 조직하고 건축비를 모집하고 입찰을 행했다. 그 결과 청부업자 뇌강성일이 6,700원에 낙찰하여 곧 착수한다.(1931.10.19.)

화홍문은 1923년 호우로 유실되어 올해 봄에 총독부에서 6,200원의 거액을 들여 청부업자(뇌강)에게 청부하여 건축공사에 착수했으나 수월 전에 준공은 되었으나 건축제작 모양도 설계대로 되지 않고, 부연(附椽; 서까래)도 늘어지게 달았으며 재목을 모두 생목(生木)을 사용하여 체목(體木)은 벌써 갈라져서 당국 검사에도 통과되지 못했다. 지난 11일 보승회 회장(읍장) 사표에 대하여 다시 회장을 추천하려고 개최한 임시회의에서도 ‘佛頭塗糞’이라고 의논이 분분하였다. 일반은 청부업자로서 부정이익을 탐하여 중대한 명승고적의 공사를 이와 같이 부정하게 준공하였다고 비난은 점점 고조되어 가는 모양이다.(1932.07.14.)

여름철 공중위생을 위해 수원을 화홍문 아래 수영장을 130원의 공사비를 들여 27일부터 착수했다. 28일부터는 일반의 피서행락이 완전하게 될 터이다. 수원전기회사에서 찬조하여 수백 축의 전등을 설치 기부했다.(1932.07.30.)

1만 5천 수원시민은 저녁에 살 길을 찾아 피서하려고 화홍문과 방화수류정을 찾아가나 야간은 암흑 세계를 이루었고, 수영장에 전등을 가설한다 하므로 화홍문에도 가설하느냐고 수원읍에 물어보았더니 그것은 보승회에서 가설하기로 하였다 하므로 일반은 고대하고 있으나 보승회에서는 몽상도 하고 있지 않아 비난은 날로 높아간다.(1932.08.05.)

수원 8경의 유람 코스. 수원역에 내려 조선식 건물로 된 정거장을 구경한 후 수원8경의 하나인 서호낙조를 봐야 한다. 고등농림학교의 건물과 권업모범장을 구경한 후 성내행 승합자동차를 타고 역두를 거쳐 매산 고개를 넘어 사거리를 지나 팔달문에 도중 하차하여 팔달문에 올라 시내 전경을 구경한 후 도보로 본정, 중정을 거쳐 성내 중앙인 종로 네거리에 도착하여 매향교를 통하여 탄탄대로로 동문을 보고 연무대에서 궁술을 본 후에 방화수류정에서 당도하고 다시 화홍문에 내려와 다시 북문에서 내외 양문을 보고 서문을 거쳐 팔달산에 올라가 시내 전경을 내려보면서 층층대를 걸음하는 것이다.(1932.08.11.)

수원에 있는 학생단체 동문회에서 4월 8,9일 양일간 공회당에서 화가 홍득순의 양화전람회를 개최한다. 홍득순은 동경미술학교를 졸업하고 조선전람회에서 특선

까지 했다.(1933.04.09.)

방화수류정은 이번 경기도에서 직접 국고비 5천원을 지출하여 풍광 보존을 하기로 했다고 한다.(1933.08.15.)

공사중인 방화수류정은 4월 초에 준공한다.(1934.03.24.)

총독부 학무당국은 경성 어느 촬영소에 명령하여 수원명승지를 촬영하게 하여 6월 28일부터 30일까지 일류 배우들과 기술가들이 수원에서 촬영했다. 그중 이채로운 것은 수원여자교육계의 중심학교인 매향여자소학교의 교수상태와 아동의 운동상황이다.(1939.07.02.)

수원읍은 농촌에서 감투하는 농촌민들에게 이를 감사하며 겸하여 위로하는 의미에서 읍내 열성있는 청년 남녀들의 원조 아래 다음과 같이 읍내 농촌에 이동식 무대를 설치하고 순회 위안회를 개최한다. 상연 종목은 연극, 만담, 군가, 가요 등이다. 8월 1일 세류국민학교, 2일 사택정미소, 3일 농업시험장구락부, 4일 수원고등여학교, 5일 운모회사, 6일 신탄배급조합, 7일 새끼줄 공판장.(1944.08.04.)

12) 위생

수원면과 수원경찰서에서는 혹서가 계속됨에 따라 장티푸스, 이질 등 전염병이 발생할까 염려하여 하계청결과 검병적 호구조사를 시행하여 이병자를 조기 발견코자 노력한다. 또 전염병 매개체인 파리를 박멸키 위해 수원면의 위생비로 유리제 승취기 1,000개를 구입하여 세민 부락 1천호에 무상 배포할 계획이다.(1930.08.17.)

수원경찰서에서 4월 20일, 21일, 23일에 춘계청결법을 시행한다. 일반은 하수구 및 변소에는 석회를 뿌리고 침구 등은 햇빛에 쏘여 검사에 미급이 없도록 하기 바란다고 한다.(1932.04.18.)

수원읍에서는 진개(쓰레기) 제거사업에 대해 종래에는 청부제로 하였으나 본년도부터 읍직영으로 하였다.(1934.04.18.)

수원군 성호면내에서 9월 8일부터 12일까지 추계 청결법을 일제히 시행한다.(1934.09.07.)

수원경찰서와 수원읍에서는 신춘 해동기를 기다려 전염병의 매개를 방지하고자

파리와 쥐를 퇴치한다. 이번에는 현상(懸賞) 구제책(驅除策)을 수립하여 파리 성냥갑 1통에 연필 3자루, 쥐 1마리에 연필 2자루씩과 교환한다. 교환장소는 수원경찰서, 수원읍, 역전·본정 양 파출소이다.(1937.03.03.)

5월 1일부터 전조선에 일제히 건민운동의 실시를 보게 되었다. 수원에서도 군수와 서장의 연명으로 각 읍면장 구장, 단체 기관에 시행요강을 통달하여 실시중이다.(1943.05.05.)

13) 체육

수원체육회 주최 제3회 시민대운동회가 청년회 운동장에서 단오 익일인 21일 일요일을 기해 개막되었다. 거리거리마다 인산인해를 이룬 가운데 500여명 남녀 선수의 행렬을 비롯하여 악대가 선두로 각 상점 각 단체의 깃발은 펄펄 날리며 시내를 일주하여 운동장에 도착했다. 체육회 회장 홍사훈은 단상에 올라 개회사를 했다. 일반부의 100미터 경주로부터 각종 경기가 시작될 때마다 수만 군중의 우레같은 박수소리가 울렸다. 일반의 흥미를 이끌기는 유치원 아이들의 유희 창가이다. 진명유치원 100여명, 종로유치원 100여명의 유희가 있었다. 갑자기 일진 광풍에 소나기가 쏟아져 할 수 없이 체육회장은 오후 4시 30분에 폐회를 선언했다.(1931.06.23.)

조선체육회 주최 제2회 전조선 풀마라톤대회(경성-수원간)는 22일 정오 견지동 조선중앙일보사(대회후원) 앞을 시작하여 성대히 거행되었다.(1934.04.23.)

수원자전거업조합 주최로 자전거경주대회를 29일 천장절을 기하여 수원성내 청년 그라운드에서 개최한다.(1934.04.23.)

조선체육회 주최 제2회 전조선 풀마라톤대회(경성-수원간)는 참가선수 19명 중 3명이 기권하고 16명이 22일 정오 견지동 조선중앙일보사 앞을 출발하여 경수가 도 26마일 1/4 코스에 올라 양정의 손기정이 2시간 24분 51초 1로 1착하였다.(1934.04.24.)

14) 소년, 소년단

수원소년동맹회에서 5월 3일 첫 공일 어린이날을 예년과 같이 개최할 터이다.
(1931.04.16.)

40주년을 맞이하는 해군 기념일인 5월 27일을 택하여 오산 성호국민학교 교정
에서 오산해양소년단 발단식을 거행했다.(1945.06.02.)

15) 청년

수원청년총동맹회는 29일 수원 천도교구내에서 위원장 박승극의 개회사로 개최
했다. 의안토의에서 운동장 조건에서 이미 수원 화성학원에 양여하기로 된 데 대
해 300원의 수취 보관은 재정부에 일임하기로 하고 청충회관 건축에 대한 것은
집행위원회에 일임하기로 했다. 청충 해소 실천에 대해 이 동맹에서 각 도연맹 해
소사항을 제창하여 성명서를 배포하기로 하다.(1931.04.22.)

16) 교통과 전기, 연료

(1) 교통

경동철도회사에서는 현재 수원-삼가 간 선로 건설에 착수하고, 3월말 삼가-이
천 간 건설공사를 청부 입찰에 부치는데, 1기계획 예정준공에는 자금이 부족하겠
으므로 곧 1주에 5원, 총액 30만원의 불입을 징수할 계획이다.(1930.02.28.)

자본금 3백만원의 경동철도주식회사에서 건설중인 수원 여주간의 전부 43마일
의 철도선은 그동안 수원 이천간의 선로만이 준공되었으므로 이 철도회사에서는
11월 30일 정오에 수원역전에서 개통식을 거행하였다. 12월 1일부터는 일반 운
수 영업을 개시하게 되었는데, 이 철도는 여주 이천 용인 등지의 부고(富庫)의 개
발 목적한 것으로 객차는 44인을 수용하는 보통 협궤 가솔린차이나 버스결과
같은 소년 차장을 채용한 것이 이 철도의 특징이라 한다.(1930.12.02.)

수원 화성자동차주식회사는 여름철을 맞아 해수욕 가는 손님의 편의를 도모하
고자 수원-인천간 자동차요금 1원 10전을 1할 할인하여 1원으로 했

다.(1931.06.16.)

수원경찰서에서는 4월 14, 15 양일간을 교통안전데일로 정하고 성내로부터 역전통까지 경관 및 소학교·보통학교 6학년 생도를 요소마다 배치하여 경관은 좌측통행을, 생도들은 교통안전데이 선전 피라를 배부한다.(1932.04.18.)

진안자동차주식회사는 4월 1일부터 매일 2회씩 오산과 안성 간 정기 자동차를 운전한다.(1942.04.03.)

(2) 회사

수원 시내 자동차부는 조선인만으로 경영하였는데, 주주 사이에 의견 일치를 이루지 못하던 중 일본인 향산, 청목, 근등, 홀나 등에게 14,000원에 매도계약을 체결했다. (1931.09.30.)

(3) 철도

경동철도회사는 2월 5일에 기공식을 거행하는데 이번 기공구간은 1월 23일부 공사시행이 인가된 수원 삼가(三街)간 13마일 4푼의 구간이다.(1930.01.30.)

(4) 전기

7월 4일 오후 7시경 경성전기 수원지점 관내에 돌연 정전이 있어 안양·수원·발안·남양 등지는 암흑세계를 이루었다. 배전선을 조사하여 시흥-안양 간에 송전선이 절단된 것을 발견하고, 즉시 수선에 착수하여 8시 40분 경에 전등이 들어왔다. 그러나 일찍 문닫은 상점도 있어서 손해를 당한 자도 있다.(1939.07.07.)

(5) 연료

13일 오전 10시 30분경에 수원군 양감면 사창리 예시년의 장남 예효성(29)은

지계를 지고 땔나무를 준비하려고 같은 리 수작곡이라는 산에 올라가 풀을 뜯다가 뜯을 것이 없어 다른 산으로 가는 차에 산주 양감면 대양리 양준명이 발견하고 예리한 낫으로 예효성의 왼쪽 팔을 찍어 중상을 입혀 혼도케 하고 그대로 자기 집으로 갔다. 약 2시간 후에 동리 사람들이 발견하고 피해자를 가마에 태워 발안병원에 입원시키고 치료중이다. 의사 말에 따르면 중상된 팔을 자르고 치료하지 않으면 썩을 염려가 많다고 하며 가해자 양준명은 수원경찰서에 검거되어 취조를 받는 중이다. (1931.08.16.)

17) 동원과 헌납

(1) 동원

애국호 비행기에 대해 수원 관민이 8월 9일 현재 헌금한 것이 2,961원 24전이다. 아직도 헌금이 되는 중이다.(1932.08.13.)

경기도 사회주사가 총후의 군은 내선일체의 미담을 응소가족의 생활상태에서 조사하기 위해 수원에 출장했다. 안릉면에는 현재 응소자가 4명이 있는데, 그중 1명은 부인 외에 5명의 아들이 남아 있게 되어 응소된 이래 그 가족은 수입이 전혀 없어 면장은 조석으로 그 집을 찾아 돌봐 주었다. 이것을 안 안릉면 사람들은 쌀을 모아주어서 그 쌀이 11월말에는 1섬 6말이 되고, 헌금이 십수원이 되었다.(1937.12.04.)

경기도 관내 각 부군과 경찰서에서 취급한 전쟁 이래 비행기, 고사총, 기타 국방기재의 헌납금과 군대 위문금은 합계 104만 1천여 원이다. 이외에도 개인으로서 직접 군당국에 헌납한 금액도 다액에 달했다. 특히 수원군의 유지 양성관 외 3인이 육군기 1대를 헌납하고자 지난 9월 21일 발기인회를 개최했다. 그 자리에서 1만 4천여 원이 걷혔고, 다시 10월 말까지 예정액 4만 2천원을 돌파하고, 남은 것이 7천원에 달하였다. 그리하여 12월 2일 수원군수는 군사령부를 방문하고 육군기 수원호 헌납자금 4만 2천원을 바치고, 나머지 7천원은 다시 해군기재로 바치게 되었다.(1937.12.07.)

수원군 성호면 21부락 607명의 청장년으로 7월 7일 근로보국단을 조직하고, 오산비행장으로 가서 제초를 했다.(1938.07.10.)

수원읍 근로보국단은 고적 애호의 정신을 고취시키고자 9월 10일 각지 고적물 및 명승지에 대한 청소작업을 실행하기로 각 분단에 통보했다.(1938.09.10.)

수원군 조암주재소는 일반 민중에게 중대 시국을 인식시키고자 각리 각 부락별로 시국좌담회를 개최했다. 1938년 12월 말까지 좌담회수 291회, 참가 인원 4만 887인, 좌담회 석상에서의 현금이 2,999원 43전이다.(1939.02.04.)

수원군 당국은 각 공사장의 노동력 부족을 유감으로 생각하고, 각 농촌의 잉여 노동력을 조사하여 그 조사가 완료되었으므로 근로보국단을 출동시키기로 결정했다. 5월 15일부터 먼저 반월면·매송면 근로보국단 50명을 40일간씩 영등포 어느 공장으로 출동시킨다. 금후 계속하여 군내 각면에서 선발 출동시킬 계획이다.(1939.05.07.)

수원군 성호공립국민학교는 6월 1일 애국일을 기념하여 전교 생도 1,280명이 하나도 빠짐없이 1전 동전을 하나씩 모아서 동전 1,280매를 가지고 오산주재소에 기탁하여 헌납수속을 취했다.(1941.06.04.)

수원읍의 금년 저축목표액은 240만원으로 작년 100만원에 비하면 140만원의 증가이다. 수원읍은 5월 25일 읍회의실에서 각 정연맹 이사장을 소집하여 간이보험 1호 1구 이상의 증가 가입을 읍내 7천호에 부르짖어 빠짐없이 가입시키기로 결의했다. 그리하여 수원우편국은 27~29일 3일간 각 정 애국반장회에 국장 이하 국원이 출석하여 이 운동의 주지 철저에 노력하고, 저축보국과 가정경제의 안정을 꾀하며 전 읍민이 '9억원 저축 달성'을 위해 빠지지 않고 참가 가입할 것을 역설했다.(1942.06.05.)

수원군 오산면 청학리의 김전형기는 작년에 후쿠오카 탄광방면으로 근로보국대로 떠났다. 그의 모친은 아들의 몸 건강과 일 잘하게 해달라고 매일 아침마다 신전(神前)에 가서 기원을 한다.(1943.01.27.)

오산면에서는 2월 5일(음력 1월 1일)을 이용하여 면내 각 부락에 면직원을 총동원하여 31개 부락에 일제히 시국재인식 좌담회를 개최했다. 오산리 1~4구의 부락에서도 오후 2시부터 성호국민학교 강당에 600여 명이 모여 시국재인식 좌담회를 개최했다.(1943.02.07.)

(2) 현금, 헌납

7일 수원경찰서 문 앞에서 수원공립심상소학교 여학생이 와서 돈 8월 54전과 편지를 써서 제출했다. 편지 내용은 소학교 여자 8명이 잡건(雜巾)을 누벼 1주일에 3번씩 팔아 모은 돈을 합해 만주지방의 출정 군인에게 보내달라고 했다.(1933.03.09.)

수원군 음덕면 온석리에서 농사를 하는 무야행웅(武野幸雄, 38)은 간석지 소작 79명에게 국방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고, 그 곡용 1등 가마니 1매씩 판 돈 9원 48전을 국방에 보태라고 수원경찰서에 의뢰했다.(1933.03.26.)

수원군수는 총독부 해군 어용괘를 방문하여 해군 고사포 헌납금 7,715원 15전을 헌납했다.(1938.01.13.)

18) 시간

수원읍장은 1년 경비 250원을 편성하여 읍사무소 구내에 소방용 망루대를 건설하고, 1월 1일부터 정오에 사이렌을 울려 알리고 있다.(1932.01.16.)

수원경찰서는 아침 6시 반에 울리던 조기 사이렌을 4월 1일부터 당분간 5시 반에 울리기로 하였다.(1934.04.04.)

19) 식목

4월 3일 각 관청과 각 사회단체 약 200명은 수원 방화수류정 앞 광장에 모여 기념식수를 했다. 수원 부국원으로부터 기증받은 나무 100본을 식수했다. 일반 식목인에게 4월 3일 식목일을 기념코자 각 백묘 5본씩 급여하고 산회했다.(1931.04.05.)

수원읍에서 4월 3일 기념식수를 하고 종료 후 야유회를 개최한다.(1934.03.31.)

20) 종교

수원군 문묘에서 24일 오전 9시부터 제관 64명이 추계 석전제를 거행했다. 수원공립보통학교 생도 100여명이 참여했다. 식을 종료하고 제물로써 명륜당에서 성연을 개최했다.(1930.09.26.)

수원유도회는 징병제 실시 감사결의를 선양하고자 8월 30일 오후 2시부터 군 회의실에서 수원군 유림대회를 개최했다. 오후 4시부터 경성 명륜전문학교 교수 안인식의 황도유학의 특질과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강연이 있었다.(1943.09.03.)

21) 병력과 훈련

(1) 병력

특별지원병제도 실시에 따라 반도 학병들의 사기를 북돋고 무운장구를 빌고자 국민총력수원군연맹은 12월 4일 수원극장에서 출진학병 장행회를 개최했다. 특별 초빙한 보성전문 교수 장덕수는, “이번이야말로 우리 조선의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는 획기적 증거이니만치 주저하지 말고 속히 나오라”는 격려사는 당일 출석한 지원병과 천여 명의 청중에게 다대한 감명을 주었다.(1943.12.09.)

(2) 방첩

수원경찰서 주최로 4월 26일부터 3일간 접객업자인 요리업 음식점업 여관 이발업자 등 일반 시민과 접객의 기회가 많은 업자를 망라하여 방첩에 대한 여러 가지 강연과 훈련을 했다.(1943.05.07.)

22) 축산

12월 23일 수원축산조합 사무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경기도에서 1928년부터 1932년까지 5개년 계속할 축우증식계획에 대해 다음과 같이 결의했다. 1. 금융조합 1개년의 대부 두수 100두 내지 150두, 10계 내지 15계, 2. 계의 조직은 각 면장회의를 열고 연차할을 결정하여 조직상 수속은 군 및 축산조합에서 선정하여 금융조합과 협의 결정할 것, 3. 구우자금 입체의 건(1931.01.14.)

23) 단체

7월 6일 수원군에서 관민 다수가 집합하여 국민정신총동원 연맹 창립 총회를 개최했다. (1938.07.08.)

수원 소방조는 창설 이래 30여년의 깊은 역사를 가지고 있으나 이번 새로운 경방단이 결성됨에 따라 9월 30일 경성전기회사 후면 광장에서 해조식을 거행하고, 10월 4일 경방단 발회식을 거행한다.(1939.10.01.)

국민총력수원군연맹 결성식은 10월 28일 수원군청 회의실에서 관민 80여 명이 참석하여 거행되었다.(1940.11.01.)

24) 만보산사건

12일 오전 3시경 수원군 송산면 사강리 시장에서 잡화상을 경영하는 중국인 객가훈의 집과 진성덕 두 사람 상점에 방화를 하였다. 그 동리 최춘보라는 노인이 발견하고 즉시 경종을 울려 곧 진화를 시켰으므로 별로 손해난 것은 없다. 수원경찰서에서는 현장에 급행하여 범인 수사에 노력한 결과 피의자 7명을 검거한 중에서 진범은 6명 가량이다.(1931.07.22.)

수원을 중앙인쇄소 직공 일동은 재만동포 구제를 위해 의복 9건과 현금 5원 90전을 만주로 보내달라고 조선일보 수원지국에 위탁했다.(1931.11.14.)

25) 행정과 투표

(1) 행정

수원군 성호면은 10월 1일 오산면으로 개칭되었다.(1941.10.03.)

수원군 오산면은 총후 제일선에서 애국반원의 지도에 종사하는 31구장 대우를 개선하여 사무능률을 촉진시키고자 1942년도 예산에 4,371원을 계상하여 4월 1일부터 구장 위로금을 지불하게 되었다.(1942.04.03.)

(2) 모범촌

수원경찰서에서 각 주재소를 중심으로 모범촌을 지정하고 교화사업에 열중한다. 촌락수는 22촌락이고, 조직된 호수는 987호이다.(1932.10.06.)

(3) 세금

수원군에서는 16일 군회의실에서 최근 도지사로부터 표창받은 납세성적 우량면에 표창 및 상장 전달식을 거행했다. 오후 1시 30분 폐식 후 기념촬영을 하고, 2시에 오반을 했다. 표창 및 상장 수령 봉담면, 표창수령 반월면 음덕면 마도면 서신면 장안면 우정면 향남면 정남면 동탄면 태장면.(1931.01.18.)

(4) 투표

1일 오전 8시부터 유권자 6인은 수원공립보통학교 강당에 집합하여 오전 12시까지 학교평의원 투표 선거를 한 결과 수원을 매산리 홍사선이 최고점으로 당선되었다.(1931.07.03.)

8. 시흥

1) 농민과 농업

(1) 농업, 농촌, 농촌진흥

시흥군농회에서는 경성 부근 시외에 야채 재배를 장려하기 위하여 고양군농회의 참가를 청하여 1,2일 양일간 삼월백화점 5층에서 야채 품평회를 개최하고 일반 재배자에게 관람케 하여 참고가 되도록 한다. 출품은 모두 300점으로 우량한 것으로만 선택하였고, 야채와 꽃 종류를 염매한다.(1931.07.02.)

경기도 시흥군 과천면에서 면내 각 촌락농촌진흥회의 실적을 비교 심사하기 위하여 8일 오후 면사무소에서 심사회를 개최했다. 우수 진흥회에 표창을 했다. 심사회 개최는 조선 전체의 효시이다.(1933.04.10.)

시흥군 과천면에서 면내 27개소 진흥회 독지가의 원조에 맞춰 일제히 공동경작을 경영할 방침을 수립하고 실행 중이다.(1933.04.14.)

제2기 농촌진흥운동의 실적을 거양하고자 먼저 중견인물 양성을 모토로 시흥군에서 관하 280개의 농촌진흥회에 청년부를 설치하여 중견청년 양성에 매진하고 있다. 육군창고에 납입하는 군마 사료 건조 제조는 한산한 인부를 사역하여 능률도 여의치 않고, 품질도 조악하여 시흥군에서 군부와 교섭하여 올해부터 건조조제는 오로지 시흥군 관하 각 진흥회 청년부원에게 시키기로 했다. 건조량은 300만 킬로(53만관)로 군에서는 각 면으로부터 청년을 10명씩 선발하여 8월 중순부터 10월 초순까지 농한기를 이용하여 캠프 생활을 하게 하고 1일 일당은 75전~80전이다. 건조 조제 노역이 끝난 후 규율훈련을 시키고, 특히 야간에는 국체관념의 함양, 군사사상의 보급, 근로 한애(汗愛)의 정신 수양의 강연을 하여 50명의 청년은 귀향 후 중견 인물이 되어 부락민의 지도 계발에 용진케 하기로 했다.(1936.07.25.)

3월 30일 총독은 시흥군 남면 농촌진흥운동의 실적을 표창하고 장래의 발전을

격려하는 의미로 남면장에게 200원을 하부했다. 이것은 면장과 당시 학교장의 노력으로 1930년 6월부터 면내 각 부락에 농촌개량 소조합을 조직하고 다시 이들을 통제하는 연합회를 조직하여 노력한 결과이다.(1937.04.02.)

시흥군의 명산물인 안양 포도는 공전의 대풍으로 출회가 왕성하다. 시세는 1관에 2원으로부터 최상 3원 50전까지 매매되고 있다. 금년 수확 예상고는 2만 5천 관으로 7만 5천원 돌파는 무난하리라 한다.(1940.09.01.)

포도의 명산지로 이름을 떨치고 있는 안양지방의 수확고는 재배 면적이 10정 7단보에 포도나무 5만 1,080주이며 그 수확고는 10만 2,760관으로 그 가격이 18만 4,968원이다, 작년도 생산액 6만 555원에 비하면 12만 4,413원의 증가를 보이고 있다.(1942.11.06.)

시흥군은 토지개량사업 수행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금년도의 신규 사업으로 서면 유목정 토지개량계를 설치하고자 당국에 신청중이던바 지난번 인가되고, 지난 11월 26일 기공식을 거행했다. 총공사비 4만여 원으로 서면 일직리에 광대한 보를 설치하는 것이다. 이 사업이 완성되면 100여 정보의 가뭄 문제는 완전히 해소된다고 한다.(1942.12.03.)

(2) 지주

시흥군에서는 지난 추수기에 각 면장에게 부정한 마름, 무리한 지주, 터무니없는 색조(色租)와 줄포(茁苞) 샅을 영수하는 것을 철저적 단속하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지금 그의 실행을 보지 못하고 면내 곳곳에서 원성이 높는데, 시흥군 사회주사는 17일부터 군내 각 리를 순회하며 현황조사를 한다. 만약 실행치 않는 지주와 마름은 농지령법으로 처치한다.(1936.01.30.)

(3) 이주

지금으로부터 약 30년 전 개발회사에서 노동자를 모집할 때 미국으로 건너간 사람 중에 경기도 태생인 현기운(56)이 하와이로 건너가 품팔이도 하고, 근검 저축을 하여 노동자로서는 상당한 돈을 모아 귀국을 하려던 즈음에 병을 얻어 재작년에 그곳에서 고혼이 되었다. 영사관에서는 총독부 외사과에 그의 친척을 찾아주

도록 하라고 그의 유산 2천 200원과 금시계 세 개를 보내어 외사과에서는 사방으로 친척을 찾던 중 최근 시흥군 동시흥면에 살고 있는 외사촌 누이 박춘오라는 노파를 발견했다. 외사과에서는 6월 29일 그를 청하여 현금과 시계를 전달했다. 그 노파는 ‘아닌 밤중에 차시루떡’을 얻은 기쁨과 그의 사촌이 만리 이역에서 고향이 된 소식을 아울러 희비의 눈물을 흘리고 있다.(1935.06.30.)

2) 공업

대판에 본영을 둔 방직계의 대왕 이등충(伊藤忠)은 경부선 안양역전에 있는 고퇴농장 소유지 2만여 평을 기증받아 300만원을 투자하여 조선직물주식회사를 건축하고 동시에 공장을 설치코자 착수중이다. 1,2,3기로 나눠 제1기 내 수용할 직공은 500명으로 예정하고 모집중이다.(1932.08.17.)

3) 여성

‘대동아전쟁 아래에서 총후 부인의 통합단체’로서 탄생한 대일본부인회 조선본부의 시흥군지부 결성식이 4월 20일 안양공립국민학교 강당에서 거행되었다. 약 350명이 참석하였고, 국민의례로부터 시작되어 조서 봉독, 경과보고, 인사, 축하, 황국신민서사 제창, 만세 봉창 등이 있었다.(1942.05.03)

연료(시흥군에서는 군내 산림구를 보호하고 임업을 절약하는 한편 벼껍질 연료를 보급하기 위해 ‘풀무’ 실시에 진력한다. 동면과 서면 9개리에 구역을 나눠 실시 계획 중이다.(1936.05.18.)

4) 의생활

시흥군에서 색의 장려를 위해 27일부터 5일간 서이면 안양공립보통학교에서 일반 농촌 부녀에 대해 염색강습회를 개최하게 되었다.(1933.05.28.)

5) 교육

시흥군 군자면에서 4학년제의 군자공립보통학교의 학년 연장을 열망하여 수년 전부터 소요경비를 각출 적립하고 군·도당국에 누차 진정하였다. 도당국에서는 1면 1교제 완성 전이며 농촌진흥운동에 박차를 가하고자 전조선적으로 간이학교 증설하는 때이므로 학년 연장은 절대로 인가하지 않을 방침이다. 한편 민의를 존중하는 견지에서 변칙적이나 사립학교의 형식을 취하여 일체 경비를 지방민 부담으로 하여 5,6학년제로 연장하기로 결정되었다. 올봄 신학기부터 실시하게 되었다.(1935.01.11.)

6) 문화, 여가

시흥군 관악산맥의 하류를 막아 안양의 유지 등으로 조직된 안양협회의 노력으로 안양 풀을 조성했다. 아직 선전이 부족하여 세간에 널리 알려지지 않았으나 작년 여름 경성 시내 각 학교에서 1만여명의 탐승 욕객이 있어 철도 당국에서는 안양역장의 알선으로 가정거장까지 설치했다. 금년에도 지난 4일 용산 원정소학교의 혼도가 시찰하고 21일부터 1주간 매일 200여명의 아동을 인솔하고 입욕하기로 되었다. 이에 안양역장은 올해도 가정거장을 설치하고, 경성 영등포역에서 임시열차를 운전케 할 계획을 세워 철도국 영업과에 교섭중이다.(1933.07.09.)

시흥군에서 총독부 발표 의례준칙의 철저한 실행과 기타 의례 개선을 도모할 목적으로 군내 각면에다 의례준칙실행회를 조직하기로 했다. 각 부락에는 3인 내지 5인의 부락위원을 두어 혼장의례 등 사고 발생을 조사하며, 비용예산액의 지정과 기구 복식 등 공동구입 차입 등의 알선을 한다. 만일 의무를 위반하는 자에게는 1원 이상 10원 이하의 과태금을 징수한다.(1935.04.18.)

7) 종교

단군교에서 이번 시흥군 동면에 성전을 신축하고 12일 단군 강탄 기념일에 성전에서 기념제전을 거행한다.(1931.11.12.)

시흥군 동면 안양리 과천 관악산록에 있는 염불암과 삼막사는 각각 피서객 쟁탈로 반목하여 오는 중이다. 삼막사 주지(지정후)는 염불암에서 김성염을 축출할 생각으로 다른 승려들과 같이 가서 김성염 부처를 난타하여 김성염 부처는 치료 4주일의 중상을 당하고 영등포읍 제일병원에서 치료중이다.(1933.10.08.)

시흥군 유림들이 시흥명륜회를 발기하여 29일 추계석전을 기하여 시흥문묘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한다.(1935.08.25.)

시흥군 3개 유림단체로 조직한 명륜회에서는 금번에 정식으로 군향교 재산을 문맹퇴치사업에 기부하겠다고 군 사회계에 부탁을 하였다. 군에서는 이에 응해 4월 1일부터 부인 축탁 1명을 두기로 했다.(1936.04.10.)

시흥군 서이면장은 1938년 12월에 안양신사 설립준비위원회를 조직하여 수리산 기슭에 대신전을 조영기로 하여 공사를 진행 중이다. 6월 2일부터 6일까지 각 부락민 대표 260명이 농번기임에도 불구하고 자진 출역했다.(1941.06.06.)

8) 체육

안양역에서 약 5정되는 석수동에 공사중인 풀(길이 50미터, 폭 20미터)은 8월 중순경 준공될 예정이다. 안양 충정(冲井)농원주 등의 발기로 도변 식산국장이 원조하여 준공된 후는 철도국에서 탈의장 등을 설비하기로 했다.(1932.07.06.)

9) 동원과 헌납

(1) 동원

시흥군 관내에는 연초소매상이 208명인데, 전매국 영등포 출장소장은 그들에게 저금을 실시케 하여 1935년도에는 소매상 저금이 2,420여원이다. 금년에는 오지 소매인 농촌을 중심으로 72명을 추려서 매상익금만으로 저금을 하도록 대대적 활

동 중이다.(1936.01.12.)

11월 2일 이른 아침부터 시흥군 안양면에서 천여 명이 모여 신곡 감사제를 거행했다. 이어 신전 앞 넓은 뜰에서 연회를 베풀었고, 10시부터는 농악대를 선두로 가장과 기행렬을 거행했다.(1941.11.05.)

시흥군 군포에서는 가마니 15만 매 생산을 목표로 면장 이하 전 직원이 총동원하여 독려 중이다. 2월 2일 현재 9만여 매를 공출하여 요즘 군포시장에는 가마니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 벌써 목표 매수 7할을 짜낸 터로 연도 말까지는 목표 매수를 무난히 돌파하게 되었다.(1942.02.06.)

경기도 주최 저축 지방좌담회는 2월 28일 오후 2시부터 시흥군 회의실에서 도 이재과속, 시흥군 관하 각 면장, 저축사무 담당자, 각 면을 단위로 한 각종 저축조합 대표자, 금융조합 이사, 우편국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하여 국민저축조합령에 따른 시흥군 금년도 저축 목표액 85만원 돌파에 관한 토의를 했다.(1942.03.03.)

황군 장병에게 미각품으로 일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고사리를 위문품으로 보내고자 시흥군 안양면 안양리 제5구 부락연맹은 5월 28일 오전 9시부터 500여 애국반원이 수리산중에 강행진하여 많은 분량의 고사리를 채취했다.(1944.06.03.)

‘승리는 저축에서부터’라는 표어 아래 8만 시흥군민이 금년도 저축목표액 250만원을 당성코자 저축총력전을 전개하고 있는데, 이 저축전과를 보고자 도의 사찰반 일행이 6월 29일 안양에 가서 군 전반에 걸친 실적상황을 청취하고, 이어 지역조합과 각 지역조합을 사찰한 후 간양면회의실에서 각 저축조합장 참석 속에 간담회를 개최하여 실적 양양에 박차를 가했다.(1944.07.02.)

시흥군은 근로동원의 완벽을 기하고자 7월 31일 안양면회의실에서 관하 각 면장, 회사, 공장 대표 등이 참석하여 군수 주재로 결전 근로동원 사무타합회를 개최했다.(1945.08.02.)

(2) 현금, 헌납

시흥군 서면 26부락연맹원들이 유기헌납운동을 일으킨 후 9월 30일까지 모은 835점(53관 440돈)을 서면사무소에 기탁했고, 시흥군 동면 시흥리 읍내부락 연맹원들은 군용 건초를 공출해 판 돈 25원을 국방 현금해 달라고 9월 30일 동면사

무소에 기탁했다.(1941.10.03.)

국민총력 시흥군연맹은 육군기 1대를 헌납키로 했다. 그 연맹에서는 태평양전쟁 1주년 기념일인 12월 8일을 기하여 헌납키로 한 것이다. 8만 군민이 8만원을 모금하기로 했다.(1942.11.06.)

시흥군 안양면 안양리 제3구 제1반 애국반원 일동이 진유기 32점을 공출하여 받은 대금 11원 96전을 애국반장을 통해 2월 28일 매일신보 안양지국에 국방헌금으로 기탁하였다.(1943.03.02.)

10) 교통과 통신

(1) 교통

경부선 시흥역과 안양역 사이에 있는 삼막동은 근래 인구가 격증하여 수십 호를 이루게 되었다. 부근 일대는 과일 소산이 풍부하고 관악산, 삼성산, 망월암, 삼막사 등 하이킹 코스의 통과지가 되어 중요지점이다. 현재 형편으로 기차 승강에 불편이 많으므로 동민은 철도 당국에 삼막역 설치를 요망한다.(1936.11.03.)

(2) 통신

얼마 전까지 1대에 400~500원에 매매되던 안양의 전화 시세는 요즘 2,200원 내외로 매매되고 있다. 이는 일반의 자숙이 불철저한 것이 아니라 대사회와 공장 등의 진출과 아울러 전화가 많이 필요해지기 때문이다, 신흥 공업도시 안양의 비약상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1943.03.02.)

11) 행정

시흥군 서이면은 10월 1일 안양면으로 개칭되었다.(1941.10.03.)

12) 시간

시흥군에서는 10일 ‘시의 기념일’을 택해 생활개선, 자력갱생의 일조로 시간 엄수의 정신을 고취시키고자 각 학교 생도기 행렬과 선전 삐라를 준비중이다.(1933.06.08.)

9. 안성

1) 농민과 농업

(1) 농업, 농촌, 농촌진흥

안성군에서는 농촌진흥회 발회식을 11월 24일부터 월말까지 전군 각 촌락에서 거행했다. 지난 1일 군내 최고위원회를 열고 협의한 결과 실천궁행에 노력하려고 지방개량 강습회를 열기로 결정했다.(1932.12.06.)

고대하던 비가 많이 내려 안성군 당국은 각 관공서, 각 학교, 남녀 노소를 물론 관내 관민 전부를 동원시켜 이앙을 적극 독려 중이다. 6할 5푼 이상의 이앙이 되었다.(1940.07.05.)

안성읍 옥산평 78정보에 대한 토지개량과 농사개량을 하고, 안성읍 소방용수와 공동세탁장을 만들고자 읍장이 작년도 안성토지개량계를 조직하여 활동했다. 그 결과 경기도당국으로부터 보조금 1만 850원을 얻어가지고 지난 3월중에 공사를 착수했다. (1941.04.02.)

(2) 소작농

안성군은 1926년말 순소작농 7,375호가 1930년말에는 1할 2리 즉 753호가 증가되었다. 작년 말에는 2할 1푼 즉 1,549호가 증가되어 8,919호로서 총호수 11,889호의 비례에 의하면 7할 5푼에 상당한 숫자를 내어 가속도로 소작농이 증가되었다. 그 위에 소작권까지 박탈되어 다른 곳으로 유리한 소작농이 과거 5년 동안에 1,347호로서 5년 전 숫자의 1할 8푼에 상당한다. 떠나가는 원인은 대부분 소작권을 잃고 농사지를 경작지가 없어서 그리된 것이다.(1933.09.10.)

(3) 자작농

작년도 예산으로 창정되어 금년부터 경작하는 안성군내의 자작농수는 16호이다. 경작 면적은 논 5,435평, 대금 6,982원 82전, 밭 7,618평, 대금 1,175원 60전이다. 평균 논 965평, 밭 476평이다.(1933.09.13.)

(4) 지주

안성군은 생산확충에 대해 여러 가지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작업에 대한 기술을 향상하여 근로의 부족을 보충하고, 산업개발에 박차를 가하기로 하여 안성군 지주보국회 주최로 먼저 삽양(插秧) 기술향상 대책강습회와 공동작업 실시에 대해 일본 고치현으로부터 기사 1명, 남녀 교사 1명을 초빙하여 군내 부락연맹 이사장, 작업반장, 농업학교 및 초등학교 상급생, 관공서 직원 등을 모아 강습회를 개최한다. 시기는 5월 29일부터 31일까지 각 면별, 학교별로 실시한다.(1942.06.02.)

안성군 지주보국회는 생산증강과 농민훈련에 중점을 두고 국책에 순응하여 의의 있게 운용할 방침을 수립했다. 10월 30일 군청 회의실에서 통상총회를 개최하고 1944년도 수지예산과 사업계획을 심의했다. 1944년도 사업계획은 다음과 같다. 우량 마름 및 유량 소작인 표창, 농구 구입 수리보조 연구, 묘대 개량 등(1943.11.02.)

2) 식량과 소비

(1) 식량

안성군은 신미곡연도부터 산미증식과 식량수급조정의 실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대책을 수립했다. 10월 2일 군내 1읍 8개 면의 정미, 곡물, 운송업자 100여 명을 안성군청으로 소집하여 미곡대책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을 지시했다. 미곡의

자유매매 절대 금지, 자가용 정미는 읍면장, 주재소 수석의 증명이 없이는 도정 불허, 군수 서장의 증명이 없이는 관외 인출 절대 불허이다. 또 정미업자 중 당국의 지정을 받지 않은 장소에서는 도정 금지이다. 군내 200여개소에 시설되어 있는 정미업자 또는 소규모 정미소 소유자에게 대해 지정을 받지 못하는 업자는 일대 타격이 될 것이다. 안성읍에 6개소, 각면에는 1개소 또는 형편에 따라 2, 3개소까지 설치한다.(1940.10.04.)

(2) 소비

안성군 생활필수품 소매사업조합은 이번에 특히 '농촌의 선물'로 명태 100만 마리를 입하시켜 1인당 10마리 평균으로 일간 배급하기로 했다. 1괘 1원 47전으로 총액 7만 5천원 가량이다.(1944.07.01.)

(3) 연료

대중생활에 필요불가결한 목재와 임산 연료를 그대로 버려둔다는 것은 현 통제 경제시대에 큰 모순이라 하여 안성군 임업체는 작년 가을 이래 군내 목재 수급의 원활과 가격의 적정을 기하고자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했다. 1월 20일 안성군청 회의실에서 안성군 목재판매통제조합을 조직했다. 출자금 총액은 6만원이다.(1941.01.23.)

3) 여성

대일본부인회 안성지부는 4월 29일 애원극장에서 결성식을 개최했다. 조선본부 및 경기도지부 역원을 비롯해 관민 유지, 회원 등 1천여 명이 참석했다. 회원총수는 전군을 통해 1만인으로 군내 여자 총인구 4만 2천 3백 명에 비하여 2할 5푼이며, 20세 이상 유자격 인원 에 비하면 8할 이상이 회원이다.(1942.05.02.)

4) 청년과 소년

(1) 청년

안성 유지들은 10월 29일 안성읍내 소학교 강당에서 청년훈련에 대한 교육의 충실을 도모하기 위해 안성공립청년훈련소 후원회를 조직했다.(1939.11.02.)

(2) 어린이

안성읍은 아동애호주간을 맞이하여 5월 5일 10시부터 안성신사 앞에서 아동건 강기원제를 집행했다.(1940.05.07.)

5) 날씨, 재해, 이재민

안성군에 1개월여 장맛비가 계속되어 결실기에 있는 농작물의 피해가 막심하다. 야채는 장맛비에 녹아버려 전멸상태이다.(1933.09.19.)

안성군은 가뭄이 심하여 안성읍 주최로 6월 29일 밤 비봉산 아래 기슭에서 관민 다수가 모여 기우제를 거행했다.(1939.07.02.)

안성 한해구제회는 활동을 개시하여 각면에서는 지부를 조직중이며, 각 부락에서는 적당한 대책을 강구 중이다. 5~6천원의 경비로서 사리(砂利)를 채취하여 노임 산포를 하게 되었다. 천주교회는 현금 100원을 기부했다.(1939.09.03.)

6) 동원과 헌납

(1) 동원

안성군은 안성군저축장려위원회를 조직한 후 각 면 부락에 저축조합을 조직케 했다. 책임 부담액 11만 5천원 저축을 목표로, 각 부락에는 진흥회 단위로 저축 장려반이 조직되어 활동한다.(1938.06.22.)

안성군 근로보국단원은 중앙선 철도동사장으로 출동시키기로 하여 10월 31일 100여 명의 단원은 2주일 이상 공사장에서 노력 봉사하고, 그후에는 다른 군 단원이 출동한다.(1938.11.01.)

경기도군사후원연맹과 국민정신충동원연맹 공동 주최와 안성군, 이죽면, 안성군 연맹 후원으로 북중국 전선에서 혁혁한 무공을 세우고 돌아온 김석원 소좌가 5월 10일 죽산공립보통학교에서 군사강연회를 개최한다. 밤에는 좌담회가 있다.(1939.05.07.)

금매각 운동이 일어난 이후 안성 동일은행에서 취급한 건수가 200여 건에 달하여 도내에서 가장 좋은 성적을 나타냈다. 작년 10월 이후 매각된 대금이 오지 않아 일반의 오해가 많다. 이에 대해 지점장(서정익)은, 금 매입소인 조선은행에서 하나하나 성분 분석을 하느라 지연되고 있으며 3월 경에는 대금이 올 것이라고 말했다.(1941.01.16.)

안성군은 일반 군민에 대한 근로정신의 함양과 생산확충계획의 철저를 기하고 자 전 군민이 공동작업을 하기로 했다. 이번 이앙 때부터 이것을 실행하기로 했다. 전군 각 부락마다 근로층을 전부 동원하여 이것을 남자, 여자, 소년 등 3반으로 나누어 1반의 인원을 10명 내외로 정하고 반마다 반장을 구어 각 반원에 대해 노동력과 성의 등 제반을 종합하여 근로의 대가인 임금의 평가를 하게 되고, 여자반에 대해 특히 이동 탁아소를 설치하여서 작업장마다 이동하기로 했다.(1941.06.06.)

안성군은 군내 328개 부락연맹을 총동원하여 11월 2일 오전 7시 반에 일제히 신곡 감사제를 거행했다. 2일부터 3일까지 '농자는 천하지대본'이라는 깃발 밑에 농악을 울리고 기생 연주, 농민 씨름 등 여러 가지 여흥을 하여 오곡 풍양을 구가하였다.(1941.11.06.)

'신국 일본'의 정신을 양양하고 국민 전체의 모든 과오를 청소하고자 궁중을 비롯하여 전국 각지에서 대발식(大拔式)을 거행하게 되었는데, 안성에서 6월 30일 오전 9시부터 안성신사 앞에서 각 관공서 학교 은행 회사 각 단체 유지, 일본부인회 역원 등 다수가 모여 식전을 거행했다.(1943.07.03.)

안성경찰서는 민중으로 하여금 확고부동의 방첩사상을 삼투 철저히시키기 위해 7

월 23일부터 제1회 방첩전람회를 개최했다. 원래 26일까지였으나 하루 더 연장하는 성황을 이뤘다.(1943.08.03.)

안성군내 각 국민학교 직원들이 단합하여 12월 4일 안성읍내 공립국민학교 강당에서 안성교육보국정신대를 조직했다. (1943.12.09.)

(2) 현금, 헌납

안성도서관 안에 있는 안성국민강습소는 사서 이재하의 노력으로 제반 업적이 날로 융성한다. 이 강습소 생도들은 황군 위문금품 17원을 모아 현금했다.(1940.07.05.)

안성군 이죽면협의위원회는 3월 28일 개최되었는데, 당일 참석한 면협의위원 8명은 회의를 마친 후 수당금 1원씩을 받아 모아 현금 8원을 면경찰관주재소에 가지고 가서 국방현금으로 기탁했다.(1941.04.02.)

안성군 금광면 사흥리 동막부락에서는 36명이 유기 18개 1,120돈, 쇠부스리기 180돈을 모아 9월 23일 국방자재로 헌납해 달라고 금광면사무소에 기탁했다. 안성읍 장기리 금촌재룡은 유기 6점을 9월 24일 안성군 국민총력계에, 안성군 문곡면 가천리 오본선홍은 유기 7점을 9월 29일 문곡면사무소에 각각 가지고 가서 헌납했다. 안성시장의 노점원 일동은 25원 40전을 모아 9월 24일 안성경찰서에, 안성읍 동리 오중히사는 9월 27일 현금 50원을 안성경찰서에, 안성우편국장은 현금 50원을 안성경찰서에 각각 기탁했다.(1941.10.03.)

1월 1일 안성군청은 군연맹 역원회를 개최하여 안성군민의 보은 감사의 미충(微衷)을 표현하기 위해 비행기 안성호를 해군부에 헌납하기로 즉석에서 위원회를 조직하여 활동을 전개하기로 되었다. 늦어도 금년 3월 상순경에는 헌납을 완료하기로 했다.(1942.01.07.)

안성군 전 직원이 금품을 모아 618원을 해군부로 헌납하기로 하고 12월 19일 군수가 출발했다.(1942.01.07.)

2월 3일 안성군청 회의실에서 시국간담회가 개최되었는데, 현장에 모인 유지 100여 명이 애국기 헌납자금을 모으자는 제의가 있어 즉석에서 자진 신청한 것이 2만원에 달했다. 4일에는 1만 6천여 원에 달했다. 별동대로서 부인단이 대활동을 개시하고 있어 그 성적이 예상 이상에 달하는 좋은 성적을 얻고 있

다.(1942.02.07.)

7) 교육

안성군 공립보통학교 6학년생 일동은 16일 오전에 학년 담임(훈도 김용기)의 배척으로 교장에게 결의문을 제출하고 동맹휴교를 하였는데, 보통학교 생도로서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은 초문의 일이요, 배척 이유는 교수를 잘하지 못한다는 것이라 한다.(1930.04.17.)

12월 17일 설립 인가를 받은 안성공립청년훈련소는 보통과(2년제) 32명을 모집하여 2월 1일 개소식을 거행했다.(1939.02.05.)

안성읍내 공립심상소학교는 학급담임 변경 문제로 학부형 측과 일반 사회에서 물의가 자못 분분하다. 6학년 담임(심영수) 학급에서는 매년 수십명씩 상급학교에 무난히 입학하였고, 금년에는 아동 66명 중 진학 포기 10명을 제외한 56명 가운데 상급학교에 진학한 아동이 42명에 달한다. 4월 1일 부득이한 사정으로 심선생이 의외로 1학년을 담임하게 되자 이 사실을 알게 된 학부형들이 실망에 가까운 태도를 가지고 학교로, 혹은 사택으로 찾아다니면서 도로 6학년을 담임하여 달라고 매일같이 권유 중이다. 일반 사회에서도 불일한 좋은 방책을 강구하려고 물의가 날로 높아가는 중이다.(1939.04.07.)

안성 공립농업학교는 4월 1일 입학식이 끝나자 계속하여 후원회를 조직하고 특별회원을 모집한다. 회장에는 박필병이 당선되었다.(1940.04.09.)

안성군 공도면 용두리에서 과수원을 경영하는 민영완은 작년 가뭄으로 소학교 생도들이 수업료 기타 학비로 곤란한 처지에 있음을 보고 자기가 경영하는 과수원에서 학교 시간 외에 소학교 생도들을 근로시키고 있다. 매일 15전~20전씩의 노임을 지불하여 학비 곤란이 없도록 하고 있다.(1940.06.05.)

안성군은 항례(恒例)에 따라 12월 25일부터 계몽야학회를 개최했다. 신체제하 국민총력정신을 가정생활에 구현시키고, 애국사상을 급속히 발휘케 함에는 계몽운동에 따라 신문 잡지를 열람하도록까지 하지 않으면 좋은 성과를 얻지 못하겠다는 취지에서 적극적으로 장려 중이다.(1941.01.12.)

안성군 대덕공립국민학교는 5월 26일부로 학년 연장이 인가되었다. 6월 2일 5학년 아동 입학식이 거행되었다.(1941.06.06.)

안성고등여학교 설치문제는 1월 1일 오후 안성군연맹 역원회에 제의되어 즉석
해서 기성회를 조직하고 즉시 전격적 활동을 개시하기로 했다. 총공사비 30만원
중 15만원은 안성지방민이 부담하게 될 것으로 1943년도에는 기어히 개교할 목
적으로 관민 일치 활동기로 되었다. 기성회장에는 군수가 추대되고 기타 역원은
회장이 전반적으로 적당히 지명하였다.(1942.01.07.)

2월 28일 안성군청 회의실에서 열린 안성 공영사 임시총회에서 공영사 재산
전부를 안성교육기관에 바치자는 일부의 동의가 있자 출석 주주 전부 찬성하여
만장일치 이를 가결했다. 이 재산은 1941년도 현재 정조 5,393석으로 시가 10만
원에 달한다. 공영사는 1937년에 당시 군수가 빈민구제사업을 주로 하고, 기회
있는 대로 안성의 교육사업을 위해 쓸 것을 목적으로 조직한 것이
다.(1942.03.03.)

8) 문화

안성군은 이번에 특히 허례 폐지와 의례준칙을 실시하기 위해 먼저 장구(葬具)
를 개량하여 원곡면 용이리와 삼죽면 울곡리에 실시시키는 중이다.(1939.04.02.)

조선군사보급협회 주최, 조선군보도부·국민총력조선연맹 등 후원으로 3월 28일
밤 안성 애원극장에서 최승희 신작 무용 공연이 열렸다. 정각 전부터 관중이 물
밀듯이 몰려 대성황을 이뤘다.(1942.04.02.)

안성군은 3월 31일 애원극장에서 안성군 연맹 주최로 시국에 관한 영화회를
개최했다.(1942.04.03.)

9) 위생

안성읍은 예년 실행하여 오던 봄철 종두 날짜를 결정했다. 접종일은 4월 8~9
일, 검진일은 13~14일이다.(1939.04.05.)

안성경찰서와 안성읍 공동 주최로 건강주간을 이용하여 5월 3일 극장에서 시국
과 건강에 대한 강연과 영화회를 개최했다. 400여 명이 참석했다.(1940.05.10.)

안성군은 국민건강증진운동의 강조책으로 안성군청, 경찰서, 도립위원의 연합

주최로 4월 28일부터 30일까지 안성도립의원에서 특히 결핵, 성병과 소화기병 등에 대한 무료 건강진단을 실행하며, 28일 안성애원극장에서 강연 및 영화대회를 개최했다.(1941.05.02.)

안성군에서 군청, 경찰서, 도립의원이 중심이 되어 5월 1일부터 8일까지 건민(健民) 운동을 철저히 전개하기로 했다. 행사 요항은 다음과 같다. 1.무료건강상담, 2.강연회(강사 의학박사 김원 원장, 연제 나의 투병 사색).(1942.05.02.)

안성경찰서는 총력연맹 기타 단체와 협력하여 건민운동 실시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5월 1일 오전 9시 반부터 안성신사 앞에서 관민 200여 명, 여자실업학교 생도 60여 명이 참석하여 결핵예방에 관한 영지 봉독식을 거행했다.(1943.05.05.)

10) 체육

5월 28일 안성읍내 소학교 교정에서 안성시민 대운동회가 열렸다. 각 학교 생도와 일반 관중이 3천여 명 모였고, 58종의 경기 종목으로 성황리에 마쳤다.(1939.06.01.)

안성군은 2월 5일 각 읍면장, 주재소 수석을 소집하여 군수와 경찰서장으로부터 청장년 체력검사, 기타 시국관계 사무에 대해 여러 중요한 협의를 했다.(1942.02.07.)

안성체육진흥회 주최와 군연맹·읍연맹·각 신문지국 후원으로 안성시민 체련대회를 5월 31일 읍내공립국민학교 교정에서 개최했다. 정각 전부터 운집한 관중은 4,000~5,000명에 달하여 성황을 이뤘다. 800 남녀 선수가 참가하여 국민의례로부터 시작되었다. (1942.06.04.)

안성군읍연맹은 수영장을 설치하려고 노력하던 바 읍내 비 농가층을 총동원하여 봉사작업을 시작하여 수영장을 설치하고 이번 완성을 보게 되어 7월 29일 개장식을 거행했다. 기념사업으로 수영강습회를 개최했다.(1943.08.03.)

11) 축산

안성군은 퇴비 증제에 도움이 되는 양돈을 종래 적극 장려해 온 결과 실적이 양호했다. 전쟁 이래 모든 물가가 올라감에 따라 양돈의 사료인 미강(米糠), 맥강(麥糠), 주박(酒粕) 등의 가격이 폭등되고, 일반 양돈가에 차례가 가지 않은 상태에 빠져 양돈 성적이 극히 불량해졌으므로 당국은 그 대책으로 사료 생산관계인 군내 각 정미업자와 종래 양돈 실적이 있는 자를 망라하여 안성군가축사료배급통제조합을 조직하고 사료 구매가격의 적정화와 원활을 꾀하여 양돈을 장려하고자 1월 29일 안성군 회의실에서 양돈사료배급통제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이 회의에서 조합규칙을 통과시키고, 역원 선거를 행하였다.(1941.02.01.)

12) 병력과 경찰

(1) 병력

안성군의 첫 지원병 1명은 6개월의 훈련을 마치고 11월 29일 귀향했다. 신사 앞 광장에서 지원병 후원회장 박필병이 출영인사를 대표하여 환영사를 했다.(1939.12.02.)

안성군내에서 육군지원병 지원자가 500명의 다수에 달하던 중 그동안 학술과 신체의 고사가 있었다. 그 결과 합격자는 24명으로 경기도내 제1위이다.(1940.05.01.)

(2) 경찰

안성경찰서에 신임 서장으로 신림복신(김인영)이 11월 25일 부임했다. 이는 조선인 초대 서장이다.(1942.12.03.)

범죄자의 방지와 선도를 목적으로 하는 사법보호운동을 위해 안성경찰서는 연래 모든 열성을 기울여 오는 터이다. 일반 유지는 이에 감격하여 안성사법보호조성회의 이름으로 모금을 했다.(1943.06.01.)

13) 단체

국민총력안성읍연맹은 6월 26일 역원회를 개최하고, 7월 중 행사를 다음과 같이 협의했다. 1. 각 부락 및 각종 단체 연매의 저축조합 개조와 저축 여행에 관한 건. 직능저축, 원천저축, 공채 소화 등에 의해 목표액 20만 2천 2백원을 달성하도록 할 것, 2. '지나사변' 4주년 행사 실시에 관한 건, 3. 관공서 기타 단체의 행사에 관한 건. 당일 오전 9시 정각 안성신사 앞 집합, 4. 묵도. 정오를 기하여 각 소재에서 하기로 하되 가로 통행자는 물론 자동차도 정지하고 탑승자는 묵도 할 것, 5. 근로작업 (1) 각 애국반원은 가정 내외 및 부락 도로 청소 또는 제초, (2) 각 관공서 및 기타 단체 직원, 일반 유지는 동일 식 종료후 2시간 공동근로작업을 하기 위해 삼을 가지고 올 것, 6. 음식물 제한. 일체주의, 금주 금연 실행, 7. 가무 음곡 자발적 정지. (1941.07.02.)

14) 유림

국민정신총동원의 취지에 의해 유도 진흥을 목표로 12월 5일 안성유도회가 조직되었다.(1939.12.08.)

15) 창씨

경기도회 의원으로 안성 지역 여러 회사의 사장, 전무 등 중역으로 있는 목욕상은 지난 8월 8일 목천으로 창씨했다.(1940.08.10.)

16) 일본어

안성군은 안성읍내 서리강습회가 매일신보 국어전해운동 표창 대상으로 선발되

어 11월 3일 신사 앞에서 시상식을 거행했다.(1943.11.05.)

17) 교통

교통안전협회 안성군지부 결성식은 3월 39일 안성신사 앞에서 거행되었다.(1939.04.05.)

(진안자동차주식회사는 4월 1일부터 매일 2회씩 오산과 안성 간 정기 자동차를 운전한다.(1942.04.03.)

18) 행정

안성군은 총리의 ‘말단행정 강화방침’에 의해 거물 읍장을 비롯하여 각 면에 부면장도 거의 결정을 보게 되었으며 안성읍에는 거물 구장을 배치하기로 방침을 정하여 중추원 참의, 도회의원 등 명망 인물을 선발하여 5월 28일 구장 임명식을 했다.(1944.06.03.)

10. 양주

1) 국세조사

양주군에서는 국세조사를 앞두고 6월 23일부터 25일까지 각면 서기 2명씩을 군청 회의실에 집합하여 협의회를 개최했다.(1935.06.27.)

2) 농민, 농업, 농촌, 농촌진흥

양주군농회에서 14일 기념관에서 행사를 하고 기념 이앙을 시행했다. 의정부 부인회원 30여명이 참가하여 이채를 보였다.(1936.06.17.)

양주군 농촌진흥회는 각면 54개소, 조합원 954명에 저축 곡류가 408석 7두, 저축금 372원 96전이다.(1935.04.19.)

양주군 양주면은 12월 14일 면장의 주관으로 관내 구장 및 진흥회장을 소집하고 다음 사항을 협의했다. 1. 양력 정월 실시에 관한 건, 2. 색의 착용 철저화의 건, 3. 연말연시 총후보국 강조주간 실시에 관한 건, 4. 축사의 방한 설비에 관한 건, 5. 새끼·가마니 생산 독려화에 관한 건 등.(1938.12.16.)

3) 임업

양주 생산자 130여명이 모여 8월 30일 생산물공동출하조합을 조직했다.(1935.09.04.)

4) 의생활

양주군 농회에서 4일간 의정부보통학교 강당에서 염색강습회를 개최하고 150명의 부녀자에게 무료 강습을 행했다. (1933.05.18.)

양주군 시둔면 내 38개 진흥회에서 색복 착용 보급을 철저히 달성코자 염색전습회를 개최하고 각 진흥회 간부를 집합하여 전습케 한다.(1934.07.25.)

양주군에서 11월 10일부터 15일까지 색복 착용주간으로 하여 각 관공서는 물론, 회사 또는 개인 경영까지 사용인이 있으면 당해 주관자를 교섭하여 일제히 착용케 하는데, 금년 이내에는 농촌까지 전부 실행한다.(1934.11.05.)

양주군에서 색복 착용과 단발 장려를 철저히 실행할 계획으로 구 연말을 이용해 군내 500진흥회를 통해 색복 착용에는 구 정월 1일에 일일이 조사하여 미착용자가 있을 때는 성명과 그 이유를 곧 면장에게 보고할지며, 단발 미실행자는 구 12월 16일에 조사하여 성명과 이유를 보고기로 하였다.(1935.01.29.)

양주경찰서와 시둔면사무소에서 색복 착용의 철저 실행을 도모하고자 음력 13일 의정부시장일을 기하여 각 도로마다 순사와 면서기가 백의 착용자를 일일 조사하여 서명 날인하고 실행 일자까지 기재하고 일정한 장소에 집합시키고 색복 착용에 대해 이해 관계를 설명한 다음 귀가시켰다.(1935.11.10.)

5) 교육

양주군 교육회는 10월 24일 양주공보교에서 교육칙어 하부 25주년 기념식을 거행했다. 경성사범학교장의 기념 강연이 있었다.(1936.10.27.)

6) 동원과 헌납

(1) 동원

양주군에서는 3월 10일 육군기념일을 기회로 재향군인회의 군사강연회 개최 등 여러 사업을 실시했다. 양주경찰서에서는 국방헌금 모집에 착수하여 관청 유지와 보통학교·소학교 생도들로부터 들어온 돈이 50여원이다. 2,3일 안으로 조선군사

령부에 송금한다고 한다.(1933.03.24.)

양주군 구리면 공립보통학교에서 올봄 졸업생의 기부금으로 높이 50척의 철근 국기게양대를 세우고 지난 20일 국기게양식을 거행했다. 이것으로 군내 국기게양하는 곳은 6개소이다.(1933.03.26.)

양주군 노해면 근로보국단은 면내 각 분단을 합하여 전 단원 702명으로 조직되었다. 9월 5일부터 총동원으로 창동금융조합 창고부지 매립공사 289평을 500원에 청부받아 연일 작업 중이다. 완성되면 실비 등을 공제하고 현금키로 했다.(1938.09.10.)

양주군은 10월 9일 의정부 신명신사에서 농산어민 보국식을 거행했다. 총독의 훈화를 라디오로 청취하여 총후 후원 강화의 의미를 철저히 인식케 했다.(1938.10.11.)

양주군 진건면 오남리 내 오산·상리·하리 3개 부락 근로보국단원 66명은 분단장의 인솔로 경춘선 철도공사장에 출동하여 근로소득금 중 29원 90전을 31일 양주군 군사후원연맹을 통해 출정 군인 위문금으로 헌납했다.(1938.11.01.)

양주군은 23만원을 목표로 애국저금을 장려한 결과 1월 21일 현재 저축 인원 2만여 명에, 금액은 18만여 원에 달했다.(1939.01.24.)

양주군 양주면은 황기2600주년 기념사업으로 기념탑을 세우고자 면내 유지가 수회 협의하여 경비 2,700원을 각출하여 의정부 역전 광장에 5미터의 기념탑을 세우고, 300축 전등 3개를 가설하기로 했다.(1940.02.10.)

양주군 양주면은 1월 30일 경찰서 연무장에서 의정부 주민중 대표 1명씩 천여명을 소집하여 국민총력의정부부락연맹협의회를 개최하고 다음 사항을 협의했다. 1. 매일 아침 궁성요배와 정오 묵도 여행의 건, 2. 국기게양의 건, 집합시간 여행의 건, 4. 상회(常會) 개최의 건, 5. 매일 실행사항 실천의 건, 6. 애국일 집합시간 결정의 건, 7. 매일 애국반장 타합회 개최의 건, 8. 고무신 배급의 건, 9. 저축 장려의 건.(1941.02.01.)

1942년도 양주군 국민저축 책임액은 106만원이다. 관내 1구 15면에 철저히 독려한 결과 2월 말일 현재 244만 여원에 달하여 책임액 이상을 돌파하여 135%의 성적을 냈다.(1943.03.04.)

양주군은 6월 30일 오후 1시부터 군청 광장에서 진접면에 있는 불교 조계종 대본산 봉선사 이외 양주 포천 가평 연천 고양 파주 각 군에 있는 말사에서 범종 기타 낚쇠 772점 1,788킬로그램과 양주군 의정부읍 각 애국반에서 수집한

2,570점, 719킬로그램, 대일본부인회 양주군지부에서 수집한 1,180점, 271킬로그램의 공동 헌납식을 성대히 거행했다.(1943.07.03.)

양주군 은현면은 1943년도 저축목표액 8만 1천원을 세워놓고 이 목표 달성에 면장 이하 직원 총열의로 부락 저축간담회도 개최하고 관내 덕정금융조합, 덕정우편국과 연락 협력하여 선제 저금, 월패예금, 채권 소화, 보험 참가입운동에 매진하고 지역저축조합을 결성하여 지역저축목표 2만 6천 24원을 세우고 지역별로 이 목표 돌파에 노력한 결과 3월 말까지의 목표액을 12월 31일로 완전 돌파하였다. 총저축 목표도 불원 돌파할 예정이다.(1944.01.08.)

양주군 의정부읍은 5월 4일 양주경찰서 연무장에서 각 관공서장과 민간 유지 200여 명을 집합하여 민심지도 좌담회를 개최했다. 그 방침은 민간 유지와 군·경·읍 직원을 합하여 1조 4인씩으로 읍 관내 36개 부락을 각각 구역을 맡아서 지도하여 일반 민중으로 하여금 명랑 감투의 정신을 철저히 가지도록 지도하기로 결의했다.(1945.05.05.)

(2) 현금, 헌납

양주군 양주면 의정부리 장춘성춘(53)은 현금 15원, 1전 적동화 100매, 옛 엽전 300매, 구 백동화 600매를 가지고 9월 25일 양주경찰서에 가서 국방현금으로 헌납 의탁했다.(1941.10.02.)

양주군 의정부읍 의정부리 3구 제7 애국반원 일동은 1942년 2월 10일 상회에 서의 발론으로 매월 1인 1전씩 저축한 결과 23원 15전이 되었으므로 이것을 각 상점과 연락하여 은화와 백동화 및 적동화 등으로 교환하여 5월 4일 매일신보 의정부지국을 통해 홀병금으로 헌납했다.(1943.05.07.)

7) 여성

양주군 의정부읍은 성전 3주년을 맞이하여 금년 내로는 반드시 미영을 격멸하고야 말 결의와 부인총궐기운동으로 대일본부인회 의정부지부 간부를 총동원하여 제1차 금속회수 부인부대를 조직하여 의정리를 제1착으로 집합하여 1,060관 200

돈에 달하는 좋은 성적을 거둔 바 앞으로 의정부 전체를 순회하여 시국을 철저히 인식치 못한 일반 가정부인을 전부 동원시키고, 유감없는 실적을 낼 방침이다.(1944.01.08.)

8) 청년

양주군 시둔면 금오리 금오청년회는 농사개량의 모범을 보이고 공동경작에 의해 친목단결을 공고히 하는 것이 목적이다. 1924년에 민유답 1정 5반을 빌려 공동경작을 시작했다. 농사개량으로 군내 제1위의 성적을 얻었다. (1930.01.01.)

5일 양주공보교에서 시둔청년단 발회식을 했다. 양주금융조합 이사는 일반청년의 저축사상을 조장키 위해 자기 사재를 내어 단원 115명에 각각 거치저금 통장 하나에 10전씩 저금하여 배부했다.(1935.11.08.)

9) 위생

양주경찰서에서는 전염병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면사무소와 연락을 취한 후 15일 오전 5시부터 신호 나팔을 불어 의정부 8개소 각 진흥회원과 각 관공서 직원이 총출동하여 하수구, 도로 등을 일제 소제하고 위생조합으로부터 소독제 석회 등을 일반에게 배급하여 우물, 변소, 하수구 등을 소독했다.(1934.07.18.)

양주경찰서에서는 우물마다 소독을 시행하고, 각 가정을 통하여 승취를 장려하며, 성냥 빈갑으로 파리를 잡아오면 성냥 2갑과 교환하고, 승취지에 잡아오면 성냥 또는 새 승취지로 교환해준다.(1935.07.18.)

양주경찰서에서는 의정부 부근에 장티푸스 환자가 발생하여 예방주사를 시행하기로 했다. 경찰서 구내, 시둔면 가능리, 시둔면 금오리 및 신곡리에서 각 2회.(1936.07.11.)

양주경찰서는 최근 각처에 만연하는 두창을 예방하고자 2월 8일 제2차 종두를 실행했다. 수두증명서를 교부하여 이것을 가진 다음에 여행과 승차를 하기로 했다.(1940.02.10.)

양주군은 5월 1일 오전 10시부터 의정부 신명신사 앞에서 관민 애국반원 천여

명이 모여 건민운동에 대한 영지 봉독식을 거행하고, 군수가 건민운동주간 실시에 대한 강화를 했다.(1943.05.05.)

10) 체육

양주군은 10월 31일 관내 1읍 15면 직원과 군청원 합 300여 명을 양주공립국민학교 교정에 모아 군수의 지휘로 각각 대를 조직하여 각 대 대항과 읍면 대항으로 연성을 행했다. 각대 대항으로는 보통농사, 도세, 비료 각 계가 우승하고, 읍면 대항은 1등 진접, 2등 화도, 3등 의정부, 4등 장흥면이 각각 수상했다.(1943.11.05.)

11) 병력과 경찰

(1) 병력

지원병 후기생으로 입소하는 양주군 진접면 내각리 김복이의 입소 기원제 및 환송이 12월 14일 의정부 신명신사에서 관민 천여 명이 집합하여 성대히 거행되었다.(1938.12.16.)

양주군 출신 지원병 이기서는 그간 주내면 만송리 자택에 있다가 1월 8일 관민 다수 집합 속에 의정부 신명신사에서 입영기원제를 장엄히 거행하고, 군청 회의실에서 간단한 환송연이 있는 후 수천 군중의 환송 속에 입영의 길을 떠났다.(1940.01.13.)

양주군은 중일전쟁에 참전하고 돌아온 경기도 출신 제1기 지원병 4명을 초청하여 남부 양주는 1월 23일 금곡에서, 북부는 26일 경찰서 무도장에서 강연회를 개최했다.(1940.02.06.)

(2) 경찰

양주경찰서에서 연말 경계에 대해 관하 각 면농촌진흥회를 통해 부락진흥원들을 집합하고 야경을 철저히 실행하고 동시에 각 진흥회 간부로 하여금 감독을 하게 지시했다.(1935.12.30.)

각지에서 실시하는 가정방범주간인 4월 27~28일 양일간 양주군 회천면 덕정리 경찰관주재소는 관내 각 리구장, 애국반장을 통하여 가정 방범에 대한 주의와 지시를 했다. 각처 요소와 게시판에는 방범 포스터를 붙이고, 적정 시내 각호에 방범 선전삿바를 배부하고, 수석 이사 소원(所員)은 주야 관내를 순찰하며 가정방범에 관한 주의와 지시를 하였다.(1942.05.02.)

12) 진정운동

중앙선 정거장의 위치 문제로 광주군 퇴촌·남종의 양 면 주민과 양주군 와부면 능내리 부근 주민들로 정거장 설치 진정운동이 일어났다. 현재 예정 위치인 양주군 와부면 팔당리와 양평군 서종면 양수리 사이에 있어서 부근 일대에 약 250여 호를 형성하고 있는 중요한 지점이다. (1937.07.01.)

13) 교통과 통신

(1) 교통

화성자동차주식회사 사장이 경영하는 포천자동차합자회사 영업도로가 포천 의정부간이어서 경성과 직접 교통상 다소 불편이 있었다. 8월 21일부 의정부 경성간 영업선로 연장의 허가가 있어 25일부터 영업을 개시했다. 또 8월 20일 임시총회 결의로 포천 본점을 의정부로 이전하고 포천에는 지점을 두기로 하였다.(1930.08.28.)

(2) 전화

양주군 화도면은 최근 경춘철도 개통을 맞아 체신국에서는 2월 11일부터 마석우편소에서 전신 전화 사무를 개시하기로 했다.(1940.02.10.)

14) 종교

양주군 신사는 그간 공사에 착수했는데, 25일 각 총대와 관공리 50여명이 집합하여 지진제를 거행했다.(1935.06.27.)

양주 문묘는 4월 15일 춘계 석전제를 정오부터 유림 다수가 집합하여 거행했다. 이어 소학교 강당에서 군수가 유교 부흥과 유교와 시국이라는 문제로 강연회와 좌담회를 했다.(1940.04.20.)

15) 날씨, 재해

26일 양주군 천보산에서 군수와 시둔면장 외 각 관공서장 등이 집합하여 기우제를 거행하고, 의정부 및 부근 인 인사 100여명은 신명신사 광장에서 요배식을 행했다.(1936.06.28.)

16) 단체

양주경찰서는 9월 29일 조선방공협회 양주지부 발회식을 거행했다. 110여 명의 참여로 식을 마친 후 신사 참배를 하고, 악대를 선두로 각종 선전기와 피라를 살포하며 시내 행진을 했다.(1938.10.01.)

양주군은 10월 29일 경찰서 연무장에서 국민총력양주군연맹 결성식을 거행했다.(1940.11.01.)

양주군 양주면은 5월 26일 면연맹 이사회를 소집하고 다음 사항을 협의했다. 1.국어생활의 철저, 2.전가 근로, 3.상회(常會) 여행(勵行), 4.납세사상의 보급 철저, 5.부인계발운동, 6.공동작업 및 온반(溫飯) 폐지(1942.06.02.)

국민총력 양주군연맹은 5월 28일 군청 회의실에서 정례의원회를 개최하고 다음 사항을 6월 실천사항으로 결정했다. 1.시간을 철저적 여행 존중히 할 것, 2.12억 저축에 훌륭한 성과를 낸시다, 3.전발(電髮) 구홍(口紅) 등을 폐지할 것.(1943.06.02.)

17) 금융조합, 식산계

양주금융조합에서는 10월 24일 소재지 의정부 총대 선거를 거행했다, 관리자(이사항)의 지명 선거로 3명이 당선되었다.(1936.10.28.)

양주군은 북부 10개면 각 부락 식산계 간부 80여 명을 소학교 강당에 소집하여 1월 8일부터 3일간 강습회를 개최했다. 식산계 처리방법 등은 금융조합 직원이 담당했다.(1940.01.13.)

18) 식목

양주군 기념식수는 올해 시둔면 주최로 15일 오후 1시 관공 유지 집합으로 신곡리에서 거행한다. 소나무 1천 주와 낙엽송 500주, 산적양(山赤楊) 500주를 식재한다.(1933.04.13.)

양주군에서는 3일 의정부역 서편 아구근(阿久根) 농장 부근에서 제25회 기념식수를 거행했다. 관민 300여명이 집합하여 적송 이외 수종의 묘목을 식부하고 약간의 다과가 있었다.(1935.04.05.)

항례에 따라 양주군 및 양주면 연합회 주최 제29회 기념 식수는 4월 3일 양주면 가능리 경기도 농사훈련도장 입구 도로에서 식수식을 거행했다. 구리면에서는 신명신사 경내에 식수했다.(1939.04.05.)

19) 창씨

양주군 관내 16개면 2만 2천여 호는 8월 8일 현재 창씨 수속을 전부 완료했다.(1940.08.10.)

20) 선전과 배급

(1) 선전

양주군에서 12월 10일과 11일 양일간 총독부 촉탁 유일선을 초청하여 의례 준칙 실행과 색복착용에 대한 강연이 있었다.(1935.12.17.)

(2) 배급

양주군은 3일 명치절에 일반 농촌에서 증산전에 활동하는 산업전사에게 한하여 탁주를 배급하기로 했다. 그 방법은 부락연맹 이사장과 애국반장을 통해 배급된다.(1944.11.01.)

21) 과학

양주군 진건면 양지리에 본적을 둔 송2동 이윤학(22)이 중력시계를 발명했다. 중력시계는 태엽을 감을 필요가 없고 다만 1년에 한번만 기계장치를 맞춰놓으면 될 뿐이다. 발명학회를 통해 특허국에 특허원을 제출했다.(1935.08.25.)

11. 양평

1) 농민과 농업, 농촌진흥

(1) 농업

양평군은 비상시국에 대처하여 국가수요에 공급을 원활히 하며 민중생활에 복리를 증진시키고자 남면북양 대국책의 하나인 면작을 적극 장려하였다. 관내 6개면(양평·강상·강하·양서·지제·용문면)을 선정하여 경지면적 250정보로 년산 32만 5천근을 목표하여 2월 26일 군회의실에서 해당 면장과 면기수 및 권업 서기 등을 회합하고 이 계획에 대해 세밀한 협의를 마쳤다.(1938.03.03.)

양평군 농회는 9월 28일부터 군내 8개소에서 면화 공동판매를 개시했다. 금년 면작은 성적이 양호하여 12월까지 출회될 수량은 80만근이다.(1939.10.06.)

(2) 저축

양평군 강하면 왕창리 창촌부락에 사는 신중식은 자기 부락 37호의 생활이 점점 빈약해짐을 보고 작년 7월부터 1천원 저축을 목표로 부락 진흥회장(김경배)과 협의했다. 남자는 생활비를 절약하여 1개월에 10전 이상, 여성은 매일 쌀 1숟갈씩을 저축하여 모은 돈이 남자부는 600원, 여자부는 400원 합계 1천원 이상에 달하는 성적을 거뒀다. 금년 7월부터는 1,500원 목표로 장려하리라 한다.(1939.06.02.)

2) 상인과 상업

양평경찰서 경제계는 관내 일반 상업자에게 지난번 개정된 폭리행위등취체규칙과 사차품등제조판매금지규칙 및 신제품의 해석 등에 대해 그 취지와 주의사항을 철저히 인식시키기 위하여 8월 4일 관내 상업자 80여명을 경찰서 무도장에 소집하여 좌담회를 개최했다. 5~6일 양일은 서원을 총동원하여 업자의 직접 지도와 일제 취제를 했다. 8일에는 군내 행상업자 40여 명을 무도장에 소집하여 개정된 법령을 충분 설명하고, 금후 위반자는 엄중 처벌한다.(1940.08.17.)

양평군은 조선상업조합령이 발포된 이래 그 취지에 따라 작년 9월에 상업조합을 설립하고 총독부 당국에 인가수속을 했던바 12월 30일 인가되었다. 조합사업을 개업하기 위해 1월 31일 양평서국민학교 강당에서 조합원 70여 명이 모여 임시총회를 개최했다.(1942.02.06.)

3) 부업

양평군은 가마니짜기를 적극 장려할 방침으로 생산의 확충을 기하여 연도 말까지 50만 매 산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12월 5일부터 11일까지 7일간 조선산업협회 기수 지도로 곡물용 가마니 자기 강습회를 각 면에 개최하여 좋은 성적을 거뒀다. 관하 12개 면장 및 기수, 담임 서기 및 일반 부락 중견 농가를 망라한 시찰단을 조직하여 선진지인 평택군을 15일부터 3일간 예정으로 시찰하기 위해 일행 60여 명이 출발했다.(1938.12.16.)

4) 여성

각 부인단체를 통합하여 지난 3월에 발회식을 거행한 대일본부인회 양평군지부는 4월 29일 천장절을 택해 양평군청 회의실에서 결성식을 거행했다. 동시에 양평면지부 결성식도 열렸다.(1942.05.02.)

5) 동원과 헌납

(1) 동원

양평군내 각 심상소학교는 중일전쟁 이래 학용품 절약, 쌀 저축, 가마니 짜기 등 여러 가지 노력으로 충후 국민의 적성을 표하고자 여러 차례 국방 자재금과 흙병 호군비(稿軍費)로 헌납했다. 지난 애국일에도 양평서심상소학교 아동 32명이 근로 작업한 2월 50전을 흙병호군비로 헌납하였고, 그 외에도 양동심상소학교 아동 129명이 11월 3전, 지평심소교 5원, 강상심소교 1원 30전, 설악심소교 3원 36전, 용문심소교 18원, 양동면 고송간이교 58전, 서종면 승배간이교 40전 등을 헌납했다.(1938.05.07.)

양평군은 군마량 대맥을 각면에 배정하여 수합케 했다. 예정대로 7월 28일까지 3천석의 매상을 완료하고, 8월 10일까지 전부 출하 발송한다.(1938.08.05.)

양평군 설악면은 10월 27일 한구(漢口) 함락의 축하행사를 거행했다.(1938.11.01.)

양평군은 군내 근로보국단의 출동을 적극 촉진시키기로 계획을 세웠다. 먼저 전 기에는 300명을 보내 공가장으로 알선하고, 또 도외에도 알선하기 위해 근로보국단 특선대를 설치한다.(1940.09.01.)

양평군은 1월 9일 군청회의실에 일반 지도계급에 있는 군내 각 면장, 주재소 수석 및 관공서 직원, 기타 각종 단체 직원 400여 명을 소집하고 강연회를 열었다. 연사는 매일신보 주필 서춘이고, 강연 후 매일신보 영화부의 시국 사진을 상영했다.(1941.01.12.)

양평군은 금년도에 가마니 100만매를 목표로 작년 가을부터 가마니짜기 지도장려에 노력해 온다. 2월말 현재 실적은 최초 계획 매수에 달하지 못할 염려가 있으므로 3월 1일부터 5일간 강조기간으로 정하고 군면 경찰서 직원이 총출동하여 전력을 다해 지도 장려에 활동 중이다. 적어도 이 기간 중에 1호당 평균 20매 이상 출하되리라 한다.(1941.03.05.)

양평군은 1941년도 저축 목표액 60만원에 비해 원래 자원이 풍부하지 못한 지방인 관계로 그 성적이 좋지 못하여 1월말 현재 증가액이 12만 4천 500원에 불과하여 목표액의 2할 1푼밖에 되지 않으므로 연도말까지 도저히 목표액을 돌파할 수 없으므로 저축좌담회를 개최했다. 2월 27일 군청 회의실에서 관내 각 면장, 각 금융조합 이사, 우편국장, 각 저축조합장 등 100여 명을 소집하여 목적 달성

대책을 협의했다.(1942.03.03.)

(2) 현금, 헌납

양평군 양서면 양수리 동석장부락진흥회는 농업보국주간에 회원 일동이 경비를 절약하여 6원 50전을 국방현금으로 헌납해 달라고 면장에게 기탁했다.(1940.07.02.)

양평 집객업조합은 이번 소주배급시기를 이용하여 관내 조합원으로부터 1되들이 빈 병 400개를 회수하여 매각한 돈 40원을 8월 2일 조합장이 양평경찰서에 국방현금으로 기탁했다.(1944.08.04.)

6) 병력

양평경찰서는 전번 시행한 신체검사에 합격한 지원병 지원자 40명에 대해 이미 지도 훈련을 철저히 시키기 위해 3월 29일부터 31일까지 3일간 경찰서 연무장에서 강습회를 개최했다.(1941.04.09.)

장래 입영 장정들에게 예비훈련을 철저히 시키고자 5월 1일부터 양평서국민학교에 장정입영준비 훈련소를 설치하여 양평·여주 장정 중 금년 갑종 합격자 100여 명을 1일 오전 10시부터 소집하여 개소식을 거행했다.(1945.05.05.)

7) 문화

매일신보 양평지국은 1939년 5월 1일 양수분국을 설치한다. 위치는 양평군 양서면 양수리이고, 구역은 양서면, 서종면이며 분국장인 김중곤이다.(1939.05.07.)

양평 국방부인회는 황군 위문금을 모집하고자 3월 31일 소학교 강당에서 연예대회를 개최하고 국방부인, 소학교생, 각 요정 기생 등이 출연하여 무용, 독창, 연극 등 기타 각종 연예를 했다. 입장객이 2천여 명에 달했고, 수입금이 500여 원에 달했다.(1940.04.03.)

8) 교통

한강 인도교가 내년 가을까지 새 다리가 완성되어 구교 처리에 대해 경기도 토목과에서 양평군 양수리에 이전 가설하기로 결정했다. 총공사비 26만 2천원으로 곧 공사에 착수한다. 양수리 교장은 약 500미터이고, 인도교는 440미터이므로 60미터는 새로 접속한다. 교폭은 7미터 반으로 1937년 가을에 완성 예정이다.(1935.08.21.)

12. 여주

1) 농민과 농업

(1) 농업

여주군농회와 주내면 연합 주최로 14일 관민 100여명이 모여 농업강습소 실습지에서 이앙을 했다.(1936.06.17.)

(2) 식량

10월 23일 공보교 강당에서 여주군 미곡통제조합 창립총회가 있었다. 각 관공서장과 조합원 100여명이 참가했다. 평의원 5명을 선출했다.(1936.10.28.)

식량대책의 자료로 여주군내 대표농가 100호에 대해 식량의 종류와 분량을 시기별로 조사 실시하게 되어 6월 1일부터 총독부 파견원이 조사에 착수했다. 이 조사는 순전히 소비상황의 조사이며 양곡의 배급 또는 공출에는 하등 관계가 없는 것이므로 절대로 협력하여 정확한 성과를 기대한다고 한다.(1943.06.03.)

(3) 세궁민

여주군 세농보호사업으로 유지 발기로 창설된 기동보린사는 이민웅의 1천석 기부를 필두로 일반 유지의 2천 8백석의 벼를 출자하여 1927년 12월에 조직되었다. 그 사업으로는 군내 세농에게 년 2할의 저리대부를 행한다. 사장은 이민웅, 각 면에는 분사장이 있다. 출자자는 565인이고, 작년 추계 회수 원리 벼는 4264석이다.(1931.04.25.)

2) 상업

여주시장은 가을을 당하여 매우 혼잡한데, 각 부락에서 자전거, 우차, 소, 수레 기타 중요물에 도난을 염려하던 중 이번 그 탁하소(託荷所)가 설치되었다.(1938.10.01.)

3) 도자기

12월 19일 여주군 회의실에서 조선도기주식회사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자금은 50만원, 주금 불입은 1937년 3월 20일까지 한성은행 여주지점에 불입하기로 가결했다.

조선 특산물의 일종으로 광주군 동부면 분원자기는 누구나 아는 터이다. 경기도 기사의 말에 따르면 이번 여주 도자기 토질로 봐서 분원자기 토질을 능가하는 무진장한 토질이 산출된다고 한다. 군내 8개면에 무진장한 양토가 산출되어 대규모의 요업공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1936.12.23.)

4) 여성

여주군 북내면 운촌리에서는 작년부터 4명의 보호부를 고용하여 탁아소를 운영한다.(1933.05.06.)

5) 재해, 이재민

20여 일간 개었다 흐렸다 하던 비는 10일 오전부터 폭우로 변해 11일 오후부터 여주 시내에 홍수가 범람하였다. 가옥 유실 14호, 전파 11호, 반파 133호 등이다. 이재민을 리별로 보면, 상리 366명, 홍문리 682명, 창리 330명, 하리 142

명이다. 이번 호우로 가장 피해가 심한 곳은 한강 상류 여주 방면이다. 2천여명의 이재민은 친척이 있는 사람은 친척집으로 가 있으나, 친척이 없는 1,200여명은 여주공립보통학교와 면사무소 등에 피난하고 있다. 면사무소와 각 개인병원에서 주먹밥을 나눠주고 있는데, 침구들이 부족하여 추위로 떨고 있다. 불통되었던 경동철도는 철도당국의 복구공사로 13일 오전 10시부터 수원-여주 간 복구 개통을 보았다. 여주로부터 원주로 이르는 자동차길과 보행길이 끊어져 여주를 경유하여 원주로 향하던 수백의 여객은 여주읍에 역류를 당한 형편이다. 여관, 객주집마다 초만원의 현상이다.(1936.08.15.)

16일부터 여주-원주 간 우편물은 홍수로 인한 자동차 불통으로 여주우편소에서 인부를 사서 지게로 매일 우편물을 운반했다.(1936.08.19.)

여주 홍수는 미증유의 대수해로서 피해 정도는 최근 15년 안에 최대이다. 그것은 강물 수심이 20여 척이나 깊었었는데, 상류로부터 사태가 나서 강물이 점점 메인 것이 주원인이다.(1936.08.20.)

1월 9일 여주군 면장회의 안건의 이재민 구제 방법은 다음과 같다. 식량 보급 대응으로 간접 구제를 하되 군내 재해 면에는 여러 공사를 시행하여 이재민으로 하여금 출역케 하여 노임 살포를 목적하고, 부업 장려로 일제히 입직을 독려하여 이재민 호수 1,863호 중 입직 장려 호수 1,447호에 책임 매수 28만 9천 4백 매를 장려하되 원료 짚 부족분 27만 4,463관은 면에서 다른 군에 공동구입을 알선하여 염가로 구입케 하며 노임 살포는 군내 미완성 도로와 기성 도로 개수 공사를 착공한다.(1937.01.16.)

6) 동원과 헌납

(1) 동원

14일 오후1시부터 여주공보교 강당에서 강화가 있었다. 총독부 축탁 유일선이 심전개발에 대해 강화했다. 각 면장 및 면리원, 각 리구장, 농촌진흥회장 및 진흥회 간사, 회원 등이 집합하였다.(1936.05.18.)

여주읍은 싱가포르 함락이 얼마 남지 않았으므로 함락되었을 때 축하행사를 성대

히 하고자 준비 중이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1.국기제양(2일간), 2.전첩(戰捷) 봉고 및 정전(征戰) 완수 기원제, 3.기행렬, 4.축하회, 5.가장행렬, 6.점포 장식, 7.출정 유가족 위문.(1942.02.03.)

(2) 헌납, 헌금

여주군에서는 유기 헌납열이 고조되어 9월 1일 여주성결교회 신도 18명이 30점을 헌납했다. (1941.09.03.)

여주읍 하리 영춘당약방 덕산순길(51)은 작년 추석 명절에도 차례비용을 절약하여 헌금하였고, 금년 7월 2일에도 5원을 헌금했다. 이번 10월 1일 다시 유기 8점을 헌납해 달라고 매일신보 여주지국으로 가지고 왔으므로 군 군사원호회에 헌납 수속을 했다.(1941.10.03.)

7) 교육

경성부 돈의동에 거주하는 오선경(67)은 여주유치원에 1천원을 기부했다.(1936.05.16.)

8) 위생

여주읍 상리에 사는 김씨는 자기 외아들 손흥진(24)이 오랫동안 폐결핵으로 신음하던 중 지난 6월 23일 갑자기 위독해져서 약방으로 뛰어갔다. 급한 걸음으로 돌아와 싸늘해져 가는 아들을 보고 곁에 있던 칼로 왼쪽 첫 손가락을 내리쳤다. 흐르는 피를 아들 입에 넣었으나 변화가 없자 왼쪽 다리의 동맥에까지 상처를 내고 아들의 회생을 바랐다. 그러나 아들은 판 세상 사람이 되고 말았다. 손흥진은 앓기 전까지 여주곡물검사소에 봉직하여 소학교만 마친 몸으로 검사원 부수에게까지 승진했다.(1941.07.02.)

9) 체육

비상 시국에 처한 총후 국민의 의기를 고무하여 국위 선양을 기하고 애국의 적심(赤心)을 강조하기 위하여 매일신보 지국 후원, 여주체육회, 주내면의 공동 주최로 10월 24일 제2회 애국시민 대운동회가 여주 공설운동장에서 열렸다. (1937.10.29.)

10) 단체

여주군에서 7월 7일 국민정신총동원 여주연맹회를 결성했다.(1938.07.10.)

조선방공협회 여주지부 결성식이 경찰서 주최로 9월 27일 거행되었다.(1938.10.01.)

여주 경방단은 1월 4일 시장광장에서 시식(始式)을 거행했다. 단원의 분열과 기계체조를 한 후 마쳤다.(1940.01.13.)

13. 연천

1) 농민과 농업

(1) 농민, 농업, 농촌, 농촌진흥

연천군 남면 입암리 마산동은 종래 반상의 구별이 심했다. 진흥회 설립에 제하여 상민 조성호를 회장으로 선정하여 금일에 와서는 반상의 구별도 별로 찾지 않고 상호 친목을 꾀하여 농촌진흥에 매진한다. 4월 중순 회장 조성호는 양반 홍은표가 극빈하여 거주할 주택이 없음을 유감으로 여겨 회원을 모아 협의하고 목재만 홍은표가 담당하고 나머지는 회원 16명이 부담하여 3칸집 하나를 지어 4월 말일 홍은표를 입택하게 했다. 이 일로 홍은표 외 몇몇 양반들은 진흥회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 체득하게 되었다. 면내 33개 진흥회중 제일 우수 성적을 나타내고 있다.(1933.05.21.)

연천군 경기도농사시험장 신설이 이번 낙성되어 17일에 낙성식을 거행했다.(1935.05.18.)

14일 관민 100여명이 연천군 내면 현가리 민영석의 자작답에서 10시부터 내무주임이 농민데이 식사(式辭)를 했다. 공립농업실수학교장 지도 하에 약 3시간 이양을 실행했다.(1936.06.17.)

경기도에서 연천 부근 일대의 면화 재배를 확장하고 지정 파종 12만근을 심었다. 60만근의 수확을 예상한다.(1936.08.21.)

연천군 중면은 12월 13일 농촌진흥위원회를 개최하고 생활 쇄신에 주력할 것과 총후 강조를 관철하기 위해 진흥위원 지도반을 조직하여 전 면, 전 부락으로 순회 강화할 예정이다. 새해부터는 신·구력 이중과세의 불합리한 폐단을 철폐하고 일제히 양력을 시행기로 했다.(1938.12.16.)

연천군농회는 금년도 면화 300만근 생산을 목표로 준비 중이다. 이에 대한 인

식을 철저히 하기 위해 3월 21일 중앙소학교 강당에서 면작보국대회를 개최했다. 공로자 수백 명에 대한 수상식을 거행하고, 기타 묘대, 상전(桑田), 퇴비 등 각종 품평회의 입상자 수상식을 했다.(1940.04.02.)

(2) 세궁민

희유의 한해·수해로 연천군내 식량 부족한 호수는 7,100호에 달한다. 군 당국에서 이재민과 세궁민에게 부업 장려를 부심 연구중이다. 금년은 이앙이 불순했으므로 농가부업의 대중인 가마니짜기는 원료를 구하기 극난하며 원거리 타군에 가서 매입한다면 운반비의 과다로 채산이 맞지 않을 염려가 있어서 적극적으로 장려하지 않으나 일반 당업자의 희망에 따라 원료 매입자금은 예년과 같이 대부할 터이다. 연천군내는 산간에 처한 만큼 예년 제탄이 농한기에 맞는 부업이던 중 금년은 목탄 경기(景氣)도 활기를 띠었고, 군당국에서도 적극 장려하므로 매우 은성하다. 1일 임금 80전이며, 부녀자와 아동은 탄표를 제작하여 1일 수입 30전이 되니 세궁민의 유일한 생계가 된다. 제탄에 몰려드는 인부도 과잉되므로 제탄·제입(製入)도 못하는 세궁민에 대해 연천군은 3등도로 개수와 교량 가설 공사장을 알선한다. 또 조선지 제조도 하고자 한다.(1936.12.08.)

연천군내 세민 2천 5백 호에 대한 군 당국의 대책은 다음과 같다. 구제를 요하는 인구 1만 2천 5백인에 대해 곡물 3천석과 금전 7만원을 지출하기로 되었다. 곡물은 각 면의 공제조합에서 2천석, 군내 각 금융조합에서 좁쌀 1천석을 공동 구입하여 대부하기로 되었다. (1937.01.20.)

(3) 자작농

도 지정의 자작농 설정으로 선정된 자가 21일 군당국으로부터 각 면에 통지되었다. 연천군에는 5명이다.(1936.12.29.)

2) 공업과 노동자

(1) 공업

경기도내에는 조면공장이 수원에만 있어 경기 북부 각군과 인접 도인 황해, 강원도의 양도에서도 원거리의 수원까지 다액의 운임을 들여 생산자의 부담이 과중하므로 대책 면화의 장려에도 장애가 지대하다 하여 조면공장의 설치를 요망하였다. 남북면업주식회사에서 그 필요를 통감하고 후보지를 물색하던바 연천군은 기후 풍토가 면화 재배에 적합하며 일반 당업자도 작년의 실적에 힘을 얻어 금년에는 재배 면적을 확충하며 군 당국에서도 백만 근 목표로 장려 계획을 수립하고, 또 지리 교통 등으로 보아 연천이 제1위의 후보지로 내정되어 해빙기를 기다려 공장 건설에 착수한다고 한다. 연천에 공장이 설치되면 연천산 면화의 백만 근을 필두로 인접 포천, 양주, 장단, 파주, 개풍, 황해도와 강원도의 인접지에서도 많은 면화가 채도할 것이라 한다.(1937.03.03.)

(2) 노동자

연천군 당국에서 군내 농촌 청소년에게 견실한 취직의 길을 열어주고자 종연방직 영등포공장과 교섭했다. 군에서 직공 희망자 15명을 추천했는데, 1월 30일 종방 인사계 주임이 연천에 와서 군회의실에서 간단한 구두시험으로 전형을 한 결과 2명이 선정되었다.(1937.02.02.)

3) 상업

연천생활필수품 소매상업조합 창립총회가 9월 25일 연천공립국민학교 대강당에서 개최되었다.(1943.10.03.)

4) 의생활

색의 장려를 이용하여 교묘히 법망을 뚫고 우매한 농민을 감언이설로 꺾어 사복을 채우는 유령회사가 작년 7월부터 연천지방에 횡행하여 농민의 피해가 막대하다. 경찰 당국에서 소탕에 진력하여 과거 3개월간은 군내에서 그 자취가 거의 사라졌더니 최근 다시 동일한 수단으로 매약을 가지고 농민을 우롱한다고 한다. 연천군 중면 산골리 거주 우차부(牛車夫)는 경성에 거주하는 지주에게 80원을 차용하여 자기 돈과 합하여 151원으로 소를 사서 우차를 부리던 중 그 소를 팔아버리고 그 돈을 지주에게 반환하려 했으나 기한이 3개월 남아서 가지고 있던 중 작년 9월 초순에 경성 모 양행에서 왔다는 염료상이 와서 2원 어치 염료를 사면 3개월 간에 할증 배당금으로 2원 50전을 준다는 말에 가졌던 돈 80원을 다 주고 염료 800봉지를 샀다. 할증 배당금은 1전도 없고, 모 양행은 해산하고 다른 양행과 합병하였다는 통지를 받았다. 그 염료는 품질이 좋지 않아 착색에 부적당하여 버리는 수밖에 없다.(1937.01.14.)

전 조선을 풍미하던 색의 장려는 민중생활 개선에 기여한 바 있었으나, 그 방법에서는 간혹 비문화적이며 비인도적인 폐가 있어 당국자의 직권 남용으로 비효과적인 것도 있었다. 연천군에서는 새로 색의 장려방법을 안출하여 의복 신조의 구연말의 기회를 잃지 않겠다는 바 그 방법은 관공서에 출두한 자중 백의 착용한 자에게는 백의가 불경제함을 설파하고, 그에게 기한을 주어 색의를 착용하겠다는 선서를 하게 하여 서명 날인하게 하고 기일에는 거주 담당 지도자가 실지 조사한다는 것이다.(1937.01.22.)

5) 여성

남녀총동원으로 총후를 굳세게 하려는 목적으로 조직된 연천여자청년단은 10월 30일 연천신사 앞에서 결성식을 거행했다.(1939.11.01.)

6) 청년

30일 연천청년단 결단식이 있었다. 300여명의 참가가 있었다. 단규의 완장과 백색의 두건을 날리며 신사참배를 마친 후 유지의 고사, 단원의 선서, 국민체조의

함성 충천으로 끝마쳤다.(1935.11.04.)

연천군 연천면 공립중앙국민학교에서 4월 29일 청년대 결대식을 거행했다. 당일 입대한 인원은 청년대·소년대·여자대 합하여 966명이었다.(1941.05.02.)

7) 종교

연천군은 9월 30일 연천문묘에서 일반 유림을 집합하여 국민정신총동원 유림보국회를 조직하고 유교황도화로 국민정신을 강화시키게 되었다.(1939.10.03.)

12월 3일 연천군내 유림 200여 명이 참석하여 연천유도회 결성식을 거행했다. 군내 유림의 연락 통일을 기도하여 황도정신의 기초를 확립코자 하는 목적이 다.(1939.12.08.)

8) 교육

연천군 읍내 소학교는 1월 9일부터 13일까지 5일간 서당교사 강습회를 개최했다. 과목은 국사·국어·산술·위생·농사·농진 시국강연 등이었다.(1939.01.24.)

9) 동원과 헌납

(1) 동원

연천경찰서장은 몇몇 유지와 진흥회 위원 등과 협의하여 국기계양대를 건설하고자 한다. 축제일 등에 이 계양대 아래서 집합할 계획이다. 경비는 약 300원, 높이 약 50척을 예정하고 경비는 군민의 기부를 받을 계획이다.(1933.03.20.)

연천군수, 서장의 발안으로 관공 유지와 협의해서 신사 구내에 높이 60척, 천황산에 높이 10키터, 보통학교에 높이 40척의 철근 국기계양대를 설치하기로 했다. 지방민의 협심을 조장케 하며, 국체 선양의 사상을 고취하는 이 안은 이미 경

성 남대문통 적미제작소에 의뢰하여 지난 29일 천장절에 국기가 게양하게 되었다.(1933.05.03.)

연천공립보통학교는 교장 이하 교직원 일동이 아동 대표 4명을 인솔하고 전교생도의 실습품인 계란 400개와 밤 3포대, 국화를 가지고 5일 오전 열차로 백의 개선한 군사들을 위문하기 위해 용산위수병원으로 출발했다.(1937.12.07.)

7월 6일 연천면 유지, 각 리구장, 진흥회장 등 80여 명이 모여 연천근로보국단 결성식을 거행했다.(1938.07.08.)

10월 9일 농산어민보국일에 연천군도 보국식을 거행했다. 그중 왕징면은 각 리보국단원 및 기타 일반 면민 500~600명이 모여 성대히 거행했다.(1938.10.11.)

연천군은 15일부터 실시할 연말연시 총후보국 강조주간의 철저를 기하기 위해 군청원이 총출동하여 노력 중이다. 먼저 솔선하여 일반 군민에 모범을 보이고자 다음 사항을 실행하기로 했다. 저축 실행의 하나로 연말 상여의 1할 이상 국채 매입 또는 적립 저축, 전지 장병에게 직원 1명 1매 이상의 위문대를 증정할 것, 고등관 봉급 월액의 100분의 1, 판임관 및 대우 봉급 월액 200분의 1, 산업단체 직원 봉급 월액의 200분의 1, 고원 봉급 300분의 1로 홀병자금을 각출할 것 (1938.12.16.)

연천군은 4월 7일 애마일 행사로 신사 앞에서 출정 군마 무운장구 기원제를 엄숙 거행하고, 이어서 시가로 기행진을 했다.(1941.04.09.)

11월 2일 연천군에서는 각 면에서 일제히 풍년제를 거행했다. 연천면은 신사 앞에서 풍년제를 집행하고, 국민총력차탄리연맹 주최와 군농회 후원으로 1.가마니 짜기 경기회, 2.씨름, 3.농악, 4.가장행렬, 5.영화회 등을 베풀어 마음껏 풍년을 축하했다.(1941.11.05.)

(2) 현금, 헌납

연천공보교에서는 지난 동기 휴학중 교내 시습부반 생도가 작업을 하여 몇 전씩 소득된 것을 모아 70전을 연천군 국방의회에 현금했다.(1934.02.06.)

연천군 연천면 동탄리에서 빵장사하여 생활하는 노파는 1월 18일 빵을 팔아 모은 돈 10전, 5전짜리로만 현금 10원을 가지고 연천경찰서에 국방현금으로 현금했다.(1941.01.23.)

연천군 12면 면장이 모여 애국연천호 헌납을 결의했다. 12월 25일 군민 12명이 군연맹 이사장을 방문하고 자진적으로 기금을 헌납하기를 신청했다.(1942.01.07.)

10) 위생

분노처분 문제와 아울러 시민의 관심을 이끌며 시민의 보건 위생의 견지에서 가장 시급을 요하는 문제는 공동변소의 설치이다. 군내 교통로의 중심이 되고, 교통량도 많은 연천에 공동변소 설치가 하나도 없으므로 시민은 위생조합의 기능을 강화하여 그 사명을 발휘해 주기를 바라며 하루바삐 공동변소의 설치를 바라고 있다.(1936.12.29.)

11) 시간

시간 불여행으로 유명한 연천의 각종 집회는 연천 인사의 신경을 마비하여 불감증에 걸린 감이 있다. 여하한 집회를 막론하고 2~3시간을 지연시켜 집회자에게 나태를 야기하게 하며 열성을 반감하는 감이 있다. 식자 간에는 이 폐풍을 개선하려면 집합된 인원 여하에 불구하고 개회하거나 단연 유회(流會)하여 그들에게 일대 경고를 발하여 각자의 책임감에 호소하는 시간 존중의 관념을 환기해야 한다고 한다.(1937.05.01.)

12) 병력

2월 6일까지 연천군 내 지원병 신청자는 3명이다.(1938.02.10.)

13) 단체

9월 29일 조선방공협회 연천지부 결성식이 거행되었다.(1938.10.01.)

연천군국민총력연맹 결성식은 10월 28일 군청회의실에서 거행되었다.(1940.11.01.)

14) 교통

연천 산업계의 비약적 발전에 따라 산업도로망도 획기적 확충을 보였다. 그러나 도로의 불량도 너무 유명하다.(1937.11.02.)

14. 용인

1) 농민과 농업

(1) 농민, 농업, 농촌진흥

김을한이 용인군에서 수지면의 사방공사와 전대리의 양계조합을 시찰하고 개황을 소개하는 글을 게재했다. 사방공사는 수룡수리조합의 저수지(공비 50만원)와 그 부근 전답의 매몰을 방지하는 한편 황폐한 임야의 복구와 궁민 구제를 목적인 일거삼득의 계획이다. 소요 공비는 8만 4천원, 공사기한은 1929년 3월부터 1932년 6월까지의 약 4개년이다. 또 수지면에는 흥산회라는 자치기관이 있는데 이는 동리의 유지 조두형 정계렬 등의 발기로 사방공사에서 얻은 노임을 근검 저축하자는 근로단체로 동리 70여호 주민 중 이로 말미암아 가옥 전장을 구입한 사람도 적지 않다고 한다. 양계조합은 1925년에 양계모범부락으로 지정되어 군 당국에서 백색 레그혼을 구입 배부하고 개량종의 보급을 극력 장려한 결과 지금은 가가호호 평균 6마리씩의 양계를 하여 1년의 계란 판매 수입이 적지 않다. 판매의 통제를 위해 동리에서 생산되는 계란은 한 달에 여섯 번씩 모아 전부 경기도 축산동업조합연합회로 보내서 현금과 바꿔온다. (1931.07.02.)

용인군에서는 전군 농가에 매년 퇴비 독려로 각 부락에도 10호에 대해 1인씩 퇴비장려위원을 두어 실행하게 하고 다시 금융조합과 연락을 취하여 전부 천 수백명의 동원으로 전군 경작면적 1만 8천 정보에 반당 200관씩의 퇴비를 장려하여 총계 3천 600만관의 퇴비를 제조시킨다. (1932.08.29.)

(2) 소작인

용인군 구성면 마북·보정 양 리에 있는 동양척식회사 소작인 40여명은 24~5일

에 도당국과 기타 각 방면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소작료는 타작형식으로 매년 반타 가량씩 납부해 오던 것을 1930년부터 소작료를 인상하기 시작하여 연 3년동안 계속하여 금년에 와서는 실은 8~9할이나 된다고 한다. 이제부터는 계약 체결을 할 때에 차라리 소작권을 박탈당할지언정 그 같은 소작계약에는 응하지 않기로 결속했다.(1932.11.03.)

용인군 남사면 봉명리 부근에 산재해 있는 남상순의 토지가 작년 경성부 삼각정의 김익수에게로 넘어가자 종전 마름인 남준희도 진위군 북면 갈곶리 한필호라는 마름으로 변동되었다. 지난 24일 남선우 등 8명에게 소작원 이동 통지가 와서 소작인들은 27일 마름 한필호에게 반항하여 항쟁을 개시했다.(1933.02.04.)

(3) 모범촌

용인군 이동면 적동공조회에서는 회원간에 양계를 하여 공동판매한 돈이 현재 2,010여원이다. 가마니짜기로 공동저축했던 돈은 1928년 가뭄 당시에 회원들에게 평균 분배하여 곤경을 무난히 벗어난 일도 있다.(1930.01.01.)

(4) 금융조합 부채

용인군 관내 2개 금융조합 2천 500여 조합원은 6월말 현재 대출 총액 약 30만원이다. 1인당 120여원이다.(1932.09.04.)

(5) 송덕

용인군 원삼면 사암리 거주 이명세는 농촌 경제가 공황됨을 염려하여 부근 세농 400여 호의 제1기 호세를 전부 대납하고 최근에는 또 속미 3두씩을 부근 적빈자 전부에게 분급하여 칭송이 자자하다. 부근 주민들은 송덕비를 건립하고자 협의 중이다.(1931.05.12.)

2) 상업

용인군 김량장리 유력 상공업자들이 모여 상공업자의 유일한 집회기관인 상공회 창립을 준비중이다. 8월 2일 용인면 회의실에 상공업자 100여명이 모여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1938.08.05.)

3) 제탄조합

용인군의 목탄 개량은 십수 년 전부터 노력하여 점차 품질은 개선되었다고 할지나 아직도 재래 목탄이 있고, 판매방법도 통일되지 않아 생산자의 불이익이 많고, 종래 거래 상황을 볼 때 가격 등귀할 때에는 미리 계약하여 상인이 구입하기로 하지만 하락할 때에는 시장에 반출하여 판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태이다. 이익이 있을 때는 상인의 이익이 되고, 결손이 될 때에는 생산자의 결손이 되는 것이 보통이다. 도 방침에 따라 제탄조합을 설립케 하였으나 조합의 활동상황은 각 조합 개개로서 그 목적 달성상 곤란하고 사업 실시상 불편도 적지 않다. 제탄 자금 같은 것도 각 조합이 협력하여 식산은행 등으로부터 용자를 받을 때는 년 7푼 가량의 저리자금을 이용할 수 있고, 목탄창고의 건설도 협력하여 건설하면 지극히 경소한 부담액으로 영구히 이용할 수 있으며 겸하여 반출도 화차 취급은 550표를 요한즉 그간 저탄(貯炭)을 요할지라도 각 조합이 협력하여 각 조합분의 수합 반출할 때는 지극히 편리되는 등의 점을 고려하여 각 조합의 통일 기관 요망에 비취 지난 11월 5일 용인군 제탄조합 연합회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평의원은 각 제탄조합장으로 하고, 당분간 회장은 용인군수, 부조합장은 내무계 주임, 간사는 임업담임속으로 결정했으며, 고문은 용인금융조합 이사를 추천했다. 이 창립에 군 임업계 산업기수의 노력이 많았다.(1936.11.09.)

4) 재해, 수해(獸害)

용인군 수여면 호리 부근 일대에 8월 18일 경부터 산돼지 약 10마리 쯤이 출몰하여 저녁 때가 되면 부근 각지로 돌아다니며 근래 드물게 잘 된 농작물을 먹어 피해가 막심하다.(1937.09.02.)

8월 30일 용인군 회의실에서 용인 읍내 유지 수십 명이 모여 한해 구제회 설립을 협의했다. 목적은 다음과 같다. -인보상조 촉진, -구제공사 청부경영 알선, -이재민 노무알선, -부업자금 융통알선, -기타 필요사항.(1938.09.03.)

용인군은 7월 2일 용인면 주최로 석성산에서 기우제를 거행했다.(1939.07.04.)

5) 동원과 헌납

(1) 동원

용인군에서 10월 10일 신명신사 추계대제일에 관내 관민 각 학교 생도 등 다수의 참례를 이용하여 제례가 끝난 후 군청원 일동은 기기묘묘한 가장 행렬로 시내 각처로 순행하며 일반에 대해 심전 개발의 선전을 행했다.(1936.10.15.)

동원(용인군 내사면 양지리 추양부인회장이 군·면 당국에서 군마용 건초 예취를 독려 중이라 함을 듣고 총후를 지키는 적성을 가지고 군마용 건초를 헌납하고자 회원 30명과 협의하여 8월 20일부터 낮을 손에 들고 건초를 예취하여 멀리 용인역까지 운반하고 있다.(1937.09.02.)

용인군은 6월 18일 군회의실에서 군내 각 우편소장, 각 금융조합 이사를 비롯하여 관공서 대표자와 유지의 회합으로 협의회를 개최했다. 20일에는 각 면장, 각면 학교장, 각면 경관주재소 주임을 망라하여 협의회를 개최했다. 21일부터 27일까지 주간을 설정하여 각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보국저축 선전 비라를 인쇄하게 하여 군내 12개 면에 살포하여 취지를 인식시키고, 각 관공서, 금융기관, 회사, 단체는 6월 21일부터 규정에 의해 보국저축조합을 일제히 설정하고, 농촌진흥회를 우편소, 금융조합, 면직원이 협동 출장하여 야간 강화와 보국저축조합을 조직하기로 결의했다. 용인군의 저축액은 90만원을 목표로 했다.(1938.06.22.)

용인군은 7월 7일 국민정신총동원 근로보국단 결성식을 행했다. 단원은 만 12세부터 40세까지이다.(1938.07.10.)

용인군은 10월 27일 한구(漢口) 함락 축하행사를 거행했다.(1938.11.01.)

용인군은 공동작업반 지도 독려를 실시하여 더욱 공고케 하기 위해 6월 2~3일 군면의 부락 지도 담당 직원과 각 관공서원과 면연맹 간부 등이 임석하여 남자, 여자, 소년부 3반을 조직하고, 부인의 옥외노동을 특히 촉진 강화하기 위해 공동작업반 출동 선서식을 거행했다.(1941.06.06.)

조선국민총력연맹에서 각 연맹을 통해 전과(戰果) 감사 비행기 헌납자금을 모집하였던 바, 용인군연맹은 담임자의 활동으로 8,541원을 모집하여 12월 21일 다른 군에 송전하여 경기도연맹에 송금했다.(1944.01.08.)

(2) 현금, 헌납

용인군 김장량리에 있는 각 음식점의 기생과 작부들은 작년 12월부터 시작하여 각각 50전씩 모아 15원씩을 매월 국방현금으로 헌납하기로 결정하고, 지난 달에 제1회 헌납을 했다.(1941.01.21.)

6) 여성

용인군에서는 수년 전부터 여자노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각 면에 근로부인단을 조직하고 진행 중이다. 각 면에 평균 2개소가 설립되어 1개소에 약 20명씩의 단원으로써 공동경작이며 기타 제반 부업에 주력하여 근검저축을 목적으로 성적이 매우 우량하다.(1932.08.31.)

용인군 수여면 마평리의 부녀자 13명은 부인노동단을 조직하고 국유지 5단보를 개간, 경작했다. 그 결과 300원의 저축을 하고, 군농회에서 보조 장려하는 의미로 80여원의 자금을 주었다.(1933.09.13.)

7) 어린이

용인군은 제13회 아동애호주간에 각 소학교는 소운동회 또는 원족회가 있고,

용인면에서는 신명신사에서 유아애호 기원제를 거행하고, 공의로부터 유아 무료 건강 진단, 무료 해충 시약을 하고, 선전 피라를 각 호에 배부했다.(1939.05.07.)

8) 단체

용인군은 10월 28일 용인 신명신사 광장에서 국민총력용인연맹 결성식을 거행했다.(1940.11.01.)

9) 병력

용인군의 지원병은 3월 30일 기준 13명이다.(1938.04.02.)

10) 선전

용인군은 비상시국을 철저히 인식케 하기 위해 4월 8일부터 순회 영화회를 개최한다.(1938.04.10.)

11) 창씨

용인군 도회의원 심영섭은 이번 송본광정으로 창씨를 발표하여 일반에게 모범을 보였다.(1940.07.02.)

12) 면직원

용인군은 현하 시국에 비취 정실을 배척하고 인재를 등용하는 의미로 면서기

자격시험을 2월 27~8일 시행하여 응시자 70여 명 중 7명을 선발했다.(1938.04.02.)

용인군은 5월 27일 군회의실에서 정례면장회의를 개최하고, 28일에는 군면 직원 250여 명을 소집하여 군면직원 단련대회를 개최했다.(1941.06.04.)

15. 이천

1) 농민과 농업

(1) 농민, 농업, 농촌진흥

1939년도 이천군 갱생부락은 21개소로서 1938년 10월 1일부터 농가의 실정을 상세히 검토 조사한 후 2월 말일으로써 갱생계획 수립이 완료되어 군에서 심사 중 불인간 승인되어 각 농가에 배부된다. 3월 22일부터 28일까지 1주간 각 부락에 군읍면 직원이 총동원되어 부락의 주재자인 청년부원, 부인부원을 집합한 후 제1일은 갱생계획의 교부식 및 강호회 개최, 제2일에는 각 농가에 가족회를 개최하고 각개 계획을 상세 지도하여 농가 갱생상, 국력 충실 장기 건설에 유감이 없기를 기하고자 각 읍면에서 준비 중이다.(1939.03.12.)

이천군은 10월부터 11월말까지 각 면 각리 각 부락에 농촌진흥회를 조직했다. 현재 219개소이다. 조직된 호수는 9천여 호이다.(1932.12.18.)

(2) 세궁민

이천군 신둔면 수하리 홍승완(45)은 농사를 지었으나 채무로 수확 전부를 지주에게 빼앗기고, 10여 일 전에 막별이라도 할 생각으로 서울에 왔으나 그것도 여의치 않아 25일 오후 4시경 동대문 밖 경마장 근처에서 양젓물을 마시고 생명이 위중하다.(1931.11.27.)

(3) 식량

이천군은 맥류국책에 협력하기 위해 맥작증산 확장계획을 수립하고 노력 중이다. 종래 4,500여 정보 목표로 경작해온 것을 1941년도에는 6,040정보를 경작하기로 했다.(1940.10.04.)

이천읍은 1944미곡년도 식량배급 신통장을 발행하여 읍내 비농가 1,368호(인구 7,409명)에 대해 11월 1일부터 각 부락 구장을 통해 일제히 교부하였다.(1943.11.03.)

(4) 금융조합 부채

이천군내 3개 금융조합원 2,700여명에게 부채가 40여만원이다. 평균 150여원이다.(1932.08.27.)

지난 도지사회의에서 금융조합과 연락하여 농민부채 전부를 금융조합에 인수시켜 극히 저리로 연부상환책을 수립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하여 진척 중이다, 경기도가 출선하여 시행하기로 결정하여 시행방법을 연구중 이천금융조합이 선도로 각 농촌의 부채를 일일 조사중이다.(1932.08.29.)

2) 의생활

이천군 각 농촌진흥회에서는 단발을 장려하여 각 이발관에 교섭하여 단발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이발요금을 무료로 하게 한다.(1933.01.20.)

이천군수는 농촌진흥책에서 제1로 착수 실행 조목에 장발과 무색의복은 1등 국민에게 일대 수치로 농촌진흥책을 강구함에는 삭발, 염의(染衣)의 단행이라 하여 단발을 여행하였다. 음력 10월 말일로 일제 실행하여 군내 전부를 통하여 1명의 장발도 없이 전부 단발을 하였음은 전조선을 통하여 이천 외에는 볼 수 없는 기록이다. 염의에 대해서도 방금 철저 실행중으로 음 정월을 기하여 일률로 단행하기로 했다.(1934.01.17.)

농촌진흥운동이 갈수록 철저함에 따라 농가에서도 색복착용과 단발이 증가하는 중인데, 경기도가 최근 조사한 바에 의하면 도내의 단발 상황은 이천군 인구 6만 여인이 전부 단발을 여행한 것인데, 전군에 걸쳐 전부가 단발을 한 것은 이천이

효시이다.(1934.01.18.)

이천군에서 진흥회 간부, 부인회 간부, 각 학교 지도생을 소집하여 공동염색 전습회를 개최했다. 모가면 신고리 공동염색장 10월 15일부터 2일간, 설성면 장릉리 공동염색장 10월 17일부터 2일간, 울면 오성리 공동염색장 10월 19일부터 2일간(1936.10.22.)

이천군의 색의 장려의 일환으로 12월 12일 이천읍 장날에는 관계 읍면·경찰서·금융조합·군청원 등 30여 명이 집합하여 독려원이 동원되어 시내 요소에 들어서서 백의자에게 일일이 그 잘못을 역설하고 회의실에 불러 군수로부터 일장의 설유와 훈시를 받고 해산했다. 장호원·오천·현방리 등 장날에도 실시한다고 한다.(1938.12.16.)

3) 주생활

이천읍 관고리에 사는 목춘창순(가명, 42세)이라는 여인은 집세를 더 올려 받다가 검거되어 경성지방법원 여주지청에서 지난 16일 벌금 500원의 판결을 받았다. 그는 전기 주소에 자기 소유의 가옥을 가지고 있는데, 이 가옥의 집세는 1938년 12월 30일부터 1개월 30원씩 정했던 것을 지난 1940년 4월부터 1941년 10월까지 특별한 사유도 없이, 수속도 없이 1개월 40원씩 받아 지대가임통제령에 저촉된 것이다.(1942.01.24.)

4) 교육

이천군 마장면 이치리의 이창남(17)은 동경 우전(羽田) 비행장 복사(福士) 항공관에게 혈서를 보냈는데, 31일 도착했다. 이창남은 1931년 이천군 중천공립보통학교를 졸업하고 강의록으로 항공학을 공부했다. 혈서에는 경성비행장을 원했으나 동경비행장이 좋다고 말하므로 이처럼 애원한다고 되어 있다. 복사 항공관은 그 의기는 장하나 수속상 부득이 하다고 하여 혈서를 반송하기로 했다.(1934.04.02.)

이천군은 봄가을에는 여성, 겨울에는 청소년을 중심으로 매년 적극적 개최를 장려하여 금년 봄가을에도 각 갯생지도부락에 주부 계몽 야학회가 왕성했다. 한글

해독은 물론 가계부 기장자가 속출하였다. 겨울철에는 비상시 총후 청년의 자각을 촉진하고 청년부의 교사될 자격이 있는 자를 엄선하고 당해 소학교에 소집한 후 야학회의 지도 방법과 교사로서의 주의사항을 상세 지도했다. 그후 각 농촌진흥회 집회장은 청소년의 독서 소리가 진동하여 개최 부락수가 178개소에, 수강자가 3,204명에 달한다.(1939.01.10.)

1937년에 이천중등학교설립기성회가 조직된 이래 관민 유지와 협력하여 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다. 7월 26일 현재 기성회에 들어온 기금은 부지 2만 5천여 평 외에 22만 8천에 달하였다.(1943.08.01.)

5) 동원과 헌납

(1) 동원

12월 1일 이천방호단과 소방조가 협력하여 방화시설에 대한 행사를 거행했다. 이천공립보통학교에서 구명삭(救命索)으로 피난방법 실시, 생도의 피난 원조, 부상자의 구호, 가로 요처 3곳에서 방화 구연(口演), 방호단 간부 등의 방화 선전 연설 등으로 시민의 방화 인식을 강조시켰다. 또 소방조원과 방화반원은 트럭 2대에 분승하여 피라를 시내와 읍내 중심 1리 이내 부락까지 살포했다. 여흥으로 교정에서 착장 경쟁 등 경기가 있었다.(1937.12.04.)

이천군은 저축액 70만원을 목표로 6월 17일 군저축위원회를 조직하고 21일부터 실시되는 저축보국주간행사에 대해 여러 가지 협의를 했다. 이 주간을 통하여 각 면저축위원회를 조직하고, 각 진흥회에는 저축부를 설치하고, 각 관공서, 은행, 회사, 상점, 공장 등에는 저축조합을 설치하기로 했다.(1938.06.22.)

이천군은 10월 9일 지도기관 및 지주 유력자 총출동으로 각 진흥회와 농산어촌 보국식을 거행했다. 계속하여 벼베기의 일제 작업을 개시했고, 이천읍과 장호원시에서는 각 관공서 유지 청년단원이 신사 앞에 모여 식을 거행한 후 신역(神域) 및 신도(神道)의 수리와 청결을 행했다.(1938.10.11.)

한구(漢口) 함락의 축하행사가 10월 28일 이천읍 주최로 이천신사에서 열렸다.(1938.11.01.)

이천군은 12월 5일부터 저축 목표 30만원을 수립하고 진흥회 저축부의 설치, 각 관공서·은행·회사·학교·상점 등에 저축조합을 조직하고 관민 총동원으로 노력하고 있다. 연내에 저축 예정에 달하고자 하여 15일부터 20일까지 6일간 각 읍면마다 저축부장·구장·지주, 유력한 상공업자를 회동하게 하고, 군에서는 군수·권업과장·사회주사와 금융조합 이사, 우편소장과 각 읍면을 순회 강화(講話)한다.(1938.12.16.)

10월 25일 이천군청 회의실에서 국민총력이천군연맹 결성식이 있었다.(1940.11.01.)

이천읍연맹은 11월 2일 오전 10시부터 이천신사 앞에서 신곡 감사제를 거행했다. 뒤이어 각 부락의 농악대를 선두로 오곡 풍양을 노래하는 형형색색의 가장행렬을 지어 전 시가를 일주한 후 이천 구시장에 이르러 산회하였다. 오후 1시부터 씨름 대회를 개최했다. 당일 입상자는 다음과 같다. -가장행렬 1등 관고리 애국반, 2등 창전리 7구 애국반, 3등 창전리 1구 애국반, -씨름 1등 이정재, 2등 양광국, 3등 김진완.(1941.11.06.)

이천경찰서는 애국일이자 방화데이인 12월 1일 오전 9시부터 이천신사 앞에서 관공서·학생·경방단·애국반 등 1천여 명이 모여 식순에 따라 영지봉독식, 국방방화 기원제를 거행했다. 이후 악대를 선두로 방화선전기와 각 부락 애국반기를 각각 들고 전 시가를 돌아 이천경찰서 광장에 이르러 10시 30분 경에 끝마쳤다. 다시 오후 1시부터 경찰서원과 경방단원이 대를 지어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방화 선전과 아울러 온돌 분구(焚口)를 일일 조사하여 국가자원 애호사상 보급을 철저히 실시했다.(1941.12.03.)

12월 4일부터 13일까지 실시되는 ‘저축실천강조주간’ 기간 중 이천우편국은 전국 우편국에 모방하여 일요일 이외의 매일 취급시간을 1시간 연장하여 오후 4시까지, 토요일은 오후 1시까지 우편저금과 간이보험료 수입사무를 취급하여 총후보국 저축의 증가를 한층 돕는다.(1941.12.03.)

국민총력 이천읍연맹은 6월 30일 오전 6시 30분부터 관공서 경방단 남녀 애국반원 등 천여 명이 이천신사 앞에서 모여 ‘대발의 예’를 거행했다. (1943.07.03.)

국민총력 이천군연맹은 7월 28일 오후 3시부터 예회를 개최했다. 다음 사항을 협의했다. 1.더위여지지 말고 신체를 단련하여 크게 근로보국에 노력합시다, 2.풀을 베어서 건초와 시비를 많이 만듭시다, 3.송탄유의 자재를 하루라도 속히 공출합시다, 4.식량을 절약하고 대용식의 자료를 저치합시다, 5.금속류를 특별히 회수

합시다, 6.국어를 배워서 국어를 애용합시다.(1943.08.03.)

(2) 헌납, 현금

이천군 국방부인회 장호원읍분회는 현금 30원을, 오창부인부는 14원을, 호동부인부는 5원 40전을, 진암리 지원병 가족은 유기 9점을, 장호원읍 1구 애국반은 유기 124점을 지난 12월 28일 각 읍사무소에 헌납해 달라고 기탁했다.(1942.01.07.)

애국기 이천호 헌납기금은 12월 29일까지 7천 348원 22전이 신청되었다.(1942.01.07.)

이천군민들은 근일 황군장병들이 남방 각지에서 고열을 무릅쓰고 분투하여 매일 대전과를 나타냄을 보고 선풍기를 보내어 위안하고자 이천읍 각 가정에서 사용하던 선풍기를 다투어 내서 이천읍에서 21대, 장호원읍에서 17개, 합 38대를 모아서 이천군연맹을 거쳐 해군부에 헌납했다.(1944.01.08.)

6) 여성

이천군은 관내 갯생지도부락에 농번기 탁아소 83개를 6월 초순부터 약 2주간씩 진흥회 집회장, 소학교, 적당한 녹음 등지에 개설한다. 부락내 유력자의 부인과 소학교 여교원, 광공서 직원의 부인이 자진 지도에 임하고 제2세 국민인 아동 애호에 전력을 다한다. 부학 부녀자는 적당한 인원으로써 작업반을 조직하고 면작물의 경운·시비·제초와 양잠·사육·대소맥 예취와 논·의 이앙에 이르기까지 옥외노동을 한다. 탁아소수는 작년에 비해 27개소의 증가이고, 소요 경비는 유지들의 기증과 진흥회 비황저축으로 충당하고 주로 간단한 오락적 시설과 탁아 간식용 재료를 구입하여, 군에서는 관계직원과 부인 교화 축탁이 지도에 임한다.(1938.06.04.)

7) 위생

이천군 읍내에 지난 12월 20일 경에 천연두가 발생하여 그후에도 만연될 조짐이 보이므로 이천경찰서는 환자 집 부근에 소독을 엄중히 하고, 교통 차단과 일반 임시종두를 실시했다.(1941.01.12.)

하기 휴가를 이용하여 보건위생사상의 보급에 봉사하고자 경성제대생으로 편성된 무의면 의료반원 4명은 7월 26일 오후 6시경에 이천에 가서 그 이튿날 오전 10시부터 모가공립국민학교에서 140명에게 진찰을 하고, 그 외에 40세 이상 남녀 전부에 대해 혈압 측정을 실시했다. 당일 오후 8시부터 같은 교정에서 국민총력 경기도연맹 주최로 시국인식을 철저히 보급시키기 위해 영화대회를 개최했다.(1943.08.01.)

8) 체육

5월 29일과 30일에 이천읍 체육회 주최로 근기(近畿) 축구대회는 이천운동장에서 천여 관중 환호 속에 6팀이 참가했다. 최종 결승전으로 광주 대 이천A팀의 대결전은 광주팀이 2:1로 우승했다. (1937.06.04.)

9) 병력

조선징병제가 실시되는 8월 1일 이천읍연맹은 오전 8시부터 이천신사 앞에서 천여 명이 모여 징병제실시 감사봉고제 및 필승기원제를 거행했다. 이어서 이천제일국민학교 교정에서 청년훈련소 특별연성소 학생 등의 열병 분열식을 한 후 악대를 선두로 가두를 행진하고 교정에 이르러 만세 3창으로 산회했다.(1943.08.03.)

10) 배급

각 가정 필수품인 성냥을 배급한다. 이천군 인촌소매조합에 이번 입하된 성냥

수량이 6천 6백통이다. 이것을 각 소매상에 나눠 주었는데, 성냥의 배급을 원활히 하기 위해 애국반장을 통해 각 반원에게 고루 배급하기로 했다.(1943.07.03.)

11) 전기

이천에 있는 이장(利長) 전기주식회사 발기인(新井榮吉 외 23명)으로부터 이천, 여주, 장호원 등을 공급구역으로 하는 전기사업 경영허가를 신청한 바 3월 28일부로 허가되었다. 자본금 20만원의 주식회사를 조직하고 이천군 읍내면 관고리에 100킬로의 증유력 발전소를 건설하고 배전할 계획이다.(1930.04.03.)

12) 일본어

이천읍연맹은 국어 상용화를 위해 제1차 계획으로 이천읍 관고리 부락에 거주하는 15세 이상 50 이하 국어를 모르는 부녀자 50명을 모아 2개월간 예정으로 매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국어강습회를 7월 25일부터 시작했다.(1942.08.02.)

13) 세금

이천세무서는 2월 1일부터 28일까지 관내 밀주자 검거에 노력하여 22건을 적발했다. 그중 음식영업자 1명 외에는 전부가 농가로 당국은 처벌할 방침이다.(1941.03.05.)

14) 선거

지난 5월 10일 경기도회 의원 선거 당시 이천군 신현태는 선거법 위반으로 수원지청 검사분국에서 불구속으로 취조를 받아 오다 약식 명령으로 신현태 벌금

40원, 송미(松尾) 벌금 30원에 처했다. 두 사람은 이에 불복하고 정식 재판을 청구하여 7월 29일 공판이 개정되어 사실 심리에 들어갔다. (1937.08.01.)

16. 장단

1) 농민과 농업

(1) 농민, 농업

장단군에서 역둔토 불하대 9,115원을 1월 30일에 완납했다.(1931.02.04.)

장단금융조합에서 10일부터 비료공동구입 알선을 개시했다. 비료종류는 대두박, 암모호스, 유안 등이며 신청 기한은 3월 25일까지이다.(1931.03.13.)

장단군에서는 고가의 금비를 사용하는 것은 농가경제를 위해 고려할 문제라 하여 자급비료로 퇴비와 녹비를 적극적 장려할 계획이다. 퇴비 지도 동리는 13개소가 있는데 금년에 또 4개소를 증설할 예정이다. 작년중 녹비 실시면적은 16정 8반이었는데, 반당 802관의 수확이 있었다. 헤아리벤티지가 사질 토양에 적합하므로 습윤한 토지에는 동계 한해로 고사할 우려가 있으므로 적량의 석회를 사용하여 산성을 중화함이 좋다. 금비보다 토질을 윤옥케 하는 성분이 있어 대두박에 비해 그 효과가 크다. 본년에 각면에 걸쳐 재배면적을 확장하여 55정보를 실시할 계획이다. 전임 기술원이 지도하기로 한다.(1931.05.26.)

장단군에서 14일 제6회 권농기념일을 택해 일반 농가 부녀의 옥외 근로를 장려하는 의미에서 관민 유지의 부인 등을 다수 출동하여 이앙을 한다.(1933.06.06.)

장단군농회와 진남면사무소 주최로 14일 농민데이에 관민 100여명이 장단신사광장에 모여 농무산업 기수로부터 이앙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4반으로 나누어 농업실습학교답 3단보에 이앙을 종료하고, 실습학교 교정에서 주먹밥을 섭취하고 오후 2시 산회했다.(1936.06.16.)

장단지방 농사 형편은 도작은 흉작을 면할 수 없고, 무, 배추가 또한 녹아 없어져 풋김치조차 매우 귀한 터인데, 가을 김장도 말 못할 지경이다.(1936.09.12.)

장단군은 면화를 적극 장려하여 1937년 도품평회에서 1등을 점했다. 1938년에는 일층 더욱 철저히 하여 3월 초부터 군면 총동원으로 실측을 개시한 아래 파종, 비배(肥培) 관리를 철저히 지도하고, 부락강화회를 개최하고, 공판 출하 경려회(競勵會)를 조직하여 출하를 철저히 감독하는 등 물·심 양 방향으로 지도 독려를 거듭해 왔다. 공판 수량 105만여 근을 출하하여 다른 곳에 없는 약진적 좋은 성적을 표현하여 연속 2회 우승을 차지했다.(1939.03.15.)

개풍·장단·파주·강화 4군 농회 기수가 개풍군 5월 30일 회의실에서 면작 강습회를 개최했다. 4군의 생산 목표는 500만근이고, 경작 면적은 4,788정보이다.(1939.06.01.)

(2) 모범촌

장단군에 모범농촌과 일반청년의 자치단체가 많다. 정자리공조회는 군내면 정자리에 있는데 1925년에 회원 25호가 모여 조직한 것이다. 보통학교 훈도 최익상의 노력과 활동으로 5할 이상 증수를 보았다. 지금은 1호 평균 세 마지기씩의 토지를 소유하게 되었다. 장단공조조합은 장단군 읍내에 있는데 1927년에 회원 15호가 모여 조직한 것이다. 지금은 40호 이상이 되었고, 누에치기 가마니짜기 등의 부업을 장려하여 지금 1호당 평균 100원 이상의 저금을 갖게 되었다. 일찍이 총독부로부터 조성금까지 받았다. 대덕농우회는 장도면 하리 온신동에 있다. 1926년 대덕진흥회의 조직을 변경한 것이다. 회원은 40호로 농촌의 교화와 진흥을 목적인 것이다. 소농조합은 진남면 반정리에 있는 것으로 장단군 하 4개의 소농조합 중 가장 우량한 것이다. 가마니 제조 등 부업 장려에 진력한다.(1931.05.26.)

(3) 식량

당국의 방침에 따라 농가경제 보장을 하기 위하여 미곡 통제를 한 후 농가 자체에 저장케 하여 미가가 표준 최저 가격부터 1할 이상 고등한 시기까지 저장을 계속하여 정조의 저장을 행할 목적으로 군에 미곡통제조합을 실시하기로 했다. 10월 5일 장단군 회의실에서 군수 대리 내무주임 통재하에 미곡통제조합 설립 발

기인회를 개최하고 관계자에서 동의서를 모으기로 결정했다. (1936.10.09.)

(4) 세국민

국민구제사업으로 시행 중인 장단 사방공사는 4만원 예산에 3개년 계속 사업으로 장단 읍내 뒤 백학산 일부에 시행중이다. 다른 공사보다는 다소 기술을 요하는 관계로 인부 임금은 공정에 따라 지급하므로 1일분 임금이 혹은 30~40전에 불과하나 점차로 숙달하는 때는 60~70전은 무려하다, 공사 착수기에는 농번기였으므로 출역자가 희소했으나 지금은 매일 증가하여 예정 인원에 초과하는 상태로 순조로이 진척하는 중이다. 기정 구역은 백학산 일부뿐이라 하여 장단읍내 전천 발원지에 대한 치수에 가장 요지인 방목리에 불모 산야를 시행하지 않는다 하여 주민들은 군당국에 교섭한 바 있다. 실현성이 박약할 때는 교섭위원을 선정하여 도당국에 진정하기로 협정했다.(1931.08.12.)

(5) 소작인

8일 오전 3시경에 장단군 당북면 판부리 789번지 지주 이용재집에 화재가 발생했다. 수사 결과 787번지 사는 조윤하를 검거하고 사실을 자백받았다. 이용재가 경영하는 수리조합 구역 내에 소작을 하다가 지난 가을에 소작이 떼어져 방화한 것이라 한다.(1932.03.19.)

(6) 자작농

공동저축과 기타 수입으로 토지를 구입하여 장단군 공조회 공유로 하고 장래 회원 전부를 자작농으로 하려고 한다. 몇 년 전까지는 자작농이 거의 없었으나 현재에는 상당히 많아졌고, 법으로 매년 추수기마다 벼 5되씩을 출자케 하여 그것을 매각하여 대부 식리하였다가 그 돈으로 납세를 하여 회원 중 체납자가 1명도 없는 상태이다. 부인저축부도 조직하여 1인에 매월 계란 2개 이상씩을 공동저축케 하는 중이다. 지금 그 부근에서 모범촌이다.(1930.01.01.)

(7) 지주

개성부 동본정의 이해벽은 장단군 소남면 지잠리에 약 5백석의 추수를 하는 소유 토지가 있다. 약 10여년 전부터 소작인 50여 호에 매년 농자와 농량을 무이식으로 대부하며 소작인 중 혼상과 같은 대사가 있을 때는 적지 않은 금리로써 부조하는 등, 소작인들은 이에 감응하여 사은비를 지잠리 중앙에 건립하고자 분망중이다.(1931.01.24.)

장단군에서는 10월 6일 장단공립보통학교 강당에서 관내 각 면장, 금융조합 이사, 기타 관계 직원이 참석하여 군내에 토지를 가진 지주 대표 200여명을 소집하고 지주간담회를 개최했다. 9가지 사항에 대해 지시, 협의를 하고, 경찰서장과 고량포금융조합 이사가 농작물 흉작에 즈음하여 한층 소작인 보호에 대한 희망이 있었다.(1936.10.09.)

2) 잠업

장단군농회에서는 6월 21일부터 30일까지 읍내, 구화, 소남 3개소에 춘견(春鰾) 공동판매를 개설했다. 예상 이상으로 출회 성적이 양호하여 판매 수량은 작년에 비해 1천 관 이상 증가하였고, 가격은 9천 6백여 원이 감소했다.(1931.07.04.)

장단군은 9월 16일부터 5개소에서 추견 공동판매를 시행했다. 작년에 비하면 증산으로 340관, 1,500원의 증가를 보았다. 금년 총 출하량은 5,277관, 1만 5,462원이다.(1938.10.05.)

장단군은 양잠을 장려하여 현금수입을 증가케 함으로써 생업보국의 실을 거양케 하고자 계획했다. 가을에는 2천매 잠종의 소립계획을 수립하고, 7월 10일부터 1주일 동안 상전 재배 주간을 설정했다.(1939.07.11.)

3) 산림

장단군에서 종래 삼림보호조합에 감수 7인을 배치하여 조합 또는 면사무소 근무로 하여 2개 면씩 담당케 했다. 지도상 불철저한 점이 있어 불모 산야를 속히 녹화하기 위하여 1931년도부터 종래 조합비 1정보 12전을 14전으로 증액하여 결국 800원이 증가하므로 감수 2인을 증원하고 각 면에 전부 배치하여 임무에 당케 하려고 한다.(1931.03.24.)

백학산은 곧 보안림으로 편입될 것이므로 장단군 삼림보호조합에서는 일반에게 다음 각항을 엄수하도록 선전문을 인쇄 배부하였다. 1. 임목(林木), 하초(下草), 낙엽, 수실(樹實; 도토리) 등은 절대로 채취하지 말 것, 2. 방화 또는 실화하지 말 것, 3. 자기 산림이라도 허가 없이 벌채 또는 하초 수근(樹根), 낙엽, 때 등의 채취 또는 방목(소)을 하지 말 것, 4. 토석을 채취하지 말 것, 5. 조림명령에 위반하지 말 것, 6. 개간치 말 것, 7. 표목을 이전, 오손 또는 훼손치 말 것. 비고 이상 각항에 위반하는 자가 있을 때는 엄중 처벌함.(1931.09.05.)

4) 부업

장단군에서는 농촌 피해를 다소라도 회복시키기 위하여 부업장려에 노력 중이다. 장단군농회에서는 작년에 1만원을 차입하여 생산자 본위로 대두 공동판매를 알선했다. 또 도농회에서 자금을 융통하여 각 교회단체에 가마니짜기를 술선 실행케 하는 중이다. 장단읍내는 농가 호수가 200여 호에 달하나 부업 생산이 없고 근로가 부족하다고 생각한 군수(허섭)는 27일 공농 40여 호주를 읍내면사무소에 소집하고 직기구입자금으로 각 산업단체에서 약간의 보조와 군 직원의 봉급에서 100분의 1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언명했다. 원료는 군농회에서 알선하여 생산비에서 공제하되 판매는 군농회에서 담보 방식으로 당해 면사무소로 가져 오게 하며 먼기수의 검사로 합격품은 대금을 현불한다. 현 시세보다 다소 고가로 매입한 후 행매 시기에 판매되는 가격에 의해 초과된 액을 재차 생산자에게 지불한다. 노인, 어린이, 부녀자의 부업으로 매우 유리할 것으로 관측된다.(1931.02.01.)

5) 의생활

장단군 농촌진흥회에서 생활개선책으로 음력 정월 1일을 기하여 백의를 폐지하고 색의를 착용하도록 각 면위원에게 시달렸다. 개중 백의를 착용한 자에게는 각 면직원 및 경관이 철저히 여행하는 터이다.(1933.01.29.)

6) 주생활

장단군에서는 연료절약과 재해 예방에 가장 유리한 온돌개량 분구(焚口)를 보급코자 당국에서 보조금을 주고, 더욱이 경제의 방도를 강구하여 이에 로스 노루식 분구를 장려하여 연탄을 사용하도록 목하 계획을 수립하고 먼저 관공서 또는 음식점과 같이 다량의 연료를 소비하는 곳부터 수용케 하여 점차 일반에게 보급케 할 방침으로 장단군 삼림보호조합에서는 원료를 산지에서 직이입하여 장단역전에서 연탄제조강습회를 예정이다. 연탄 1개에 1전 미만으로 공급할 것이다.(1931.09.04.)

장단군 삼림조합에서 연료 절약이 유일한 목표로 활엽수 벌채금지구역인 군내면 및 진남면민에 대해 '로스도루'식 분구를 장려한다. 조합과 면비 일부 보조로 분구를 공동구입하여 기술원이 각호에 출장 취부한다. 연탄은 원료를 산지에서 직이입하여 제조한 결과 성적이 자못 양호하다. 대금은 1개 7리 5모의 실비로써 제공했다. 1칸 온돌이면 1일 4~5개면 족하고 1개월 연료대는 1원에 불과하다.(1931.11.24.)

7) 기업정비

2월 26일 장단군 회의실에서 기업정비 회의가 있었다. 군내 소매업자가 다수 참석하여 면포·고무·구두 등 17종목의 잔존업자 44명, 전폐업자 119명이라는 기업정비 결정 발표가 있었다.(1945.03.03.)

8) 교육

장단군 학교평의회는 16일 군청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의원 양경수는 현하 정세에 보통학교 수업료 70전은 농촌에서 과중한 부담이라 하여 학급을 축소해서라도 수업료 인하할 것을 주장했다. 의장은 학급 축소는 불가능하다고 답변하고 자문사항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1931.03.24.)

장단군 읍내에는 300여호에 경제 불허로 70전의 수업료가 과중하여 보통학교에 입학하지 못한 아동이 100 이상의 수에 달한다. 이에 한준수가 지난 겨울에도 야학을 개시하여 실적이 있었고, 올해도 여름방학에 귀향한 남녀 유학생에게 간청하여 비용 대부분을 부담하며 지난 1일부터 교수를 개시하여 현재 남녀 문맹 회원이 100여 명이다.(1931.08.12.)

장단공립보통학교는 직업과(職業科) 철저를 도모하기 위해 3학년생 이상을 대상으로 농번기 가정 실습을 실시하는 중 13일부터 1주간 예정으로 농가의 이양을 조력하는 터이다.(1932.06.18.)

장단 군청과 각 학교에서 24일 교육칙어 하부 25주년 기념일을 맞아 칙어 봉독식을 거행했다.(1936.10.27.)

장단교육회는 5월 28일 장단소학교에서 총회를 개최했다. 회장 대리 내무과장이 통재(統裁)했다. 국가 합창, 궁성 요배, 칙어 봉독, 황국신민서사 제창으로 시작했다. 1938년도 회무 보고와 1939년도 세입세출예산서를 심의했다.(1939.06.01.)

9) 문화

장단 전등 가설을 기회로 장단읍내 번영회 주최, 매일신보·경성일보 지국 후원으로 음력 4월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씨름, 윷놀이, 궁술대회 등을 개최한다. 밤에는 만주사변에 대한 실사와 그 외 영화 대회도 개최한다.(1932.05.09.)

10) 위생

장단군 군내면에서 9월 17일부터 추계청결을 시행한다. 하수구를 철저히 소제하게 하려 한다.(1932.09.18.)

22일 장단군청 낙성식에 참석한 내빈 100명이 점심 ‘벤또’에 증독되어 설사를 해서 응급 수당을 가했다.(1934.09.25.)

11) 체육

장단공립보통학교는 창립 20주년을 맞아 10월 11일 추계운동회를 개최했다.(1931.10.19.)

장단군의 체육데이 기념 운동회는 날짜를 변경하여 지난 7일 오후 진남공보교 운동장에서 개최했다. 관중과 각 관공서 각 촌락 응원단은 응원기를 휴대하고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관공서 릴레이에서는 경찰서팀이 연승에 실패하여 철도팀이 우승했다. 촌락 릴레이는 동장팀이 또 우승했다.(1933.10.11.)

건민 건병의 기운찬 호령에 맞춰서 철과 같은 튼튼한 몸으로 일억 일십 성전 완수의 일로를 매진케 하기 위하여 경기도체육진흥회 개성부체육진흥회, 개풍, 장단, 파주의 각 군 체육진흥회의 공동주최로 제20회 조선신궁, 제1회 개성신사의 군민 연성대회를 10월 22일 개성부 송도중학교 육상경기장에서 개최한다. 당일의 연성 종목은 육상경기, 체력장경기로 하며 전장(戰場) 운동, 항공으로 글라이더 훈련 상황의 공개, 총검도, 검도, 기도(騎道), 나기나다(薙刀), 방공으로 주수경기, 구호(救護), 여자청년체조, 집단음악체조, 수기(手旗) 신호경기, 후생체조, 산업체조 등이다.(1944.10.17.)

12) 진정운동

장단군청 소재지는 장단역에서 약 20리 떨어진 군내면 읍내리에 있다. 1920년 경찰서가 읍내에서 역앞으로 이전한 후 군청 이전설이 간간 전해졌다. 읍내 주민은 적극적 방지 대책을 강구하여 현업에 안도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번 돌연히 군청 이전문제가 농후하므로 임진면을 제외한 9개 면민이 일치단결하여 반대운동선에서 당국에 진정하기로 결의했다. 이에 대해 군수는, 금월 중에 착공하고, 10월 초순에 이전할 예정이며 읍내 주민이 진정해도 이미 확정된 이상 반대 운동은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1933.07.18.)

장단군청을 현 소재지에서 역전으로 이전하는 데 읍내 주민의 반대운동은 1개월여를 두고 적극적으로 도 당국과 총독부에 수차 진정한 후 마침내 시위운동, 단식 등으로 세인의 주목을 끌고 있다. 8월 12일 군수의 성명과 유지 측의 보고에 군청 이전은 확정적 사실이므로 대상적(代償的) 시설로 구 청사를 이용하여 지방비 년 3천원의 보조로 기업(機業) 강습소를 설치할 것을 선언하고 13일 관민유지가 극력 권유한 결과 4일간 계속한 단식단도 해산했다. 14일 밤 군내 면사무소 앞 광장에서 번영회 부서를 결정했다.(1933.08.17.)

13) 동원과 헌납

(1) 동원

장단 읍내 관공서원이 회합하여 7일부터 13일까지 시행할 정신작흥주간 실시요항에 대하여 협정이 있었다.(1933.11.07.)

장단군은 자급비료의 증산은 산업개발과 농촌진흥에 근간이라 하여 8월 1일 농촌 애국일을 기하여 앞으로 3일간 제1회 독려를 했다. 군수 이하 군직원이 총동원하여 각 면으로 출장하여 다음과 같이 독려했다. 1. 갱생부락은 기타 부락보다 농후한 독려를 할 것, 2. 예초 주간 중에는 조기회를 실시하여 노약 남녀를 불문하고 전가 근로 퇴비 재료 수집에 당케 할 것, 3. 변소, 축사, 액비류 설치와 개량 지도를 철저히 할 것, 4. 분회(糞灰) 제조를 절대 금지시킬 것, 5. 각 지도기관과 긴밀한 연락과 협조를 취할 것.(1938.08.05.)

장단군은 9월 1일 애국일을 맞아 동경 대진재 17회 기념일에 해당하므로 국위선양과 황군의 무운 장구를 기원하고자 7만 군민이 일제히 면사무소 혹은 진흥회관에 모여 기념식을 거행했다. 장단면에서는 신사 광장에 천여 명이 모여 행사를 거행했다.(1938.09.03.)

장단군 근로보국단은 1938년 7월 결성 이래 수회에 걸쳐 출동하여 취지 달성에 매진해 왔다. 이번 이를 더욱 강조하고 시국을 재인식케 하고자 각 분단 전반에 걸쳐 1기를 60일간씩 교체식으로 임진강 철교 가설 공사에 출동한다. 인원은

10개 명 합계 600명이다.(1939.4.07.)

장단군 장단면은 근로보국단원에게 규율과 통제 하에서 훈련을 한층 더할 필요가 있다고 하여 면내 단원 941명을 100명씩 각각 부대를 편성하여 7월 2일부터 9월 말일까지 3개월간 10일간 교대로 장단-연천간 지방도로 개수공사에 종사시키기로 했다.(1939.07.05.)

장단군사후원연맹은 재향군인회 조선지부 활동사진반을 초빙하여 7월 6일 오후 8시 반에 3천여 군중이 모인 가운데 활동사진을 상연했다.(1939.07.11.)

장단군은 7월 7일 전쟁 발발 2주년을 맞아 생업보국대회를 개최했다. 심사 보고와 상장·상품 수여 후 퇴비 경예회 우승면에 대한 축하례가 있었다. 또 흥아총동원 전람회 애국반을 초빙하여 성대한 전람회를 일반에게 공개하고, 군부에 의뢰하여 소사중기관총과 독가스, 소이탄 등을 실연하여 시국을 재인식케 했다.(1939.07.11.)

장단군은 7월 29일 총후후원 강조주간을 계기로 청내 내무 애국반, 권업 애국반, 농회 애국반이 총출동하여 근로보국단기를 바람에 나부끼며 경의선 복선공사에 총출동했다. 근로작업에 출동한 인원은 45명으로 그 수입금은 일선 장병에게 위문대로 보냈다.(1939.08.01.)

장단국민정신총동원연맹은 10월 1일 내선일체 강조일이고, 시정기념일이자 제2회 애국일을 맞아 기념식을 거행했다. 관민 유지 등 200여명이 신사 광장에 모여식을 마쳤다.(1939.10.04.)

장단군연맹은 남녀공동 작업반을 총동원하여 보리베기와 이앙에 전력을 가하고 있다. 요즘 군내 각 국민학교 아동들은 각 부락을 순회하며 모내기를 한다.(1944.07.02.)

(2) 헌납

장단군민이 각각 500원, 100원, 50원, 130원을 12월 26일 해군 기재비로 보내달라고 장단경찰서에 기탁하였다.(1942.01.07.)

14) 병력

장단군의 지원병 2명은 6월 10일 지원병 훈련소에 입소하고 11월 29일 귀향했다. 신사에서 군수 이하 천여 명이 참석하여 봉고제를 행했다.(1939.12.02.)

15) 단체

장단군은 10월 28일 장단신사에서 국민총력장단군연맹 결성식을 거행했다.(1940.11.01.)

16) 날씨

장단지방에는 1일 오후 1시 40분부터 2분간 첫눈이 내렸다.(1936.11.03.)

17) 축산

장단군농회는 양토를 적극 장려한다. 군수 모피의 요구에 응하고자 금년 봄부터 최우량종 토끼를 구입하기 위해 산업기수를 일본에 파견하여 5월 31일까지 이입한 종토(種兔)는 700여 두에 달한다.(1941.06.04.)

18) 선거

학교평의회원 선거를 7월 1일 시행함에 대해 장단군에서는 각면 서무담임 서기 1명씩 소집하여 지난 18일 군회의실에서 타합회가 있었다.(1931.06.20.)

17. 파주

1) 국세조사, 인구

파주군의 호수는 1932년말까지 9,825호에 인구 51,931인이던 것이 6월 17일 현재 호수 10,024호, 인구 53,971인으로 격증했다.(1933.06.23.)

(파주군에서는 국세조사의 완벽을 기하기 위해 15일 각면에 보고와 협력하여 기행렬을 시키고 선전 피라를 산포하였다.(1935.09.18.)

2) 농민과 농업

(1) 농민, 농업, 농지, 농민운동, 농촌진흥

파주군 임진면 장산리, 마정리, 사목리 일대에 340여 정보의 구역을 두고 임진강에 임한 임진수리조합구역민 290여호, 1,200여 명이 수리조합의 가혹한 수세를 물게 되면 소유 전답을 방매하여도 오히려 1기분의 수세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태이나 조합에서 최후수단인 법률에 호소하여 조합비를 징수하며 그들의 유일한 재산인 초간 두옥까지 차압 경매하여 감으로 오직 순직하고 천진한 조합원들이 발호하는 조합 당국에 반항을 일으키기 시작하여 요즘에는 매일 경매와 차압당한 조합원 200여 명 중에서 매일 조합에 쇄도하여 그 사세가 자못 험악한 터이다. 그곳 주민들은 생활 근거를 잃고 설상가상으로 세간 짐물(집기 가구)까지 가혹한 수세로 빼앗기고 강원도 함경도로 화전민이 되려 가며, 서북간도로 유리하는 무리가 날로 격증하여가는 처참한 상태이다. 지난 28일에는 수리조합 평의원 세 사람이 경기지사에게 무리와 고압 일관의 횡포한 행동과 또는 소작농과 지주가 부절을 못하고 아사 선에서 방황을 구제하여 달라고 진정위원까지도 당국에

파견케 되었다.(1930.04.02.)

파주군 청석면 문발리는 한강 하류인 바 이 마을을 돌아 흐르는 한강 하천에 제방을 하게 되면 미간지 40여 정보의 면적을 옥토로 개척하게 되겠으므로 주민 6,400여명은 연명으로 도당국에 하천부지 사용허가원을 제출했다. (1930.04.11.)

경기도내에서 개성 이외의 인삼 재배에 적당한 토질과 기후를 겸비한 곳이 장단과 파주 양 군이었으므로 파주군에도 3년 전까지는 1년 생산고 5만원을 내려가지 않는 인삼의 재배가 있어 작은 군으로 많은 재원이 된 터인데 전매국의 취급상 파주에는 구역을 제외하였던 바, 최근에는 군수에게로 도당국에서 인삼 재배에 적당한 토질과 그 부락을 보고하라는 지시가 있었다. 23개 동리를 파주군으로부터 보고하였는 바, 이로부터 군수 직권으로 허가하게 되리라고 파주군수(김진민)는 발표했다.(1930.05.16.)

파주군에서는 30~31일 2일간 관내 면행정 이원(吏員)을 소집하여 소작계약과 소작권 이동 등 현재 체결되어 있는 소작 사실 조사를 위해 토구(討究) 중이다.(1930.06.01.)

파주 임진수리조합에서는 농사 개량을 보급하기 위해 먼저 금년의 초시험으로 기수(河本)가 고안한 묘상(苗床)을 공동으로 파종한 공동 양판을 실행하여 발육 성적이 매우 우량하다. 비료대인 대두박과 암모니아 소다 등으로 막대한 지출이 있음을 방지하고자 해아리벤티란 풀을 재배하여 비료에 충당케 하기 위해 수리조합 구내에 재배하여 사용 중이다.(1930.06.09.)

파주군 당국에서는 ‘이론보다는 실지’라는 슬로건으로 주내면 임진면 청석면 탄현면 와석면 아동면 조리면의 7개면에 우선 시험답을 만들고 정조식과 적당한 비료와 종자 개량종을 파종한 뒤에 농민의 눈에 농사개량의 현저한 효과를 표시한다고 서무주임(박현모)는 발표했다.(1930.06.11.)

14일 오전 9시부터 문산공보교생 실습답 옆 실험답에서 관민 40여 명이 이앙을 마치고 농민데이 축배를 드린 후 기념촬영하고 산회하였다.(1931.06.23.)

파주군농회에서는 대두 공동판매를 3년전부터 실시한 결과 작년도에 4천여 석의 공동구입이 있었다. 금년도에도 지난 1일부터 공동판매를 개시했다. 군농회장(김진민)은 1석당 1원 전후는 생산자에게 이익이 된다고 말한다.(1931.10.07.)

파주군농회에서는 농촌 식량문제 해결을 위해 부식물 증식(이모작)을 도모하여 관내 65정의 면적에 금비 대용의 반액까지 보조하여 지도한 결과 종래 1반보에 8두 전후 생산되던 것이 4배 증가한 3석을 수확하게 되었다. 6만 3천여 석의 증

수가 되는 좋은 성적을 거두었으므로 금년 가을부터 적극 지도 방침을 수립 중이다.(1932.05.23.)

파주군농회에서 맥작 개량을 철저히 하여 작년중 식량으로 만주속 15만원이 수입되어 농가 경제는 날로 궁박함을 구출하고자 1,700정보에 1단보 당 유안과린 산 각 3관과 퇴비 200관을 시비케 한 후 경종의 개량을 한 결과 종래 1단보에 8두의 생산이던 것을 평균 2석 3두로 증수케 하여 2만 5천원을 증수케 할 터이다. 비료 대금 1원 20전을 제하고도 6원 30전이 1단보에서 이익이 된다. 15만원의 만주속대가 절약된다.(1933.10.30.)

파주군에서 이양 시기를 앞두고 정조식을 철저히 실행코자 직원 총동원으로 각 동리에 출동하여 이양정조식 새끼의 제작과 검사 독려 중이다.(1934.05.30.)

파주군농회에서 비료는 자급자족책을 수립하고 357만 5천관의 퇴비를 제조하여 논 1단보에 퇴비 250관, 밭 1단보에 200관을 시비하면 금비의 효과와 대등하겠으므로 퇴비 증산계획을 완성하고자 26일부터 군면 기술원, 금융조합 직원을 초집하고 협의했다.(1934.06.29.)

파주군에서 14일 농민데이를 맞아 문산공립보통학교 실습답에서 관민합동으로 이양을 실시한다.(1935.06.14.)

파주군농회에서 자작 자급의 견지에서 8월 8일 군내 각 면작 책임 직원과 지도 포 경작자를 소집하여 면작개량강습회를 개최했다.(1936.08.12.)

파주지방 면작은 식부면적 300정보로 작년에 비해 100정보가 증가했다. 날씨 문제로 감수를 예상했으나 의외로 발육이 양호하여 평년작 돌파를 기대한다.(1936.09.11.)

개풍·장단·파주·강화 4군 농회 기수가 개풍군 5월 30일 회의실에서 면작 강습회를 개최했다. 4군의 생산 목표는 500만근이고, 경작 면적은 4,788정보이다.(1939.06.01.)

파주군은 작년도 식량확충계획 중에 답리작맥(畝裏作麥)에 중점을 두고 적기 파종과 계획면적 파종에 전력을 경주하였다. 계획면적을 초과하여 230여 정보에 걸쳐 파종하고, 온난한 일기로 발아가 극히 양호하였고, 수회에 걸쳐 충분한 강설로 생육이 만점이다. 관리에 전력하면 예상 외의 양호한 성적을 올리리라 한다.(1942.02.07.)

(2) 모범촌

파주군 임진면 임진리 주남동에 있는 파주군 순후회에서는 교풍 교화를 하기 위해 관혼상제에 대한 비용을 절약케 하고 농사기에 간식을 폐지했다. 부인회에서 3대 강령(유식자를 없게 할 일, 가정의 청결 정돈, 회원 1인마다 매월 계란 1개 이상을 회에 납입하여 생활개선의 비용에 충당)을 실행하여 모범촌이 되었다.(1930.01.01.)

(3) 세궁민

대한재와 충재로 파주군 일대의 전답 약 15만 5천 반의 경작 면적에서 산출된 농작물은 평년작의 3할에도 미치지 않아 파주군내 5만 3천여 주민 중 소작 세민 4만여 명은 생활 방도 근거를 잃고 날로 증가하여가는 걸식군과 강원도 함경도 등지에 유리하여 화전민이 되며, 또는 그들의 유일한 밀천인 고력(苦力)을 노동시장에 팔고자 경성, 개성, 인천 등지의 공장과 대공사장이 다소 많은 곳으로 방랑길을 걷는 무리가 격증하며 여비도 융통되지 못한 자들은 매일 양조장이며 정미소 같은 곳에서 술지게미와 겨 등숙을 구하여 쫓나물 죽으로 호구한다. 파주군 당국에서는 이들 세민을 구원할 구제사업을 할 시설은 추호도 없이 소위 토목행정상 부득이라는 막연한 구실 하에 수일 전부터 파주군 11개 면 84개 동리에 전부 강제부역으로 매호 75상자(석유상자)부터 100상자씩 사리(砂利, 자갈돌)를 부담케 하여 도로 수선을 실행하는 바 매호에 75상자의 사리를 1호에서 부담을 이행하자면 1리 이내에 사리가 없어 굶주린 그들이 2상자만 운반하려도 4리의 길을 매일 왕복하여 38일은 연속적으로 부역을 해야 자기의 책임을 이행케 되었는데 40일간이나 소요할 부역을 하자면 4만여 빈농계급은 아사를 면치 못할 지경이다. 이에 군내 주민의 비탄 소리가 날로 높아가는 터이다.(1930.03.25.)

금년과 같은 재계의 공황은 마침내 곡가 시세에도 파급하여 향촌을 이별하고 경성이나 개성 등지의 노동시장을 찾아서 그들의 유일한 자본이 되는 ‘노력’을 팔고자 방랑하는 무리가 속출한다. 파주군수(김진민)는 영구적으로 농촌의 수입을 증진케 하며 생활개선에 그 대책이 있다고 착안하고 각 면에 있는 중견 청년으로 조직된 청년단원과 연락을 위해 우선 청년단과 부녀자에게 생활개선의 실현과 가

마니짜기, 새끼, 짚신, 양계 등의 장려를 철저히 하며 이에 소용되는 자금은 군농회와 축산조합에서 저리자금을 융통대부케 하며 양돈 양계의 종란은 무상으로 배급해 주리라 한다.(1930.12.21.)

파주군내 6,7천명의 농민이 추수 후 한 톨도 만지지 못하는데, 노동을 팔고자 개성과 경성으로 떠나는 유리군이 날마다 늘어가며 시가에는 걸식군이 매일 2,30명이다. 경찰 조사 결과 채무를 피해 야반도주한 호수가 파주군 내 42호이다.(1931.01.26.)

파주군 빈농의 1일 한 사람의 생활비는 3전으로 5인의 가족은 15전으로 한정되어 근근 연명한다.(1932.03.06.)

임농기에도 식량이 결핍되어 노역에 종사하지 못하는 농가가 태반에 이르렀으므로 파주군 당국에서는 공황대책을 근본으로 수립하여 구제안을 확정하고자 주임 이하 군청원이 총출동하여 83개 동리 중에 33개 동리를 상, 중, 하 3구역으로 현재 농량 보유량과 매호 농채금액 등의 농촌실정조사에 착수하였다.(1932.06.25.)

(4) 소작, 소작인, 소작쟁의

1일 파주군에 소작조정을 의뢰한 소작인 7명에 대해 파주군에서는 마름과 지주 9명을 불러 군수가 소작권 이동의 부당함과 임농시에 이동은 무모함을 절실히 설파하고 쌍방을 조정하여 원만히 해결했다. 소작조정법 시행 이후 첫 조정이다.(1933.05.03.)

이양기를 앞둔 이때 소작권을 이동하는 악덕 지주·마름배의 횡포로 파주군내 소작쟁의사건이 속출한다. 10일까지 파주군에 조정을 신청한 건수는 27건이다.(1934.05.13.)

(5) 자작농

파주군에서 자작농 창정안에 의해 목하 모범인물 중에서 전형하는 중이다. 그 조건은 매호당 논 4반보, 밭 1반보를 매여한 후 25개 연부로 상환케 할 예정이다.(1932.11.11.)

파주군에서 농촌진흥에 의한 자작농 창정의 초년 계획으로 관내 11인을 선발하고 25개년 상환으로 논 2반보, 밭 1반보의 토지를 구입하여 대여했다. 아동면 7명, 임진면 3명, 주내면 1명이다.(1933.02.10.)

파주군의 임진수리조합 구역의 논 51정보와 밭 4정 6단보의 농지를 지주(노선재)가 자발적으로 매각을 결의 제언하여 경기도는 집단 창설이 효과적인 점과 한해·수해의 염려가 없고, 영농상 대단히 편리한 점을 고려하여 자작농 창설 경비 1년 예산 29만원 중에서 12만원을 떼어 이곳에 대부하여 35호의 자작농가를 창설하게 되었다.(1943.08.03.)

(6) 지주

약 200석 추수의 전 재산을 가진 소지주가 자기 소유 토지 소작인 80명을 불러놓고 추첨으로 1등에는 농우 1두와 우차를 지난 4월 7일에 상주였다. 경성 흥파동에 사는 이용한이다. 그의 토지가 파주군 탄현면에 논 20정보, 밭 4정보, 대 1정보이다. 매년 봄에 이를 시행하여 나중에는 소작인 전부에 농우 1두가 배부되도록 할 계획이라 한다. 경성 서대문정에 원적을 둔 윤봉식은 파주군 파평면 마산리 출생으로 1921년 파평공보교에 부지 795평, 1931년 3등 도로 부지 기부 320평, 금번 파평주재소 청사 신축에 부지 212평을 기부했다.(1935.07.09.)

(7) 공동판매

파주군농회에서 농촌진흥의 의미로 관내 생산 정조의 공동판매를 알선해 왔다. 금년 공판시장 시세보다 근당 평균 8리의 이익을 얻었다.(1935.12.30.)

(8) 금융

곡가 참락으로 근래 희유한 풍작을 이룬 금년에도 농촌 경제는 자못 공황과 불안에 싸여 있고, 날마다 파산자가 속출하고 있다. 문산금융조합에서는 소극적에 불과하나 조합원에게 저리 자금을 융통하여 준 후 곡가가 활기를 얻었을 때 방매

토록 일반 조합원의 편의를 도모하는 중이다. 19일 현재 신청 석수가 6천여 석에 달하여 연합회에서 배정한 저리 자금으로는 부족하다.(1930.11.22.)

파주군농회에서는 1930년 추수기부터 식산은행과 교섭하여 벼 담보로 대부를 받게 하고 시세가 높을 때인 여름철에 방매하여 7천여 원의 수익이 있었다. 금년에는 동척회사에 알선하여 일보 2전 6리의 저리자금으로 벼담보 대부를 받아 곡가가 순조할 때를 이용하려 한다.(1931.12.05.)

파주 문산금융조합에서 25일 평의회회를 열고 농촌구제책인 고리구채를 저리자금으로 체환하여 부담의 경감에 대한 실제 문제를 토의한다.(1932.09.19.)

추수 타조 즉시 농가에서는 농채(農債)와 기타 채무로 정조를 방매하여 추수 후이면 예년 벼 범람시대를 연출한다. 공급 수요의 조화가 맞지 않아서 시세의 급격한 변동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파주군농회에서는 이 폐단을 완화하고자 야적 벼를 담보로 저자를 융통하고 매월 평균율로 시장 출회를 하게 하여 고가 매도하도록 알선한다는 바 예정 석수는 1만 6천석인데, 1석에 70전의 장려금도 급여한다.(1933.10.30.)

문산금융조합에서는 지방 물산을 도시 수용자에게 직접 공급하기를 계획했다. 지난 겨울 관내 광탄면 발랑리에 제탄조합을 설립하고 금융조합협회 경기지부 알선으로 신탄(薪炭)을 경성 왜성대조합원으로 된 연료협동조합에 신탄을 직접 공급하게 되어 판매액이 3천원 이상에 달했고, 곧 7천원 내외의 제품을 판매하게 되었다.(1936.12.09.)

(9) 식산계

문산금융조합은 농촌진흥운동의 성적이 우량하여 이번 경기도에서 신제도 식산계 설치 조합으로 지정을 받았다. 2월 2일 총대회를 열어 정관 일부 개정의 건을 결의했다. 금년도 식산계 설치 부락은 월릉면 영태리 오십정동, 월릉면 도내리 내동, 파평면 마산리 평천동, 탄현면 법흥리 광현동.(1936.02.06.)

(10) 축산

삼정합명회사 문산출장소에서는 11일 회사 광장에서 소작인에게 예탁하였던 농

우 180두의 품평회를 개최하고, 표창장과 상품을 수여했다.(1932.04.13.)

3) 상업과 교통

(1) 상업

파주군축산조합에서는 경성부에서 동대문의 축우시장 확장 이래 날로 쇠퇴해 가므로 진흥책으로 13일 봉일천우시장에 출시하는 매매 양방에 추천권을 준다. 1 등 50원, 2등 30원, 3등 20원, 4등 10원, 5등 5원.(1931.09.15.)

파주군 파평면 놀노리는 군내 파평·천현면보다는 연천군 적성, 양주군 1군, 장단군 고랑포 등 4군 통로의 요추 지대이다. 사람의 왕래와 물산의 집산이 많다. 30년 전에는 상당한 거래가 있던 시장이 있어서 곡물·축우 등의 매매액이 거대했으나 헌병분견소의 철거 후 각 군에 시장을 분산케 하여 인근 주민의 불편이 지대하여 수년래 시장 설립운동이 지속되어 왔다. 최근 곡물·축우 등의 집중이 상당하므로 군당국에서도 상부와 교섭하여 곧 시장허가를 할 내정이다.(1933.04.28.)

파주군내 복장잡화소매상 30명은 국책에 협력하고 상업의 건전한 발달을 꾀하고자 1월 28일 문산공회당에서 조합창립 총회를 개최했다. (1941.02.01.)

(2) 교통

임진강이 완전히 해빙되어 25일부터는 서해와 두절되었던 수로의 선박이 내왕케 되어 문산포의 상계는 활기를 띠게 되었다.(1935.02.27.)

(3) 기호품

파주 문산에서는 종래 약주 1두에 5원 하던 것이 4원 내지 3원 80전으로 감하되었다. 탁주는 1두에 1원 80전이던 것이 1원 30~40전으로 저락했다. 이는 지난 10월 1일 영천주조장과 파주주조조합이 합동하자 군내의 주내, 탄현, 천현의

주조장의 지점과 판매점이 설치되고, 경성의 천일, 불로 등의 주조장의 지점, 판매점이 설치되어 문산시내의 40여개의 음식점과 소비자층을 상대로 서로 거래처의 쟁탈이 시작하여 물질 경쟁에까지 이른 터이다. 그러나 음식점의 소매가격은 감하하지 않는다하여 일반의 불평이 높다.(1934.01.09.)

4) 산림

파주군 삼림보호조합에서 녹화의 완성을 목표로 녹비용 간벌을 허락하던 활엽수는 이제부터 금지하게 하고 시비는 퇴비로 충당케 한다고 군수는 언명했다.(1932.05.19.)

파주군 당국에서 송충이의 폐해로 조림 완성에 다대한 장애를 주는 송충이 박멸을 위해 5일부터 3일간 구제운동에 착수한 결과 총동원 인원수 6,300여명으로 18석에 달한다.(1932.05.20.)

5) 어업

임진강이 얼어 얼음 위에 짚자리를 깔고 구멍을 뚫어 창을 겨누고 있고, 상류쪽에서는 빙판을 진동시켜 잉어떼를 몰아 잡게 한다.(1933.01.14.)

파주 명물의 게는 1년 산액 7만원을 돌파하여 경성과 각처에 매상고만도 5만여원에 달했고, 왕가에 진상까지 하던 진품이었다. 디스토마균이 있다 하여 1924년부터 식용을 금지한 이래 농가의 부수입 재원이 두색되었다. 최근 각 진흥회 모임이 있을 때에는 금지 해제로 농촌 경제의 운택을 도모하자는 제의가 제안되어 마침내 365개소 진흥회원 53,000여명의 열망하는 문제가 되었다. 이에 3개 면장을 대표로 하여 경기도와 총독부에 진정한다고 한다.(1933.06.23.)

8월 1일부터 포획 금지를 해제하게 된 파주의 게는 6만여 원의 생산으로 파주 농가 부수입으로 거대한 영향이 있다. 디스토마 감염을 철저히 방지하기 위해 군청과 경찰 당국에서 날로 식용을 금하고 공동판매조합을 조직케 하여 게장을 담아서 판매하기로 했다.(1934.07.29.)

26일부터 호우가 내려 가뭄이 해갈되었다. 문산포에는 근년 드물게 잉어를 잡

았다. 잉어가 임진강 지류인 문산포에 떼를 지어 올라왔으므로 27일 아침에는 문산 임월교 부근에 잉어잡이로 뒤덮였다. 이날 오전 중 포획한 잉어가 200필이 넘었다. 모두 1척 이상의 큰 것이었다. 보통 때는 2~3원 시세이던 것이 이날은 70전 평균이어서 순식간에 매진되었다.(1935.05.31.)

파주계는 조선의 대표적 명물인데, 작년 8월 1일 해금을 당하게 되자 파주산해조합까지 조직되었다. 금년에는 계가 대풍이어서 백로가 지난 뒤로 농가에서는 계막을 지어놓고 철야로 수백 마리씩 포획하는 터이다. 상강기에 잡는 것이 더욱 풍미가 있다 한다.(1935.10.23.)

파주군은 파주해(蟹)조합을 조직하고 군내에서 우량품을 구입하여 통조림을 제조, 하나 당 40전으로 발매한다. 만주국 길림방면에서까지 주문이 내도하는 성황을 보인다.(1935.11.30)

여성(파주군 광탄면 신일리 동거리동의 16명과 시곡동의 24명의 일본부인회 공동작업으로 임금 29원을 모아 국방헌금으로 파주군 총력계에 기탁했다.(1943.08.03.)

6) 부업

파주군농회에서 농민들에게 비료용 가마니를 제작케 하여 함흥질소비료회사에 용달케 하는데, 조선 전체 생산 초과를 이루어 회사에서는 전부 수요 소비하지 못하게 되었다. 파주군에서도 12월부터 금년 6월말까지 6만매 제작 예정인데, 4월 20일 현재 57,800매를 초과했다.(1932.04.27.)

문산금융조합 이사는 야생하는 천일초로 슬리퍼를 제조시키고 판매 알선을 하여 농가부업 수입 증수에 주력한다. 년산이 1만족에 달하며 판로는 점차 확대되어 간다. 완초 슬리퍼보다 외관상 볼품은 덜하나 그 수명에서는 완초 슬리퍼를 압도한다. 야생하는 원료로 제조하닌 생산비가 적게 든다. 금년부터는 대대적으로 장려할 계획을 세우고 탄현면 제하리 삼성강습소에서 3일부터 10일까지 제조 강습회를 개최한다, 이번 수강자에게는 제조기구 1개씩을 무료 배부한다.(1935.08.03.)

7) 식생활

파주군농촌진흥위원회는 9일 군청 회의실에서 농촌진흥위원회를 개최했다. 파종기 농민 간식으로 연료의 불경제, 주부의 번잡함을 제하고자 시행위원이 각 그 갱생부락을 담당하여 순시 지도할 것 등에 대해 부의 결정했다.(1935.05.12.)

김장 시즌을 맞아 파주지방 금년의 무, 배추 가격은 작년도에 비해 약 5할 가량이나 등귀했다. 세민층에 타격이 많다. 이 원인은 충해로 인해 대흉작을 본 까닭이다.(1935.11.08.)

8) 의생활

파주군에서는 16~7일 양일간 농촌진흥위원, 각면장, 면직원의 협의회를 개최하여 생활개선에 절대 필요한 색의 착용의 철저를 기하도록 했다.(1934.12.10.)

11월 15일 문산시장을 필두로 군내 5개소 시장의 장날마다 파주군청 직원이 출동하여 백의 착용하고 시장에 오는 자에게는 색의 착용을 권고하고, 성명과 주소도 조사했다.(1935.11.26.)

9) 주생활

파주군농회에서 26일부터 10일간 광탄면 발랑리에서 개량탄 제조 강습회를 개최하고 면유림 역목(櫟木)으로 3천석을 제조한다고 한다.(1933.10.26.)

10) 날씨, 재해

파주에서는 1일부터 4일까지 계속 내린 비로 임진강이 약 2미터 증수되었다. 농작물에는 조금도 해가 없이 오랫동안 가뭄과 충재를 입은 농촌에 반가운 비이

다.(1931.08.07.)

날씨가 봄날과 같아 파주군 임진면 선유리 산에는 참꽃(두견화)이 만발하였다.(1932.01.30.)

오랜 가뭄 끝에 4일 0시 반경부터 파주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오후 7시에 19밀리에 그쳤다.(1932.05.06.)

문산지방에는 8월 26일 밤부터 내리는 폭우가 9월 6일까지 계속하고 임진강 상류의 강우 관계로 조수가 격증하여 올봄에 신축한 방수제가 일부 붕괴되면서 탁류가 문산시가로 들어밀려서 문산평야의 전답은 전부 진흙물이 되고 정거장 부근 가옥은 일부 침수되고 도로 교통이 두절되어 시민은 안면을 이룰 수 없이 전전긍긍한다.(1936.09.08.)

11) 교육

파주군 임진면 주남동 정병순은 주남동 모범부락의 지도자이다. 이번 장단군 대강면 청연리에 신설되는 대강공보교에 신축 기지로 밭 1,600평, 시가 800원의 토지를 자진 기부했다.(1931.06.22.)

파주군수(김진민)은 종래 90전씩 징수하던 수업료를 2할 5부씩 경감하여 지난 4월부터 60전씩 징수했으나 60전의 수업료로 내지 못하는 수효가 파주군내 8개 공보교 중 278명이며 금액은 1,334원이다.(1931.11.26.)

파주군의 신학기 관내 9개 공보교의 입학정원은 465명인데, 학령 아동은 6,544명이다. 촌락학교에서는 정원에 오히려 인원이 부족한 과현상을 이루고 있다. 생활난으로 수업료와 학비를 부담하지 못해 입학시키지 하는 까닭이다.(1934.03.15.)

파주군 월릉면 월릉공립보통학교가 10월 10일 개교식을 거행했다. 이로써 파주군의 1면 1교는 완성되었다.(1936.10.12.)

12) 위생

파주군 일대에는 독감이 만연되고, 홍역이 창궐하여 임진면 1개 면에 140여명

이나 된다.(1932.03.19.)

파주군 파평면 덕천리에 천연두가 만연하여 파주경찰서에서 근방의 교통을 차단하고 2, 3일중에 계원이 총출동하여 이민(里民) 1,200명에게 예방주사를 시행한다.(1932.04.16.)

파주경찰서장(정상기길)은 작년말 신임 이래 위생관념의 고취에 전력하여 각면에 11개소의 위생 모범촌을 신설하고 순회 강화로 혹은 실지 체험으로 진력하는 한편 파주리는 불과 200호 미만의 촌락인데 모범 우물 12개소의 신설과 공동변소 6개처를 건축하고 하수구의 완비 등의 시설로 지난 여름 전염병의 발생이 근절되었다.(1932.09.02.)

파주군은 도내에서도 장단, 연천, 포천 등지와 같이 발진티푸스, 디스토마 염병의 발원지가 되다시피 하여 매년 여름 무수한 전염병의 희생자를 내고 있다. 파주서장은 이는 일반 주민의 위생 사상이 부족함과 하수구의 미비로 불결한 관계이며 음료수가 불충한 데 있다고 보고 착임 이래 농촌을 순회하면서 위생강화회를 개최하고 위생사상을 고취 보급하는 한편 동리 중심인물들과 연락하여 유지의 의연으로 공동 우물의 설치, 공동변소 개축, 하수구 시설 등에 일대 운동을 일으켰다. 그 결과 현재 위생 모범동리 12개소에 438호는 시설이 완성되었다. 주내면 파주리는 206호에 불과한 동리이나 공동변소 6개소, 공동 음료우물 12개처를 설치했다.(1933.08.19.)

파주경찰서에서는 4일부터 7일까지 방역주간을 맞아 제1일인 4일에는 문산시의 공동 우물 백여개소에 ‘가루기’ 소독을 행하였고, 오전에는 파주서 연무장에서 군내 각 진흥회 간부를 소집하고 서장으로부터 방역주간의 실행사항 강화회가 있었다. 제3일인 6일에는 승취 및 결핵 및 전염병 예방일이므로 승취액을 문산상인에게 특별할인하여 서비스하며, 7일에는 건강일이므로 군내 의생들을 총출동시켜 희망자나 접객업자는 무료 진단한다.(1935.07.06.)

파주군에 전염병 환자 격리 병사가 없어 이번 파주군과 경찰서가 협력하여 군내 10개면에 하나씩 건축할 계획이다. 경비는 1개면에 300원이 계상되었고, 전부 금년 내에 준공 예정이다. 각 면은 벌써 기부 모집에 활동중이다.(1935.10.23.)

13) 체육

건민 건병의 기운찬 호령에 맞춰서 철과 같은 튼튼한 몸으로 일억 일십 성전 완수의 일로를 매진케 하기 위하여 경기도체육진흥회 개성부체육진흥회, 개풍, 장단, 파주의 각 군 체육진흥회의 공동주최로 제20회 조선신궁, 제1회 개성신사의 군민 연성대회를 10월 22일 개성부 송도중학교 육상경기장에서 개최한다. 당일의 연성 종목은 육상경기, 체력장경기로 하며 전장(戰場) 운동, 항공으로 글라이더 훈련 상황의 공개, 총검도, 검도, 기도(騎道), 나기나다(薙刀), 방공으로 주수경기, 구호(救護), 여자청년체조, 집단음악체조, 수기(手旗) 신호경기, 후생체조, 산업체조 등이다.(1944.10.17.)

14) 종교

문산 신명신사 도리이는 지방민의 봉헌금으로 건설에 착수한 지 3개월 만인 9월 말에 준공되었다. 10월 3일 오전 시내 각 관공서 직원, 각면장 및 지방민 100여명이 참가하여 낙성 봉고제를 거행했다.(1936.10.07.)

15) 동원과 헌납

(1) 동원

(광고) 매일신보·경성일보 문산지구 주최 ‘영화의 밤’ 3월 11일 오후 7시, 문산 보통학교에서 영화 ‘국보적 일로전쟁 실사’ 수익은 전부 ‘조선훈’ 건조기금에 헌납.(1932.03.11.)

파주 재향군인분회와 국방의회에서 민간에 국방사상의 보급을 꾀하고자 10월 13일 제20사단 장교를 초빙하여 문산공보교 강당에서 강연회, 군청 구내에서 영화회를 개최한다.(1936.10.09.)

파주군 조리면 봉일천리에서 공사 중인 산본조 토목출장소 주임은 인부 200명을 사용하여 곡릉천 제방 개수 공사를 하고 있다. 시국의 중대성을 잘 인식하여 항상 소할(所轄) 주재소와 연락하여 인부의 정신적 지도 계발에 노력하고 있다.

금변에 노동시간을 한 시간 더 연장하기로 일동이 결의하고, 시간 연장으로 얻는 임금은 일부는 국방헌금을 하고, 나머지는 애국저금을 하기로 했다.(1938.06.03.)

파주군에서 7월 7일 군과 각면 각리 근로보국단 결성식을 거행했다.(1938.07.10.)

파주군은 5월 7일 임진국민학교에서 군내 10개면 사무 담당자와 연성소 지도원, 지도원보를 총소집하여 근로존중관념의 함양과 근로생활의 국가적 의의를 체득하도록 하자면 이를 지도하는 중핵체 인물의 중대성으로 보아 법령과 지도방침에 대하여 철저히 지도자를 연성하여 본무에 유감이 없도록 한다.(1943.05.07.)

(2) 헌금, 헌납

(파주군내에서 모인 국방헌금은 19일 현재 250원인데, 예상 이상의 성적을 거뒀다.(1932.12.25.)

파주군 주내면 국방부인회는 지난 번에 유기 다수를 헌납했다. 이번에 또다시 주내면 파주리 제1구에서 유기 52점과 파철 4근을 파주군사후원연맹을 거쳐 사단 애국부에 헌납했다.(1941.10.02.)

16) 시간

파주군에서는 10일 '시의 기념일'에 일반에게 시간 여행의 관념을 고취하기 위해 각 학교 생도의 기행렬과 선전 비라 산포 등을 한다.(1933.06.10.)

파주서에서는 방법계를 각 부락에 설치하여 방범주간을 실시하고 있다. 구년말을 당하여 25일부터 31일까지 제1일은 호체공소(戶締空巢) 예방데이, 제2일은 야도(夜盜) 경계데이, 제3일은 강청객 예방데이, 제4일은 스리예방데이, 제5일은 옥외도난데이, 제6일은 사기예방데이로 정했다.(1935.01.21.)

파주군에서 10일 '시의 기념일'을 기하여 군면학교에서 선전 비라를 배부하고 각 학교에서는 강화회를 열고 시간 여행을 강조하였다.(1935.06.11.)

17) 식목

파주군에서 4월 3일 식수데이에 사쿠라 200주를 역전 도로 양측과 문산공원 일대에 식재했다. 기념식수를 마치고 신사광장에서 포상과 상품수여식을 거행했다. 대상은 온돌개량과 생리(生籬) 조성 우량부락, 송충이 구제 독행자 등이다.(1934.04.08.)

18) 소년

파주군에서는 15일부터 21일까지 아동영양주간에 당하여 군내 9개 소학교 아동의 발육상황을 조사하고 영양불량한 아동에게는 영양가치있는 음식물을 공급하며 주간에는 무료 건강진단과 모매회(母妹會)를 개최하고 자녀 양육의 강화가 있다.(1933.11.15.)

파주군은 3월 4일 아동공립소학교 교정에서 전 파주소학교연합 가마니짜기 경기대회를 개최했다. 13교 50여 소년 선수가 공부 여가에 배운 묘기로 수백 관중으로 하여금 다대한 감격과 교훈을 주었다.(1939.03.12.)

19) 단체

파주군 19개 집단부락민이 자경조합을 조직했다.(1935.04.26.)

파주경찰서 관내 20개 집단부락민이 파주경찰서 당국의 감독을 받아 자경조합을 창설했다. 27일 문산공립소학교 교정에서 관민 200여명 참석으로 발회식을 거행했다. (1935.04.30.)

조선방공협회 파주지부 결성식은 9월 29일에 거행되었다.(1938.10.01.)

20) 세금

파주군에서는 납세 독려 대책으로 농촌 부수입을 증가케 하여 생활의 여유를 얻게 하자는 취지로 11개면에 납세조합 17개소를 설립했다. 조합 명의로 각처 조합마다 조합원의 여가 있는 대로 공동경작과 농한기간의 가마니짜기 등을 잘여 지도 하여 현저한 성적을 거뒀다. 조합의 저축 금액으로 동리 전부의 세금을 납입한 조합이 대부분이다.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 11월 7일에 군회의실에서 납세조합총회를 열고 미가 폭락 대책과 조합기본금 조성방법을 토의한다.(1930.11.06.)

21) 선전

파주경찰서에서는 12월 1일 방화데이를 기하여 다음 사항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 선전 피라의 배포, - 화원(火元) 검사 실시, - 소화제 비치. (1936.12.01.)

18. 평택, 진위

1) 인구, 국세조사

진위군에서는 10월 1일 국세조사의 정확을 기하고자 관내 일반에 이 방법을 주지 철저케 할 요구가 있다고 인식하고 서무주임과 2명의 군속을 조사원으로 결정했다. 7월 20일부터 9월 4일까지 관내 전부에 걸쳐 국세조사의 신고요령을 훈련하여 9월 3일부터 10일까지 이를 예행할 예정이다.(1930.08.18.)

2) 농민과 농업

(1) 농업, 농촌진흥

각도 본년도 농업창고 설치지 결정이 있는데 경기도는 평택이다.(1930.09.23.)
진위군 송탄면 도일리에서 서정리공립보통학교의 지도생은 김종철(28)이다.(1932.08.24.)

진위군에서 11월 1일부터 15일까지 232개소의 농촌진흥회를 창설했다.(1932.12.23.)

평택역전에 있는 35개 농촌진흥회는 실행사업에 약진 중이다. 실행사항은 다음과 같다. 국기제양, 납세장려, 색복착용, 근검저축, 청결선전, 승입장려, 교통사업, 허례폐지 등. 특히 허례 폐지는 철저히 여행하여 관혼상제에 쓰는 비용은 사람의 정도에 따라 진흥회에서 결정하여 그 이상은 절대로 소비하지 못하게 한다.(1932.12.24.)

경기도 진위군에는 군내 각 면 각 부락에 설립된 농촌진흥회가 353개소에 무산 아동의 문맹을 위한 야학회가 60여개소요, 기타 공동경작이 45개소며 근로저

축 240여개소이다.(1933.08.10.)

가뭄 속에 16일 경부터 수원군 정남면과 진위군 서탄면의 양 면민은 봇물로 인해 조금씩 충돌을 일으키고 오던 중 17일 밤에는 수십명이 자기들 편으로 물을 끌어 넣으려 충돌을 일으켰다. 양군 경찰서에서 즉시 계원이 출동하여 해산시킨 후 조정에 노력 중이며 경기도에서도 조정을 위해 농무과원이 17일 현장에 급행했다.(1936.06.19.)

평택군은 생산확충계획 실시에 따라 농촌중견인물양성기관 확충을 꾀하여 평택 농사훈련소의 기구를 정비하여 2월 24일 농민도장이라 명칭을 고쳤다.(1941.03.05.)

평택읍은 ‘산미증산은 양판(秧板)에서부터’라는 표어 아래 각 직원이 ‘산미보국’이라는 완장을 차고 4월 초부터 양판 정리, 농기구 검사, 소독 등을 완전히 하여 각 부락별 집합 모대가 월말까지 종료되었다.(1943.05.06.)

평택군은 지난 7월 3일 읍면장회를 개최하고 미리서부터 실행해 오던 남녀노유 각 작업반을 총동원하여 점토질에는 호미식, 혈굴식, 사질지에는 대용작물을 파종하여 식량증산전에 감투하고 있다. 20일까지 1평의 불모지도 없이 전부 완료할 예정이다.(1944.07.08.)

(2) 공동작업

평택군은 노동력이 부족한 이때 공동작업을 시킴이 능률향상, 산업개발에 유리함을 착안하고, 4월 27일 군회의실에서 관내 읍면장 및 각 학교장을 소집하여 농번기 공동작업에 대한 이해와 지도 독려 방법 등을 협의했다. 각 읍면에서는 애국반을 단위로 활동시켜 지도한다.(1941.05.02.)

(3) 공동판매

경기도농회 평택농업창고 제1회 입고미 공동판매는 2월 16일 실시했다. 그 결과 2구 벼 1,781가마는 1근 5전 8리 2모 내지 5전 9리 1모로 평택 인접업자에게 낙찰되어 17일 현물 인도되고 대금 결제를 했다.(1932.02.19.)

(4) 자작농

진위군 서탄면 금암리의 진위흥농주식회사는 토지개간과 영농사업을 하여 오던 중 이번에 해산을 하게 되자 소유토지 논 10만 8,401평과 밭 27만 4,873평과 기타 6만 4,769평 등 총계 44만 8천평을 회사 소작인 약 200명에게 원가로 이양하기로 했다. 오산 제2금융조합으로부터 8만 8천원을 융통하여 등기까지 마쳤다. 회사 해산식은 3일 거행한다. 자작농 창정에 대난관을 보는 터에 일반지주에게 한 모범이 될 것이다.(1935.07.03.)

(5) 유리민

진위군 현덕면 부근에는 유리민이 날로 생긴다. 금년 이양시 한해로 모를 심지 못한 논이 80여 정보이며, 심었으나 먹지 못하게 된 논이 50~60정보나 되어 그와 같이 파산 유리한다고 한다.(1932.09.08.)

3) 상업

세탁비누와 성냥을 사모으다가 평택경찰서 경제계에 발각되어 폭리취체령 위반으로 벌금은 낸 사람들이 있다. 평택리 이만기는 비누 6개에 벌금 10원, 평택리 김재철은 비누 8개에 10원, 통복리 윤경선은 성냥 10상자에 벌금 10원씩을 냈다. 평택경찰서는 금후에도 전시국민생활 필수품을 공평 원활히 배급시키고자 이같은 비도덕적 매류행위를 용서없이 처단한다고 경고를 발했다.(1942.01.07.)

4) 기업정비

평택군 기업정비위원회는 2월 23일 군회의실에서 위원회를 개최했다. 전폐업자 공조금 지불 및 잔존업자 부담금을 결정했다. 공조금은 평균 1인당 1,306원 68

전이고, 부담금은 1인당 평균 1,894원 70전이다.(1945.03.03.)

5) 여성

평택군연맹은 4월 4일 군회의실에서 역원회를 개최했다. 시국하 총후 주부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주부상회 설정건을 비롯하여 각항을 협의했다. 1. 부락집회소 및 도로수리에 관한 건, 2. 부락생산확충계획 실시의 건, 3. 가마니증산주간 설정의 건, 4. 주부상회 설정의 건, 5. 상회 라디오 이용의 건, 6. 부락연맹에 부인부 설치의 건, 7. 면화 파종지도에 관한 건, 8. 묘대 설치에 관한 건.(1941.04.09.)

평택군 국방·애국 양 부인회는 발전적으로 해체하고 대일본부인회 평택군지부, 읍지부 결성식이 4월 30일 국민학교 대강당에서 관민 유지 다수와 회원 300여 명이 참석하여 거행되었다.(1942.05.02.)

국민총력 평택연맹과 부인회는 식량소비규정, 전시 자숙생활, 부인저축조합 결성, 총후 부인 직역봉공에 대해 각 가정 주부에게 철저히 실행시키고자 2월 3일부터 중견부인 좌담회를 개최중이다.(1943.02.07.)

6) 어린이

5월 4일 평택면 주최로 제2회 유유아(乳幼兒) 건강심사회를 진위군청 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참가 아동은 61명인데 전년에 비해 3배 반 이상에 달한 상황이었다. 아동의 골질(骨質)을 관찰하니 일진월보하고 양육방법이 갈수록 발전되어 농촌 부인의 각성에 촉진된 바이다. (1937.05.08.)

7) 교육

경성보호관찰소는 평택읍 세교리에 대화숙 강습회를 개설하고 미취학 아동 43

명에 대해 1년간 무료로 일본어를 교수중이다. 이 강습소는 국민개로운동에 협력하고 출정군인 유가족을 위안하는 의미로 강사(덕본두종) 인솔로 강습생 전원이 총출동하여 3일간 벼 베는 데 조력했다.(1941.11.02.)

8) 유림

평택군은 11월 30일 곡물회관 누상에서 군내 유림 960여 명을 망라하여 유도회 결성식을 거행했다. 정동연맹의 일익으로서 황도정신을 선양하여 유도 진흥과 총후 정신운동에 매진한다.(1939.12.03.)

9) 위생

평택경찰서는 국민건강증진운동 제1일인 4월 28일 평택신사에서 영지 봉독식과 건강기원제를 거행하고, 오후에 건강좌담회를 열고 읍내 각 요소에 간판을 세워 일반에게 결핵예방 기타 위생사상을 고취하고 주간 중 3일간은 평택역전에서 임시종두를 실시했다.(1941.05.02.)

10) 동원과 헌납

(1) 동원

평택군은 9월 1일 흥아봉공일에 평택신사에서 관민 유지 다수가 참석하여 봉고제를 거행했다.(1938.09.03.)

지난 국민정신총동원 정신작흥주간에 평택군에 출선 헌납한 유기가 1,442점이고, 폐물 매각대금이 317원 52전이다.(1938.10.05.)

국민정신총동원 평택연맹은 10월 3일 역원회를 개최하고 10월 5일을 제1일로 하여 위문대 모집, 군사강연을 하고, 1주간 여러 행사를 하기로 했

다.(1938.10.05.)

평택군은 9월 29일 군 회의실에서 관민 유지와 기자단을 초청하여 다음 실행사항을 결정했다. 10월 3일부터 1주일간 충후후원강화주간에 행사 실시. -제1일 칩어봉독식, -제2일 출정 및 응소 군인 접우(接遇) 개선 등, -제3일 상이군인 위문 및 육군특별지원병 위문, -제4일 출정군인 가족 위문, -제5일 강연회, -제6일 출정군인 및 응소군인에게 위문문 작제 송부, -제7일 생활지원일.(1939.10.04.)

4월 1일 홍아봉공일을 맞아 평택신사 대전에서 관민 유지 다수가 모여 애국식을 거행했다. 각호에 국기를 게양하고, 황군 장병의 노고를 생각하여 절주, 절연, 일체주의에 소식을 여행했다.(1940.04.06.)

평택군은 금년도 배정액 55만원 저축방법을 협의하고자 6월 3일 각읍면장 및 금융관계자를 소집하여 협의했다. 각 읍면에 다음과 같이 저축액을 배정했다. 평택읍 172,000원, 탄면 34,000원, 북면 57,000원, 서탄면 27,000원, 고덕면 25,000원, 오성면 56,000원, 청북면 42,000원, 포승면 44,000원, 팽성면 53,000원, 현덕면 40,000원, 계 55만원.(1941.06.06.)

평택군은 11월 27일 군 회의실에서 관내 각 읍면장, 금융단체 수뇌자를 회합하고, 저축 협의회를 개최하였다. 본년도 책임액 55만원 목표 달성책을 협의했다.(1941.12.02.)

평택군은 저축 목표액 55만원에 비해 2월 20일 현재 목표액의 14할인 78만 7천원을 저축했다. 금년도에는 더욱 좋은 성적을 거두고자 27일 군청 회의실에서 경기도 이재과속 참석으로 저축좌담회를 개최했다.(1942.03.03.)

평택군은 가마니 공출에서 종래와 같이 단기간 출하의 채도로 각 방면에 일시적 지장이 적지 않으므로 공출방법에 특별 고구하여 평균 출하에 중점을 두고 출하 통제를 실행하여 책임 수량 300만 매를 확보하기로 했다. 2월 25일 현재 목표의 4할인 120만 매를 공출했다.(1942.03.04.)

평택군연맹은 5월 29일 군청 회의실에서 상회를 개최하고 다음 실천사항을 부의했다. 1.국어생활의 철저, 2.전가 근로, 3.상회 여행, 4.유언비어 방지 및 집회에 관한 건, 5.자전거 무감찰 취체에 관한 건, 6.대동아전쟁 완수기념 간이보험, 7.농번기 근로조정에 관한 건, 8.면비(棉肥) 배리(配理) 지도에 관한 건, 9.도로수리 근로봉사작업 실시의 건, 10.도로 노면의 유지 보전 심사회 개최의 건.(1942.06.02.)

평택군은 본년도 저축증가 목표액이 110만원으로 결정되어 전년에 비해 비약적

증가인데, 이를 달성함에는 관민일체 총력을 들어 저축증강에 매진할 필요가 있으므로 각 읍면 실정에 응하여 저축증가방책을 수립하여 총후 철석의 저축보국의 성과 거양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1942.06.04.)

평택군은 군수 건초 사료의 공출을 완수하고자 각 읍면에 할당 수량을 정하고 8월 1일부터 15일까지를 건초 예초기간으로 정하고 독려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1942.08.02.)

경신중학교 4학년생 160명은 지난 4월 8일부터 7월 말일까지 평택 ○○공사장에 출동하여 장마철의 비를 맞아가며 작업을 실시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1945.08.09.)

(2) 헌납, 헌금

1. 진위군 평택면 평택리 상점 인부 34명은 자발적으로 각출한 돈 4원 30전을 황군 홀병금으로 헌납했다. 2. 진위군 오성면 안중리 국방부인회는 안중 장날에 헌금통을 설치하여 모은 8원 5전을 홀병금으로 헌납했다. 3. 진위군 팽성면 두리부인회 58명은 공동경작한 순익금의 돈을 더해 물품을 구입하여 위문대 34개를 출전 장병의 위문품으로 헌납했다. 4. 진위군 청북면 덕우리진흥회 부인부 56명은 각기 식량미를 절약하고, 옥외노동(벼베기)으로 소득한 8원 80전을 홀병금으로 헌납했다.(1937.11.02.)

11) 창씨

평택군 도회의원 이민환은 이번 함풍으로 창씨를 발표했다.(1940.07.05.)

12) 병력

평택경찰서 관내 육군특별지원병 지원자 680명 중 선발된 적격자 27명과 안성군의 적격자 57명, 합 84명은 4월 1일 평택 성동국민학교에서 학과 전형시험을

시행했다.(1941.04.09.)

8월 1일 평택 군읍연맹 주최로 2천여 명이 모여 징병제 실시 감사 결의 선양 대회를 개최했다. 이어 나팔대를 선두로 일장기를 높이 쥐고 대오 정렬하여 시내 행진하고 역전 광장에서 만세 3창으로 폐회했다.(1943.08.03.)

13) 단체

평택경찰서는 10월 1일 전국 알일히 조직되는 경방단 조직을 위해 8월 31일 연무장에서 방호단과 소방조 간부를 소집하여 2단체 해산과 경방단 조직에 협의했다.(1939.09.05.)

14) 연료

평택군은 5월 31일 곡물협회 누상에서 목재조합원과 관민 유지 다수 참석하여 목재판매통제조합 발회식을 거행했다.(1941.06.04.)

15) 공적비

평택 개척의 원로 고 안종철은 작년 7월에 세상을 떠났는데, 교통·농촌산업개발·상공업·교육·읍정 등 각 방면에 공적이 막대하여 평택 유지는 공적을 영구히 기념하고자 기념비를 수립하여 4월 24일 비전리 자택 앞 안성가도 변에서 기념비 제막식을 거행했다.(1941.05.02.)

16) 읍회

평택읍회 의원 일행은 4월 17일 성지 참배와 식량배급상황 모범농촌시찰, 근로

보국대 위문을 위해 일본 각지를 순회하고 29일 귀환하였다.(1942.05.02.)

19. 포천

1) 국민등록

포천군은 5월 26일 군회의실에서 국민등록사무타합회를 개최했다. 만 12세부터 만 50세까지의 남자, 즉 1895년 5월 2일부터 1933년 6월 1일까지 출생한 자 5월 31일 현재를 6월 1일에 신고하게 된 바 해당자가 있는 세대주는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꼭 신고해야 하며, 한 명이라도 빠진 자가 있으면 엄중 처벌을 받게 된다.(1945.06.02.)

2) 소개

포천군 내에도 경성 소개(疏開)에 따라 이사 오는 사람이 상당수에 달하는데, 이에 대해 포천경찰서 경무주임은 군민들에게 다음과 같은 요망을 하고 있다. “근일 소개해 오는 자가 많은데, 잘못하면 도회지 사람, 시골 사람이 서로 갈려 당국의 조치에 어그러짐이 있기 쉽다. 소개해 온 사람은 도시적 관념을 버리고 향토적 미풍에 순응해야 되고, 그 사람을 맞는 군민들도 반가이 맞아서 모든 것을 전력 증가의 한길로만 매진할 결의를 굳게 가져야 한다.”(1945.04.07.)

3) 농민과 농업

(1) 농민, 농업, 농촌진흥

포천군의 중요 전작물 경작 총면적이 1만 6,460정보에 1년 총수확고가 대맥,

소맥이 2만 6,700석, 대두 2만 6,500석, 조, 잡곡이 3만 2,007석, 단보당 평균 5두 3승이다. 이를 군내 농가호수 1만 500호에 분배하면 소작료 제하고 매호당 4두에 불과하다. 세농민들은 식량부족으로 매년 춘궁을 지내기가 곤란하다. 군당국에서는 1931년도부터 전작개량사업을 12개년 계획하고 군내에 실시케 했다. 향후 현재의 3배인 1석 5두의 증수를 목표로 한다. 지난 3~4년간 전작 지도포 설치 17개소, 150호이다. 금년도에도 5개 부락(군내면 신촌동, 소흘면 초가팔리, 창수면 울우동, 영북면 야서동, 일동면 실명동)에 지방비 보조금 500원을 주어 비료와 농구를 사게 하여 극력 지도한다.(1934.06.12.)

포천군농회는 처음 면작을 장려했다. 예상 외로 좋은 성적을 내어 예산 공판수량인 30만 근을 돌파한 43만근의 좋은 성적을 내었으므로 이를 기념할 겸 면작 장려에 일대 박차를 가하고자 3월 하순 경에 면작전람회를 개최한다.(1939.02.04.)

농촌(포천군은 1936년부터 농사훈련소를 설치하고 매년 소학교 졸업생 20여 명씩을 입소 교양케 하여 농촌 중견 청년을 다수 양성하는 중이다. 이 훈련소를 마친 자는 귀향 후 중심인물로 농민 지도의 모든 것을 술선 궁행하여 타인의 모범을 보이므로 군면 당국에서 무엇이나 우선권을 준다. 특히 자작농 창정에 대하여, 또는 성적 우량자에게는 면직원 등용까지 하므로 금년에는 지원자가 27명 중 합격자가 21명으로 매년 성적이 양호하므로 앞으로는 명칭을 변경하여 학교로 승격할 준비를 한다고 한다.(1939.03.19.)

포천군은 10월 2일 관하 12개면 미곡 관계 기술원을 소집하여 미곡에 대한 여러 가지와 고공품 검사 실시에 대한 협의를 했다.(1939.10.06.)

포천군은 식량의 비상 증산을 도모하여 튼튼한 모를 길러서 이앙케 하고자 먼저 지도상 편리와 종래 경험에 실적이 있는 집합 묘대와 종인(種人)의 예방 소독 등과 묘대 개량 철저를 기하고자 권업과장 이하 관계 직원을 동원하여 각 면과 연락하여 야간 강화회까지 개최한다.(1945.04.07.)

(2) 식량

포천군은 현재 전시 식량 충실과 미곡 배급 상 여러 가지로 시국 인식을 철저히 하여 매월 10일에 백미절약대책으로 대용식일을 정해 잡곡과 맥분 등으로 군,

경 양쪽의 지도와 일반의 이해로 실시 중이다.(1940.02.10.)

포천군은 8월 25일 군회의실에서 각면 도작관계 직원 약 40명을 소집하고 이른 벼 매상과 공출에 대한 협의회를 개최했다. 생산자는 1일이라도 빠리 공출하여 전시 식량확보에 도움이 되고, 특전인 장려금의 혜택을 받기를 포천군은 요망하고 있다.(1943.09.04.)

포천경찰서장은 군민의 식량사정을 늘 염려하여 부락을 순시할 적마다 보리의 발육상황을 조사하고 1주 2회 이상은 군 식량배급계의 상황을 규시(窺視)하는 등 식량 확보의 만전을 기하는 중이다. 지난 3월 1일 소흘면 고택리 1구 36호가 집거하는 부락을 순시했는데, 호별로 식량 현재량과 식사상황, 생활상태를 조사한 후 부락민을 모아 일장 훈시로 닥치는 춘궁기를 극복하려면 소비규정을 철저히 할 것, 독선적 주의로 식량의 부정 반출을 부락에서 공동 방지할 것, 미영식 타심(惰心)을 버리고 근로하여 생산을 증강하라. 여러분이 한 톨의 쌀, 1근의 면화라도 증산할수록 우리나라의 전력은 증강된다. 저축에 힘을 쓰라 등의 훈시를 했다. 이에 감격의 발로로 100원의 국방헌금할 뜻을 면장이 서장에게 말했다.(1944.03.05.)

(3) 자작농

포천군은 2월 27~8일 영중·소흘 2면에서 군내 87호 자작농가 중 영농개선, 생활개선에서 다른 농가의 모범이 될 9호의 농가를 선정하여 표창을 했다. 표창장과 농구 1정씩의 상품을 주었다.(1940.03.05.)

(4) 지주

포천군은 관내에 고율 소작료를 받는 가혹한 지주, 생산장려금을 주지 않는 자, 금비대 반부담을 이행하지 않는 자를 조사중이다. 군수 지도 하에 각면에 출장하여 권업담임자를 대동하고 소작인을 상대로 조사하고 다시 지주를 찾아 답사한다. 조사에 나타난 예를 들면 상답은 상당 면적을 주어 타작(절반)을 하고 불량전을 고율의 도조를 정하는 탐욕 지주도 있었으므로 소작위원회에 회부하여 상당 제재를 가한다 하며 일반은 지주로서 무리한 요구나 부당한 소작료를 청구하거든 지

체 없이 군면에 알려달라는 것이다.(1943.07.03.)

(5) 의무 저금

포천군 영북면 운천리 서부농촌진흥회는 회원 26명이 매월 의무저금을 실행하여 9월부터 3월까지 저금 총계가 28원이다.(1934.04.02.)

4) 광업

광산의 채광열이 팽창하여 완전히 황금광시대를 연출한 이즈음 경기도내에서도 유망한 광산이 발견되었다. 장소는 포천군 청산면 금동리와 덕모리 일대 구역 98만 5천 평이다. 현재 3명 명의로 총독부에 시굴권을 청원 중이다.(1931.05.24.)

5) 잡업

포천군 청산면과 영북면은 종래 인접 면인 영중면 영평리 공동판매소에서 고치를 판매했다. 6월에는 생산자의 이익과 편의를 위해 영북면 운천리와 청산면 궁평리에서 16일부터 20일까지 고치 공동출하소를 설치한다.(1939.06.01.)

6) 축산

포천군농회 축산계는 축산의 적극 장려에 힘써 작년도에는 특히 숫소를 거세하고, 양돈을 지도하며, 농회 자금으로 송아지를 구입하여 대부하기로 하고 금융조합 저리자금을 운용하여 장려했다. 그 결과 1937년말 소 5,235두, 돼지 2,048두이던 것이 1938년말 소가 5,987두, 돼지 2,804두로 증가되었다.(1939.01.24.)

7) 날씨, 재해

17일 오후 3시경에 포천군 이동면 도평리 백운산 임야에서 불이 나서 국유림 200정보, 황룡사 임야 250정보, 황해■ 임야 280정보, 사유 임야 212정보를 전 소하고 19일 오후 8시경에 겨우 진화하였는데, 장암주재소로부터 십수명의 경관 과 500여명의 촌민이 총출동하여 진화에 노력하였으나 풍세가 맹렬하여 별 효과를 보지 못했다. 판명된 손해는 약 3천원 가량이고, 원인은 조사 중이다.(1930.04.22.)

포선경찰서 관내 영평면 한천은 3미터 10이나 증수되었고, 영중·영북 방면은 각처에 증수가 되어 교통 두절된 곳이 많다고 한다. (1931.08.12.)

포천군 천보산에 두견화가 만발하여 부근 사람들의 구경거리로 흥미를 끈다. 금년에는 날씨가 봄같아 꽃이 핀 것이다.(1933.12.12.)

포천에서는 9월 29일 밤에 첫서리가 내렸다. 작년보다 1주일이나 이르게 왔으므로 채소는 늦게 심어서 발육이 되려던 차에 서리가 와서 발육정지가 되었으므로 농가에서는 크게 우려한다.(1939.10.03.)

8) 주생활

포천군 소흘면 이가팔리 이주현은 거주하는 집터와 이웃을 합해 1,850평의 소유자인 양주군 시둔면 지주로부터 대금 415원에 매매계약을 했다. 계약금 100원을 지불하고 잔금은 등기 나는 날에 지불하기로 했다. 동리 구장 박기양이 친분 있는 경성 모 지주에게 소개하여 계약금의 배상을 물어주고 사게 했다. 경성 지주는 이주현의 집터 도조 4두를 3석으로 7배 반을 올려 증서까지 받아 갔다. 대대로 살아오던 집을 헐어 쌓고 노인들은 남의 집 결방에, 아들은 일가 집으로 유리하는 사건이다.(1934.06.01.)

9) 여성

포천군은 2월 29일 군회의실에서 5개면의 자작농가의 주부를 집합시켜 지도회를 개최했다. 농한기부터 영농개선, 생활개선 모든 것을 남자만 애써도 만점을 얻기 곤란하므로 남녀 협력하여 첫째로 부인 옥외작업을 주로 현재 전식식량체제 하에 될 수 있는 한 절미와 저축 등으로 지도했다. 자작농가의 주부들은 다른 농가 주부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1940.03.05.)

10) 청년

포천군 소흘면 송우리 청년들 30여명이 21일 모여 송우청년상조회를 조직했다.(1934.05.23.)

포천군은 초천 신읍과 송우에 청년훈련소를 설치하고, 8월 24일과 25일에 입소식을 거행했다. 매주 1차씩 훈련을 한다.(1940.09.01.)

11) 어린이

포천군 소흘면은 농번기를 맞아 생산 확충을 목적으로 국민정신충동원에 의해 6월 3일부터 3곳에 탁아소를 설치한다.(1939.06.01.)

12) 교육

포천군 윤성순(35)은 7년 전에 미국 콜럼비아 대학에서 유학하고 지난 5월 26일 박사 논문을 제출하여 이번 철학박사 학위를 얻었다. 7월 2일 경성역 도착 열차로 금의환향한다.(1932.07.02.)

포천읍 심상소학교는 신학기 1년생 남녀 100명을 모집한다. 남자부 70명, 여자부 30명이다. 남녀 모두 만 6세부터 10세까지의 적령자로 입학원서는 3월 1일부터 20일까지 마감한다. 가부 발표는 3월 31일이다.(1940.03.05.)

13) 연료

포천군은 매년 목탄(숯) 10만 여석을 산출하는데, 작년 미증유의 가뭄으로 생활이 곤란한 이재민을 구제하기 위해 3만석 증산계획을 세워 3월말까지 13만석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진행 중에 있다.(1940.01.14.)

포천군 임업계는 증유자원 확보책으로 송탄유 채취에 적극 지도 독려를 가하고 있어 우수한 성적을 올리고 있다. 종업원에게 5대 필행사항을 준수케 하여 포천면 제1공장 제1호실에서 채취한 것이 조선 내에서 최고 기록을 얻었다. 자재 900관에서 송탄유만 37통이란 대량을 내었다.(1943.10.03.)

포천군은 숯과 장작을 경성에 많이 보내고 있는데, 요새 노력 문제로 장작 하산을 못하여 운반이 원활치 못하므로 군수는 서장과 협의하여 별채지역 부근 면민을 총동원하여 자동차길까지 하산하기로 하고 임업계 군기수와 전원 출장으로 면주재소 연합 독려진을 치고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11월 26일부터 가산면·소흘면민 수천 명은 왕방산과 해룡산 마루턱 장작을 하산하고 있어 지계부대와 우차부대의 장사진을 쳐서 사람 산을 이뤘다. 10여세 소년에서 70여세 노인까지 근로하고 있는 현상으로 이동면·영북면 외 각 면에서도 같은 활동으로 '장작 포천'의 대기함을 여실히 발휘하고 있어 장작 하산은 불일 내로 완료할 것이다.(1944.12.03.)

포천경찰서에서 관내 천연두 발생으로 방역을 위해 800여명에게 3차례로 나눠 종두를 실시했는데, 포천은 교통이 편리하지 못한 관계로 경찰서 독단으로서는 방역이 어려움을 느꼈다. 18일부터 도위생과 강사를 초빙하여 종두시술 강습회를 열고 국내 각면 청년 남녀 9명을 뽑아 강습을 시켰다. 만일의 경우 이들로 하여금 각 면에 종두를 실시케 하려 한다.(1933.03.25.)

국민총력 포천군연맹은 3월 30일(화) 군청, 경찰서, 면직원 총출동으로 오전 7시부터 포천신사 경내를 비롯하여 각 관공서 학교 상점 각 가정의 내외, 도로 하수고 청정과 가구 농구 등 정돈을 시켰다.(1943.04.02.)

14) 체육

11월 2일 신곡 감사제일과 3일 명치절에 포천군 소흘면 송우리에서는 씨름대회를 한다.(1941.11.02.)

15) 식목

포천군은 4월 3일 군 및 포천면 연합 주최로 제29회 기념식수를 포천신사 뒷산에서 거행했다. 관하 각 면에서도 기념식수를 거행했다.(1939.04.07.)

16) 창씨

포천군은 관공리로부터 서민에 이르기까지 창씨열이 고속도로 진전되었다. 12개 면장들의 창씨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포천면장 대봉병린(서병린), 군내면장 영원주순(윤수준), 내촌면장 풍산강호(조동호), 가산면장 송산희중(이희중), 소흘면장 용천경태(이경옥), 신북면장 송전병택(조병택), 청산면장 남천승택(박승택), 창수면장 안동재훈(김재훈), 영중면장 금천일(김제만), 영북면장 금곡영식(김영식), 이동면장 평춘종만(조종만), 일동면장 송본청(심재궁).(1940.07.05.)

17) 동원

포천군은 공동작업반을 편성하고 남녀가 총동원하여 생산확충계획을 달성하고자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군직원 80여 명이 각 부락에 출동하여 공동작업반을 지도했다. 작업반은 남자부 722반, 여자부 858반, 각 학교 아동봉사반 108반, 계 1,688반으로 출동 연인원 32만 8천여 명에 달하였다. 이앙 6월 1일부터 20일까지, 보리베기 6월 18일부터 25일까지, 면화 중경제초 6월 15일부터 24일까지.(1941.06.06.)

포천군은 농번기에 산업전사만으로는 노력이 부족할 염려가 없지 않으므로 부녀자의 옥외작업은 물론, 국민학교 생도까지 동원하여 생산확충에 만전을 기하고

자 5월 22일 교장회의를 열고 군수의 훈시와 농번기 노력 보충책을 토의했다, 각 교장은 먼저 보리밭의 흑수(黑穗) 발취를 아동들에게 지도했던 바 어린 소학교 아동들의 가슴에도 전시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증산에 협력하여 6천여 생도는 낄부기 뽑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어 매일 학교마다 낄부기가 산적해 있다.(1943.06.02.)

포천군은 농번기인 6~7월간의 모든 영농작업을 철저하게 적기 작업을 하고 노력의 과부족을 조정하며 농가개로를 촉진시키는 방법으로 각 부락 애국반 단위로 공동작업반을 편성하고 면화밭의 중경 제초부터 실시 중이다. 편성된 작업반 수는 1,080개 반에 매일 동원 인원수가 남녀 합하여 2만 5,500여 명이다.(1943.06.03.)

18) 배급

포천군에서 그동안 광목이 품귀현상을 보였으나 다수 입하되었다. 포천군은 군내 각 시장 중요 상점을 망라하여 배급조합을 조직케 하고 면장의 구입표를 지참자에게 1인당 4마(碼)의 비례로 광목을 살 수 있게 되었다. 1마 39전의 공정 가격으로 매도되고 있다.(1940.07.02.)

19) 선전

포천경찰서는 12월 1일 방화데이를 맞아 경찰서, 각 주재소, 경방단 총동원으로 방화에 대한 일반의 인식을 위해 포스터를 요소마다 붙이고, 집집마다 아궁이를 조사하여 방화에 만전을 기했다.(1939.12.03.)

20) 병력

포천군 소흘면 이곡리 솔개(松峴) 히라아기 승중이 아직 20도 넘지 않은 새파

란 소년으로 작년 〇월에 해군 군속이 되어 군〇〇기지에서 중요작업 중 〇〇일 자동차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그 유골이 1월 3일 부산에 도착하여 면 담임서기는 히라아키의 백부와 함께 유골을 인수하여 1월 7일 이곡국민학교 교정에서 고별식을 거행했다.(1945.01.13.)

21) 경찰과 경방단

포천경찰서는 1월 31일 오전 7시경찰서 연무장에서 방공과 위생에 관한 좌담회를 개최했다. 서장, 경무주임을 비롯하여 신읍리 1~3구 부락연맹 이사장, 애국반장, 경방단원, 감시초원 500여 명 집합 속에 서장의 지시가 있었고, 경무주임의 설명, 질의 응답의 좌담을 했다.(1944.02.05.)

포천경방단은 1월 6일 오전 8시 신명신사 앞 광장에서 시식(始式)을 거행했다.(1945.01.13.)

22) 소송

포천군 소흘면 이가팔리 윤주현은 작년 8월 소흘면 유우리 산기철장(山崎哲藏)의 집에서 기생과 요리 11원어치를 먹고 4원만 지불하고 7원은 지불하지 않았다. 얼마 전 경성지방법원 민사부에 소송이 되어 10일에 요리값을 물라는 판결이 내려졌고, 동시에 소송비용 29원 70전과 집행 수속료 20원 50전을 물라고 했다.(1930.04.13.)

23) 충해(蟲害)

포천군과 소흘면은 이동교리 밤나무뜰과 무봉리 장중평을 이화명충 구제 구역으로 정하고, 명충 나비를 잡느라 고심 중이다.(1939.06.01.)

일제강점기 경기도민의 생활 II

초판 1쇄: 2021년 12월 30일

발행처: 경기문화재단(16614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둔로 166 생생1990)

기획: 경기문화재단 경기학센터

편집: 경기학센터

- 이 책의 저작권은 경기문화재단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 이 책에 담긴 내용 및 자료에 대해 경기문화재단의 허가 없이 어떠한 형태로든 무단으로 용할 수 없습니다.
- 이 책에 원문서버스는 경기도사이버도서관의 '경기도메모리'에서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